동네방네 외쳐주고 싶다. 공기보다도 더한 무(無)취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벅차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며, 나는 레스토랑의 웨이터 두 명이 커다란 카트를 끌고 와 코스 요리를 세팅해주기 시작한 것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오, 에피타이저인가. 그래, 이 분노를 요리를 먹음으로써 승화시키자.

웨이터들이 자리를 비킨 후, 나는 그 에피타이저들을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다. 빵이며 스프며 오물오물 먹고 있자니, 그런 내게 오른쪽에 앉은 셰 아니, 이름은 부르지 말자. 여튼 그놈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참 잘 드시네요. 숙녀분께서”

“?”

말끝은 흐렸지만, 의도는 똑똑히 알아차릴 수 있는 한마디였다.

스프를 떠먹다 말고,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숙녀분이 뭐? 숙녀는 많이 먹으면 안 되나? 아니, 사실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뭐하자는 거지? 장난 나랑 지금 하냐, 니들?

마리와 아도라가 갑분싸된 분위기로 인해 뇌가 정지된 듯, 자리에 굳어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모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새하얗고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입어 기분이 좋았던 나는 입을 열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깻죽지에 날개가 돋아 저 하늘 위로 천사처럼 날아갈 것만 같은 최고로 하이한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잘 먹으면 안 되나요? 댁들 입만 입이에요?”

몹시 더러워져버린 내 기분이니까, 그 원인인 너희들이 책임져!

“뭐라고?”

가운데에 앉은 강아지 상 녀석이 내게 반문해온다. 뭐냐니? 방금 제대로 들었잖아. 게다가 왜 반말이니, 너? 나 본 적 있어?

“아니, 시작부터 자리를 바꿔 앉으면 안 되니 어쩌니 떠드실 때 알아봤지만 진짜 너무들 하시네.”

스프를 먹던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런 덕분에 스프 덩어리가 피융! 하고 날아가더니, 중간에 앉은 강아지 상의 얼굴에 철퍽 붙어버렸다. 아이쿠, 이런. 마이 미스테이크. 강아지 상 놈이 인상을 격하게 찌푸리며 손수건을 꺼내어 그것을 닦는다.

그러나 실수하고 자시고를 떠나, 이 상황을 참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내가 대체 이런 개무시를 당하며 소개팅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남자를 그리 굶었던가? 물론 많이 굶긴 했다. 햇수로 치자면 자그마치 36년이군.

하지만 그런 나라도, 남자는 가려서 사귀고 싶단 말이다! 아무리 돈 많은 귀족이라 해도, 개차반은 싫어!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티볼트, 내가 미리 말했잖아! 천민 계집을 데리고 하는 소개팅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이 돌대가리 자식아!

“저기요!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듣다 못한 마리가 나서는데, 그런 마리의 말을 왼쪽 창가에 앉은 놈이 스무스하게 받아친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쪽 친구 분이 너무 무례하셔서 말이에요. 애초에 저런 못 배워먹은 천민과 왜 친구라는 건지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호오, 은근슬쩍 돌려 까기냐? ‘너희들이 저런 천민이랑 친구라고 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것 좀 보소. 잘생긴 얼굴이 아깝다고 생각될 만큼 글러먹은 인성들이잖아, 이것들.

들어 보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다. 그럼 그렇다고 진즉에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랬다면 애초에 이런 소개팅은 나와 주지도 않았을 텐데.

“못 배워먹은 건, 사람 면전에다 대고 상대방에 대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당신들이고요.”

“뭐야!”

강아지 상이 울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그리고는 대뜸 내 멱살을 잡는데 어어! 이놈이 미쳤나! 귀엽게 생긴 거랑은 어울리지 않게 왜 이래! 갭모에를 노리는 거냐? 어? 하지만 이런 반전 따위를 좋아해줄 여자, 세상엔 네 소멸해버린 인성만큼이나 없다고!

“뭐하는 짓이에요! 아샤를 놔줘요!”

“놔, 놔요! 이거 당장 안 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으억!”

마리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잡힌 멱살을 풀어주려 애쓰는데, 오히려 강아지 상 자식은 손을 치켜든다.

“말리지 마라, 너네. 내가 오늘 이 천민 계집애 버르장머리를 똑똑히 고쳐줄 테니까!”

그렇게 말할 때, 양옆에 앉은 남자애들은 말릴 생각이라곤 코딱지만큼도 없단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있었다. 오히려 그들은,

“적당히 해.”

“맞아, 살살 때려. 천민들도 고통은 느끼잖아?”

라며 말하며 쳐웃기까지 하는 것이다. 나의 뱃속에서 부글부글 냄비 끓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다 싶을 때, 강아지 상 녀석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내 뺨을 향해 날아 오!

“어, 뭐야!”

지가 않았다. 나는 질끈 감았던 눈을 스르르 떴다. 뭐지? 왜 내 뺨에 따끔한 손맛이 전해지지 않은 거지?

그 이유는 바로

“저, 전 주인님!”

루이스의 등장 때문이었다. 헉, 뭐지? 대체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던 거지? 마법으로 등장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의 루이스에게는

“뭐예요, 그 마스크는?”

선글라스와 마스크가 껴져 있었기 때문.

간지 나게 등장했는데, 패션 꼬라지가 그게 뭐야!

“넌 누구야!”

루이스를 알아보지 못한 강아지 상 녀석이 팔을 휘둘러 루이스로부터 잡혔던 손목을 빼낸다. 루이스가 날아오던 놈의 손목을 잡아채어 내 뺨이 후려쳐지지 않은 거였다. 대체 언제부터 여기에 잠복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동.

뭔가 맞을 뻔했다는 충격감에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 고이기 시작했다. 그런 내 얼굴을 본 듯한 루이스. 그는 갑자기 끼고 있던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어 바닥에 홱! 하고 집어던지는데

“!”

“레, 레플리카?”

“뭐? 얘가 그 말로만 듣던!”

“너희들이 그러고도 귀족이야?”

그는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고서 화들짝 놀라는 세 명의 개차반들에게 묵직한 돌직구를 날렸다. 그 돌직구를 맞고서 어리둥절해하던 그들. 이내 정신을 차린 셋 중 한 명이, 루이스에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셰까지만 하겠다.

“귀족이 건방진 천민을 교육시키려는 건데, 왜 화내는 거지?”

“! 맞아. 너, 루이스 레플리카지?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 마법 대학의 전교 일등이라고”

“그 역겨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티볼트의 말을 우리의 전 주인님은 똑- 하고 끊어 먹어버렸다.

또로롱! system:루이스는 몹시 화가 났다! 라는 창이 머리 위에 띄워져야 할 것 같은 분위긴데, 이거.

하지만 루이스가 화가 난 이유를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맞을 뻔해서 그런 건가? 아, 그런 건가 보다. 루이스는 착하니까, 이런 별 것 아닌 일―내 기준에서는―에도 화를 내 주는 걸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셋 중 한 명이 이런 망발을 내뱉었다.

“혹시 레플리카 네 이거냐?”

그리고는 새끼손가락을 치켜드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제스쳐는 애인이냐는 물음도 되지만, 진정한 의미는 ‘첩이냐?’라고 묻는 것으로 더 많이 해석된다. 고로 루이스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입장에다 젊은 나이이니, 지금 저 물음의 의미는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 여자애가 네 응응 파트너냐?’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쑥맥인 루이스의 얼굴이 붉어지며 그럴 리가 없지 않냐는 대답이 튀어나오려는 찰나,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의 도발적인 음성이 들려왔다.

“프란치아의 귀족들 수준이 이렇게나 낮아서야.”

어, 이 목소리도 왠지 익숙한데. 이번엔 누구?

“저건 또 누구야?”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나는 경악했다.

레스토랑 내의 모든 여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사로잡으며, 정장 바지에 한 손을 꽂아 넣은 채 이곳으로 도도하게 걸어오고 있는 그는, 다름 아닌

“코, 코볼트! 저 사람, 류 제국 황자잖아! 유이라던!”

매끈한 흑색 칼단발 머리가 매력적인 그, 류이였다.

아니, 현 주인님은 왜 또 이런 곳에!

“헉, 저 남자가! 아니, 그나저나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말랬잖아!”

너희들 뇌도 무식해서 오류가 자주 나나보구나. 아무래도 저 티볼트란 녀석, 별명이 코볼트인 모양이다. 그럴 만도 하지.

벙찐 표정으로 어버버거리고 있는 세 명의 남자들의 코앞까지 류이가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진과 칸도 모처럼 은신 마법을 해제하고 붙어있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저건 류이의 간지를 살려주기 위해 저들이 독단으로 한 행동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이게 정답이지 싶다. 내가 봐온 진과 칸의 성격대로라면 말이다.

“화, 황자씩이나 되시는 분이 저희한테는 무슨 볼일로?”

“내가 너희 같은 족속들한테 볼일이 왜 있겠니?”

오늘도 펑펑 터지는 류이의 인성 좀 보게. 아름답구나. 마치 불꽃놀이 같다.

하지만 인성이 터져도 아름다운 그, 류이. 그는 매혹적인 미소를 흩뿌리며 자신의 입술을 검지와 엄지로 살짝 매만진다. 저런 사소한 동작 하나도 저 인간은 ‘네가 나한테 안 반하고 배겨?’하는 느낌이라, 지금의 사태를 구경 중이던 레스토랑 손님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코피를 쏟으며 혼절했다는 표현에 어울리는 상태였다. 거의 그 정도였다. 아아, 류이의 위엄이란.

“너, 이름이 로미오지?”

“응? 그, 그렇습니다만”

그걸 그새 엿들었어?

“손모가지 하나에 오백만 베른, 어때?”

“손모가지? 무슨 손모가지”

“지금 아샤를 붙잡고 있는 그 손 말이야. 잘라버려, 칸.”

“네.”

“아아악-! 자, 잠깐만!”

헉, 얘 아직까지 내 멱살 잡고 있었던 거야? 루이스가 뺨은 못 때리게 했다지만, 손은 여전히 내 원피스 앞섶을 움켜쥐고 있었던 모양이다. 당사자인 나조차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아 그에게서 풀려난 후 허둥지둥 구겨진 앞섶을 정리하는데,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던 류이가 몹시 분노한 듯 환하게 웃었다.

류이는 저렇게 환하게 웃을 때가 제일 무섭다. 적어도 내가 봐온 류이는 그랬다. 차라리 적당히 화난 얼굴을 지을 때가 더 나아. 저런 표정까지 나왔을 때는

“아니다. 그냥 묻어버려야겠다, 너희들.”

그렇다. 절제가 안 되는 것이다!

류이가 셔츠 소매를 걷으며 진짜로 예술 학교 삼인방을 시멘트에 담가버리기라도 할 기세의 표정을 짓는다. 그런 그를 말려야 할까?

“잘됐군요.”

“맞아맞아.”

옆에서 아도라와 마리가 물을 들이키며 속 시원하다는 듯 저리 말한다. 그래, 내가 봐도 말릴 필요가 없어 보인다. 잘됐군, 잘됐어.

“아, 아니! 고작 천민 계집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 이러긴요! 그야 미래의 황후가 될!”

“쓸데없는 얘기나 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다, 진.”

“앗, 네!”

진와 칸이 한 놈씩 멱살을 아주 가뿐하게 잡아 들어올리고, 마법사도 아닌지라 저항도 못하고 허공에서 다리를 바둥거리며 ‘놔, 이거 놔!’라는 소리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티볼트와 셰 모씨.

그 가운데에 서있는 로미오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류이를 올려다보는데

“너는 살아 숨 쉬는 게 공해야.”

류이가 예쁘게 접은 눈웃음을 그에게 선사하며 로미오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옆으로 팔을 휙!

했는데?

“아악─!”

쾅─! 쿠당탕탕!

분명 팔을 옆으로 슬쩍 뻗기만 한 것 같은데, 로미오가 휭- 하고 날아가더니 와인들이 세팅된 곳에 부딪친다. 이내 와인들이 우르르 떨어지며 피범벅 같은 와인범벅이 되어버리는 그, 로미오 아아, 애잔.

“건드릴 사람이 따로 있지.”

셔츠의 맨 윗 단추를 풀며, 나가떨어진 로미오를 잘근잘근 밟아주려는 듯이 살벌한 기세로 와인들이 다 떨어져 엉망진창이 된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그, 류이.

“아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엉엉! 고작 천민 계집 하나 건드렸을 뿐인데, 왜 황자씩이나 되는 거물이”

“‘고작 천민 계집’?”

앗, 더 도발하면 어떡해? 멍청한 로미오야! 너, 그러다 진짜로 시멘트에 파묻혀 프란치아 앞바다에 수장되는 수가 있어!

류이가 정말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닐까싶은 생각에 조마조마하던 찰나. 그런 류이를 말릴 생각은 아까 전의 티볼트와 셰 뭐시기 만큼이나 없는 듯 무표정을 한 루이스가 류이에게 은근슬쩍 완력 강화 버프를 걸어주는 것을 눈치채버리고야 말았다.

아앗! 니, 니들 뭐하는 거야! 그러다 진짜 사람 죽는다고? 죽어버린다고!

내 머릿속에서 빨간 사이렌이 왱왱거리며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한 이 때!

“그쯤들 하시죠?”

또 누군가가 등장했다. 헉, 뭐야? 또 누가 등장한 거지!

뒤로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그’가 있었다. 이번에는 바로

“라, 란!”

“왜 이렇게 늦게 등장하시죠? 자칫하면 아샤 님이 맞을 뻔했잖아요.”

“루이스가 선수 치더라고. 그리고 원래 영웅은 늦게 등장하는 법이야.”

그였다. 란 말이다. 뭐지? 계속 여기에 있었던 건가? 어쩐지 내가 부당한 상황을 겪을 때, 평소 같았으면 나보다도 먼저 화냈을 아도라가 잠잠한 것 같다 싶더라니 란이 이곳에 숨어있었던 거였어? 그런 거면, 와, 진짜 반전드라마 대박인데.

란과 아도라가 저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나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1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란을 쳐다보았다.

어느새 로미오의 코앞까지 다가가 주먹을 날릴 자세를 취하고 있던 류이도, 옆을 슬쩍 돌아보는데.

따악-!

“이 인간을 소환하고 턴을 종료한다.”

란은 저리 어디선가 들어본 대사를 치며 마법을 시전했다. 어? 이런 상황에, 대체 무슨 마법을?

루이스와 류이가 ‘소환 마법인가?’ 하고 동시에 나직이 중얼거리는 것 같을 때, 이내 눈앞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소환됐다. 아주 갑작스럽게 불러져버려 준비할 틈도 없었던 모양인지, 의자에 앉은 자세로 마법 신문을 읽고 있었던 듯한 그

레오니드가 말이다. 속옷만 달랑 입은 차림새가 아니라서 다행이군.

“어! 뭐야?”

오랜만에 등장한 레오니드가 재빠르게 일어선다. 뒤로 안 자빠져서 다행. 그리고는 신문을 내팽개치며 어안이 벙벙하단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런 레오니드에게 란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 가게 꼴이 말이 아니라서, 급하게 소환 좀 했어. 보이지? 저기 다 깨져버린 와인들.”

“엥? 누가 그런 건데?”

평소처럼 깔끔하게 은색 정장을 위아래로 차려입은 레오니드가 란에게 묻는다. 그 말에 대답한 건 레오니드의 단짝친구인 그, 루이스였다.

“저 예술 학교 패거리들이.”

“아, 그래?”

루이스와 류이, 란이 있고, 거기다 나와 마리, 아도라까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가게 안 분위기를 살피던 그, 레오니드. 이내 잘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 레오니드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지?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란이 그를 소환한 의도와 루이스의 태연한 표정이 이해가 안 갔다. 레오니드가 등장했는데 왜 저런 통쾌하단 눈빛을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알 수 있었다.

“도, 도련니이이임-!”

정말 무서운 구경을 했다는 듯, 안색이 파랗게 질린 어느 웨이터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빠르게 뛰어왔다. 바로 레오니드를 향해.

그리고 레오니드를 덥썩 끌어안은 외알안경을 낀 할아버지. 이내 통곡하듯 상황 설명을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데

“음, 잘 알겠어.”

레오니드가 풋, 하는 작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재미있는 상황이라는 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더니 이내 외알안경 할아버지에게서 어느 영수증 같은 것을 건네받는데

그것을 든 레오니드는 와인의 무덤에 덩그러니 자빠져 있는 로미오에게로 다가간다. 류이가 분위기상 옆으로 슬쩍 빠져주자, 레오니드는 로미오의 코앞까지 다가가 영수증 판을 건네준다. 저게 대체 뭔데?

“오델로 가문의 로미오 군 맞으시죠? 손해배상금 120만 베른, 가문 앞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뭐, 뭐라고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뭐긴 뭐야, 네 머리가 와인 셀러를 들이받아서 다 깨져버렸으니까지.”

자본주의의 미소를 씨익- 하고 지으며 로미오의 앞에 영수증 판을 턱하고 던져주는 그, 레오니드

뒤늦게 깨달았다. 란이 레오니드를 소환한 이유를 말이다.

“이 가게 주인이 레오니드 님이었어요?”

“응. 여기 상가에 있는 가게들은 대부분 콘티아 소유야.”

“그런”

걷는 천민 위에 뛰는 마법사, 뛰는 마법사 위에는 나는 건물주가 있군.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건물주란 ‘갓’물주라 불리어 마땅한 존재인 거였어!

“저희가 왜 120만 베른을 갚아요! 예!! 먼저 친 쪽은 저쪽인데!”

“꼬우면 고소해.”

얼굴만 잘생긴 세 남자와 레오니드가 언쟁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는 슬그머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상가 거리를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지금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그야말로

“”

아아

결국 이렇게 나의 첫 소개팅은 끝이 났다. 비극으로 말이다. 왜 놈들의 이름이 그딴 식이었는지를 이제야 좀 알 것 같군.

역시 내 인생답다. 모솔을 탈출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 참으로 개탄스럽구나, 내 인생이여 어째서 이런 길만 골라 가느냐!

눈물이 나오려는 것 같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었다. 으흑흑, 그럼 그렇지. 내가 모쏠을 탈출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아샤, 같이 가!”

“아샤 니이임!”

뒤에서 마리와 아도라가 쫓아오기에, 나는 미친 듯이 앞으로 내달렸다.

울고 싶으니까,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내 남자친구는 세계 서열 0위!가 아니라 프란치아 서열 0위 공작가의 후계자다.

그렇다. 내 남자친구는 루이스 레플리카인 것이다. 그 잘난 레플리카 공작가의 후계자가 한낱 천민 따위의 남자친구라고? 그러게. 나도 뭔가 믿기지는 않지만, 정신을 차려 보니 이런 인간이 내 옆에 있었다. 그것도 ‘남자친구’라는 므흣하고 부끄러우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존재로다가 말이다. 나는 영원히 모솔을 탈출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됐다.

고백은 누가 했냐고? 어, 음 그건 비밀이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들의 첫 데이트 날이었다. 사실 학교에서 늘 붙어 다니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표현을 붙이기엔 뭔가 미묘한데, 어쨌거나 야외로 데이트를 나온 건 처음이기에 첫 데이트라고 해보았다. 딱히 틀린 건 아니잖아?

“”

하지만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흐음. 나나 루이스나 연애는 처음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나만 모쏠인 게 아니라 루이스도 태어날 적부터 지금까지 여자라고는 사귀어본 적도 없는 쑥맥 중의 쑥맥, 19년 모쏠의 달인이었다. 고로 우리 둘 다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나가야 할지, 어떤 분위기로 데이트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일단 오늘은 대학 밖의 프란치아를 대표하는 강가에 불꽃놀이가 열리는 날이라 해서, 야외 데이트를 해보기로 하고 나왔다. 지금 루이스와 나는 강가의 자갈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손을 잡고 걷는 중이냐고? 응, 아니야

잡자고 해볼까? 해도 졌고, 분위기도 딱 좋은데.

“저기요, 주인님.”

“아샤, 그렇게 부르지 말래도.”

“아차, 맞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려 내 입을 살포시 톡 때려주었다. 사귀기 시작한지는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놈의 ‘주인님’이라는 호칭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한 달 정도 부른 호칭이니, 한 달 정도는 사귀어야 떨어져줄 듯.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뭐라고 부르냐고? 그건 간단하다. 나는 루이스를

“오빠.”

라고 부른다. 이 세계에서는 많이―연인 사이에서는 특히―생소한 단어라고 볼 수 있지만, 루이스는 이 단어를 퍽 좋아했다. 오라버니는 너무 여동생 같고, 루이스 님이라고 부르면 거리감이 느껴져서 조금 별로라는 것이다. 그래서 쓰게 된 호칭이 바로 이 ‘오빠’였다.

응? 루이스랑 동갑 아니었냐고?

우리 루이스 군의 나이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실망이군. 그동안 내가 좀 건방져서 딱히 오라버니 취급을 안 해준 것뿐이지, 사실 나보다 란과 루이스, 류이가 모두 한살에서 두 살 정도가 많았다. 쉽게 말해 내게는 다 오빠들이라는 거다. 뭐, 루이스를 제외한 다른 남자들은 오빠라고 불러주고픈 마음 따위는 눈곱만큼도 들지 않지만, 어쨌거나 연장자라는 거.

“왜?”

루이스가 상큼하게 미소 지으며 내게 되물어온다. 예전에는 나를 대할 때 좀 뻣뻣한 느낌이 강했는데, 야벨과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나를 훨씬 편한 태도로 대하기 시작한 그, 루이스.

그런 덕분에 내 심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멀쩡할 날이 없었다. 크윽!

“고개 좀 돌려주실래요?”

“어, 왜?”

“오빠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요. 이러다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

“아, 미안해. 마법이라도 써줄까?”

“농담이에요, 농담!”

정말 안구 보호 마법이라도 걸어줄 기세로 손을 들어 올리는 루이스로 인해, 나는 허둥지둥 그의 손을 붙잡아 아래로 내려주었다. 가만 보면 루이스는 이런 순진한 면이 참 귀엽다. 내가 인생을 36년이나 살아와서 정신연령이 17살 연상이라 그런 건지는 몰라도, 엄청 귀여운 남동생 같이 느껴지곤 해.

루이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남동생 같은 이미지가 강했다. 외모가 딱히 여리여리하고 동생 같은 건 아니었다. 키도 크고, 어깨도 적당하고, 우락부락하지 않은데 남자답게 멋있고. 하지만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느껴진달까? 아무래도 순수한 면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좋다. 이 남자, 정말이지 없던 연하 킬러 본능도 생겨버리게 만드는 남자

“오빠는 왜 그렇게 귀여워요?”

새침한 목소리로 장난스레 물으니, 루이스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리고는 이내 푸른색 눈동자를 반짝이며 눈을 반달모양으로 접어 예쁘게 미소 지어오는데, 뭐지? 공격인가? 심장폭행?

“네가 더 귀여워.”

루이스는 그리 말했다. 별들이 총총 떠있는 밤하늘 아래에서 남자친구에게 저런 말을 들으니, 심장이 쿵덕거리다 못해 어느 대머리 망토처럼 발돋움하여 저 멀리 달까지 날아가 버릴 것 같군. 그 정도로 위력 강한 한마디였다, 후우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볼을 발그레 붉히자니, 루이스가 슬며시 내게로 허리를 낮추며 고개를 맞춰왔다. 그리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덕분에 내 걸음이 뚝 멈추었다.

“아샤.”

“왜, 왜요?”

“너, 날 동생처럼 생각하는 거지?”

루이스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어라, 이 녀석 제법인데!

생긴 건 완벽한데 의외로 덜렁거리거나 실수하는 모습이 잦아서―마법 의외의 부문은 특히―눈치도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내 예상이 틀렸다. 루이스는 꽤 눈치가 빠른 인물이었던 것!

그의 물음에, 나는 잠시 ‘흐응-’하는 소리를 내며 고민했다. 뭐라고 대답할까? ‘에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라고 하기엔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음, 좋아. 이걸로!

“어떻게 아셨어요!”

짓궂은 느낌으로 씨익 웃으며 그렇게 대답하자, 갑자기 루이스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예쁘게 반쯤 접혔던 눈도 원래의 크기로 돌아오기에,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

방금 한 대답이 실수였던 걸까? 하지만 내가 아는 루이스는 이 정도 대답으로 토라질 인물이 아닌데, 어째서?

머릿속에 온갖 의문들이 스쳐지나갈 때, 갑자기 그가 고개를 내게로 가까이 들이 밀어왔다. 루이스의 푸른 눈동자가 더없이 가까워지는 순간이었다.

쪽-

“!!!”

으억! 이게 뭐야!

갑작스런 볼 뽀뽀로 인해 화들짝 놀라버린 나. 놀란 표정을 하고서 양손을 들어 올려 입을 틀어막는데, 그런 나를 쳐다보며 루이스가 활짝 웃었다.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은 마치 꽃보다도 아름다웠다. 혹시 이 인간, 선수인가?

아니, 그 전에. 남자가 꽃보다 아름다워도 돼? 응? 꽃보다 남자라는 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실현 시켜도 되는 거냐고! 꽃이 불쌍하지도 않아!

응, 불쌍하지 않다. 왜냐면 루이스는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오빠”

장미꽃이든 튤립이든 모든 꽃이 그에게 따지려 들 게 아니라, 오히려 할미꽃에 빙의하여 절로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 급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진짜,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우주파괴미모를 지닌 남자와 사귀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예상해본 적이 없어. 꿈속에서조차 나올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얼굴을 가진 이런 남자가

나한테 뽀뽀를? 으악! 심쿵사로 사망해도 싸다. 여기가 내 묫자리인 게 틀림없어.

“갑자기 이런 공격을 하면 어떡해요! 저 죽을 뻔했잖아요?”

“왜 죽어?”

루이스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는다. 몰라서 묻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고서 루이스에게 이유를 설명해주며 따지려 했다.

“그야, 오빠처럼 잘생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기습뽀뽀를 하면!”

그런데 그 말은 끝을 맺을 수 없었다. 왜냐? 루이스가 도중에 말허리를 잘라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죽으면 곤란하지.”

루이스는 나직하게 내리깐 목소리로 저런 말을 건네 온다. ‘이 정도로’라는 말은?

“앞으로는 어쩌려고?”

“헉.”

루이스는 고개를 옆으로 슬며시 기울이며 저런 발칙한 대사를 내뱉는다. 그리고는 내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앞까지 다가온 루이스 그리고 이제 막 밤하늘에서 피융- 펑! 하는 소리를 내며 터지는 마법 폭죽들.

밤하늘을 수놓는 폭죽들로 시선이 슬그머니 돌아가려는데, 그런 나의 코앞에서 루이스는 이리 속삭여왔다.

“아샤.”

“네?”

“나만 봐.”

라고

다시 루이스에게로 슬그머니 시선이 돌아오던 그때, 그의 손이 나의 양 뺨을 부드럽게 붙잡아왔다. 그리고는 그가 몸을 낮추며 내게 입을 맞춰오는 것이다.

입술에 부드러운 것이 닿았을 때, 때마침 폭죽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터졌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폭죽들 아래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속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신분은 한낱 천민에 불과한 내가, 마치 작품 속 주연이 된 것만 같은 기분. 루이스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엑스트라도 조연도 아닌, 주연으로.

입맞춤은 그리 길지 않았다. 루이스는 스킨십에 능숙한 인물이 아니었고, 그건 나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

루이스의 하나하나 빚은 듯 완벽하기 그지없는 이목구비가 멀어지고, 나의 앞에 허리를 펴고 선 채로 내 양손을 잡아왔다. 다정하게 내 손을 붙잡고서 만지작거리던 그가, 조금 수줍은 듯 볼을 붉히며 이리 중얼거린다.

“동생처럼 보이는 건 싫어, 아샤.”

라고

“노, 농담이거든요!”

그렇게 귀엽게 말하면, 대체 어쩌라는 거야! 어! 내 심장한테 ‘여긴 네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사라져!’라고 명령하는 것과 뭐가 다른데? 응!

이라고 따질 순 없으니, 두방망이질치기 시작한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그에게 대답했다. 그런 내 대답에, 루이스는 또다시 웃었다. 그의 미소에 나는 마치 두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앗, 잠깐. 이미 멀어버린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하오 이쿠!

“그럼 다행이고.”

루이스의 나직한 한마디 대답에, 나는 손으로 심장을 쓸어내리며 그를 흘겨보았다. 이 인간,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귀여워진 걸까? 어디서 귀염귀염 열매라도 주워 먹었나? 그런 게 아니고서야, 초면에 보았던 그 싸가지 없는 공작가 도련님 이미지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사귀는 사람 한정으로 다정한 남자인 건가? 그런 컨셉이야?

“루이스 오빠. 궁금해서 묻는 건데, 초면에 보여줬던 그 싸가지 없는 모습은 다 어디로 갔어요?”

“궁금해?”

“네.”

나는 궁금하다고 했을 뿐인데, 루이스는 내 눈을 유심히 쳐다봐왔다. 마치 집중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뚫어져라 응시해오기에, 나도 덩달아 그의 푸른 두 눈동자를 멍하니 올려 보았는데

“뭘 봐, 못생긴 게.”

“!”

란 놈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가, 남자친구이자 그 착하던 루이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헉, 뭐지? 란이 변신술이라도 쓰고 온 건가? 설마! 그 입술 도둑놈이 이번에도!?

“봤지? 나, 이런 나쁜 말 잘해.”

는 아니었다.

“퍽도 잘하시네요!”

아무리 자기 얼굴이 잘생겼다지만, 여자친구한테 저런 막말을 하다니! 얄미운 소리를 한 루이스의 어깨를 투닥투닥 두들기던 나.

하지만 그렇게 다투는 척을 하는 것도 오래 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듯한 남자인 그, 루이스 때문이었는데

“손 이리 줘, 아샤. 춥잖아.”

그의 어깨를 약하게 두들겨대던 내 손이 붙잡혀버렸다. 그리고는 루이스의 코트 주머니 속으로 쏘옥 들어가 버렸기 때문.

그런데 뜻밖에도,

“오빠 손이 더 차가운데요? 에이, 내가 더 따뜻하다.”

루이스의 손은 꽤 찼다. 손이 찬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다는데, 순간적으로 그 말의 신뢰성이 100%정도로 올라가버렸다. 솔직히 이 세상에 루이스만큼이나 다정한 남자를 꼽아보라 한다면 아예 없거나 열 손가락 내로 꼽을 수 있을 듯.

내게 있어 루이스는 그런 이미지이자 그런 애인이었다. 사실 이 남자,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애인이 되었어도 이렇듯 다정했을 거다. 그런 사람이니까.

헤헷, 이런 남자가 내 남자친구라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마법 쓰면 되지.”

“앗, 그건 반칙이잖아요!”

“응? 반칙이야?”

“아뇨, 농담. 헤헷!”

이번에는 서로의 손을 꼬옥 붙잡은 채, 불꽃놀이가 시작된 강가를 함께 걷기 시작했다.

늘 보던 밤하늘이고 별인데도,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그런가? 왠지 살짝 감성이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어오는데. 더불어 상상력도 말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루이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2세가 탄생할까? 부탁인데 나는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루이스를 많이많이 닮아서, 저 영롱하게 반짝이는 금발과 바다처럼 푸른 벽안을 물려받아 훌륭한 유전자를 더 널리 퍼뜨려줬으면 좋겠

아, 아니다. 내 주제에 누구랑 결혼을 해? 연애는 루이스와 즐기더라도, 때가 되면 아무래도 놓아줘야겠지. 천민인 내가 공작가의 후계자와 결혼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감성세포놈이 부정을 탔나 보다.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하고 있자니, 갑자기 밤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날아갔다. 너무 순식간이었기에 ‘우와, 별똥별!’ 할 틈도 없었는데, 루이스에게 ‘방금 별똥별 봤어요!’라고 물어보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그새 그는 무언가 기도라도 하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어? 기도라고? 가질 건 다 가진 남자가, 더 바랄 게 남았나?

“방금 별똥별, 보신 거죠?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넌지시 물어보았다. 루이스는 별똥별 같은 것을 보고 어떤 소원을 빌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어본 그 질문에, 감았던 눈을 뜨며 나를 바라봐오는 그에게서는 의외의 말이 돌아왔다.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다.

“너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렇게 말하는 루이스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뭐,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깨달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럼 제가 공작부인이 되는 건가요? 천민에서 공작부인으로?”

“응, 조금만 기다려. 내가 최연소 공작부인으로 만들어줄게.”

“! 농담이었는데.”

하여튼 이 남자, 무슨 농담을 못하겠다니까!

내 이름은 아샤. 탐정이 아니라 조수죠.

뭐, 내가 누구의 조수인지는 이 작품―응?―을 봐온 사람이라면 사람들이라면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 그래, 나는 바로 그 잘난 류 제국 3황자의 조수야.

엄밀히 말하자면 조수를 빙자한

“후훗!”

여. 자. 친 구! 라고 해야 하려나?

“아샤 님, 방금 표정 엄청 소름끼쳤어요. 저희 황자님을 상대로 무슨 상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뭘요? 크흠, 흠.”

이놈의 기숙사 방에서는 음흉한 표정도 함부로 못 짓겠다. 그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면, 류이의 곁에서 1년 365일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다니는 저 호위 기사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뭐, 물론 다들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그 예외를 들어주자면,

“제이, 저런 표정이 뭐가 어때서 그래? 난 좋기만 한데.”

“류 제국의 후계 문제는 걱정 없겠군.”

“오, 칸! 지금 그 말, 나도 동감이야.”

“”

저 두 놈들이다. 진과 칸 말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런 터무니없는 소리들이나 늘어놓는 건 그들만의 종특인 듯. 저 병은 아마 무슨 약을 먹여도 치료가 불가능하지 싶다.

아, 그래도 저들이 내게 끼친 좋은 영향이 없지만도 않아. 예를 들어, 선을 넘어버릴 것 같이 위태위태하고 아슬한 순간에 저들이 저런 농담을 주고받을 때면 내면에 들끓던 변태 세포들이 ‘아나는 저렇게까지 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며 슬그머니 물러나주곤 했다.

내 변태세포들보다 더한 중증 망상 환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줄이야. 이상 세포는 이상 세포를 지닌 인간으로써 퇴치하는 것인가. 새삼 깨달았다. 저렇게 입 밖으로 대놓고 머릿속 상상의 나래를 펼쳐대는 인간들은 흔치 않을 거야. 아니, 아마 진과 칸 말고는 씻은 눈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 확실해.

“아샤 님, 저희 황자님 예쁘죠? 멋지죠? 잘생겼죠?”

“으, 으응”

“안 덮쳐요? 저희가 고개 돌리고 있을게.”

“뭐래는 거야!”

이래서 문제라니까!!

지금의 류이는 자고 있었다. 그래서 진의 입에서 저런 망발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나나 다른 기사들은 아니고, 류이만 자는 중이다. 그것도 새근새근하는 소리까지 내면서 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류이의 침대 맡에 쪼그려 앉은 채 가만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큰 남자가 머리카락을 흩뜨린 채 곤히 잠들어있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심장이 벌렁거리다 못해 가슴팍을 뚫고 나와 유레카를 외칠 것만 같다. 그 정도로 류이는 미쳤다. 아니, 류이가 미쳤다는 게 아니라 외모가 미쳤다고. 옆에 누군가들이 있지만 않았어도 진짜 덮쳤을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로 뇌쇄적인 미모를 뽐내고 있는 그, 류이는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인데도 아직까지 잠들어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샤 님, 오늘 데이트 못가서 어떡해요? 아쉬우시겠다.”

옆에서 제이가 물어오기에, 나는 괜찮다는 의미로 손사래를 홰홰 쳐보였다. 사실 오늘은 류이와 바깥에 데이트를 나가기로 했는데, 아니 글쎄 류이가 어젯밤 새벽 다섯 시에 일을 끝마친 게 아니겠는가. 류 제국에서 보낸 공문들이 프란치아까지 오는 길에 문제가 생겨서 늦게 전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오늘까지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다. 그래서 밤을 새버린 것이다. 류이는 딱히 일처리 속도가 느린 사람이 아니라지만, 하루 만에 모두 처리하기엔 서류의 양이 몹시도 많았다.

그러니 류이는 내가 잠들어있는 내내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매일 새벽 1시 전에 꼬박꼬박 잠들던 남자였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런 남자친구에게, ‘일어나! 오늘은 우리가 데이트하기로 한 날이라고!’라는 잔소리를 하며 들들 볶아 깨우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푹 자도록 내버려둔 거랄까. 아홉 시에 맞춰둔 류이의 알람도 내가 껐다. 훗, 나란 여자 이런 세심한 여자.

“데이트를 꼭 밖에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시게요?”

“뭐, 나쁘지 않죠.”

어쨌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데이트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내가 이렇듯 류이를 빤히 관찰하고 있는 것도 데이트의 일부라 볼 수 있다. 딱히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다. 잘생긴 건 정말이지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며 류이의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하나를 싱글벙글 웃으며 쳐다보고 있자니, 갑자기 진이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갑자기 협탁 위의 자명종 시계를 낚아채어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시곗바늘을 돌리는 것이다.

“아샤 님!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멀쩡하던 시계의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맞추며, 녀석은 그리 말해왔다. 대체 무슨 꿍꿍이속인 거지? 진이 저런 대사를 뱉을 때면 늘 뭔가 불길하던데.

“무슨 생각이요?”

“시간을 아홉시로 맞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황자님이 일어나서 보이는 반응을 관찰하는 거야! 어때요?”

뭐? 류이를 속이자고? 속인 후에 그가 보이는 반응을 관찰하자고?

미쳤어?

“그게 어딜 봐서 좋은 생각이에요?”

내 물음에 진의 손길이 멈칫한다. 그리고는 그가 쭈뼛거리며 협탁 위에 다시 자명종 시계를 내려놓는데

“아, 역시 이건 너무 심했나?”

“그런 건 불경죄라구요.”

옆에서 제이도 거들어 저리 말할 때, 나는 눈동자를 음험하게 빛내며 그들에게 이리 대답했다.

“좋은 생각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벽하고 나이스한 생각이잖아! 당장 실시하죠, 그거!”

“으, 으응! 네!”

“???”

당혹스러워하는 제이의 눈빛을 뒤로하고, 나와 진, 칸은 협탁 위의 자명종 시계를 집어 들어 시간을 맞추기 시작했다. 8시 57분으로 말이다. 알람 설정도 잊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시작했고, 칸은 머리꼭대기에 떠오른 해를 감추기 위해 재빠르게 커다란 창문을 커튼으로 모두 가려버린다. 방은 다시금 캄캄해졌다.

3분 후

때르르르릉─!

“!”

자명종 시계가 울렸다! 때르릉거리는 시끄러운 종소리에 류이가 반사적으로 몸을 벌떡 일으킨다. 나는 이불을 푹 덮은 척을 하고서 아주 작은 틈새로 맞은편인 류이의 침대를 관찰 중이었다. 진과 칸, 제이들은 모두 은신 모드에 돌입한 상태.

실크로 만든 은색 잠옷을 입고 있는 류이. 과연 그의 반응은!

“흐암.”

첫 번째는 하품이었다. 으아아악, 미치도록 귀엽잖아! 다 큰 남자가 저렇게까지 귀여워도 돼? 어! 저 정도면 범죄 아니야?

아침마다 류이가 먼저 일어났으면 일어났지, 내가 먼저 일어난 적은 거의 없다보니 저런 면모는 미처 몰랐다. 이웃나라 대제국 황자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된 순간! 헉헉, 마이 하트, 멈추면 안 돼! 나는 아직 죽기엔 이른 나이란 말이야!

“”

“아샤?”

빠르게 뛰기 시작한 심장을 컨트롤하려 애쓰며 숨죽이고 류이의 모습을 훔쳐보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줄은 모를 류이가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불러온다. 하지만 반응이 없자, 늘 그렇듯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곯아떨어졌다고 판단한 모양.

그는 슬그머니 이불을 걷고서 바닥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리고는 팔을 들어올리며, 기지개를 쭉 펴는데

“우으응”

뭐냐고, 저 신음―뭔가 이상한 표현 같지만―소리-!!! 너무 귀엽잖아? 귀엽고 섹시하잖아? 귀엽고 섹시하고 유혹적이잖아! 어! 이래도 돼? 사람이 저렇게까지 잘생기고 예쁘고 귀엽고 섹시해도 되냐고! 내가 보기엔 안 된다. 류이는 체포당해야 해. 내 마음 속으로 체포까지만 하겠다.

가끔 보면 무섭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한 말투나 행동을 종종 보여주는 남자인데, 자신의 방에서는 저렇게까지 무방비해진다는 설정이라니. 너무 덮치고 싶어지잖아? 어? 야생의 본능을 지닌 동물이라면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고도 남을 듯.

그런 매력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그, 류이. 그는 씻으려는 듯 욕실로 들어갔다. 비몽사몽인 듯, 비틀거리면서 말이다. 잠이 덜 깬 모양이다.

“헉, 헉”

이불을 푹 덮고 있느라 답답했지만, 류이를 보느라 그런 것도 잊고 있었다. 이불을 들추자, 은신 중이었던 진과 칸이 뿅! 하듯 마법을 해제하고서 내 앞에 드러났다.

“완전 멋있죠, 저희 황자님! 그쵸!”

“응? 으응”

순간적으로 진이 내게 던져온 물음을 듣고, 나는 그가 단어 선택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다. ‘멋있죠?’가 아니라 ‘귀엽죠?’라고 물어야 맞지 않을까. 여자보다도 예쁜 그 남자, 류이는 여자와 햄스터보다도 귀여웠다. 미친 아주 다 가져라, 그냥!

“너무 귀여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라곤 오직 이것뿐. 볼을 발그레 붉히며 이렇게 중얼거리자니, 진이 마치 데스노트에 내 이름을 적은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왠지 이 자식의 음흉한 속내가 순간적으로 읽힌 것 같았다만, 나도 즐겨버렸으니 특별히 눈감아 주지.

진에게서 한동안 류이가 얼마나 완벽한 인간인지에 대해 구구절절한 설명을 듣고 있자니, 욕실 쪽에서 류이가 나오려는 듯 무언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 같다. 나와 방을 함께 쓰게 된 이후부터, 셔츠 같은 기본적인 옷은 욕실에서 입고 나오는 게 버릇이 되어버린 그. 아무래도 지금도 그런 모양인데.

우리들은 그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대화를 나누던 것을 그만두고 재빠르게 원래의 포지션으로 돌아갔다. 아까 전처럼 말이다.

“”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욕실 문이 열린다. 침대와 욕실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에,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서도 들킬 염려 없이 여유롭게 류이를 훔쳐볼 수 있었다.

샤워를 한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젖은 느낌이 가득한 그는 섹시미를 남발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오우야!

“!”

끝내주는데! 저런 게 바로 킹갓엠페러제너럴 섹시함이다. 그런 단어가 존재한다면 류이에게 붙여주어야 마땅해. 미쳤다, 진짜로. 저건 사람의 미모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며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뜯어보았다. 욕실에서 어느 정도 말리고 나온 듯한 적당히 젖은 머리카락은 색기를 풀풀 풍기고 있었고, 호리호리하게 적당히 마른 몸매 위에 걸친 셔츠는 물기에 의해 살짝 젖어 그의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큼 코피를 절로 흘리게 할 섹시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저 인간을 낚아채어 내 걸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할짝할짝 하고 싶, 응? 아, 나 지금 뭐라는 거야.

하여튼 그런 살인적인 모습을 한 류이는 이내 머리 말리는 것을 끝냈다. 그리고 셔츠 소매를 정돈하기 시작한다. 소매부분을 접은 후 혼자서도 능숙히 단추를 끼우는 그.

으으뭔 놈의 남자가 셔츠 단추 끼우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섹시하다냐. 이제는 현실이 아니라 꿈속을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눈빛으로 그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니, 류이는 넥타이까지 능숙한 손길로 맸다. 루이스 같은 경우엔 넥타이에 특히 약하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곤 했는데, 류이는 혼자서도 곧잘 척척 매곤 했다. 저 남자, 대체 못하는 게 뭘까? 남장?

“”

저런 남자가 내 남자친구라니. 지난 18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건, 모두 이러한 보답을 받기 위해 거쳐 온 시련이었던 게 아닐지. 전생의 나였더라면 꿈도 못 꿨을 것이다. 저런 우주멸망급으로 눈부신 얼굴을 지닌 남자가 내 남자가 된다니, 그런 판타지 로맨스스러운 전개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게 현실이었다. 내 인생, 이 정도면 로또 맞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 전생에서 다 못 누린 복을 이생에서 전부 누리는 거 아닐까, 이거? 저렇게 잘생긴 인간이 내 애인이라고? 와우, 진짜 현실이 미치다 못해 돌아버렸군.

“아샤.”

“”

응!

어느 틈에 류이가 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건 마법사들의 특징인 건가? 패시브 스킬 같은 거? 내 남자친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니. 앞으로 좀 더 류이의 행동을 예의주시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꼬옥 감았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며 그에게 자는 척 중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으음”

하는 소리도 내주었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그의 이어질 반응을 기다리자니, 갑자기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이 들춰지는 것 같았다. 잠시 눈앞이 밝아지는 듯하다가뭐지? 다시 어두워지는

데!

쪽-

“!”

류이가 내게 고개를 숙여 입을 맞춘 모양이었다. 그것도 이마에.

이런 걸 바로 쏘스윗이라고 하는 것인가! 놀랍다, 놀라워. 이 남자가 지닌 로맨틱함의 끝이란 대체 어디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두근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그의 이어질 행동을 기다리고 있자니, 내 귓가에 류이가 소곤소곤 속삭여왔다.

“늦게 일어나서 미안해.”

라고.

에이, 미안하긴 뭐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일하느라 늦게 잠들어서 피곤했던 건데, 그런 건 내가 이해해주는 게 당연

이 아니라!! 어, 어떻게 알았지? 지금 시간, 분명 아홉시로 맞춰놓지 않았나!

“어, 언제부터 눈치 채신 거예요!”

이불을 홱 걷으며 내가 묻자, 그런 갑작스런 반응에도 전혀 놀라지 않은 류이가 빵끗 미소 지으며 답해왔다.

“처음 일어날 때부터.”

“에엑!! 어, 어떻게요!”

“아샤는 평소에 잘 때 이불을 걷어차고 자니까.”

“아차!”

“아차, 그런.”

류이의 대답을 들은 진과 칸이 은신 마법을 스르르 풀며 저런 감탄사를 내뱉어온다. ‘아차’는 무슨 얼어 죽을 ‘아차’야! 너희들도 나 자는 모습 정도는 질리도록 봤잖아? 그 정도는 기억해뒀어야지! 어째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류이밖에 없!

어? 류이밖에 없어?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

왠지 쑤, 쑥스럽구만. 그래도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다 이건가

슬그머니 볼을 붉히며 류이의 시선을 피하자니, 그가 내 침대에 살포시 걸터앉는다. 그리고는 눈을 맞춰오는데.

“나가서 점심 먹을까?”

“저, 점심이요? 좋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도시락을 싼 후 대학 밖의 공원으로 놀러 나갔어야 했겠으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실패한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늦은 시간에 공원에 놀러갈 준비를 하기엔 뭔가 귀찮으니, 류이가 점심을 먹자 한 제안이 나로서는 대환영이었다. 대학 상가나 적당히 돌아다니다 들어오지, 뭐!

“뭐 드실래요?”

나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류이를 향해 이렇게 물었다.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정장 위에 코트를 걸쳐 입던 그가 나를 바라봐온다.

야외 데이트를 가기로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나가지 못한 것이 퍽 아쉬운 표정은 아니었다. 뭐지, 류이? 나와 야외 데이트를 나가지 못한 게 전혀 아쉽지 않은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

나는 순간적으로 두 가지 짐작을 했다. 공원은 못가더라도 대학 밖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는 생각인 거거나, 아니면 야외 데이트를 나가지 못한 게 별로 아쉽지 않은 거거나. 지금 류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쉽지 않은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정답은 후자였다.

“아샤, 류 제국 음식은 먹어본 적 있어?”

“네? 아니요. 구경도 못 해봤는데, 왜요?”

“먹으러 갈래?”

“아, 좋아요!”

역시 대학 바깥으로 나가서 먹자는 거구나. 간만에 바깥 공기 좀 쐴 수 있겠다! 프란치아의 어느 곳에서 류 제국 음식을 파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곳이 있기는 한 모양이다.

환해진 얼굴을 하고서 내 코트를 챙기러 후다닥 옷걸이 쪽으로 향하는데, 그 순간 나는 들어버리고야 말았다. 류이가 진을 향해 명령하는 한마디를

“비행선 대기시켜. 류에 다녀올 테니.”

“알겠습니다.”

뭐, 뭐라고? 비행선! 류우우-!?

점심 한 끼 먹는데 바다 건너 옆 나라까지 간다고!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요, 황자님!”

겉옷을 챙기려다 말고 류이의 앞으로 후다닥 뛰어가 그를 올려다보며 묻자니, 그는 ‘응?’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런 얼굴마저 끌어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방금 전 그 말에 대한 거였다! 류에 다녀온다니, 류에 다녀온다니이!

“첫 야외 데이트인데, 대학 상가에서 시간을 보낼 순 없잖아.”

류이는 나를 향해 상큼한 목소리로 답해왔다. 아니, 이 상큼한 남자야 뇌까지 상큼해져버린 거니? 아무리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지만 어떻게 류 제국에 당일치기로 데이트를 다녀올 수가 있어!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류 제국 황자면 다야? 다냐고! 아, 다구나.

“아, 아니, 그래도!”

“싫어?”

“아, 그건 아니”

“싫다하면 안 갈게. 아, 간만에 류 제국 음식 좀 먹어보나 했는데.”

“! 조, 좋아요.”

그런 수법을 쓰다니! 크윽. 이 비겁하지만 사랑스러운 남자 같으니라고.

류이와의 실랑이에서 패배한 나는, 이날 결국 비행선을 타고 날아가 공원 데이트보다 더한 류 제국 데이트를 해야만 했다. 이거 실화냐!

응, 실화야.

“야.”

“”

“일어나.”

“?”

눈을 뜨고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뭐지? 방금 누가 나를 부른 것이지? 설마

“하늘같은 란 님 오셨다.”

으응? 역시!

“하늘은 얼어 죽을!”

퍽!

내 머리 위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란의 배를 발로 걷어 차주었더니, 오버를 떨며 저 멀리까지 나가떨어진다. 그리고는 코를 손가락으로 쓱 훔치는 시늉을 하며,

“내가 이 힘찬 발차기에 반했다니까.”

라는 헛소리까지 하는 걸 잊지 않는 그, 란.

아이고, 두야. 금쪽같은 주말, 나는 상쾌함과는 거리가 먼 징그러운 아침을 맞이했다. 으윽, 이런 이른 시간부터 란의 면상을 정면으로 마주하다니. 정말 끔찍

“사실 내 하늘은 너야, 아샤. 나는 아래에서 너를 올려다보는 땅이지.”

“!”

하지만은 않다.

란과 사귀게 된지 한 달 정도 흘렀을까, 나는 매일 매일이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여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란의 달달함을 느끼게 되어서인 것도 있고, 또

“그런데 그거 알아?”

“뭐요?”

“요즘은 땅값이 더 비싸대.”

이 빌어먹을 인간의 못된 드립 또한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었기 때문. 대체 저런 드립은 또 어디서 주워들은 걸까? 두고 보자, 란한테 못된 말을 가르쳐준 사람. 내 눈앞에 보인다면 기필코 란과 진한 딥키스를 하게 해주겠다. 물론 란은 땅이니, 땅에 얼굴을 처박아주겠다는 의미이다. 조심하라고, 범인.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내 물음에 란은 이리 답했다.

“보고 싶어서.”

이게 웬 개소리람.

“기숙사 방 옮긴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방 보안마법은 어떻게 해제한 거예요?”

“잘?”

“나가요. 당장 나가.”

“왜? 여자친구도 보러 못 와? 내가? 이 란이?”

“무단 침입은 범죄거든요? 이 란이고 저 란이고 간에, 저는 더 자고 싶으니까 나가요.”

“너무해.”

뺑글이 안경알을 반짝이며 내게 저런 말을 건네 오는 그. 그리고는 이내 옆에 주저앉아 침대 위에 고개를 확 파묻어버린다. 호오, 토라진 척을 하시겠다? 누가 그런 거에 넘어가줄 줄 알고!

그렇다. 넘어갔다.

“아니, 그렇다고 삐질 것까지야 란? 농담이에요, 일어나.”

대체 어쩌다 이런 애물단지와 사귀게 되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아마 ‘그러게요?’라고 대답할 것 같다. 그러게, 내가 왜 이 인간이랑 사귀게 됐지? 대체 어떤 면이, 무슨 점이 좋아서? 나조차도 모르겠다. 이런 게 바로 본능의 이끌림인가?는 개뿔,

“데이트하러 나가자.”

“아침부터 뭔 놈의 데이트요?”

그냥 귀찮은 짐 덩어리 하나를 내가 떠맡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싫냐고? 음

“이런 주말 아니면 내가 언제 너랑 놀아?”

“”

싫으면 왜 사귀겠는가.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나쁘지 않다. 이런 거치적거리는 남자친구, 나름 신선해서 좋다고. 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변태처럼 느껴진다고 뇌 녀석이 소리쳐오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나는 진짜로 변태가 맞으니 뭐라 반박할 수가 없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로군.

“란, 한가하잖아요?”

“내가? 지나가던 뱁새가 웃겠다.”

농담 삼아 던져본 말에 란이 질색을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저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한 게, 조만간 학년 진급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라 1, 2, 3학년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다. 란이 딱히 공부를 못해서 바쁘다는 건 아니고, 이맘때쯤에는 교수님들이 과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신다고.

그러니 평일에는 얼굴을 보기도 힘든 편이었다. 게다가 나는 란의 조수인 것도 아니잖은가? 확실히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는 편이 좋긴 하겠군. 그래, 좋긴 한데

“어디서 데이트할건데요?”

“글쎄. 어디 가고 싶어?”

얘도 계획이 없었다. 정해놓고 찾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니. 당일에 찾아와서 놀러가자는 양반이 생각해놓은 곳도 없어? 완전 대책 없는데!

하지만 이런 막무가내 스타일도 나쁘지 않다. 그냥 란의 모든 면이 다 괜찮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고? 어, 그그럴지도? 왠지 지는 기분이 들어서 좀 그렇지만, 남자친구한테 좀 져주면 어때. 란이 내게 져줄 때도 많으니, 나도 때때로 좀 져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크으, 역시 아샤는 착해. 아주 착해.

“멀리 나가긴 귀찮고대학 근처에 있는 매지션 거리로 갈까요?”

“그래, 그러자.”

란이 입꼬리를 끌어 올려 예쁜 미소를 날려 온다. 불투명한 안경 때문에 눈은 보이지 않는다지만, 이 인간의 안경 속 눈빛은 대충 예상이 간다. 웃고 있거나, 웃고 있거나, 웃고 있는 눈매가 저 안에 존재할 것 같다. 아마도.

“조금만 기다려요. 나 씻고 올게.”

“응, 다녀와.”

침대에 살포시 걸터앉으며 내게 대답해오는 란을 뒤로하고, 나는 기숙사 욕실로 들어갔다.

한 시간 뒤, 나와 란은 대학 밖의 매지션 거리로 나왔다. 고작 한 시간 만에 어떻게 준비까지 끝마치고 대학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했냐고? 그야 설명하자면 간단하지. 나는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화장을 안 하잖아? 나는 이 세계의 화장술이라는 걸 쓸 줄 모른다고, 흠흠.

하지만 그런 내 쌩얼조차 예쁘다고 해주는 그, 란. 비록 그 말이 진심인지 립 서비스인지는 여부를 알 수 없다지만, 빈말이더라도 고맙긴 하다. 이번 생에서는 부모님조차 내 얼굴을 마주 바라보시며 ‘우리 아샤, 예쁘다!’하는 말은 해준 적이 없으신데, 그런 말을 그가 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역시 애인은 애인이다 이건가?

“솜사탕 먹을래?”

“네!”

아침도 먹지 않은 이른 오전부터 솜사탕이라니, 정말 바람직한 선택이로군.

아, 그런데 여긴 어디냐고? 그러고 보니 설명을 잊었구나. 이곳 매지션 거리는 마법사들이 정착하여 만들어낸 문화 거리인데, 생각보다 신기한 게 엄청 많았다. 전생의 어릴 적에 보았던 학x앨x스라는 만화 속에서 등장할 법한 신기한 가게나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랄까? 해리X터의 느낌도 꽤 난다. 여러모로 재미있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나는 이곳에 처음 와본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또 뭐가 재밌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 마냥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공중을 떠다니는 마법 열기구나 어느 가게에 진열된 자동으로 바닥을 쓸어주는 빗자루 같은 걸 신기하단 눈빛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아샤, 저거 해볼래?”

솜사탕을 사온 란이 내게 먹으라는 듯 그것을 들이밀며 물어왔다. 저거? 저게 뭔데. 그의 손끝이 향하는 곳으로 시선을 향해보았다. 그곳에는

탕-!

“우와-! 자기야, 진짜 대단해!”

“에이, 뭐 이 정도야.”

마법 다트로 과녁을 맞히면 점수에 해당되는 상품을 얻게 되는 부스가 있었다. 방금 전 ‘탕!’하던 그 소리는 마법 다트를 기구에 넣어 발사할 때 난 발사음인 듯. 그냥 총소리 아니냐고? 그러게. 내 귀에도 그저 총소리로 들리지만, 이 세계에는 총이라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으니 저것은 다트다. 위력은 총이지만 기구의 이름은 다트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구만.

“좋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저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겠지? 그동안 내가 열심히 모았던 용돈을 투자해야하는 놀이라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상품을 딸지도 모르는 거니까, 꼭 손해 볼 거라고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란의 제의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서 다트 부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런 내 곁을 솜사탕을 뜯어먹으며 그가 따라오고, 이내 부스 앞에 도착한 우리들은 돈을 지불한 후―먼저 제안한 란이 냈다―다트 발사 기구를 부스 주인으로부터 하나씩 건네받았다.

뭔가 좀 생소하게 생겼다. 굳이 표현하자면 석궁 같은 느낌? 방아쇠를 당기면 다트가 날아가는 방식이다. 그럼 기구 관찰은 이제 됐고, 상품들이나 한 번 볼까?

작은 인형에서 평범한 크기의 인형, 커다란 크기의 인형이나 건담까지저 멀리 진열장에 갖가지 상품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가운데, 나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은 것은 바로 엄청난 크기의 곰 인형이었다.

그것도 10번의 기회 중 과녁의 10점을 모두 맞혀 100점을 채워야만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 내 실력에 무리일 거란 건 잘 알고 있지만, 왠지 저 인형이 갖고 싶어졌다. 덩치가 크다 못해 사람만한 인형이었기 때문.

보통 크기의 곰 인형이 아니라 내 덩치만한 인형이니 잘 때 꼬옥 끌어안고 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아샤, 한 번 쏴볼래?”

란이 내게 물어봐왔다. 그래, 좋지! 일단 첫 타자는 나다. 자신만만한 눈빛을 하고서 다크 발사 기구를 붙잡고 격발 포즈를 취한 나. 이내 과녁의 정중앙인 10점 부분을 노려보며 방아쇠를 당겼다.

탕!

“아.”

“풋.”

빗나가버렸어! 한 번 쏠 때마다 돈이 나가는데, 첫 시작부터 10점은커녕 1점도 맞추지 못했다. 다트가 과녁이 아니라 그 너머의 진열장 벽에 꽂혀버린 것. 크윽! 이렇게 어려워도 되는 거야? 이거 완전 사기 아니!

“자기야, 다시 한 번 해볼까?”

“그래.”

“?”

잠깐만. 방금 전에 ‘풋.’하고 웃었던 거, 나나 란이 아니었지 않나?

뒤늦게 알아차렸다. 누군가가 나의 0점짜리 사격을 비웃었다는 사실을. 나는 당연히 아니고, 란의 비웃음 소리라기엔 너무 가늘고 하이한 톤이었다. 란은 듣기 좋은 중저음 보이스라 저런 소리로 비웃을 수 있을 리가 없다고.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비웃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체 누가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옆으로 슬쩍 고개를 돌려 보니, 어느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나보다 나이는 다섯 살 정도 많을 것 같은 성숙한 외모의 여자였는데,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우리 쪽을 흘끔거리며 쳐다봐오고 있었다. 옆에는 꽤 우락부락한 남자친구를 달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남자친구의 다트 사격 솜씨가 깨나 출중한 모양인지

탕-

“꺄악! 9점이야, 자기!”

“내가 누군데, 훗.”

쏘는 족족 과녁의 8점에서 10점 사이 공간에다 딱딱 맞추는 것이다. 아니, 밥 먹고 이거만 했나?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리 잘 쏠 수 있지? 납득이 안 가는데!

내가 쏴보니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황당해하는 표정으로 란을 쳐다보자, 그제야 란이 내 표정을 확인하고선 웃음을 빵 터뜨렸다.

“이거, 마나 보유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트를 원하는 위치로 날려 보내기가 더 쉬워. 그래서 마법 다트인 거야.”

“그, 그런 거예요! 어쩐지, 조준은 제대로 했는데 이상한 데로 날아가더라.”

그저 평범한 석궁 다트처럼 생겼는데, 왜 마법 다트라는 이름이 붙었나 했더니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 까놓고 말해 란이 내게 장난을 치기 위해 이런 게임을 해보자고 데려온 것 같지만, 뭐 어쨌거나 나쁘지만은 않다. 나는 마나가 없지만, 란은 마나가 있잖아? 이런 게임은 구경하는 것도 썩 재미있다고. 그러니까 선수 교체다!

“그럼 저 대신 쏴요. 제가 계속 쏴봤자 돈만 낭비할 뿐이잖아요?”

“한 번밖에 안 쏴봤지 않아? 더 해도 돼, 돈은 내가 낼게.”

“아뇨, 괜찮아요. 쓸데없는 데에다 돈 쓰는 건 질색이란 말이에요. 자, 빨리!”

란의 손에서 솜사탕 막대를 뺏어 들며 그를 앞으로 떠밀었다. 그리고 다트 발사 기구를 집어 들게 하자, 란이 영 떨떠름한 표정으로 과녁과 옆을 힐끔 쳐다 보는데 뭐지, 저 표정은?

“흐음”

이해할 수 없는 란의 반응을 지켜보기도 잠시, 그가 격발 포즈를 취한다. 옆에서 란의 모습을 지켜보던 부스 주인아저씨가 대뜸 이런 말을 건네 왔다.

“자세를 좀 더 낮춰야지! 그렇게 꼿꼿이 허리를 펴고서 쏘면 잘 안 맞는다고, 총각.”

“아, 그런가요?”

란은 그 말에 저리 대꾸하면서 방아쇠를 대충 당겼다. 물론 허리는 여전히 꼿꼿이 유지한 채로 말이다.

탕-!

“1점?”

“오, 맞추긴 맞췄네.”

“기뻐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아예 못 맞춘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에이, 너나 나나 실력이 거기서 거기네.”

“?”

란이 헤헤 웃으며 내게 말해온다. 뭔가 이상한데. 내가 봐온 란의 마법 수준대로라면 마나량도 결코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다트 석궁 하나를 제어 못해서 저 커다란 과녁 중 1점을 맞힌다고? 뭔가 말이 안 된다.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번개처럼 스쳐지나갈 때쯤

“아샤, 다른 거하러 가”

란이 내 손을 잡아오며 가자는 말을 하려 할 때, 옆에서 아까 말한 민폐커플 한 쌍이 우리들을 향해 들으란 듯이 말해왔다.

“어우, 돈 아까워.”

“이런 데에 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먹지.”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꼬맹이들이 무슨 마법 다트를 호호!”

스무 살 중순 쯤 될 법한 외모의 여성은 손으로 입을 살포시 가리며 얄밉게 웃기까지 했다. 글로만 읽었던 호호, 깔깔! 하는 웃음소리를 직접 듣게 될 줄이야. 진짜 엄청 재수 없게 느껴지는데?

저기요? 혹시 싸가지를 집에 두고 오신 건가요? 그런 거죠?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초면에다 대고 저렇게 예의 없는 말들을 늘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니, 말이 너무!”

나는 뭐라 따지려다가, 옆에 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입을 꾹 다물었다. 민폐커플이 나를 향해 ‘뭐?’하는 눈빛을 하고서 당당하게 고개를 돌려오는데, 그 눈동자들을 마주하기가 무섭게 나는 고개를 옆으로 스윽 피해버렸다.

따지고 들자니 좀 그렇다. 지금 내 곁에는 란이 있잖은가. 만약 이대로 저 커플과 싸움이 붙어서, 우락부락한 남자와 몸싸움이라도 벌이게 된다면 란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럼 결국 란이 손을 더럽혀야만 할 것이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가 알아서 나설 테니까. 그런 건 싫다. 나로 인해 내 남자친구가 피해를 보는 건 싫어.

“그, 그냥 가요.”

나는 란의 손목을 붙잡으며 쭈뼛쭈뼛 부스를 벗어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나의 손을 란이 풀더니 도리어 자신이 덥썩 붙잡아오는 것이다.

“아샤.”

“네?”

“저기 진열되어있는 인형들 중에, 뭐가 제일 예뻐?”

“으, 응? 제 눈엔 다 예쁜”

“제일 커다란 곰 인형, 저게 마음에 들지 않아? 예전에 내가 너한테 만들어줬던 곰 인형도 생각나는 게, 너한테 딱이다.”

“예?”

아니, 나도 저 인형이 마음에 들었긴 한데 갑자기 지금 그건 왜 묻는 거지? 설마 마법으로 훔쳐오기라도 하려는 건가? 아, 안 돼. 도둑질은 절대로 안 돼! 나는 범죄자 남자친구를 두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훔치는 건 안”

“열 번 더 쏠게요. 10베른이죠?”

“그래그래.”

내가 말릴 틈도 없이, 란은 어느새 부스 주인아저씨 앞까지 다가가 추가 결제를 하고 있었다. 어라라, 뭐야. 훔치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쟁취하겠다는 뜻이었어? 하지만 힘들 것 같은데. 1점을 열 번 쏴봤자 10점이 아니겠는가. 저 커다란 곰 인형은 10점을 열 번 쏴야 얻을 수 있는 상품이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런 짓을?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란을 지켜보고 있는 민폐커플들도 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마치 ‘나이도 어린 게, 꼴에 자존심은 살아가지고!’하는 비웃음 가득한 얼굴들을 하고서 란과 나를 쳐다봐오고 있었다. 아앗, 기분 나빠!

“아, 저기 혹시.”

꼴보기 싫은 이들을 쳐다보지 않기 위해 슬그머니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고 있자니, 란이 주인아저씨에게 뭐라 말을 붙인다.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싶어 귀를 쫑긋 기울여보니, 그는 뜬금포 터지게 이런 질문을 했다.

“저 곰 인형, 가격이 얼마인가요?”

“응? 200베른 주고 샀지. 그건 왜?”

“흠 그럼 10베른으로 따게 되면 190베른이나 손해 보게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지?”

“미리 죄송합니다.”

“?”

“??”

미리죄송 뒷말사절이냐? 주인아저씨의 황당해하는 표정이 지금 내 표정이었다. 저건 무슨 자신감이지? 란은 자기가 곰 인형을 따겠다는 말을 에둘러서 하고 있었다. 방금 전 1점을 쏘던 광경을 이곳에 있는 모두가 지켜봤는데, 저런 도발이 먹힐 리가 없잖아.

란의 말을 들은 옆의 커플들도 어이가 없다 못해 어린 녀석이 건방지다 싶었던 모양인지, 표정을 다소 찡그리고 있었다. 으응? 잠깐만. 나 참, 시비는 지들이 먼저 걸었으면서, 저 띠꺼운 얼굴들은 또 뭐야. 마음에 안 들게!

“란.”

“응?”

“잘 해봐요.”

이렇게 된 거, 응원이나 해주자. 1점을 맞히든 0점을 맞히든 어찌 됐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남자친구란 인간이 얻은 점수이니, 여자친구인 나는 응당 그 점수를 감내해주어야겠지. 죽을 고비도 넘긴 내가 타인의 비웃음 따위가 두려울쏘냐.

반쯤 해탈해버리고서 란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아까처럼 건성으로 다트 기구를 들어 올린 그, 란이 격발 자세를 취한다. 여전히 허리는 양궁 선수처럼 꼿꼿하게 편 채였는데

“어허, 몸을 좀 더 숙이래도!”

옆에서 주인아저씨가 조언의 한마디를 건넬 때,

탕-!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 란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

“뭐, 뭐!”

그리고 이내 날아간 다트가 과녁의 어느 부분에 꽂혔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란을 제외한 네 명은 휘둥그레진 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10점이라고? 어떻게!

“소, 속임수 아니야!”

“아니, 어떻게 1점이었던 애가 갑자기 10점이”

“고객님들. 속임수는 못 쓰게 되어 있소. 이거, 마법 다트라니까?”

커플들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는데, 주인아저씨가 옆에서 슬그머니 끼어들어 아니라는 한마디를 해주었다. 옳소옳소! 잘한다, 주인아저씨!

“한 번쯤 뽀록 터진 것 같고 좋아하긴”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두 민폐형 인간들. 그중에서도 더 얄미운 여자가 하는 말에, 나는 이마에 빠직마크가 슬그머니 떠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참자, 참아. 아직은 때가 아니로소이다

탕!

“10, 10점! 아까 전에 보여줬던 1점은 뭐였나, 자네? 연습이었어?”

“몸 풀기죠.”

두 번째도 10점을 맞춰버린 란. 슬슬 옆에서 란의 독주를 지켜보고 있는 민폐커플의 표정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탕-!

“10점!”

탕-!

“10점!”

탕-!

“또, 또 10점이라고!”

주인아저씨도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라는 듯, 입을 쩍 벌리며 란의 얼굴을 쳐다본다. 불투명한 안경을 낀 흐리멍텅하게 생긴 놈이 이런 뜻밖의 실력을 보이니, 들지 않을 수 없는 의구심 하나.

“혹시 자네 부모님이 마법사인가!”

마치 홍어를 잘 먹는 콩고 왕자에게 ‘혹시 자네 부모가 전라도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날린 어느 다큐멘터리 속 아저씨의 목소리가 오버랩되는 순간이다.

주인아저씨의 물음에, 란은 석궁으로 과녁을 조준하는 쌔끈한 자세를 취한 채로 가볍게 대꾸했다.

“제가 마법사인데요.”

탕-!

10점.

“그, 그래! 독학한 건가!”

“독학은 아니고마법 대학에 다니고 있죠.”

탕-!

또 10점이다. 와아, 쩌는데?

“마, 마법 대학 학생이라고?”

다시금 상기시키는 기본 상식 하나. 마법 대학의 전교생 수는 100명을 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넓은 대륙 프란치아에서 10대 중 최상위 실력을 지닌 마법사들 100명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

이미 게임은 끝났다. 뛰어난 마법사일수록 유리한 게임이 이 다트 던지기라면, 란이나 루이스를 데리고 오는 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싹쓸이해버리는 일이란 껌도 아닌 것이다.

아, 그럼 마법 다트 가게들은 남아나지 않아야 정상이 아니냐고? 음 듣고 보니 맞는 말.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마법사들이 이 세계에는 그리 많지 않다. 내 곁에만 많은 것뿐이야, 이상하게도.

“저 커다란 곰 인형, 저희가 받아 가면 되는 거죠?”

“도합 100점이니까 그래, 맞군. 비싸게 주고 산거니, 소중히 간직해주게.”

“감사합니다, 어르신.”

란이 겸손하게 주인아저씨로부터 곰 인형을 받아들 때, 옆에서는 민폐커플 둘이서 티격태격거리며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다. 나는 텔레포트를 시전해 곰 인형을 기숙사로 이동시키는 란의 곁에서 그들이 꽥꽥거리며 외쳐대는 고함소리들을 가만히 들어보았다.

“자기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부모님이 뛰어난 마법사라면서! 자기도 마법사라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마법 대학 학생을 어떻게 이겨!”

“내가 이러려고 자기랑 만난 줄 알아? 이럴 줄 몰랐어. 우리 헤어져!”

“아, 아니, 잠깐만! 자기야! 자기야!”

하나의 커플이 깨지고, 두 명의 솔로가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다 같이 박수, 짝짝짝!

아주 잠깐 동안, 나는 구름 속을 떠다니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구름 위를 거닐다 그 자리에 드러누운 신선이라도 된 것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른 무언가에 누워 두둥실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편안했다. 태어나기 이전의 내가 따스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잠들어있는 듯, 그곳은 축축하면서도 안온하고 따스했다.

그렇게 평화로웠던 시간은 아주 잠깐이었다.

“으음”

관자놀이가 아프다.

응? 어라, 잠깐만. 관자놀이가 아프다고? 왜지? 나는 죽지 않았던가. 이나하에게 배를 꿰뚫리는 치명상을 입고 숨이 다했었다. 분명히. 그랬는데 왜 머리가 아파? 죽은 사람은 아플 일이 없지 않나. 전생에서 죽었을 적에도 아픔 따윈 느끼지 못했었는데, 어째서?

이상함을 느낀 내가 눈을 떴다. 헉, 눈이 떠지다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 뭐야, 나. 죽지 않았었나 봐! 이건 또 어째서지?

“이게 무슨”

중얼거리며 손으로 바닥을 짚어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켰다. 그런데 바닥이 축축한 것 같았다. 여긴 어디고, 이 축축함의 원인은 뭘까. 내 흐릿하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피!”

피가 있었다! 그것도 피가 완전 웅덩이 수준으로 고여 있는 것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다 내 피인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손을 벌벌 떨며 그 붉디붉은 것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문득 내 복부의 상태가 염려되었다. 이상하게도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지만, 분명 커다란 고드름으로 관통 당했었으니 말이다. 고개를 내 배 쪽으로 숙여보았다.

이나하의 공격으로 인해 꿰뚫렸던 드레스의 상태는 그때와 같았다. 배 부분에 구멍이 뻥 나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내 배는 뚫려있지 않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새하얀 내 배와 배꼽만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드레스가 검은색이었기에 피가 묻은 티는 크게 나지 않았지만, 내 온몸은 피 칠갑이 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 정도로 흘렸다면 분명 과다출혈로 죽었어야 마땅할 텐데, 난 왜 살아있는 거야?

혼란스러워하는 눈빛을 옆으로 돌려보았다. 그리고 내 입에서는 비명이 자동으로 튀어나왔다.

“란-!!!”

바로 옆에 그가 누워있었다. 그것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간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새하얀 시체 같은 상태로 말이다. 그제야 나는 이 바닥 아래에 홍수라도 난 듯 짙게 깔린 피 웅덩이의 정체를 깨달았다. 이 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다.

란이었던 것이다.

“당신이 왜?”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패닉에 빠진 얼굴로 허둥지둥 란의 곁에 다가가 앉았다. 덜덜 떨리는 손길로 란의 어깨를 붙잡아 내 무릎 위에 올렸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의 코 밑에 슬며시 대어보았다. 아닐 거다. 아닐 거야. 몰래카메라일 거야.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렇지, 란?

사실 이 모든 건 꿈이라거나, 아니면 네가 장난으로 건 환각 마법이라던가. 그런 걸 거야. 이렇게 터무니없는 상황이 실제일 리가 없잖아.

“장난치지 마요, 란!”

꽥 소리쳐보지만 대답은 없었다. 숨결도 느껴지지 않는다. 아니야, 진짜로 이건 아니야. 숨을 참고 있는 걸 거다. 나는 그의 뺨을 약하게 때려보았다. 숨 쉬란 말이야. 숨을 쉬라고!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란이 입고 있는 정장 외투를 벗겨, 그 안에 입은 셔츠를 찢듯이 열어 젖혔다. 후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몇 개의 단추들이 떨어져 란이 만든 피바다 위를 데구르르 굴렀다.

그리고 나는

“라, 란!”

눈앞이 새하얘지는 것이 아닌, 새카매지는 것을 느꼈다. 피로 붉게 물든 내 시야는 이내 별 하나 뜨지 않은 밤하늘인 양 어두워져, 란의 배에 잔혹하리만치 새겨진 관통상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곳이 어디인지도, 내가 왜 이곳에 와있는지도 생각할 수 없었다. 마취제라도 맞은 듯 내 뇌는 마비가 되어버려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정확히는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 반사적으로 란의 정장을 그 상처 위에 던지듯 올려 덮어버렸다. 더는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이 얼굴이 란의 얼굴이 맞나? 아니야. 내가 알던 란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다. 노아라고 했던가? 그래. 내 앞에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란이 아니라 노아일 거다. 란이 아닐 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전부 아니야. 사실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사지에 불나방처럼 나를 구하러 뛰어들 무모한 인물은, 역시 란밖에는 없다는 걸. 나를 지키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했었던 그밖에는 없다는 걸.

“란, 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 뇌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당연한 것일 테지만. 나는 싸늘해진 란의 손을 어루만져보았다. 이게 정말로 란의 손이야? 내게 살아남으라며 팔찌를 끼워주고, 조끼를 입혀주고, 장갑을 끼워주었던 그 따스했던 손이 정말로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봐요, 란.”

그의 이름을 불러보며 나는 고개를 더욱 숙였다. 그의 얼굴 위에 내 얼굴을 드리운 채, 피 묻은 손으로 그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더듬어보았다.

은빛 속눈썹이 짙게 깔린 눈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영원히 떠지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우아하게 뻗은 콧대를 매만져보았다. 란이 이렇게 콧대가 높았던가? 늘 안경테에 가려져 있었으니 알 수가 없었다.

핏기가 사라져 붉은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새하얀 입술을 만져보았다. 그린 듯 유려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선 두 개가 만난 그 끝은 내려가 있었다. 늘 그렇듯 나를 향해 비웃는 것처럼 올라간 입매가 아니라, 차디찬 죽음을 맞이한 사람처럼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평소답지 않은 무표정이었다.

란이 죽었다. 그 사실을 깨닫기가 무섭게, 내 머릿속에는 혼란이 휘몰아쳤다.

“란!!”

마침내 내 입에서 비명과도 같은 이름이 터져 나왔을 때, 동시에 발밑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왔다. 하지만 바닥은 멀쩡했다. 단지 내 정신세계가 큰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뿐.

지금의 상황을 내 머리로 추리해보라고 한다면, 내게는 한 가지 답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나는 치료마법 따위로 살아남은 게 아니다.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마법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 죽음이 확정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것.

란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

“흐어어엉! 란!”

이미 싸늘해져버린 란의 주검 위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다. 통곡만으로는 표현이 모자라다. 나는 거의 오열하다시피 울었다. 더는 깨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란의 곁에서 10분을 넘게 얼굴이 부을 때가지 울다가, 눈물샘이 말라버려 더는 울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내 뇌는 조금 진정이 되었다.

아니, 진정이라기 보단 조금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버렸다고 해야 맞는 것 같다.

“사, 살릴 수 있을 거야. 란이 이렇게 죽을 리가 없잖아”

미친 여자처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란을 붙들어 내 품에 안았다. 그를 들어올리기 위함이었다. 군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몸매였지만 여자인 나로서는 들어올리기 힘든 무게였다. 비틀거리며 그를 품에 안았다가, 이내 뒤로 크게 넘어지고야 말았다.

콰당-!

“으윽!”

란을 안으려다가 넘어져버린 바람에 뒷머리를 제대로 찧었다. 덕분에 피바다 위에 내 머리카락이 젖어버렸다. 하지만 이러고 있을 틈은 없다.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간 정말로 란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지금도 죽은 건 맞지만, 지금도 숨을 안 쉬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를 마지막 기회조차 놓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란을 붙잡았다. 그리고 내 등에 업다시피 부축했다.

란의 복부에 생긴 상처에서 더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인지 모르겠다. 이곳은 어디인지 주변을 둘러보지만, 주위는 온통 컴컴해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여긴 대체 어디일까?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냈다. 야벨의 본거지로 추측되는 그 높은 탑은 무너져가고 있었으니, 여기는 아마 다른 장소일 것이다.

“끄응!”

힘주어 란을 붙잡고서 비척비척 걷기 시작했다. 업는 게 불가능했기에 란의 팔을 내 어깨에 짊어진 채 질질 끌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내 뒤로는 란의 발이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다.

불을 켜야 하는데 전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가 어느 장소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며 어둠을 헤쳐 나가다 보니, 이내 눈이 어둠에 적응되어 앞이 얼추 보이는 정도가 되었다. 여기는 누군가의 기숙사 방인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둡지?

문 앞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나는 란을 업은 채 방에서 빠져나왔다. 내 앞에 펼쳐진 것은 어둡고 긴긴 복도였다.

“헉, 헉”

점점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끼며 평소와는 달리 낯설고 생소한 느낌이 가득한 기숙사 복도를 걸었다. 란의 발은 계속 질질 끌렸다. 이 남자가 시체가 되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절대로 믿지 않을 테다. 아직 가사 상태인 걸 거야. 진짜로 죽은 건 아닐 것이다.

여긴가? 복도 모퉁이를 돌았다. 란의 기숙사가 위치한 이 동에는 와본 적이 없어서 구조를 잘 모르겠다. 기숙사가 왜 이렇게 조용한 건지도 모르겠고 말이다. 어쨌거나 나는 란을 빨리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했기에, 잠시도 멈추지 않고 걸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걷다 보니, 드디어 기숙사 출구가 나왔다. 나는 이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눈앞에서 왔다갔다하는 셀 수 없이 많은 프란치아 병사들을 목격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실종된 학생들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는 걸까?

어쨌거나 다행이야. 저 병사들을 부르자. 학생이 크게 다쳤다고 말해주면 분명 란을 도와줄 거야. 란은 이곳 프란치아 마법 대학의 학생이니까!

“저읍!”

나는 그들을 부르려 앞으로 손을 뻗으며 목소리를 꺼냈다. 아니, 정확히는 꺼내려 했다. 그런데 나의 앞을 혜성처럼 등장한 누군가가 가로막았다. 내 입도 그의 손길에 의해 틀어 막혔다.

눈앞에는 새하얗게 질린 안색의 루이스가 있었다. 으응? 어,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을 알고?

“안 돼, 아샤!”

“?”

루이스는 다급한 목소리로 안 된다 말하며 내 양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딱! 하는 소리를 냈다. 시공간이 일그러지며 그곳에 빨려 들어간 루이스와 나, 그리고 주검처럼 싸늘해진 란. 우리는 동시에 어딘가로 텔레포트했다.

이동한 곳은 다름 아닌 류이의 기숙사 내부였다. 익숙한 곳이기에 안도감이 들어오기도 잠시, 초조한 듯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답지 않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던 류이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류이 뿐만이 아니었다. 공격을 받았었던 모양인지 이리저리 몸 성한 곳이 없는 칸과 진, 그리고 제이를 비롯한 그의 호위 기사들이 전부 완전무장한 채 방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루이스의 텔레포트를 감지한 류이가 이곳으로 고개를 돌려오고, 나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내 초점 없는 공허한 눈동자를 그가 봐버렸다.

“아샤!”

류이가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게 있었다.

바로 란이었다.

루이스가 내가 내내 업고 있었던 란을 붙잡아 기숙사 중앙의 침대에 눕힌다. 나는 그곳으로 쪼르르 달려가 그대로 자리에 엎어지듯 주저앉으며 소파 앞에서 류이를 올려다보았다.

“화, 황자님. 란이, 란한테 엄청 큰 상처가”

“아, 아샤. 다친 데는 없어?”

횡설수설하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내 말을 내게로 가까이 다가온 그, 류이가 끊었다. 류이도 만만찮게 당황한 모양인지 답지 않게 말까지 더듬는데, 그 물음을 듣는 즉시 나는 잠시 멎었던 눈물이 왈칵 터져버린다.

다친 데는 없냐는 물음이 꾹 억눌러뒀던 감정을 자극해서인 것도 있고, 또 내가 아니라 란이 다쳐버렸다는 데에서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이미 퉁퉁 부어버린 얼굴이었지만, 부끄럽고 자시고 하는 생각 따위는 지금의 내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저는 괘, 괜찮, 괜찮은데 란이 딸꾹! 란이, 수, 숨을 안 쉬어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알아듣기 힘들게 말을 했지만, 류이는 그 말을 이해한 듯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자신의 이마를 짚었다. 내 옆에 서있는 루이스의 표정은 어쩐지 참담했다.

나는 그 이유를 몰랐다. 단지 란이 크게 다쳐서 그런 것이겠거니,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지금의 내게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할 여유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애원했다.

“저,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란이 죽어버렸다고요! 살릴 수 있죠? 란도 저를 살렸으니까, 제가 란을 살릴 방법도 있는 거겠죠?”

“아샤. 일단 진정하고”

류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주절거렸다.

“제가 대신 죽을게요. 아니, 원래 제가 죽어야 맞는 거잖아요. 흐어엉! 왜 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아니라, 란이”

“아샤.”

이번에는 루이스가 불러왔다. 여전히 비참한 얼굴을 한 그, 루이스가 나를 정면으로 바라봐왔다.

그리고는 말해왔다.

“이 남자는 란이 아니야.”

뭐?

“무, 무슨 뜻이에요?”

루이스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대체 무슨 이유에서? 어지럽던 머릿속이 냉수라도 끼얹은 듯 차분해졌다. 울음마저 멈췄다. 란이 아니라니, 그럼 누구라는 건데? 분명 나는 란이 나를 구하러 찾아온 것도, 끼고 있던 안경이 산산조각 나며 걸려있던 마법이 풀리는 것도 보았었지 않았나. 그런데 얘가 란이 아니라고?

내 앞에 누워있는 이 남자가 내가 알던 ‘란’이 아닌 다른 인물이라는 건가, 아니면 이름이 ‘란’이 아니라는 건가. 루이스의 중의적인 말에 나는 머릿속이 어지러워짐을 느꼈다.

전자는 좀 터무니없고. 후자인가? 설마 란이 자신의 이름이 노아라고 했던 게 사실인 거? 아니, 그래.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쳐. 그런데 그걸 지금의 루이스가 왜 알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엔 분명 나와 란밖에는 없었잖아!

“아디티의 3황자인”

“노아 이즈하라고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설마 싶어서 던져본 말에, 루이스가 놀란 눈빛으로 되물어온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나하 이즈하란 놈이 내게 사건의 전말을 모두 까발려줬다-라고 고백할 힘 같은 건 내겐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 인간, 원래 이름이 란이 아니었구나.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달도 더 된 기억 하나가 있었다. 내게 장미와 모란을 들이밀며 둘 중 어떤 꽃을 더 좋아하냐고 묻던 안경잡이의 얼굴이 말이다. 내가 그 때 모란을 골랐기에 이 노아라는 인간의 이름이 란이 된 걸까? 모르겠다. 내 과대해석인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황망한 눈을 소파 위로 향했다. 그 위에는 란, 아니 이제는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를 남자가 누워 있었다. 피범벅의 시체가 된 채로.

그래서 얘가 노아 이즈하라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란이, 아디티의 황자이자 노아라는 인물이라는 건가요?”

“응.”

“그래서요? 란이 란이 아닌 게 되나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나는 얼굴을 두 손바닥으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새어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꾹 앙다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거나 바로 앞에 누워있는 이 남자가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사람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 않은가.

갑자기 루이스가 저런 말을 하는 의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 귀에는 그저 ‘얘는 란이 아니라 노아 이즈하야.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어.’라는 말로만 들렸다. 그래서 슬피 울기 시작한 내 귀에

“일단 눈물 그쳐, 아샤.”

류이의 짐짓 단호한 목소리가 꽂혀왔다. 그가 내게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굽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나와 눈높이를 맞춰오며, 이리 말했다.

“바깥에서 대학 내부를 수색하던 프란치아 병사들을, 너도 이미 봤겠지?”

“네? 네.”

“일단 그 이유부터 말해줄게.”

그의 또박또박한 목소리에 다소 진정이 되는 느낌이었다. 얼굴을 덮었던 손바닥을 내리자,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류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코를 훌쩍이며 그를 올려다보자, 류이는 피가 묻어 엉망진창이 된 내 머리카락을 정돈해주며 말을 이었다.

“란의 숨이 끊어지는 바람에 대학 내에 그가 걸어뒀던 마법이 풀렸어.”

란이 걸어뒀던 마법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하자면, 마법 대학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상 마법을 건 거야. 아무래도 아카데미 때부터였던 것 같아. 루이스가 란과 함께 아카데미를 다녔었다고 했으니까.”

환상 마법이라면, 누군가의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이나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형시키는 마법이다. 누군가를 속일 때에 많이 쓰이는 마법으로 알고 있다.

그런 걸 란이 썼다고? 그것도 그렇게 대규모로? 믿을 수 없는 류이의 말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하고서 그를 쳐다보자, 이번에는 옆에서 루이스가 그를 거들었다.

“아카데미 당시 그의 이름은 란이 아니라 자칼이었어. 국적도 발루아라고 했었지. 나도 아샤, 네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내 기억이 바뀌었어. 아디티 출신의 ‘란’으로 말이야.”

“그, 그런 마법을 대학 사람들 전체한테 걸었다고요? 그런 게 가능해요?”

“아디티 황가 출신이라면 가능하지.”

류이가 퍽 골치 아프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저리 말한다. 나는 아직도 란과 루이스가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저 멍청한 표정으로 그 둘을 번갈아 올려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란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건가요?”

“문제는 이미 벌어졌어, 아샤.”

“무슨 문제가?”

“아디티가 프란치아에 전쟁을 선포하려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선포 사유가”

류이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말을 끊었다. 조금 답답하다는 듯 셔츠 앞섶을 헤쳐 풀던 그는, 한숨을 작게 내쉬더니 말을 이었다.

“레플리카 공작이 저지른 ‘아디티 황족 시해’건이야.”

상황은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류이와 루이스의 설명을 들어본 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전말은 이러했다.

오늘은 내가 이나하 이즈하를 만났던 날로부터 3일이 흐른 시점이었고, 란은 이미 딱딱하게 굳지만 않았을 뿐 심장이 뛰지 않는 시체가 되어 있었다. 왜 3일이 지날 동안 란과 나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한 것인지 의아해했는데, 이유는 란의 기숙사에 그가 개별적으로 걸어둔 방어막으로 인해 우리 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

더불어 야벨의 습격 이후 대학의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대학의 모든 건물은 폐쇄 조치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루이스로부터 란의 숨이 확실히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사실을 재확인 받은 나는 큰 충격을 받아 한 번 까무러쳤었지만,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정신을 차렸다. 그런 이후 듣고 싶든 듣기 싫든 이어지는 그들의 설명을 들어야만 했다.

루이스는 란, 그러니까 안경을 벗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디서 만났던 거냐고 내가 물었을 때,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14살일 때 레플리카 공작저에 그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 원래부터 내가 타겟이었던 건지 방을 잘못 찾아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아닌 나를 찾아왔었지. 하지만 내게 몇 가지 질문만 하고는 사라져버렸어.”

라고.

란이 왜 루이스를 해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루이스 본인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루이스에게 ‘살의를 느끼지 못했었나?’라고 류이가 물었는데, 루이스는 고개를 저었다. 란에게서 명백한 살의를 읽을 수 있었기에 본인은 그날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롭게도 란, 아니 아디티의 황자인 노아 이즈하는 루이스를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조용히 떠나버렸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스의 조수가 죽기 시작했다고.

루이스의 측근 다섯 명이 죽은 건 이나하의 소행이니까, 결론적으로 란이 죽인 목숨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죽인 목숨이 0이냐 다수냐 하는 것 따위가 아니었다.

란은 마법 아카데미 관계자들 전체에게 환상 마법을 걸어, 서류를 조작해 불법으로 아카데미에 입학했다고 한다. 가까운 위치에서 루이스를 감시하기 위해 숨어들었다는 것이 프란치아 측의 추측인 것 같았다.

마법이 걸려있는 안경으로 겉모습까지 위장해 아카데미 학생이 된 란은, 있는 듯 없는 듯 루이스의 곁을 맴돌았다고 한다. 루이스는 란과 말도 거의 섞어보지 않았지만, 늘 자신의 주변에는 그가 있었다고 말했다.

란이 왜 루이스의 곁을 맴돌았는지에 대해,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프란치아의 귀족들과 황실에서는 그 사실을 이미 확정짓고 있는 모양이었다. ‘루이스를 해치기 위해서’라고 말이다.

란이 숨지는 바람에 그가 걸어뒀던 환상 마법이 모두 깨졌고, 그렇기에 마법 대학 관계자들은 모두 란이 아디티의 황자인 노아 이즈하라는 걸 알게 되어버렸다. 자신에게 걸어둔 방어 마법이 모두 해제된 그의 정체를 알아내기란 추적 마법을 누워서 떡 먹는 일보다 쉽게 다루는 엘리트 마법사들에겐 아주 손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또, 이것도 아주 당연한 얘기겠지만, 프란치아 측 사람들은 레플리카 공작의 손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노아 이즈하가 레플리카 공작의 아들인 루이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의 가까이에 접근했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사실 이게 당연한 생각인 거다. 나였더라도 그렇게 믿었을 테니까.

이나하에게 모든 얘기를 들은 나는 란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주는 이는, 이 대학 내에 나를 믿어주는 두 명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란의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처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장례라도 치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눈물만을 주룩주룩 흘리며 연신 차가워진 그의 손만을 만지작거렸는데, 어째서인지 류이는 ‘장례를 치르기엔 이르다’라고만 했다. 그리고 진과 칸에게 그의 시체를 맡겼다.

그런 이후 지금의 우리들은 류이의 기숙사 중앙 소파에 앉아 현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일단 아디티 측의 주장은 이래. 루이스의 아버지인 도미닉 레플리카가 아디티의 황실 마법서에 수록된 마법을 무단으로 사용해 아샤, 네 목숨을 이용해 루이스를 지키려 했다는 거야. 기사의 맹세를 맺어서 말이야. 여기까진 이해가 되겠지?”

“제 목숨으로 기사의 맹세를 맺었다는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르는 것 같았는데. 사실 그 올곧은 성품을 지닌 루이스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가만히 있었을 리도 없고 말이다.

루이스를 향한 내 물음에, 그가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는 듯 자조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해왔다.

“나도 아샤, 네가 사라진 후에야 알았어. 야벨이 대학을 습격했던 날, 내게도 몇 명의 야벨들이 들이닥쳤었는데 나를 지켜주던 란이 말해주더라. 내가 죽으면 아샤가 죽는다고. 그제야 왜 그동안 내 조수들이 죽었는지에 대해 깨달았어. 너무 늦은 때였지만.”

아, 그래서 란이 루이스의 곁에 꼭 달라 붙어있었던 거구나. 비로소 대연회장에서 란이 보였던 행동들이 이해가 갔다.

“그랬군요.”

결국은 다 나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건가. 마음 속 한편이 찡해지면서도 텅 빈 듯 휑한 기분이 들어온다. 마치 중요한 나사 하나가 빠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다.

“그날, 야벨은 한동안 대학 학생들을 공격하다가 한 시간쯤이 지났을 때 갑자기 돌연 자취를 감췄어. 동시에 텔레포트로 다 사라져버린 거야. 나랑 싸우던 그 검은머리 녀석도 그랬고.”

“아, 그 남자이름이 마하랬어요. 류의 이름이죠?”

“맞아. 뭔가 기분 나쁘지만 아니라고 할 순 없겠네. 여하튼 상황이 진정되는가 싶었을 때, 아샤, 네가 진과 함께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 프란치아와 류의 병사들을 모조리 풀었는데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더라. 미안해, 아샤.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아, 아니에요! 어차피 그 때 텔레포트를 하지 않았어도 저는 납치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 보통내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류이는 그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왔다. 솔직히 류이 탓을 하는 게 이상하지. 나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준 사람인데 말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든 아니든, 류이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큰 죄책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다. 늘 자신감에 차있던 당당한 눈빛은 온데간데없이, 지금만큼은 꽤 힘없는 느낌의 검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봐오고 있었으니까.

류이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백 번 천 번 말해봐야 그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다. 매사에 완벽하게 살아오던 그였으니, 이번에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이자 오점이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갔기에, 나는 내 납치 건에 대한 얘기를 더는 꺼내지 않았다. 그러자, 류이는 자연스레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레플리카 공작은 현재 황성에 구금돼있는 상태야. 프란치아 황실에서는 레플리카 공작에게 큰 죄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인지 구금보다는 보호조치에 가깝게 데리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거나 기사의 맹세로 다른 이의 목숨을 함부로 희생시키는 건 불법이거든.”

“불법이라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레플리카 공작가의 지위는 프란치아에서 비할 데 없이 높잖아요.”

루이스의 눈치를 살피며 류이에게 물어보았다. 루이스는 어두운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류이나 루이스나, 둘 다 분위기가 너무 침울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닐 테지만.

“일단 처벌에 관해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 레플리카 공작이 기사의 맹세를 통해 다섯이나 되는 목숨을 희생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들도 원해서 그 맹세를 맺었을 거란 의견들이 분분하거든. 그러니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나도 몰라.”

“그, 그치만”

‘이전 조수들은 모르더라도, 저는 아니잖아요?’라고 따질 뻔했다. 하지만 루이스가 듣고 있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를 욕보일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입만 뻐끔거리다 이내 다물었다.

그런데 그런 내 반응을 눈치 챈 것인지, 루이스가 눈을 한 번 질끈 감았다. 그리고는 다시 떴다. 다시 뜬 그의 눈빛은 감기 이전보다 한층 굳건해보였다. 무언가 다짐이라도 한 사람처럼.

“아샤. 지금 프란치아와 아디티는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이야.”

“그, 그래요? 란이 죽은 것 때문에?”

“응. 아디티는 란이 내 조수인 너를 구하기 위해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죽음의 원인은 결국 너를 나대신 희생시키려 한 레플리카 공작의 잘못이라는 거야.”

“”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레플리카 공작이 조수들의 목숨으로 장난만 치지 않았더라도, 란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도 루이스의 조수가 되는 일 따윈 없었을 것이고.

그 대신 루이스가 죽었겠지만 말이다.

그런 생각은 묻어둔 채, 일단 나는 이어지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어보았다.

“아디티에서는 내 아버지가 훔친 아디티 황실의 마법서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더불어, 란의 시신도.”

“부당한 요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루이스에게 이런 대답을 하는 게 눈치가 보인다. 아무래도 그의 아버지와 레플리카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

“맞아. 정당한 요구야.”

하지만 루이스의 입에서 뜻밖인 대답이 돌아왔을 때, 나는 당황해야만 했다. 루이스는 무슨 생각인 거지?

“이대로라면 프란치아에서도 란이 내 조수를 죽였다는 것과, 야벨의 대학 습격을 명분으로 아디티에 전쟁을 선포할 거야. 그러면 무수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겠지. 16년 전처럼 말이야. 그 때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건, 나도 원치 않아.”

순간 그의 굳센 표정이 뭔가 내가 예상한 방향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예상이라는 것도 별로 대단한 건 없었지만, 적어도 그렇고 그런 방향은 아니었다.

머릿속에 ‘설마?’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루이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내가 결코 아닐 거라 믿었던, 그렇고 그런 쪽으로 말이다.

“아샤, 내 아버지가 네 목숨으로 나를 살리려 했어. 재판장에서 그 증인이 되어줬으면 해.”

여기서 그렇고 그런 방향이란 바로 패륜을 말함이었다.

“재, 재판장에서 증인이 되어 달라고요? 아니, 그 전에, 재판이라뇨? 무슨 재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물음에 루이스는 자신의 두 손을 맞잡은 채로 꼼지락거리며 잠시 대답할 말을 정리하는 듯 3초 정도 고민했다. 그러다가 이내 입을 열어 내게 답해왔다.

“보름 후에 프란치아 황궁에서 재판이 열릴 거야. 아디티 황실에서도 외교단을 파견할 거고. 노아 이즈하의 죽음에 내 아버지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를 판가름 짓게 될 텐데, 내 이전 조수들은 이미 다들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사의 맹세와 관련된 증언을 해줄 수 없어.”

“레플리카 공작이 무단으로 기사의 맹세를 걸었다는 걸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런 증언을 하게 되면?

빠르게 두뇌를 회전시켜보았다. 내가 레플리카 공작이 내 목숨으로 루이스에게 기사의 맹세를 걸었다는 걸 증언한다 치자. 레플리카 공작이 타인의 목숨을 함부로 이용했다는 걸 입증해버리는 꼴이다. 그런 마법은 불법이니, 레플리카 공작은 확실히 유죄를 받게 될 거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레플리카 공작이 훔친 마법서에 대한 내용은요?”

루이스의 말에는 이게 빠져있다. 아디티는 ‘레플리카 공작이 훔쳐간 아디티 황실 마법서도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했으니, 프란치아 측에서도 이미 레플리카 공작이 16년 전 그날에 마법서를 훔쳐 달아났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그럼, 프란치아 황실의 반응은 어떨까? 레플리카 공작이 아디티 황실 마법서를 훔쳤다는 사실을 과연 믿을까?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 ‘레플리카 공작이 마법서를 훔쳤다는 증거를 대보시오!’하면서.

내 물음에, 이어지는 루이스의 대답은 살짝 동문서답이었다.

“야벨 측에서 야벨의 수장이 노아 이즈하가 아닌, 제국 2황자인 이나하 이즈하라는 걸 밝혔어.”

“네? 그걸 밝혔다고요? 분명 동생을 위해 이름을 속인 거라 했”

었는데, 응? 잠깐만.

란, 아니 노아가 죽어서 그런 건가? 아니, 그 전에. 뭔가 이상하잖아. 이나하는 분명 란이 살아있는 모습을 본 후에 텔레포트로 사라졌었는데, 자신의 동생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저기, 루이스 님. 그 사람이 노아가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분명 란이 죽은 건 그와 만난 이후였을 텐데요?”

“내가 전서구를 보내 연락했어.”

“뭐라고요?”

루이스의 입에서 나온 대답에, 나는 소파에서 붕 뛰어오르듯이 놀랐다. 루이스가 연락을 했다고? 누구한테? 이나하한테!

“여, 연락을 왜요? 언제요? 무슨 이유로요?”

“란의 숨이 끊어지고 나서 그의 정체를 알게 되자마자 바로. 야벨의 수장이 노아 이즈하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 측근일 거라 생각했어.”

“츠, 측근은 확실한 측근이네요. 형이니까”

그런데 대체 그에게 무슨 연락을 취했다는 걸까?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이어지는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았다.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나는 노아 이즈하를 만난 적이 있어. 그들이 왜 내 아버지를 비롯해 나까지도 증오하는지 그 이유 또한 잘 알아.”

“”

“내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은 명백한 죄야. 잘못이고 과오지.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바로잡을 마음이 없으시다면, 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인 레플리카 공작은 옆으로 걷더라도 루이스는 앞을 향해 걷겠다는 건가. 훌륭한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는 건?

“나는 이나하 이즈하에게 노아 이즈하의 목숨이 끊어졌다는 걸 알렸어.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답신이 왔는데, 나와 레플리카 가문, 그리고 프란치아를 없애버리겠다는 내용이었어.”

“아, 그 인간이라면 그럴 만도 해요.”

어디 프란치아만 없애겠어? 아디티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설쳐대도 이상하지 않을 인간이다.

“란이 모두에게 걸어둔 마법이 풀린 이후부터 프란치아 황실의 병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찾으려 들고 있으니까, 아마 란의 행방을 찾게 되면 쉽게 놓아주지 않겠지. 이나하 이즈하도 그걸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 그런 답신을 보냈던 것일 테고. 그래서 나는 다시 그에게 전서구를 보냈어.”

“뭐라고 보냈는데요?”

“노아 이즈하의 시체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되찾고 싶다면 보름 후에 열릴 국제 재판에 참석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이야.”

“증인이요?”

“5년 전, 레플리카 공작을 두 번 죽였던 것에 대해서.”

“!”

저, 저건 또 무슨 얘기란 말인가. 이나하 이즈하에게 그걸 증언해달라고 했다고? 어째서지?

내 멍청한 뇌는 루이스가 하는 얘기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 헐떡이고 있는 뇌 놈이었기에, 지금 루이스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는 어려운 얘기들이 단번에 이해가 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일 거다.

침착하게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이나하 이즈하에게 살인을 증언해 달라 했다고?

왜?

“왜요? 이나하 이즈하가 그런 증언을 왜 해줘요? 아디티에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레플리카 공작이 아디티 황실의 마법서를 훔쳤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

“그 그래요?”

“프란치아 황실은 ‘레플리카 공작은 마법서를 훔치지 않았다’라고 변론할 생각이야. 그 변론을 깨려면 5년 전 침입 사건의 당사자인 이나하 이즈하의 증언이 제일 좋겠지.”

“하지만 그럼 살인죄를 덮어쓰게 되진 않을까요? 이나하 이즈하 말이에요.”

“그렇게 치자면 레플리카 공작이 아디티 황제를 죽인 것도 살인죄로 잡혀 들어가야 정상이야, 아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옆에서 류이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렇다 쳐도, 맞은편에 앉아있는 루이스도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패륜아스럽다고 느껴졌다.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착한 패륜이라는 게 반전이지만 말이다.

“그럼, 보름 후에 있을 재판에서 레플리카 공작이 유죄가 되면요?”“작위를 박탈당하겠지.”

“그럼, 평민이 되는 건가요!”

“아마도.”

루이스는 무덤덤하게 저런 대답을 늘어놓는다. 더없이 높은 신분이던 레플리카 공작, 즉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는 평민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리도 무심시크할 수 있는 것인가? 나라면 아닐 텐데. 사업으로 잘 살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쫄딱 망해 빚더미에 앉은 급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저리 담담할 수 있는 걸까? 그런 그가 이해가 되지 않아, 나는 넌지시 루이스의 심정을 떠보았다.

“슬프지 않아요, 루이스 님? 이제 레플리카 공작가가 공작가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응? 아, 그건 걱정 없어.”

내 물음에, 루이스가 고개를 저으며 답해왔다.

“공작위는 내가 물려받게 될 테니까.”

라고

“”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왕위를 계승중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잇는, ‘공작위를 계승중입니다, 아버지’의 재림이다. 루이스의 충격 고백을 들은 이후, 우리들은 얘기를 멈추고 잠시 머리를 식힐 시간을 가졌다. 사실 멈췄다기보다는 이미 할 만한 얘기는 다 했다고 봐야 옳은 것 같다.

말이 머리를 식힐 시간이지, 나는 루이스에게 들었던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느라 딱히 식히지도 못했다. 루이스의 말을 정리해본 바, 내 뇌가 추려낸 정보들은 이러했다.

란이 죽고 그의 비밀이 드러나자 루이스는 이나하에게 연락을 취했고, 증인이 되어 달라 했다. 이나하는 그 제안을 오케이 했고, 더불어 아디티로 돌아가 프란치아에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요구하는 바는 ‘란의 시체와 마법서를 돌려줄 것.’ 루이스에게서 란의 신병을 확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아 황실에 란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아디티가 만약 프란치아를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적절한 명분을 차리기 위함이라고 한다―라고 류이가 설명해줬다―. 까놓고 말해 이나하는 프란치아와 전쟁을 치를 준비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

이전에 발렸던 전적이 있는 프란치아는 아디티와 전쟁을 기피하고 싶어 하니까, 되도록이면 아디티와 큰 마찰을 빚지 않으려 할 거라 한다. 16년 전 아디티와 전쟁을 치렀던 호전적인 프란치아 황제가 여전히 집권 중이었더라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현 프란치아 황제는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에서 레플리카 공작의 유죄를 입증하고, 레플리카 공작이 훔쳐간 아디티의 마법서를 이나하에게 돌려준다면 서로 윈윈이라는 것. 그리고 루이스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 그것이 루이스와 이나하가 맺은 거래라고 한다.

이나하는 그렇다 쳐도, 루이스는 뭘 가지기에 윈윈이냐고? 그야 공작위라고 하면 너무 패륜아 같으니까, 이하 생략.

류이는 이번 일로 인해 국제적으로 시끄러워지는 바람에 이래저래 바쁜 모양이고, 루이스는 자기 아버지의 일이다 보니 재판 문제로 인해 불려갈 데가 많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 둘은 류이의 기숙사 방에서 나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방 안에는

“어이, 란.”

나와 란의 시체뿐이었다.

내 요청으로 진과 칸이 다시 란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오긴 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마지막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왜 루이스가 류이의 기숙사로 나와 란을 데리고 텔레포트 한 것인지 궁금해 했었는데, 류이가 말했다. 프란치아 병사들의 눈을 피해 란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은 류 제국 황자의 숙소인 이곳뿐이라고.

모든 기숙사가 폐쇄되고 수업은 휴강되어, 모든 학생과 조수들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마리도 아마 한동안 블러셔 남작저로 내려가 있을 테지. 쉽게 말해, 지금 이 학교에 있는 학생과 조수는 나와 루이스와 류이, 그리고 죽어버린 란 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이상한 장르 같다. 자꾸 죽었다고 표현하자니까, 마치 내가 시체를 붙들고 놓아주지 못하는 미친 여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인데.

“멍청아, 일어나.”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정말 미치긴 미쳤나 보다. 숨도 쉬지 않는 란의 시체에다 대고 말을 걸고 있으니 말이야.

소파에 폭 엎드리며 그 위에 누워있는 란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이렇게 잘생긴 인간이었다니, 미처 몰랐다. 마법으로 늘 꽁꽁 가리고 다녔었으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안경을 벗어 마법이 풀린 란의 얼굴은 정말이지 아름다웠다. 핏기하나 없이 창백하디창백한 시체가 된 상태임에도 마치 밀랍인형처럼 빚은 듯 조각 같이 아름답다. 사람이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걸까? 싶을 만큼.

일전에 란이 내게 했던 농담이 떠오른다. ‘내 어머니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했었는데’라는 식으로 말했었던가. 그 때에는 이놈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다. 란의 어머니는 굉장히 솔직하고, 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일 거다. 란은 정말로 잘생겼으니까.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해도 꿀릴 수 없을 만큼 얼굴에서 빛이 나는 외모였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는다. 그는 죽어버렸기에.

“란. 네가 진짜 노아야?”

대답하지 않으리란 걸 알면서도, 한 번 말을 건네 보았다.

죽은 사람을 왜 화장하지 않고 붙들고 있냐고? 그러게. 나도 그 이유가 궁금하다. 류이와 루이스는 ‘그 녀석은 죽지 않아’정도로만 내게 설명해줬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잖아. 게다가 ‘죽지 않아’라니. 란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숨조차 쉬지 않는데, 뭐가 안 죽는다는 거야.

나 때문에 죽었다. 란이, 그 안경잡이가 말이다. 얄미운 짓과 말만 골라했을지언정, 죽길 바라진 않았는데. 아니, 그런 걸 바라긴커녕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나름 가까워졌다고,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퍽 괜찮은 사이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일까, 란이 나대신 죽게 되어버린 것은.

“차라리 가까워지지 말 걸 그랬어.”

이 방 안에 진과 칸을 비롯한 호위 기사들 몇몇이 은신한 채 나를 지켜보고 있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만큼 나는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란의 차가워진 손만을 만지작거리고 있자니,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은신을 풀며 등장했다누구?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그곳에는.

“저기, 아샤 님.”

“어, 제이?”

제이가 있었다. 진과 칸이 아닌 제이라니, 지금 곁에 그 둘은 없는 모양이다. 있었다면 제이보다 먼저 등장해서 내게 말을 걸어왔을 것 같으니 말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은신을 푼 걸까? 그를 올려다보며 여전히 란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채로 고개를 갸웃거려보였더니, 제이가 내가 잡고 있는 란의 손을 흘끔 쳐다보았다. 뭐지, 저 반응은.

“혹시, 이분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웬 뜬금포 질문이에요?”

나를 당황시키려고 던진 질문인가? 좋아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인간이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러고 있는 건데. 나대신 희생해버려 시체가 된 사람을 덩그러니 던져둘 수는 없는 거잖아. 적어도 화장하기 전까진 뭐라도 해야

“그게,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당연히 아프죠. 저 때문에 죽었는데, 당연히 미안하고 아파해야 사람이죠. 아니면 너무 양심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황자님께도 미안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갑자기 제이가 저런 질문을 툭 던져왔다. 류이에게도 미안해하고 있냐고? 류이가 죽었던가? 지금 내 눈앞에 누워있는 인물이 란이 아니라 알고 보니 류이였다던가, 그런 미친 우주종말급 반전이 있는 것도 절대 아닐 테고. 갑자기 저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아, 혹시!

“화, 황자님이 어딜 다치셨나요?”

“눈치가 정말 없으시네요.”

내 물음에 제이가 저런 대답을 늘어놓았다. 이제는 눈치가 없다고? 제이가 나한테 저런 말들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류이에게 미안해해야 한다니, 내가 뭘? 내가 류이를 다치게 했나? 나는 잘 모르겠

“아샤 님, 아샤 님이 누워계신 이 란이라는 남자 분을 좋아하는 건 잘 알겠습니다만”

“?”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황자님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아해주시지 않을 거라면 이용이라도 하지 말아달란 말이에요.”

제이는 의미심장한 저런 말을 털어놨다. 제이의 말만 듣자면 내가 류이에게 큰 잘못을 지은 사람 같은데, 나로서는 짐작 가는 바가 개미가 똥구멍으로 싼 토끼 똥만큼도 없었다.

이번 사건 때 내가 류이에게 잘못한 게 있던가? 혹시 류이가 나를 도와준 것들? 류 제국 병사들을 불러들여 나를 지키려 한 모든 행동들? 그런 게 문제인 건가? 그런 것들이 내가 류이를 이용했다는 거야?

아, 아닌가?

“?”

그저 멍청한 얼굴로 고개만 마냥 갸웃거리고 있자니, 제이가 퍽 섭섭하다는 표정을 하고서 내게 이런 말을 해왔다.

“황자님, 이번 전투 때 독 마법에 당하셨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시는데, 아마 엄청 아프실 겁니다. 몸 속 세포를 태우는 독이니까. 같은 류 제국 인간이 특수 제작한 마법인 모양인데, 저희 치료반의 마법으로는 완치가 안 돼요.”

“예?”

뭐, 뭐라고? 류이가 다쳐?

진심인 걸까, 아니면 나를 떠보는 걸까. 진과 마찬가지로 장난기가 많은 제이이기에, 내가 란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오해하고서 저런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일순 해보았다.

하지만 아닌 것 같다. 제이는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봐오고 있었고, 나는 함께 보내왔던 지난날들―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동안 제이가 저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할 때엔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깨우친 사람이었다.

저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마하라는 검은 머리의 야벨 멤버와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실력이 보통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황자님께서 당하실 줄은 저희도 예상 못했긴 하지만”

제이는 뜸을 들인다. 이어지는 말이 왠지 나를 겨냥한 비수일 것 같다는 예감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는다더니,

“황자님께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희생하셨는데, 아샤 님께서는 황자님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잖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 제이.”

그의 말을 들은 나는, 큰 충격에 휩싸임과 동시에 란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란이 누워있는 소파 앞에 처량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있던 것을 그만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류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래, 개미가 똥구멍으로 뀐 방귀의 입자만큼도 안 했었던 것 같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에게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애써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히려 류이가 내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었지 않은가. 사실 따지고 보면, 류 제국의 황자인 류이가 나 같은 타국의 일개 천민을 지켜줘야 할 의무 따위는 그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다.

핑계라고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 사실은 핑계다. 정신이 없었다는 건 모두 핑계고, 나는 나만의 슬픔에 빠져 있느라 주변의 인물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그저 죽어버린 란을 붙잡고 울기만 하는 나를 바라보며, 몸속 세포가 타들어가고 있는 류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블러셔 남작저로 돌아간 마리는? 대연회장이 습격당할 때부터 자취를 감춰버린 아도라는?

모든 걸 잊고 있었다. 아무리 란의 죽음이라는 폭풍우가 휘몰아쳤다지만, 많은 이들에게서 도움을 받은 내가 그러면 안 됐다. 게다가 그 폭풍우는 내게만 닥쳐온 재앙인 것도 아니지 않은가. 상황은 달랐을지언정 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하는 사실은 모두에게 공평한데, 나 혼자만 슬픔에 빠져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구나. 이기적이게도 말이다.

“미안해요. 면목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샤 님께 면박을 주려던 게 아니라, 단지 황자님을 보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아니다. 그냥 방금 한 말은 잊어주십시오, 아샤 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많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제이가 우물쭈물하며 변명하려다 말고 사과를 건네 온다. 하지만 그의 말에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제이의 말은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큰소리를 낼 권리 따위는 없는 것 같다. 제이가 내게 사과할 이유도 없고 말이다.

방금 한 말은 잊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저런 중요한 얘기를 잊어버리면 누가 류이를 챙긴단 말인가. 물론 챙길 사람이야 많겠지만, 그래도 현 조수된 입장으로서 못들은 체할 수는 없는 거다.

“황자님이 다쳤다는 말, 진짜죠?”

“물론입니다.”

“대체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황자님, 강하시잖아요. 어지간한 마법사들도 다 때려잡으시던데”

“사실 그건 저희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강했어도, 그래서 더 잘 싸웠더라면 황자님께서는 다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희를 감싸시려다 그렇게 된 겁니다.”

“?”

그러면서 내 탓을?

아니지. 이런 상황에 쓸모없는 드립이나 치려는 내 드립세포 녀석을 살살 달래어 내 뇌 깊숙한 곳에 봉인해두었다. 너는 잠시 푹 겨울잠자고 있으렴.

어쨌거나 류이는 내가 아니었더라면 이번 대연회장 습격 때 야벨과 싸우게 될 일도 없었을 테니, 따지고 보면 그가 다친 건 내 잘못인 게 맞다.

게다가 제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류이는 지금 엄청 아픈 상태라는 거잖아. 몸속 세포가 타들어가는 고통이라니, 상상도 가지 않는다. 인간의 고통 중에 제일 아픈 고통이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이라는데, 하물며 몸속 세포라면 그와 비슷하거나 더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금 내가 세상에서 제일가는 민폐덩어리 폐급 쓰레기가 된 것 같다는 자괴감을 느끼며,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분명 태어날 적만 해도 신분이 천민인 것 외에는 이번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한 달 만에 내게 다른 큰 문제들이 생겨버렸다. 예를 들어 류이라던가, 란이라던가 하는 내가 범접할 수도 없는 신분의 인간들에게 크나큰 폐를 끼쳐버린 것

다들 나를 위해서 다치거나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있는 게 대체 무슨 의미지? 나는 염세적인 생각을 즐겨 하는 인간이 아니었는데,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하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는데, 신인들 알까? 신에게 물어보고 싶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내 주변 인물들만 아파야 하냐고. 이쯤 되면 내가 저주받은 인물인 게 아니냐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걸 따진들 지금 상황의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겠지. 잡생각을 떨치고서 막막한 현실을 다시금 직시했다.

“잘 알겠어요. 그럼 그 독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나요? 아직 치료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시전자에게 직접 해제 방법을 알아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방금은 좀 부풀려 말한 거고, 황자님께서 스스로 매일 진통 마법을 걸고 있어서 많이 고통스럽진 않을 겁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만 아프겠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부터가 많이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마하라는 사람에게서 해제 방법을 알아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고통은 둘째 치고, 류 제국 사람들에겐 근육 세포 하나하나가 귀중한 자산과 같아요. 그런데 몸속 세포가 타들어간다는 건, 몸의 건강도 망치고 더불어 힘도 약해져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빠, 빨리 치료해야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심각한 정보를 제일 늦게 말해주는 제이의 머릿속을 한 번 해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해야 할 일은 제이의 머릿속을 해부해보는 수술을 집도하는 게 아닌, 독 마법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류이의 치료였다. 내가 치료에 보탬이나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내가 건사해야 할 사람이 둘이나 있구나. 옆을 흘끔 돌아보았다. 여전히 소파 위에는 싸늘히 식어버린 란이 누워있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3일하고도 반나절이 지났지만 썩긴커녕 숨만 안 쉬는 사람처럼 누워있는 그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거다.

가사상태가 아니라 정말 죽었다. 정말 숨이 끊어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란의 시체는 하나도 썩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그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루이스와 류이가 화장을 미루는 까닭은 아무래도 이나하와의 거래 때문인 거겠지만, 나는 다른 이유에서였다.

정말로 죽었을까? 그 나를 골려먹는 재미로 살던 안경잡이 란이, 진짜로 나를 구하다가 죽었다고?

그런 건 막장 소설 속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스토리 같은데. 루이스도 아니고, 류이도 아닌 란이 나를 위해서 그런 짓을 벌이다니. 대체 언제부터 그에게 나란 존재가 목숨을 희생해 지켜주고 싶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어있었던 걸까.

란이 내 입술에 입을 맞춰왔던 그 때가 떠오른다. 마법을 건 구슬을 삼키게 하려고 저지른 짓이라 쳐도, 그 이후에 했던 말은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은가.

란이 내게 했던 그 말들이 모두 사실일까?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던 그 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진실이었던 걸까? 그래서 나를 구한 걸까?아아, 모르겠다.

그런 거라면,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대신 희생해 죽게 만든 몹시 나쁜 여자가 아닌가. 그게 내 의지든, 아니든 간에 말이다.

“제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이.”

란을 쳐다보다 말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었다. 눈물이 고이려는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이며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싶은 마음을 달래보는데, 그런 나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이가 말해왔다.

“맞습니다.”

라고.

고이던 눈물도 멈췄다. 뭐야, 저 괘씸한 대답은.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레플리카 공작이 발단이라지만, 류이와 란이 이렇게 된 건 모두 나 때문이다. 내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었더라면 류이와 란이 이 일에 개입할 일도 없었을 테니 말이다.

씁쓸함을 삼키며 손바닥을 내렸다. 그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게 아마 나를 지켜준 란도 바라는 일일 거다.

“역시 산 사람은 살아야겠죠?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기운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제이에게 쾌활한 목소리를 내어 말해주고, 나는 류이의 기숙사를 나가기 위해 문 쪽으로 뛰듯이 빨리 걷기 시작했다. 란은 돌이킬 수 없다 쳐도, 류이는 아직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겠는가. 일단 그의 치료가 급선무라고 생각해 방을 빠져나가려던 내게

제이가 갑자기 이런 물음을 던져왔다. 마치 ‘잠깐만요!’하듯이.

“그래서, 누굴 좋아하시는 겁니까!”

저건 또 무슨 멍멍이 소리란 말인가? 기숙사 문 코앞까지 다가온 내가 문손잡이를 잡은 채 퍽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류이가 다쳤다는 걸 알릴 때만큼이나 진지한 얼굴로 나를 쳐다봐오는 그가 서있었다.

누굴 좋아하냐니, 저게 뭔 개떡 같은 질문이야?

“좋아하냐니, 뭘요?”

“저희 황자님이랑, 여기 누워계신 란이라는 분 중에서 누굴 좋아하시는 거냐고요.”

“?”

“아, 그리고 레플리카 영랑까지 포함해서요. 대체 아샤 님은 누구한테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제이 놈이 꽤 앙칼지게 내게 물어온다. 저게 질문인지 따지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말이다. 갑자기 저런 뜬금포 터지는 질문은 왜 하는 거지? 류이가 다칠 때 제이는 머리를 크게 다치기라도 한 걸까?

류 제국 황자와 아디티의 황자, 공작가의 영랑 중에서 천민인 아샤가 좋아하긴 누굴 좋아해? 신분 차이부터가 넘사벽인데, 그런 감정이 어디 가당키나 해? 제이는 비현실적인 소설 같은 거라도 많이 본 건가? 이 세계에 그런 소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제가 뭐라고 그분들을 좋아해요? 게다가 란은 이미 죽었잖아요!”

제이의 무례한 질문에 꽥! 소리 질러 대꾸하자, 갑자기 제이가 입술을 삐쭉 내민다. 내 또래 놈 아니랄까봐 철이 덜 든 모양인지, 사소한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어린애 같다. 진과 칸이 오히려 어른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말이다.

내 대답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듯, 제이는 내게 이렇게 큰소리치듯 말해왔다.

“아디티 황자가 왜 죽습니까! 아디티 황실 사람들은 안 죽거든요?”

라고

응? 잠깐. 뭐, 뭐라고!

“아디티 황실 식구들은 안 죽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잡았던 문손잡이를 놓으며 팔짝 뛰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통으로 천장을 들이 박아버릴 기세로 깜짝 놀랐다. 마치 제이의 말이 ‘짜잔- 서프라이즈!’하는 느낌으로 들렸기 때문.

란, 아니, 아디티 황자인 노아 이즈하는 이미 죽었는데, 제이는 그런 그의 시체를 바로 옆에 두고서 안 죽는단다. 저게 무슨 귀신이 씨나락 까먹다 빠삐코 댄스를 추는 소리란 말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당해하는 내게, 제이가 말해온다. 진짜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나였기에 도리어 제이는 놀라버린 눈치였다. ‘설마 그걸 몰랐다고?’하는 느낌으로다가.

“아디티 황가 사람들은 한 번으로는 안 죽습니다. 모르셨어요?”

“하, 한 번으로는 안 죽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디티의 성소에서 아디티 황실에 내려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불사(不死)입니다. 이 행성 모든 나라 중에서 아디티 황실만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이고요. 아디티의 황제는 죽지 않아요. 그 외 황실 사람들은 한 번의 죽음만을 무효화시킬 수 있고요. 프란치아가 아디티의 성소를 쳐들어간 이유도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 텐데요? 다들 쉬쉬하고 있긴 하지만, 황실 관계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류도 그렇고.”

“부, 부활이라고요? 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사기잖아!”

메르시냐!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

“여기 있잖습니까. 류 제국에도 류 신전이라고 있어요. 불사의 축복은 내려주지 않지만, 역사의 축복을 대신 류 황가에 내려주곤 합니다. 그걸 몰랐다고요?”

“! 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하긴. 평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이가 손뼉을 짝! 하고 치며 ‘아하-’하는 감탄사를 내뱉는다.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나는 그런 제이의 양 뺨에다 내 손바닥을 후려쳐 손뼉을 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윽! 차, 참자. 참아야 하느니라.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제이가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일까? 딱히 거짓말일 것 같지는 않다. 제이가 무슨 이유로 내게 그런 거짓말을 하겠는가. 게다가 결정적으로, 제이는 남을 속이기 위해 무언가를 거짓으로 꾸며 떠들어댈 만큼 머리가 좋지 못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바로바로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단세포과였으므로 말이다.

그런 녀석이 한 말이니까 그, 그렇다면!

“란이 안 죽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죽었는데! 소파 위에 누워있는 란의 시체를 가리키며 내가 묻는 말에, 제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 그리고는 대답해오길,

“지금은 죽었는데, 한 달 이내로 부활할 겁니다. 아디티 황족이 맞다면 말이에요. 다친 몸속의 세포들을 자가 치유하느라 바로 깨어나지 못하는 건데, 상처가 클수록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아니, 무슨 그런”

사기 스킬이 다 있어? 라고 중얼거리려다, 문득 이 세계에서 난 놈들이 써대던 마법에 대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카데미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상 마법을 걸어 자신의 신분을 속인다던가, 마법 경합 때 모든 경쟁자들을 주먹만으로 톡톡 때리며 가뿐하게 1위를 쟁취해버린다던가, 몬스터의 신체에서 떼어난 재료들을 혼합해 미래를 알아내는 비약을 만든다든가

그래, 생각해보니 이 세계의 마법이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었었다. 사람의 뇌 속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변신 마법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다친 부위도 마법으로 치료하는 판에 부활하는 마법인들 없겠는가. 아니, 없는 게 더 이상하겠다. 이런 미친?

“그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빼액! 제이에게 고래 소리 지르자, 그가 깜짝 놀라며 나를 동그란 눈으로 쳐다봐온다. 그리고는 되레 따지고 들기를

“그걸 모르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걸 뭐라 하실 거면 레플리카 영랑이나 저희 황자님을 찾아가셔야죠! 두 분이서 아샤 님께 별다른 설명을 안 해주시기에, 저는 아샤 님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슬퍼하시는 줄”

라고 했다. 여기까지만 듣고 나는 제이의 말을 냉큼 끊어버렸다. 이 괘씸한 자식이!

“지금 황자님 탓하는 거예요! 불경죄 몰라요? 불.경.죄!?”

“앗, 아니 그게 아니라!”

제이가 후다닥 말을 정정할 말을 찾는 듯 ‘으음, 그 그게!’라고 주절거리는데, 나는 그런 제이를 뒤로하고서 기숙사 문손잡이를 잡았다. 이런 쓸데없는 대화나 더 주고받느니, 아디티 황족에 대한 책이나 류이에게 걸린 독 마법을 치료하는 법을 알아보는 게 더 영양가 있겠어. 도서관으로 갈 거야!

“따라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나는 제이에게 못 박듯 말하고서 기숙사를 빠져나온 후, 시위하듯 문을 쾅 소리나게 닫았다. 제이는 따라나오지 않았다. 덕분에 잠시 그 문에 기대어 설 수 있었다. 잠시 그러고 서있던 나는, 그에 대한 생각을 했다. 란 말이다.

란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 진짜일까?

“혹시, 꿈?”

중얼거려본 한마디가 왠지 신빙성이 있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볼을 꼬집어보자.

꼬집악! 아프잖아? 꿈이 아니라 실제상황이라는 건가? 예능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것?

세상에.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란이 정말 죽어버린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니 뭐랄까 표현하기 힘든 벅찬 마음이 들어온다. 기쁜 걸까? 그래, 아마도 기쁜 것 같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얼굴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어온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란이 죽지 않았다. 내가 그를 죽인 게 아니다. 나는 살인범이 아니 앗, 너무 속물적인 생각이었다.

란이 죽지 않았어. 그가 진짜로 죽어버린 게 아니라고 한다.

“”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다.

내겐 아직 류이의 몸속에 걸려 있는 독 마법이라는 두 번째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가장 골치 아팠던 조별과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버린 느낌. 마치 그런 기분이 들어왔다.

이제 더는 죽을 걱정이 없으니 호위도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서 도서관까지 따라와 ‘그래도 호위는 있어야 합니다, 아샤 님!’이라고 주장하는 제이 및 몇몇 류 제국 기사들을 떨쳐내고서, 나는 하루 종일을 도서관에 박혀 있었다. 가만 보면 얘들은 자기네들의 본분이 제국 황자 호위인지 천민 호위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기도.

독 마법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 동안 오며가며 소식통이 되어준 제이 덕분에, 나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일단 마리. 마리는 블러셔 남작저로 내려갔다고 한다. 습격 다음 날 내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것을 진이 대신 읽고 편지를 보관해두려다가 홀라당 잃어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은 이미 진이 다 외워서 제이에게 전해준 모양인지, 그가 마리에 대한 얘기를 빠짐없이 해주었다.

마리는 습격 당일, 이디아 조지아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대연회장을 탈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녀와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었는데, 그 직후 기숙사 폐쇄와 휴강 소식을 들은 부모님 손에 붙들려 남작저로 돌아갔다고. 게다가 야벨의 손에 내가 붙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밤잠도 못 이룬 채 내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했다.

혹시 생명에 지장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또는 무사해달라는 내용만으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는 제이의 표현을 듣긴 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만, 아마도 사실일 것 같다. 마리라면 그런 편지를 쓰고도 남을 것 같달까. 그 편지를 읽었던 진이 마리에게 나대신 무사하다는 답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과연 뭐라고 보냈을지는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어쨌거나 마리는 부모님이 워낙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자식이다 보니, 강의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남작저에 감금되다시피 붙들려있을 것 같다고 한다.

아도라는 자취를 감췄다. 그녀 스스로 감췄다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감춰져버린 것 같다. 제이가 말해주길 아도라는 아디티 측에서 보호 중이라고 했다. 그 아디티 측이라는 게 대체 어느 인물을 뜻하는 것인지는 나도 모르고 제이도 모르지만, 그는 분명 아도라가 무사할 거라고 했다. 나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녀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기로 했다. 솔직히 같은 나라 출신인 이나하가 아도라를 공격할 이유도 없을 테니 말이다.

루이스는 재판 준비를 위해 바쁘다. 레플리카 공작의 통수를 치려는 작전은 아직 그의 주변인들 중 아무도 모르는 눈치라고 한다. 레플리카 공작조차 루이스가 자신의 변호를 도와줄 거라 믿고 있다 하니 말이다.

류이는 류 제국 황자이다 보니 제 3자와도 같은 입장이라 이번 재판과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이번 사건이 외교적인 문제로 번진 데다가 마법 대학에 재학 중이던 그가 아디티 출신인 야벨에게 공격을 당했으므로 상관이 아예 없지만도 않다고.

프란치아와 레플리카 공작은 아주 당연하게도 류이가 레플리카 공작의 편을 들 거라 생각하고 있다 한다. 그가 아디티 출신에게 공격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다. 류이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굳이 누구 쪽에 더 가깝냐고 묻는다면, 프란치아나 레플리카 공작보다는 란이나 루이스의 편이라고나 할까?

다른 건 몰라도, 동료애나 우정이 아주 두터운 남자라고 알고 있다. 내가 지켜본 바도 그랬고. 실리보다는 의리를 추구하는 인물이니, 한 살 어린 건방진 동생 란이든 마법 이외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루이스든 도와주려 할 것이다. 아마도.

“그렇다면”

역시 내게 주어진 문제는 단 하나, 류이의 치료 문제다.

왜 류이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느냐는 제이의 따끔한 한마디에 ‘아차!’하는 깨달음을 얻었긴 하지만, 아직 나는 류이를 만나지 못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그를 찾아 나서지 않고 있었다. 세 번째, 찾아 나서지 않는 그 이유는 얼굴을 마주 보기가 껄끄러워서.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마주보며 대화까지 나눴으면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얼굴 보기가 좀 그렇다는 이 말이 모순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정말로 그런 상태였다.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게.

내가 의문을 느껴서일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류이가 아샤를 도와준 건 사실이라지만,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인데. 아샤가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나?’라고. 솔직히 그 말 또한 틀린 소리는 아니다. 내가 비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다. 나는 단 한 번도 류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

모든 류의 지원은 류이로부터 나왔고, 그런 일을 행한 류이에게 나는 정작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 류이의 자발적 도움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류이에게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 나를 도와준 건 고맙다. 하지만 거기까지지, 그 이상으로 내가 그에게 절절매며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제이는 내게 도를 넘은 참견을 했고, 또 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다 맞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 내가 류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게 맞지만, 그 이상을 넘어 그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다.

라고는 생각하지만, 내 뇌와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어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그에게 한없이 미안해 어떻게 얼굴을 봐야할지조차 모르겠다.

“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한 거야, 그 자식은”

설상가상으로 제이의 영문 모를 질문까지도 떠올라, 나는 책상 위에 펼쳐준 책 위로 고개를 확 숙여버렸다. 그리고 책 위에 얼굴을 파묻은 채 생각에 잠겼다.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건 그렇다 쳐. 누구를 좋아하냐고? 대체 그런 건 왜 물은 걸까? 내 마음을 갖고 놀려는 건가? 아니면 ‘천민의 눈에는 어떤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나’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라도 하려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는데. 애초에 그런 질문을 던질 만큼 제이가 못되고 짓궂은 인물도 아니고 말이다. 이 모두 정답이 아니라면, 대체 그가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답을 모르겠다.

혹시 류이가 나를

“아,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자, 아샤야.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아니다. 전생의 개념으로 치자면 영국 왕실의 후계자가 대한민국에서 구두닦이하며 간신히 밥 빌어먹고 사는 가난한 여자애를 좋아한다는 수준의 전개가 아니겠는가. 이런 전개가 펼쳐지는 소설이나 만화라면 작가가 미쳤다고 말하는 걸로도 모자라다. 작가의 머리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고 욕해도 싸다는 것이다. 어디 말이 되는 전개여야지 말이야. 현실성은 아주 개나 줘버렸잖아?

하지만 나는 왜 그런 개나 줘버린 현실성의 전개가 현실성 있게 느껴지는 걸까? 아니, 대체 왜지?

“류이”

그의 이름을 중얼거려보며, 나는 책 위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책 위에 발그레해진 뺨을 올려 엎드린 채로 멍하니 오후의 햇살이 들이치는 창가를 쳐다보다가, 문득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류이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지 않은가. 그에게 있어 나는 단지 타국의 불쌍한 천민 계집 정도일 뿐이고, 그는 그런 인물을 쉬이 지나치지 못하는 넓고 따스한 인품을 지녔을 뿐인 것을 아니, 잠깐.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영애들에게 그렇게나 욕을 잘 하는 걸 보면 따스한 인품을 지녀서가 이유일 리 없 아, 아니다. 그냥 이런 생각 자체를 접자. 말이 안 되는 생각을 계속 해서 뭐하겠는가.

“공부나 하자, 공부나.”

내가 류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망상 따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몸에 걸린 독 마법의 치료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책상 위에 쌓아둔 옆의 책 더미들을 흘끔 쳐다보았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순간에도 류이의 몸속은 타들어가는 고통으로 가득할 텐데, 하루를 꼬박 책 읽는 데에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답도 찾아내지 못했다. 내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류이의 몸에 걸린 독 마법의 해독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류이가 걸린 독 마법에 대한 단서가 너무 없지 않은가. 내가 코난도 아닌데, 없는 단서를 어디서 찾아내랴. 운이 좋아 책장을 넘기다가 ‘만병통치비약’같은 걸 발견하는 운 따위는 내겐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비약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는들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리가 없지.

“독 마법 종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책장을 팔랑팔랑 넘기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답은 존재하지 않는 독 마법 백과사전과의 사투를 벌이던 나. 이내 짜증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책을 책상 위에 휙 집어던져버렸다.

이런 책에서 알아낸 해독법으로 류이의 몸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류이의 호위 기사들은 이미 진즉에 그가 당한 독을 치료했을 거다. 내가 알아낼 수 있는 해답을 엘리트인 그들이 모를 리 없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런 방식으로 백 날 천 날 고군분투해봤자 류이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마법사도 아니고 재력도 없는 일개 천민이라지만, 나를 지켜준 류이에게 보답할 길이 정녕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럴 리가.

“이나하!”

나는 이나하와 만난 적이 있다. 더불어 그 마하라는 남자도. 머릿속에 반짝- 하듯 떠오른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나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도서관 카운터에 세팅되어있는 종이뭉치에서 한 장을 빼내어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위에 깃펜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저를 죽이셨던 이나하 님께 아, 아니지. 저를 죽이셨던은 빼자. 행여나 이걸 보고 빈정 상해서 바로 찢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 인간이라면 그러고도 남는다.

“안녕하세요 저 아샤예요. 저번에 당신이 죽였던 그 아샤요. 동생이 마법 대학 안에 숨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이 매우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안부 편지를 쓰는 것 같다고? 편지의 기본은 아무래도 안부 묻기가 아니겠는가. 일단 기본적인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적으려는 거다.

그나저나 불과 4일 전에 나를 죽였던 인간에게 편지를 쓰게 되다니 역시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그런 인생이기에 재미있는 거라고 한 누군가의 말이 떠오른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다.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인생이 재미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아마 그 인간은 뼛속까지 마조히스트일 거야.

“다름이 아니오라,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자 함입니다. 당신의 동생과 저는”

이제부터 본론이다. 류이의 몸에 걸린 독 마법을 해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마하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직접 해독약을 얻어내는 것.

하지만 내가 마하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해독약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봤자, 그 무섭게 생긴 남자는 아마 콧방귀조차 뀌지 않을 것이다. 읽지도 않고 불태워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의 상관인 이나하를 노리는 게 더 쉬운 길이 될 거다. 동생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 형 같았으니까.

“약혼한 사이입니다.”

두둥. 허언증이 의심될 만큼 평소에 나더러 약혼자니 어쩌니 하는 농담을 자주 치고 돌아다녔던 란이었기에, 아디티의 황자인 노아 이즈하가 나의 약혼자라는 헛소리를 써 갈기는 지금이었지만 별다른 죄악감이 들지 않는다. 아예 거짓말인 것도 아니잖아? 약혼을 한 적은 없지만, 이나하의 동생인 노아가 늘 그렇게 떠들고 다녔지 않은가. 내가 그의 약혼녀라고 말이다.

그러니 약혼자 덕 좀 받아보자. 이 편지를 읽은 이나하는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뭐! 내가 죽인 여자애가 내 동생의 약혼녀였다고!!’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결과야말로 내가 원하는 바. 내게 미안함을 느낀 그가 마하를 꼬드겨 해독약을 보내주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크, 역시 난 똑똑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란 아니, 노아가 깨어나고 나면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류 제국 황자의 몸에 걸린 독 마법을 치료할 해독약을 보내주셨으면 해요.

라고 그 다음 문장을 썼다. 과연 이 편지를 읽은 이나하가 순순히 해독약을 보내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도라도 해보는 거다.

나는 계속해서 편지를 써나갔다. 내가 이나하에게 제안하는 보상은 다음과 같았다.

만약 해독약을 보내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동생, 노아 이즈하를

“당신의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드릴게요.”

이 문장까지 쓰고 나니 뭔가 대책 없어 보인다. 내가 란을 이나하의 품으로 어떻게 돌려보내느냐고?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하냐고? 사실 나도 잘 몰라.

집나온 탕아인 그 인간이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다시 아디티의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야 물론 없다.

하지만 일단은 걸어보는 거다. 형인 이나하의 말만 들어봤을 땐, 그는 살인범이긴 해도 란에게는 있어 나쁜 형 같지는 않았으니까. 물론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일 때의 얘기인 거겠지만,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제안과 걸 수 있는 보상이라곤 이런 것밖에는 없다.

지금은 류이를 치료하는 게 우선이니까. 란과 이나하에 대한 문제는 란이 저 상태에서 깨어나고 나면 그때 생각하자.

자, 그럼 이제 이 편지를 이나하에게 보내야 하는데

“?”

나는 전서구가 없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야심차게 쓴 내 편지가!’하는 생각들이 뇌구조 중에서도 정중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금세 그 자리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서게 된다.

류이에게 있지 않은가! 편지를 배달해줄 새 말이다. 그것도 그의 새 중에는 전서응도 있다. 전서구는 비둘기, 전서응은 매를 뜻하는데, 그는 둘 다 가지고 있었다. 비둘기는 편지를 보다 빨리 배달하고, 매는 편지를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다르다.

나는 그의 조수이므로, 그의 허락이 있는 한 언제든지 그의 새를 빌려 쓸 수 있었다. 한마디로 골라 먹는 재아, 아니.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다고나 할까.

좋아, 그럼 이제 류이를 찾아 나서자!

라고 마음먹고서 자신만만하게 도서관을 빠져나온 나. 그러나 류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도통 모르겠다. 기숙사에 돌아와 보았지만 그는 없었고, 나는 다시 기숙사를 빠져나와 건물 복도를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설마 하는 마음에 허공에다 대고 넌지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내가 호위는 필요 없으니 따라오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던 그 인간의 이름말이다.

“제이?”

“부르셨습니까.”

그럼 그렇지!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건만,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건 류이의 기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인 게 분명하다. 류 제국 호위 기사가 되기 위한 면접을 볼 때 ‘고집이 얼마나 센가요?’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 질문의 만점 답변은 ‘난 나보다 약한 인간의 명령은 듣지 않는다’같은 것이지 싶다. 제이나 진, 칸이 행동하는 꼬락서니들을 보자면 그래. 아주 나만 만만한가 봐! 뭐, 물론 내가 너희들 입장이었어도 내가 만만했을 테지만.

“황자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내 질문에, 제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편지를 슬그머니 쳐다본다. 그리고는 내게 물어왔다.

“그 편지를 보낼 전서구를 빌려달라 하시려는 것이지요?”

어라, 이놈 좀 보게. 철은 없는데 눈치는 제법인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제이가 짐짓 불편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왜지?

“왜요?”

“그 편지, 이나하라는 인물에게 보내시려는 거 아닙니까. 아샤 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편지는 왜 보내시려는 거예요?”

제이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내가, 입을 벌리며 ‘아-’하는 소리를 냈다. 내가 나를 죽였던 살인범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과 제이가 도통 무슨 연관이 있어 내게 이런 참견까지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만, 어쨌거나 나는 그에게 대답을 해줄 의무가 있었다.

왜냐? 이 남자는 류이의 호위 기사이고, 나는 류이의 조수니까. 말하자면 협력관계랄까. 호위 기사일 뿐이라지만 내가 왜 편지를 보내려는 지에 대한 이유는 알아야지 않겠어?

“거래를 해보려고요. 황자님의 몸에 걸린 독의 해독제를 보내주면, 저도 그 남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데요?”

“제이, 그것까지는 제가 당신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와 그 남자간의 비밀이라.”

이렇게 대답하고서 나는 씽긋 미소 지었다. 늘 익살맞고 넉살 좋게 굴던 평소와는 달리 날카롭고 직설적인 나의 대답에 제이는 많이 놀란 눈치였다. 그가 얼마나 놀랐냐면,

“아, 알겠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시선을 회피하며 저런 대답까지 할 정도였다. 어우, 미안하다고 할 정도까진 없는데.

그럼 튕기지 말고 순순히 사실대로 답해주지 그랬냐고? 아, 실은 제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주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자면 이나하가 란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물론이고 그들의 집안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불나불 떠들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았기 때문.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인 것도 있다. 남의 집안 가정사는 알아봤자 골치라고, 골치. 지금의 나를 좀 보시라.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 형이라는 놈은 나를 죽이겠다고 마법 대학까지 쳐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놨지, 그 동생이란 놈은 나를 구하겠다고 안간힘을 쓰다가 지금은 시체까지 되어버렸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분명 새우는 나인 입장인데 등이 터져버린 건 란이다. 시체씩이나 되어버린 란을 떠올려보다가, 이내 나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님을 직시하고 제이를 재촉했다.

“황자님을 빨리 치료해드리려면 방법은 이것뿐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그렇죠.”

제이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너도 잘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 네가 뭘 해야 할지도 잘 알고 있겠지?

나는 그에게 눈짓했다.

“앞장서세요.”

마치 아침드라마에서 바람난 남편을 찾으러 가려는 와이프의 한마디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바람바람이라. 자기 사람을 누구보다 아끼는 류이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제이의 안내를 받아 다른 건물로 이동해왔다. 대체 류이가 어디에 있기에 학생 하나 없는 대학 내부에서 그토록 돌아다녀도 볼 수가 없었던 걸까? 기숙사에도 없고 다른 건물에도 없었던 그는, 제이의 안내를 받아 찾아온 건물에서 볼 수 있었다.

양호실이 위치한 건물이었다. 마법 대학에는 거의 병원 수준으로 여러 가지 약과 기구들을 구비해놓은 양호실이 존재했다. 일전의 내가 안경잡이였던 란과 마주쳤던 곳은 그 옆의 병실이고, 이번에 온 곳은 내가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던―구경은 와봤지만 진료는 받은 적 없다는 뜻이다. 나는 튼튼하니까―흡사 병원 진료실을 떠올리게 하는 양호실이었다.

제이가 문을 열어주려 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 그의 손목을 잡아 저지하고서 고개를 도리도리 저어보이자, 제이가 ‘?’하는 표정을 짓는다. 마치 왜 들어가기를 망설이냐고 묻는 듯한 표정인데그거야 다 너 때문이잖니?

류이를 좋아하니 어쩌니 캐묻던 제이의 오지랖 넓은 질문이 떠올라서라도 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안 선다. 류이가 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제이가 그런 막장 질문까지 내게 해버린 와중에 그의 유려한 얼굴을 봐버리면 내 얼굴이 홍당무마냥 달아올라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

조금 망설이다가 큰맘 먹고 문손잡이를 딱 잡아 돌렸다. 그리고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소리 나지 않게. 그 순간, 나는 어떠한 소리를 들어버렸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나직이 흘리는 신음소리였다.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였

“?”

아?

내 머릿속의 전두엽이라던가 후두엽이라던가 하는 모든 것들이 멈췄다.

“조금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으윽”

“지금부터 세포들의 움직임을 중지시키겠습니다. 당분간 오른팔은 쓰지 못하실 겁니다. 고통도 상당하실 거고요. 하지만 세포의 괴사를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으니, 부디 양해를”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그렇기에 나는 지금의 대화를 들은 뇌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느꼈다. 세포 괴사? 세포의 움직임을 중지시킨다고? 당분간 오른팔을 쓰지 못해?

그는 분명 오른손잡이인데.

“하아”

“화, 황자님!”“황자님!”

안쪽에서 누군가가 정신을 잃은 듯,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소란을 피운다. 그 목소리들이 칸과 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번개에 맞은 사람처럼 놀라 양호실의 문을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내가 아는 얼굴들이 아주 많았다. 대학을 오가다 종종 얼굴을 마주쳤던 양호선생은 둘째 치고, 진과 칸, 또 그 휘하의 호위 기사들이 모두 은신을 풀고 나와 누군가를 부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누군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류이다.

“황자님-!!”

막연히 머릿속으로 ‘세포가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상상한 이미지와는 확연히 달랐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수준이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어린애의 상상 수준에 불과했다. 류이의 오른팔은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수준이었고, 방금 전에 들었던 대화대로 할아버지인 양호선생이 그의 팔에 걸린 독 마법을 둔화시키기 위해 팔의 세포들의 움직임을 모두 멈춰버린 듯, 그의 오른팔은 죽은 듯 축 처져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그 오른 팔만이 죽은 듯 움직이지 않는다기보다는

“!”

그의 몸뚱이 자체가 죽은 듯 축 처져있었다. 류 제국의 3황자이자 류이라는 이름을 지닌 위풍당당하고 기세 좋던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진 모습은 처음 보는 입장이었기에, 마법 대학에 들어와 그를 만난 이래로 가장 크게 놀랐다.

놀랐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나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의자에 앉은 채 정신을 잃어버린 류이와, 그의 바로 옆에서 부축해주고 호위 기사들의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옆으로 스러지는 류이를 붙잡듯 끌어안았다.

“황자님!”

세, 세상에! 몸이 불덩이 같다.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된 거지?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류이는 분명 멀쩡했다. 멀쩡하다 못해 정정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제이도 류이가 진통 마법을 걸어두어 고통을 별로 느끼지 못할 거라고 말했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왜? 어째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왜, 왜 이런 거예요? 팔의 상태는 그렇다 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통 마법은요!”

옆으로 고개를 홱 돌리고 진와 칸에게 매섭게 따져 묻자, 그들도 상당히 당황한 눈치로 허둥지둥 내게 대답해온다. 진과 칸은 이나하가 잠입을 위해 대학에 숨어 들어왔을 때 일찍이 습격 및 감금을 당했었기에, 아직도 상처가 다 낫지 않아 얼굴에 멍 자국이 꽤 남아있는 상태였다.

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그리 된 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순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 류이의 상태가 우선이었다. 너무 놀라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글썽 고이기 시작한 나를 향해, 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답해왔다.

“세포 괴사를 둔화시키는 마법을 걸기 위해서는 진통 마법을 풀어야 해요, 아샤 님.”

“그,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진통 마법은 언제 다시 걸 수 있는데요?”

보통 의료용 버프 마법은 쿨타임이 있다. 쿨타임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버프를 중복해서 걸 수 없다. 세포의 움직임을 중지시키는 마법이 걸려있는 상태라면 진통 마법을 걸 수 없다는 뜻인데, 나는 머릿속에 떠오른 불길한 짐작이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빌었다.

“괴사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당분간은 계속 이 상태로 지내셔야 합니다. 적어도 해독제를 구할 때까지는요”

진이 류이를 볼 면목이 없는 듯,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시선을 회피한다. 여느 때보다도 쓰디쓴 눈빛으로 바닥만을 노려보던 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봐버린 나는, 그만 다 큰 남자를 울렸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어 고개를 돌려버렸다. 류이에게로 말이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건 내 탓이 아닌가. 루이스과 란이 나를 도와주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쳐도, 류이에게는 없다. 이 남자는 그저 바다 건너 옆 나라의 황자이자, 프란치아와 아디티의 싸움과는 먼지 한 톨만큼의 연관성도 없는 인물이다. 나를 도와줄 이유? 당연하게도 없다.

그런 인물이 나를 도와주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으니, 다른 건 몰라도 류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종국에는 결국 내가 이나하에게 죽임을 당했다지만, 류이는 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었는가. 호위 기사도 붙여주고, 본인까지도 늘 내 곁에 붙어있었다. 내가 죽임 당했던 그날에도 어김없이 나의 곁을 지켰고, 내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미끼를 자청했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류이가 다친 데에는 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다. 류이가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준 것이니, 나는 그의 부상에 큰 책임이 없다고 여겼다. 그런데 아니었다.

“황자님.”

내 눈가에서 눈물이 고여 볼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다. 내가 목덜미를 끌어안은 류이의 얼굴에 그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의식을 잃은 남자의 눈꺼풀 위에 그 눈물이 떨어져 그의 눈가 옆으로 호선을 그리며 굴러 떨어졌다. 지독하리만치 고통스러울 텐데도 류이의 눈가에는 눈물 한 점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강인한 남자조차 의식을 잃을 정도라면, 대체 어느 정도의 고통이란 말인가.

류이에게 한없이 미안했다. 이 아름답고 고고하기만 한 인물을 내가 있는 이 바닥까지 끌어내린 것 같아서,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쓰라렸다. 나라는 존재가 이대로 죽어 사라져버리면 좋을 것 같다 싶을 만큼 미안했다.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류이를 안고 있는 지금의 내가 몹시도 미웠다. 나는 왜 류이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든 걸까?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자를, 생판 남인 황자씩이나 되는 이런 사람을

제이의 질문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왜 류이를 이용하지 말라 했는지, 왜 나한테 그런 못된 질문과 못된 말을 했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다.

“혹시 말이에요.”

눈물을 끅끅거리며 참는 목소리로 주변에 서있는 호위 기사들에게 말을 건넸다. 내 시선은 여전히 류이에게로 향해 있었기에, 호위 기사들은 본인들에게 건네는 말인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류이에게 혼잣말이라도 하는 줄 알았나본데, 그건 아니었다.

나는 멘 목소리로 그들에게 물음의 뒤를 이었다.

“황자님이”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것뿐이다. 설마 싶지만, 왜 이런 멍청한 발상이나 하는 건가 싶지만, 도통 류이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나를 지키려 한 이유를, 내 뇌는 단 하나밖에 유추해낼 수가 없어서,

“저를 좋아하시나요?”

그들에게 물었다. 당사자는 의식이 없으니, 그 측근인 호위 기사들에게 묻는 말이었다.

진과 칸, 제이 등등이 머리를 해머로 한 대 맞은 듯한 벙찐 표정을 짓는다.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류이를 붙잡은 채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나를 향해, 그들 중 누군가가 대답해왔다. 진인지 칸인지 또는 제이인지, 그 외의 다른 기사였는지그것을 구분할 정신머리는 없었다.

“언제쯤 알아차리실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비꼬는 것 같았다. ‘당신은 왜 그리 눈치가 없습니까?’라고 힐난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인즉슨 내 질문에 긍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발밑의 유리바닥이 굉음을 내며 깨지는 것만 같은 착각을 느꼈다. 아래로 더없이 더없이 추락하는데, 그런 나의 바로 옆에 류이가 있었다. 나는 류이를 함께 수렁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런 상상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왜 하필

“저인 거예요?”

왜 하필 나일까.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그 어여쁘고 숙녀다운 영애들을 차치하고, 왜 나 같은 볼품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천민을 좋아한다는 걸까. 왜 그랬을까. 류이는 대체 왜 그랬을까?

“후회하시겠죠? 저 같은 천민 계집 하나 구하려다 봉변당했다고, 많이 후회하셨겠죠?”

“전혀요.”

옆에서 진이 고개를 내저으며 깔끔한 목소리로 대답해왔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오히려 그때 아샤 님이 독에 당하지 않으셔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류이를 뒤로하고 진, 칸과 함께 도망쳤다가 결국은 이나하에게 납치되는 결말이었기는 했다만 마하에게 독 마법을 당했다면 아마 지금조차도 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테지. 이나하의 얼음 마법에 당했을 때엔 찢어지는 고통이 나의 뇌를 마비시켰었는데, 그것은 한순간이었으니까 적어도 지금의 류이처럼 고통스럽진 않았을 테지.

다행이란다. 자기는 아프면서, 너무 아파 식은땀을 흘리며 까무러칠 정도로 아프면서. 그 강인하던 사람이, 그 튼튼하던 인간이

“”

이제는 눈도 뜨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부릅뜨고 모든 사물을, 모든 인간을, 아파 몸부림치는 류이조차 바라볼 수 있는데 말이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에, 나는 그를 부축한 채 왼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 작게 흐느끼다가, 이내 입술을 꽉 앙다물었다.

질질 짜고 있는다고 해서 류이의 몸속에 퍼지고 있는 독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소설 속 가련한 여주인공마냥 울고 있을 때, 류이의 몸속에서는 세포들을 죽여 가는 독 마법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을 테니까.

이럴 때가 아니다. 나는 깨물었던 입술을 뗐다. 비릿한 피맛이 나는 것 같았지만 내 입술의 상태 따위는 뒷전이었다.

이나하를 갈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란이 떠올라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들은 죄가 없다. 마하에게도, 류이에게도 죄가 없다. 이 모든 건 전쟁의 원흉인 프란치아와 레플리카 공작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키로 했다. 어느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생각을 굳히고 이나하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를 북북 찢었다.

이제는 손을 잡아야 할 때였다. 란과 루이스, 류이, 그리고

“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들어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진에게 부탁한 것은 텔레포트였다. 제이는 ‘그 살인범에게 텔레포트라뇨! 말도 안 됩니다!’라며 반대했지만, 그의 상관인 진과 칸이 허락해주어 제이는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이나하의 위치를 알아내어 순간이동 시켜달라는 그 말에, 진은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의 좌표 혹은 마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없으면 특정 인물에게로 텔레포트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나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나하의 마나 흔적이 묻었을 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지를 곰곰이 떠올려보았다.

마법사들의 마나는 마법을 시전한 공간에 같이 있는 모든 물체나 사람에게 마나의 흔적을 남긴다.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혹은 물체일수록 더욱 그 흔적이 뚜렷이 남게 된다. 뛰어난 마법사들일수록 그런 흔적을 잘 남기지 않지만, 내가 이나하에게 습격을 당했던 그때는 조금 다르다. 그곳은 야벨의 은신처였지 않은가.

자신의 은신처와 자신이 부리는 수족들이 사방에 깔려있는 곳에서 마나의 흔적을 지워가며 마법을 쓸 필요가 있을까? 나는 없다고 본다.

고로 나나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물건들 중에는 그의 마나가 묻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몸에는 그의 마나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확히는 이나하의 마나가 아니라 다른 인물의 마나가 듬뿍 느껴진다고 했는데, 그 마나의 주인은 바로 란이었다.

빌어먹을 란! 죽어서조차 도움이 안 된다니까.

라고 욕을 해주기엔, 내 목숨을 구하려다 시체 상태까지 되어버린 그인지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다. 그들만의 형제싸움에 제 3자인 내가 휘말린 거라 해도, 대신 죽으면서까지 내 목숨을 구해줬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 말이다.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창한 칭호까지 붙여주고 싶진 않은데, 틀린 표현도 아니니까 뭐란은 내 생명의 은인 비슷한 걸로.

어쨌거나 그런 탓에 내 몸에서는 그의 마나를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러니 남은 답은 오직 하나, 그때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란의 곰 인형이다!

“여기인가?”

기숙사 복도를 돌아다니며 란의 방을 찾아보다가, 내가 막 깨어나 란을 업어들고 나왔었던 방을 찾아낸 것 같아 문 앞에 섰다. 란의 방은 왜 찾아왔냐고? 그야, 란이 나를 데리고 텔레포트했을 적에 곰 인형도 함께 이동해왔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아마 란의 서재 어딘가를 뒹굴고 있을 테지.

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방어 마법을 걸어둔 곰 인형이라면, 이제 더는 쓸모가 없지 않나? 제 역할을 다한 인형이니 말이다. 왜 그것을 탑이 무너지던 어지러운 상황에서까지 챙겨왔는지는 모를 노릇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곰 인형만이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자물쇠다. 그러니 그 인형이 필요해. 그렇게 판단을 내린 나는 란의 기숙사 문을 열었다.

우아한 금테로 곡선의 무늬가 세공되어있는 몹시 사치스럽게 생긴 기숙사문이 열리고, 그 안의 풍경이 드러난다. 며칠 전 내가 눈을 떴을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피투성이의 광경이 말이다.

“윽.”

절로 눈이 찌푸려진다. 치울 사람이 없으니 저 핏자국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예상을 하고 들어왔음에도 인상이 찡그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저 많은 피가 란의 피겠구나. 어쩌면 내 피도 섞여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이렇게 보니 대리석으로 된 매끄러운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피의 웅덩이―이제는 말라버린 모습이다―는 마치 살인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다. 명탐정 X난이라던가, 탐정들이 다니는 어느 학원의 학생들이 자주 보는 풍경이 바로 저런 거겠지? 세상 끔찍하군.

나는 경찰이라던가, 형사 같은 직업에 관심을 두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레 방 안으로 발을 디뎠다. 핏자국이 잔뜩 말라붙어있는 중앙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로 말이다.

중앙을 지나쳐 주위를 두리번거리다보니, 금세 곰 인형을 찾을 수 있었다. 텔레포트한 후, 란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준 듯 곰 인형은 바닥에 널브러져있었다. 하긴, 그 긴박한 상황에서 곰 인형을 챙길 정신머리야 당연히 없었겠지.

책상 옆에 처량한 느낌으로 떨어져있는 곰 인형을 주워들었다. 란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모를 피가 묻어있다. 하지만 많이 묻은 건 아니었기에 그리 꺼려지진 않았다. 곰 인형을 품에 안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등골이 쎄한 느낌이 들어왔다.

“응?”

뭐지, 이건?

생소한 감각이 바람이 되어 나의 온몸을 스쳐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기이한 느낌에 나는 고개를 뒤로 돌렸다. 뒤에는 란의 서재에서 방 안으로 통하는 문이 위치했다. 저 안인가? 이 이상한 기운이 저 안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

“이상하다”

나는 마법사가 아니니, 마법과 관련된 기운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리가 없다. 란의 방에 무슨 마법이 걸려있든 아니든 나는 그 마법의 기운을 읽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다. 이상함이 느껴져, 저 방 안에서. 이런 걸 느낀 적은 나도 처음이라, 머릿속으로는 ‘이제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발은 어느새 란의 기숙사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재의 책꽂이들을 지나쳐 안쪽의 방문 앞까지 다가가 섰다. 모든 학생들의 기숙사는 서재에서 방으로 통하는 구조였으므로 서재를 지나쳐와야만 했다. 루이스와 류이의 기숙사도 모두 그랬고, 란의 기숙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들의 기숙사에서는 이런 감각이 느껴지진 않았었는데뭐지?

“”

궁금하다. 이런 건 열어보지 않으면 궁금하고 또 궁금해져서, 오늘 밤 자기 전에 ‘란의 방 안쪽에는 대체 뭐가 있었을까?’같은 생각이나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거다. 나는 불면증 따위는 원하지 않으니, 궁금증을 해결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방문의 손잡이를 잡아 아래로 내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것을 앞으로 밀었다.

이내 방안에 들어온 나의 첫눈에 든 풍경은, 아니 그 ‘사람’은,

“아”

아도라?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 잠들어있는 그녀였다.

아도라가 대체 왜 란의 방 안에서 자고 있는 거지? 아니, 잠깐만. 설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건가!

“아도라!”

쓰러지던 류이를 향해 뛰어갈 때보다도 더 황망한 표정으로 쏜살같이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로 달려갔다. 숨이 멎어 시체가 되어버린 란의 모습이 가만히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에 오버랩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도라의 코앞까지 다가가 상체를 확 숙였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운 아도라의 뺨에 손을 대보려는데

“앗!”

내 손이 튕겨져 나왔다. 마치 정전기가 일듯이 파직! 하는 소리와 함께 손끝을 타고 찌릿한 전류가 흘러들어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과 동시에 나는 그녀에게 방어 마법이 걸려있음을 알아차렸다.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란밖에는 없는데

“어엉?”

혹시 란이 아도라를 죽였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추측이 떠오르려던 찰나, 이 방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새근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

그렇다. 아도라는 자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왜 란의 방에서 방어 마법까지 걸린 채로 잠들어있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고이 잠들어있는 아도라를 내려다보다가,

“일어나, 아도라!”

나는 소리를 꽥! 하고 질러보았다. 그녀를 깨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깨지 않는다. 소리를 들은 기색은커녕 여전히 고른 숨소리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마냥 눈감고 있는 아도라를 내려다보다가,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방어 마법이 걸려있음을 알아차린 나는 고민에 잠겼다.

아도라를 깨워야한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잠자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무조건 깨워야 한다. 마리는 남작저로 내려갔다지만, 아도라는 습격 당일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발견된 게 란의 방 안, 그것도 자는 모습이라? 어째서지?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간 상황이기에 아도라가 이런 장소에서 발견된 거야? 내 뇌는 도무지 아무런 경우의 수도 떠올려낼 수 없고, 아무런 이유도 유추해낼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는데.

“에잇!”

혹시 싶어 란이 주었던 곰 인형으로 아도라를 내리쳐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콰직-!

“!”

방어막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아도라에게 풀린 방어 마법이 냅다 풀려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미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방어막이었어? 이 곰 인형에 걸어둔 방어 마법이랑은 너무 클라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중요한 건 클라스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아도라, 일어나!”

아도라를 깨우는 일이다.

방어막이 깨진 게 확실한 듯, 이제는 아도라를 만질 수 있었다. 나는 아도라의 어깨를 붙잡아 앞뒤로 마구 흔들어댔다. 그러자 그녀는 ‘으음?’하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그리고 비척비척 상체를 일으키는데

“아샤 님!”

그렇게 깨어난 아도라는 나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대경실색했다.

대체 아도라가 왜 란의 기숙사 방 안에서 깊이 잠들어있었던 걸까? 처음 아도라가 누워있는 걸 봤을 땐 란처럼 죽은 게 아닌가 싶어 일시적인 공포가 확 밀려들었었다. 그러나 금세 그녀가 새근거리며 잠들어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고, 나는 아래로 추락했던 심장 놈을 다시 원위치로 끌어올려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란의 방 안에서 아도라와 일대일 대면 중이었다. 짜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녀에게 물음을 건네는 내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나서 그렇다기보다는 놀라서 그런 거였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있음을 알아차린 아도라는 화가 난 목소리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내가 봐온 모습들 중에서도 가장 주눅 든 표정으로, 그녀가 조심스런 목소리를 꺼냈다.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아샤 님.”

“모르겠다니. 여기에 왜 누워서 잠들게 됐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네. 정말 그렇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사람처럼, 아도라가 초점 풀린 눈동자를 하고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인다.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아도라의 말을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건네 보았다.

“그럼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겠네? 오늘이 며칠인지는 알아?”

“제 마지막 기억은 대연회장에서였어요. 아샤 님께 줄 샴페인을 대연회장 자리에 가져다 놓은 후, 저희 도련님께서 저를 부르시기에 다가갔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기억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늘까지의 기억이 하나도”

아도라가 고개를 저으며 답하다말고 말끝을 흐린다. 그리고는 목이 멘 듯 입을 꾹 다물어버리는데. 그녀의 대답을 들은 나 또한 마찬가지로 눈앞이 깝깝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허 참, 대체 란 녀석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지? 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기억이 안 난다니, 그렇다면 역시 아도라를 며칠 동안이나 마법으로 재워둔 건 그의 소행이라는 거잖아. 왜 그런 짓을?

“그럼, 그때부터 방금 전까지 쭉 잠들어 있었다는 거지?”

“네”

아도라가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다. 무엇이 그리 미안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녀는 내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어째서일까?

이유를 짐작하지 못한 내가 돌직구를 던져 물어보았다.

“아도라, 왜 그런 태도로 대답하는 거야?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잖아.”

“잘못한 게 왜 없습니까”

아도라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꾹 참아왔던 눈물이 결국은 터져버린 모양이었다. 거짓된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해서 우는 이의 표정이고 눈물이었기에, 나는 아연해하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맞은편 아도라에게 후다닥 다가갔다.

“왜 울고 그래!”

놀란 목소리로 묻는 내 말에, 아도라가 엉엉 울면서 내게 이런 대답을 해왔다.

“제가아, 아샤 님을 잘 지켜드리려고 했습니다만어째서인지 갑자기 이곳에서 잠들어있게 되어버려서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불찰이에요. 흐윽!”

“아니, 울지 마! 그게 왜 네 불찰이야?”

굳이 누구의 탓인지를 따지자면 네가 아니라 란 녀석이 잘못한 거지! 아도라는 죄가 없잖은가?

기실 아도라가 이런 곳에서 잠들어있지 않고 나의 곁에 꼭 붙어있었다 하더라도 이나하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거나 아도라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란이다. 그러니까 아도라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그런데 대체 란은 왜 그랬을까? 나는 도통 짐작이 가는 바가 없었기에, 훌쩍훌쩍 우는 아도라를 달래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얼추 멎어갈 때, 넌지시 그에 대한 질문을 건네 보았다.

“그런데, 란은 왜 너를 재운 거야? 무슨 이유라도 있어?”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지금의 나와 비슷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뜬 벙찐 표정을 하고서 ‘네?’하는 목소리를 뱉어온 것이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나도 모르겠는데, 당사자인 아도라도 모른단다. 역시 답은 란만이 알고 있는 것인가?

자리에서 비틀비틀 일어선 나는 아도라의 어깨를 부여잡고는 토닥여주었다. 너의 잘못은 없어, 라고 말해주듯이.

그런 내 손길에 적잖은 위로를 받은 모양인지 아도라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인다. 그것을 그녀가 손등으로 야무지게 훔쳐 닦더니, 이내 내게 살짝 갈라지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건네 왔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샤 님. 아무데도 다치지 않으셔서요. 위험한 상황은 모두 지나간 거죠?”

“어? 그게 나는 괜찮은데,”

나는 멀쩡한데 란이 아니다, 라고 말해줘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도라가 영영 모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란인데, 그 사실을 숨긴다는 건 내가 굉장히 파렴치한 쓰레기가 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아도라의 반응이 어떨지는 예상이 가지 않는다. 평소에 자기 주인을 엄청 아끼는 조수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란과 거리가 멀고 사이 나쁜 조수도 아닌 그녀였으니까.

“란이 말이야죽어있어.”

“네?”

아도라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를 마주하다가,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서 속사포처럼 현재의 란에 대한 상태와 그렇게 된 이유를 주절거렸다.

“내가 납치당해서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갑자기 란이 나타나더니나를 텔레포트로 여기로 데려왔어.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는데, 아마 기사의 맹세로 나를 사, 살린 것 같아. 그때 이후로 도무지 눈을 뜨질 않아서”

너무 민망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 하지만 내 말을 끝까지 들은 아도라는 한 번에 말뜻을 해석한 듯, ‘아.’하는 소리를 짧게 냈다.

“그럼, 지금은 잠들어 계신다는 건가요?”

“잠들었다기보다는 죽은 상태 같은데으, 응. 맞아”

“다행입니다. 그렇게라도 두 분 모두 무사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희 도련님은 너무 염려치 마세요. 조만간 다시 깨어나실 테니까.”

아도라는 설핏 미소 지으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건네 왔다. 자신이 모시는 도련님의 목숨을 해쳤으니 행여나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행이란다. 하긴, 결론적으로는 그녀의 친구인 나나 주인인 란이나 둘 다 죽을 일은 없게 되었으니 다행인 건가? 아니, 나에겐 다행이지만 단 한 번의 기회를 천민을 살리느라 날려먹은 란에게는 불행인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은 실낱만큼도 쓰지 않는 듯한 아도라가 내게 이렇게 물어왔다.

“그래서, 그 범인들은 잡았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들은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란은 아도라의 주인이고, 아도라는 아디티의 사람이다. 둘 다 아디티 사람인 데다 란이 아디티의 황자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아도라는 못해도 란을 모시는 귀족가의 자제이거나 아디티 황가의 측근일 거라고 짐작했었는데. 내 짐작이 틀렸던 걸까? 범인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걸 보아하니 말이야.

하긴, 황자라고 해서 꼭 그런 인물을 곁에 두리란 법은 없겠구나. 란의 상황에 류이의 상황을 너무 대입해버린 것 같다. 란과 아도라도 당연히 그런 사이일 거라 짐작해버린 나의 실수야. 아디티 황가가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아는 인물이야 꽤 많은 것 같았으니까, 일개 아디티의 제국민이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만은 아니지.

아무래도 아도라는 아디티 황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물인가 보다. 범인이 야벨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걸 보아하니 말이야.

“그 범인은 야벨이었어. 야벨이라고 혹시 알아? 그 아디티 소속의”

“네?”

아도라가 내 말을 끊고 되물어왔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스런 빛으로 물들어있었다. 뭐지, 잘 못들은 걸까? 다시 똑똑히 말해줘야겠다.

“야벨 말이야. 노아 이즈 아니. 이나하 이즈하라고, 알아? 아디티 사람이라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텐”

“이, 이나하 님이 아샤 님을 습격했다고요?”

“어?”

‘이나하 님’이라고?

아도라는 아디티 황가와 별로 큰 관계가 없는 인물이구나-하고 짐작한지 1분도 채 흐르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아도라의 반문이 그런 내 짐작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지, 지금 야벨의 이나하 님이라고 하셨나요?”

아도라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나를 응시해오고 있었다. 방금 전 내 입술을 비집고 튀어나간 한마디가 거짓말이길 바라는 사람처럼 간절한 눈동자를 한 채로 말이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다. 나는 두 눈으로 이나하를 봤고, 두 귀로 그의 이름을 들었다. 이나하 이즈하를 이나하 이즈하라 하지, 노아 이즈하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이나하를 이나하라 부르지 못한다면 뭐라 부른단 말인가.

아도라의 반응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으니, 일단은 솔직하게 대답해보았다.

“응. 똑똑히 그의 이름을 들었어. 내가 그 사람의 마법 공격에 당해서 숨이 끊어질 지경에 처했을 때, 란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줬었거든.”

“지금 그 말, 정말입니까? 지금까지 아샤 님을 노려왔던 그 마법사가”

아도라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나하 그 사람이라고요?”

“으, 응.”

이나하? 그 사람? 뭐지, 지금 아도라가 내뱉고 있는 저 호칭은.

란의 측근이라면 나를 노리는 인물이 야벨이라는 것도, 또 야벨의 주인이 노아 이즈하가 아닌 이나하 이즈하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

대체 아도라가 어느 부분에서 저리 황당해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 나는 그녀에게 소곤소곤 물어보았다. 딱히 조용히 물어볼 필요는 없었지만 지금 분위기상 그런 태도로 물어보아야 할 것 같았다.

“저, 혹시 아는 인물이야? 그 남자.”

“물론입니다.”

아도라가 허공을 노려보며 이를 까득, 하고 갈았다. 아도라에게서 나올 만한 반응이 아닌데! 깜짝 놀라며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나.

그런 내게,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홱! 하고 돌려왔다.

“아샤 님을 죽인 게 그 인간이라고요?”

“어? 어”

이제는 ‘그 인간’까지? 이거, 상황이 점점 스펙타클해지는데?

“어떻게요? 대체 무슨 수를 썼었습니까!”

“그게, 대연회장이 갑자기 습격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가 아니라. 그 뭐냐, 하늘에서 파편이 쾅쾅거리면서 떨어지고, 막 나는 류이, 아니지. 황자님이랑 열심히 뛰어서 도망쳤는데, 어 그러다가 류이의 앞을 마하라는 남자가 가로막아서, 어”

으아아! 아도라, 네가 너무 빤히 쳐다보니까 자꾸 말을 더듬게 되잖아!

하지만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세상 심각한 분위기의 아도라는 내게 다음 말을 종용하는 끈덕진 눈빛을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었고, 덕분에 나는 그런 그녀의 눈빛을 무시하고 ‘저, 눈에 힘 좀 풀어줄래?’하는 얘기를 도무지 꺼낼 수가 없었다.

“류이가 마하를 막기로 하고 나를 먼저 보냈는데 나와 같이 텔레포트하기로 한 진과 칸이 알고 보니 이나하와 그의 부하였어. 어, 음 그래서 그들이 나를 야벨의 본거지로 텔레포트시켰고 거기서 나는 이나하의 고드름에 찔려 죽었지. 그 직후에 란이 날 도와주러 왔고.”

“마하라. 진과 칸이라면, 류 제국 황자님의 호위 기사들 이름이었던가요?”

“아, 맞아.”

고개를 끄덕이자, 아도라는 인상을 확 찡그린 채 ‘흠’하는 소리를 내며 깊은 고민에 잠긴 사람의 포즈를 취한다. 그렇다. 바로 검지와 엄지로 턱을 가볍게 쥐고서 추리하는 명탐정 코 뭐시기의 동작을 한 것이다.

빰빰빰 빠라바밤- 하는 배경음악을 틀어줘야만 할 것 같은 이 공간, 이 공기 속에서 나는 아도라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도라는 이나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드는 의문점 한 가지가 있다.

란은 왜 아도라를 이런 곳에 재워놓은 걸까? 아도라와 이나하가 만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 아도라가 이나하를 너무 잘 알아서 탈이라던가, 그래서 둘이 만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게

응? 헉! 설마!

“아샤 님!”

“어, 어? 왜!”

아도라의 부름에 화들짝 놀라며 대답하자니, 그녀가 나를 향해 부리부리한 이글아이의 눈빛을 던져왔다. 나를 도와주지 못했다며 훌쩍훌쩍 울던 때의 여리여리한 모습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굳세 보이고 화난 얼굴을 한 채로 말이다.

“혹시 마하와 싸운 사람 중에, 독에 당한 사람이 없던가요?”

아도라는 이리 물어왔다. 독에 당한 사람이 없냐고? 한 명 있지 않은가. 으응? 그런데 아도라가 그 사실을 대체 어떻게 알고!

“이, 있어! 류이 황자님이 독 마법에 당했어. 몸속의 세포를 괴사시키는 마법이라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대. 그래서 지금 막 이나하를 찾아가서 거래를 제안해보려고 하던 참”

“거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도라는 잔뜩 성난 표정으로 내 말을 끊더니 저리 답해왔다. 그리고는 내 손목을 덥썩 붙잡는 것이 아닌가.

“가요!”

“어, 어딜?”

갑자기 가자니, 어디를?

소파에서 일어서며 나의 손목을 붙잡고 씩씩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아도라의 뒤통수에다 대고 물으니, 그녀는 시크한 목소리로 대답을 툭 뱉어왔다.

“이나하한테요!”

아도라의 굽이치는 라벤더색 긴 생머리칼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나는 방금 전에 들은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까먹어버리고야 말았다. 어떻게 그리 쉽게 까먹어버릴 수가 있는 거냐고? 어쩜 그리 멍청하냐고? 아니, 그런 오해는 좀 삼가줘.

내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말 같잖은 소리였기 때문에 내 왼쪽 귀가 듣고 오른쪽 귀가 그 말을 그대로 흘려보내버린 것이니 말이다.

짜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

아도라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이거면 되나요?”

“네. 그런데 제가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나는 패닉에 빠진 이의 눈빛을 하고서 우왕좌왕했다. 이건 좀 아니다. 대체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물론 내가 이나하에게 텔레포트하려던 심산이었기는 하다만, 그건 진만을 대동해서 가려던 것이었지 진 대신 다른 누군가를 데려가려던 계획은 결코 아니었다.

대체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렸는가? 아니, 이게 꼬인 거라고 표현해야 할 상황이긴 한 건가? 잘 모르겠긴 하다만

“그럼, 준비 되셨는지요?”

아도라가 건넨 란의 곰 인형을 한 손으로 들고서 좌표를 읽던 진. 이내 그가 위치 파악을 마친 듯 우리 둘에게 물어왔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도라가 야무지게 고개를 두어 번 끄덕거린 것.

아니, 잠깐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

딱!

“고오오옥-!”

끄아아악! 나는 내가 ‘스톱!’이라고 외치기도 전에 텔레포트를 시전해버린 진을 속으로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텔레포트는 잘 다루지도 못하는 놈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전해버리는 거야? 어! 적어도 조금 우물쭈물하며 ‘그, 그럼 시, 시전하겠습아, 잠깐만요.’하면서 시간이라도 끄는 시늉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응? 니 실력에!

“!”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 아니라 시전된 마법이었으니.

시공간이 일그러지며 나와 아도라는 함께 어딘가로 이동되었다. 나는 그와 동시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기에 지금의 내가 어느 공간에 서있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눈을 뜰 엄두가 안 난다. 제대로 이동한 건 맞을까? 진이 엉뚱한 곳으로 텔레포트시킨 건 아닐까?

눈을 감은 채로 호랑이굴 속으로 텔레포트된 인간마냥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굳어있었다. 그런데 그런 내 귓가에 박혀오는 낯설지 않은 목소리 하나가 있었으니

“어라? 그 당돌한 여자애잖아.”

“헉.”

나는 헛숨을 들이키며 눈을 번쩍 떴다. 그 남자의 목소리다! 이나하냐고? 아니, 걔 말고. 그 남자 말이다. 이름이 뭐였더라? 그

“자, 자리야!”

“내 이름은 사야인데?”

“그래, 사야!”

옷을 엄청 야하게 입고 다니던 그가 내 눈앞에 있었다. 내 시체를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해 이나하에게 물어보던 그 인간 말이다! 게다가 내 손등에 입까지 맞췄었던 그 변태 같은 놈. 눈을 뜨고 확인해보니 그는 오늘도 여전히 안에 아무런 상의도 입지 않은 채 겉옷만 걸치고 있는 변태 같은 차림새였다.

그래도 처음 눈을 마주치게 된 인물이 이나하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만약 그를 정면으로 뙇! 하듯 마주치게 되었더라면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눈앞의 사야에게 살짜콩 떨리는 목소리로 물음을 건네 보았다. 이 남자는 이나하보다는 덜 무서운 무언가가 있었다. 좋게 말하면 인상이 서글서글해서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만만해서 그렇달까?

“여긴 어디죠?”

야벨의 은신처였던 탑은 란에 의해 무너졌으니, 지금 텔레포트하게 된 이 장소는 그 탑이 아니라 다른 곳일 테지. 주위를 둘러볼 정신조차 없어 물음부터 건넨 내게, 사야는 깔쌈하게 답해왔다.

“아디티 황궁이야.”

뭐시라! 여기가 아디티 황궁! 그의 대답을 듣기가 무섭게 입을 딱 벌리며 확인을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린 나. 그런데 왼쪽으로 고개가 돌아가기 무섭게,

“!!”

아디티 황궁의 황금으로 장식된 으리으리한 내부 구조물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광경 하나가 내 두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바로,

짜악-!

“!”

“”

쭉쭉 뻗은 기다란 손가락 하나하나가 매력적인 예쁘고 고운 손으로, 이나하의 얼굴에 강 스파이크를 꽂아버리는 분노한 아도라의 모습이었다.

“이나하 님!”

“아도라!”

나와 사야가 경악스럽다는 표정을 한 채로 그들의 이름을 외쳐 불렀다.

도,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괜찮으십니까!”

다행이랄지 불행이랄지, 지금 이 자리에는 이나하와 아도라, 그리고 나와 사야밖에는 없었다. 지금 있는 이 장소는 황궁의 집무실 분위기가 풍기는 공간이었는데―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나하를 제외하자면 먼젓번에 보았던 야벨의 멤버들은 사야 외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게 다행이라면 일단은 다행이겠다만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유일한 야벨의 멤버 하나인 사야가, 아도라에게 쏜살같이 뛰어가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챈다. 그리고 이나하를 보호하려는 듯 뒤로 밀쳐내려 하는데

“비켜.”

오히려 이나하의 살벌한 음성은 사야의 귓가로 날아들었다. 그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들은 나 또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치 고드름으로 배를 관통 당했을 때와 같은 차가움이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한 발짝 칠 때, 사야는 반사적으로 아도라의 손을 놓고 있었다.

생긴 건 불 같은데, 목소리는 얼음장 같은 인간이라니. 장담하는데, 저 인간은 아마 절대로 장가 못 갈 거야. 저런 무식하게 무서운 인간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여자 따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뺨을 맞았는데 그 상대방을 저지하지 못하게 말리다니. 사야가 당황한 눈빛으로 이나하에게 ‘그럼 대체 어쩌라는 겁니까?’하는 눈빛을 날리는데, 그 눈동자를 짜증스레 쳐다보던 이나하가 대뜸 이런 말을 내뱉었다.

“3년 만에 약혼녀와 재회하는 이 순간을 방해하겠다는 거냐, 사야?”

라는 엉?

뭣, 뭐라고!?

“약혼녀라고!”

“아, 너도 있었나.”

널뛰듯 폴짝 뛰며 깜짝 놀라 소리친 나.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나의 존재를 알아차린 모양인지, 이나하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려온다. 이내 그는 입을 열어 내게 말을 건네 왔다.

“노아가 널 살렸다고는 들었다만”

잠깐 말끝을 흐리더니, 이내 그가 저 뒤에 붙인 문장은

“대체 왜 널 살린 거지?”

였다. 인상까지 팍 찡그리면서 말이다.

아디티에 돌아오지 않던 동생이 프란치아 마법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던 그였으므로, 이나하는 아마 나의 측근에 란, 아니, 노아가 존재하는 줄은 미처 몰랐을 거다. 만약 알았더라면 굳이 나를 습격할 게 아니라 직접 란을 찾아갔었겠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을 하든, 형제간의 갈등을 해결하든 말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탓에 마법 대학에 진으로 변신까지 해서 잠입했던 그, 이나하는 자신의 동생을 코앞에서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란이 노아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다.

하긴, 얼굴 생김새가 그렇게 극과 극인데 알아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진기명기에 출연해야 할 안목이라고 봐야겠지. 그런 덕분에 이나하는 란의 존재가 노아라는 걸 몰랐고, 안경잡이 란과 류 제국 호위 기사 진의 모습을 한 그 둘은 결국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까지 도달해버린 것. 호우, 이 정도면 반전드라마 급인데.

여하튼 그때 이후로―정확히는 습격이 있었던 다음 날―이나하의 동생인 노아 이즈하가 나를 살렸다는 얘기가 이나하의 귀에 들어갔다고 들었다. 루이스에 의해서 말이다. 자신이 죽인 여자애를 살리려고 자신의 동생이 목숨을 버렸다. 이 얼마나 슬프고 비애스러운 상황이란 말인가?

그래서일까? 그 사실을 들은 후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모양인지, 나를 노려보는 이나하의 시선은 습격 당일 때보다도 곱지 않았다.

“네깟 게 뭐라고, 노아가”

“그딴 말씀 삼가시지요, 이나하.”

“아도라, 많이 컸다? 예전에는 황자님, 황자님 하면서 꼬박꼬박 부르더니.”

이나하의 말을 아도라가 똑 잘라먹었는데, 그런 그녀를 이나하가 ‘흐응?’하는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한 말에 아도라는 이리 받아쳤다.

“그럼 제가 컸으면 컸지, 작아졌겠습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

이나하는 말문을 잃어버렸다. 아니지, 어디 이나하뿐이었겠는가? 나와 사야도 빙의물을 찍고 있었다. 그렇다. 벙어리에 빙의되어버린 것이다.

그나저나 저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래. 내 뇌가 내 주둥이에게 ‘이렇게 말하렴, 주둥이야!’라고 소곤거리며 시켜대던 주옥같은 한마디 한마디가 저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다.

저기, 아도라. 배울 게 따로 있지, 그런 말투를 배워? 이 엄마, 아니, 이 친구가 옆으로 가도 아도라 너는 앞을 보며 걸어가야 할 거 아니니! 친구 따라 강남은 못가도, 친구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건 안 될 일이잖아! 어!

“아샤가 누군지 알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미치셨어요?”

하지만 아도라의 터진 입은 이미 요단강을 넘어서 염라대왕과의 일대일 대면까지도 주선하고 있었다. 아, 안 돼!

내가 나서서 말려야겠다. 정황상 아도라가 진짜 이나하의 약혼녀인가본데, 그런 식스센스 급 반전은 둘째 치고 일단 지금은 아도라의 목숨이 몹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으니 말이다. 이나하가 어디 보통 인물인가? 저 인간은 내 목숨을 야구 빠따를 세 개 정도 합친 만한 굵기의 고드름으로 한 번에 앗아가 버린 잔혹하고 무자비한 마법사가 아니던가.

그런 이나하의 앞에서 아도라란 존재는 톰 앞의 제리아, 이건 밸런스가 좀 안 맞고. 톰 앞에 높인 치즈 정도라고 할 수 있었다. 아도라처럼 연약하디연약한 가녀린 꽃사슴을 이나하의 앞에 무방비하게 둘 수는 없다. 그랬다간 며칠 전의 나와 똑같은 꼴이 되어버릴 거라고!

톰에게 치즈가 먹히도록 둘 수는 없음이다. 나, 제리가 저 치즈를 구해내겠어!

“아도!”

“아샤는 노아 도련님의 약혼녀라고요!”

?

“뭐?”

저 ‘뭐?’는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다. 내가 아닌, 바로 사야와 이나하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들이었다.

이 얼마나 황당한가. 눈 밑에 점을 찍고 나타난 민소희라는 여성이 알고 보니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전 마누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정교빈의 황당함보다 지금의 이나하가 느낀 감정이 더 한 수 위이지 싶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자신이 죽였던 여자애가 동생의 약혼녀라는 말을 들은 형의 표정은 어떨 것 같은가? 예시를 들어주겠다. 1번 충격적임, 2번 당황함, 3번 놀라워함. 이중에 답이 있냐고?

아니, 사실은 없다.

“3년 만에 나타나서는, 내게 하려는 말이 그런 황당한 헛소리냐? 아도라.”

“헛소리가 아니”

“대체 왜 사라졌던 거지? 네가 내 어머니를 뵀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 무슨 얘기가 오고갔기에 지난 3년 동안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거야!”

이나하에게 나란 존재,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동생이 목숨을 바쳐 부활시킨 여자애’는 안중에도 없었다. 뭔가 엄청 자괴감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

루이스에게 듣기론, 내가 쓰러져있었을 적의 이나하는 자신의 동생인 노아가 숨이 끊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충격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아디티의 병사들을 통솔해 프란치아로 쳐들어올 기세라고 했었다. 루이스와의 거래가 성립된 이후로는 잠잠해졌긴 하다만, 루이스조차 이나하의 동생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했었는데.

그런 그가 나를 눈앞에 두고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아도라에게만 시각과 청각을 몽땅 쏟아 부으며 온 관심사를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섭섭하다는 게 아니라―나는 관심종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다. 저럴 인간이 아닌데? 애초에 노아를 아디티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던 인간이, 자기 동생을 목숨 바쳐 죽게 만든 나를 눈앞에 두고도 저리 잠잠해? 그럴 수가 없지 말이다.

“?”

지금 떠오른 이 의문은, 이어지는 이나하와 아도라의 대화를 듣고 반쯤 해소될 수 있었다.

“마법 대학에 있었으니까요!”

“네가 마법 대학에는 왜?”

“저희 가문은 대대로 황실 사람들을 모셔야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맡은 임무가 노아 황자님을 보필하는 것이었는데 어쩌라고요?”

“그걸 네가 왜 하는데!”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나이대가 맞단 이유로 배정된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지난 3년 동안 연락 하나 없이 노아 곁에 붙어있어?”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태후폐하께 따지시던지요!”

허어

“”

사랑싸움인가. 이나하가 지금의 내게 관심이 없는 건, 나보다도 3년 만에 재회한 아도라와의 결판이 먼저라서 그런 모양이었다.

아도라가 저런 말투를 쓰는 건 생전 처음 듣는 것 같다. 이제 겨우 만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뿐이라지만, 아도라는 단 한 번도 선을 넘는 무례한 언행을 한 적이 없었는데. 늘 ‘-다’로 끝나는 예의 있고 뻣뻣한 말투만 고수했었지.

지금도 아주 많이 무례한 건 아니라지만, 내가 보기에 여태껏 봐온 아도라의 모습 중에서도 지금 내지르고 있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들이 가장 무례한 말투이자 태도였다. 물론 나의 말투에 비하자면 새 발의 피라지만. 그런데 그 상대가 아디티의 황자인 이나하라는 게 나로서는 그저 알쏭달쏭할 뿐이다. 약혼한 사이라면서, 저 둘이 갑자기 왜 싸우는 걸까? 3년 만에 나타난 건 둘째 치고, 아도라가 노아를 보필해온 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걸까?

응? 그것보다 아도라가 이나하의 약혼녀라는 사실이 더 충격과 공포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담담하게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느냐고?

이봐, 잘 들어. 내 친구인 아도라가 갑자기 아디티 2황자의 약혼녀란다.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가 이토록 무덤덤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주변에 널리고 깔린 인간들이 아디티의 황자라던가 류 제국의 황자라던가 레플리카 공작가의 후계자 같은 인물들이라서다.

내 주위에 그런 거물급 인물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이 정도 반전으로 까무러칠 듯 놀라는 건 좀 오바잖아? 내 놀람 세포들은 진즉에 다 뒈져버렸다고. 슬픈 사실이지만 사실이라서 더 슬프다. 크흑.

“시건방지게 말대꾸하지마!”

“황자님이나 저한테 말대꾸하지 마십시오!”

“!”

이나하가 졌다. 이건 100% 졌다. 어느새 그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내 옆에까지 다가온 사야가 당장이라도 아도라의 말빨에 박수를 쳐줄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힐끔 돌아봐왔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넌지시 건네 오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지?”

얘는 왜 나한테 친한 척이야? 본지 얼마나 됐다고. 게다가 아도라를 뿌리치려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칭찬이냐? 알고 보니 정체가 우디르였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태세변환이다. 나는 게슴츠레 뜬 눈을 하고서 사야를 올려다보다가 이내 입을 열어 비실비실한 대답을 꺼냈다.

“아, 예”

“나라면 이나하 님께 저렇게 대꾸 못할 거야. 멋있어.”

“그렇다고 반하시면 안 돼요. 이미 임자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이나하 님 손에 일찍 죽기는 싫어.”

그렇게 사야와 되도 않는 잡담을 나누고 있자니, 열 발짝쯤 앞에 떨어진 위치에서 싸우고 있던 아도라와 이나하 중, 어느 한 명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이나하가 먼저 백기를 든 모양이었다. 그가 한숨을 푹 내쉬며 대꾸하길 포기하고 자신의 흘러내린 앞머리를 쓸어내린다.

“!”

오우야, 저 치명적인 섹시함 좀 보소. 살인마법사라서 그런가, 얼굴까지도 살인적으로 잘생겼구만. 란이 저 인간이랑 엄청 닮았던데, 그 녀석도 앞머리를 쓸어 올리면 저런 CF속 한 장면 같은 연출이 가능할까? 아마도 가능하겠지? 허어, 란 주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이나하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왔다. 나를 향해서 말이다. 이제야 나한테 말을 걸 정신머리가 생긴 건가? 하는 표정으로 멀뚱히 그를 쳐다보자니, 이번에는 이나하가 나를 손가락질하며 아도라에게 물었다.

이번에도 아도라냐! 이 정도면 나, 거의 병풍인데.

“아까 전에 그 말은 대체 무슨 소리야? 쟤가 노아의 약혼녀라니?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그러시겠죠. 얼마 전에 한 약혼이니까요.”

“?”

아니, 그러니까 난 그런 약혼은 한 적이 없대도?

란이 약혼녀라며 폭탄선언을 했던 그 때의 일을 진짜로 믿는 인물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것도 그 인물이 내 측근 중의 하나인 아도라일 줄이야. 그녀에게 ‘사실 그 폭탄선언은 란이 친 구라야!’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솔직 고백을 털어놨다간 상황은 갑분싸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갑분싸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일컬음이다. 참 별별 줄임말이 다 있다니까.

여하튼 그런 건 싫다. 일단 잠자코 둘의 얘기를 들어보자.

“사실이야?”

“!”

얌전히 듣고만 있으려 했더니, 이번에는 이나하가 나를 향해 되물어왔다. 이제야 내가 나설 차례가 된 것인가? 하지만 어떻게 나서야할지를 알 수 없었다. 란 녀석과 약혼을 한 기억은 코딱지만큼도 없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니라고 했다간

아도라가 질 것 같다. 뭐? 노아 이즈하의 약혼녀가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목숨이 위험해진다던가 하는 걱정은 안 하는 거냐고? 그렇게 오래 지켜봐왔으면서,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군. 난 그렇게까지 심오한 생각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으로 가득했다. 내 친구가 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네. 보름쯤 전에 고백을 받아서 약혼하게 됐어요. 약혼의 징표는 그 곰 인형이었는데, 그 때 탑에서 그만 망가져버리는 바람에 흑!”

나는 여우주연상감이라 해도 될 만큼 열연을 펼쳤다. 물론 그 열연이란 내 기준에서다. 평소에는 울기는커녕 주변 모든 사람들의 머리채를 잡고 다녔던 나였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도라이기에 순간적으로 그녀가 ‘?’하는 표정을 지었긴 했지만, 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찬 모양이었다. 예를 들어, ‘아샤가 약혼자가 다친 일 때문에 몹시 슬퍼하는구나!’라던가 미안하지만 아도라, 사실 그것도 아니야.

“들으셨습니까?”

그녀가 날선 목소리로 이나하에게 따지듯 물었다. 그가 퍽 당황한 듯 우물쭈물하며 아도라의 부리부리한 시선을 회피했다. 그리고는 내 쪽을 유심히 쳐다봐오는 게 아닌가.

우는 척을 위해 고개를 숙여 훌쩍거리던 나는, 얼굴을 덮은 손가락 틈새로 이나하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저놈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나는,”

이나하가 말을 끊었다. 뭐라고 해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듯 고심하던 그가, ‘으음’하는 소리를 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몰랐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 아이가 노아의 약혼녀인 줄 알았으면 죽이지 않았을 거야.”

“대신 다른 누군가를 죽이셨겠죠.”

아도라가 매섭게 받아쳤다. 음, 맞는 말.

“맞아. 그랬겠지.”

이나하 또한 쿨하게 인정했다. 결국 내가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을 벌였을 거란 소리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일들을 물고 늘어져봤자 시간만 질질 끌게 될 뿐이다.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모양인지, 아도라도 더는 이나하에게 살인과 관련된 어떤 말도 쏘아붙이지 않고 내게로 눈빛을 날려왔다. 어찌 할지를 묻는 표정이다. 아아, 그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 시 빨리 이나하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류이의 해독약을 챙겨가는 일이니까.

나는 우는 척을 위해 얼굴을 덮었던 손을 슬그머니 내렸다. 이 때 이나하와 눈이 마주쳤는데, 내가 우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음에도 그는 그저 담담했다. 그런데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다. 왜지?

그의 부담스러운 눈빛을 슬그머니 피하려 고개를 옆으로 돌리던 때, 이나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노아의 짝이라기엔 너무 수수한데.”

라는 시비를 말이다

아니, 저 미친 자가? 내가 수수하다고!

“제가 대체 어딜 봐서 수수!”

하군.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수긍했다.

“음.”

가만 생각해보니 나는 수수함의 끝판왕이었다. 웨이브 풍성한 금발을 허리께까지 흩뜨린 우아하고 기품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영애들이 이 세계에는 아주 널리고 깔렸는데, 하필이면 검은 생머리에 별로 봐줄 것 없는 평범하고 수수하게 생긴 여자애가 아디티 3황자의 약혼녀라니. 내가 들어도 개소리 같다. 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란 말도 있지 않은가? 상황이 좀 안 맞다고? 아, 내가 국어에 약해서 그래. 응? 류이를 저격한 대사냐고? 그, 그건 아닌! 아, 이 말은 그냥 취소.

여하튼 이나하의 말은 뭐라 반박할 껀덕지가 없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나하는 나를 빤히 쳐다보다말고, 이런 말을 했다.

“하지만 노아가 왜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아.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다.

“?”

대체 저건 무슨 개소리일까? 란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나도 모르고 란도 모르는 걸, 이나하가 무슨 수로 알아? 지금은 시체가 되어버린 란도 저 말을 들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PPAP를 출 것 같다.

애초에 나도 란이 진짜로 나를 좋아해서 그런 말들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 나를 좋아하는 남자는 류이만으로도 너무 벅차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다 류 제국 황자로도 모자라, 이제는 아디티 3황자까지 나를 좋아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 나 까짓 게 뭐라고 그런 거물들이 나를 좋아해? 자기비하가 아니라, 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은가.

“흐음”

하지만 란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엔 뭔가 지금까지의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란이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자신의 하나뿐인 스페어 목숨까지 버려가며 나를 구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 루이스의 조수를 구할 이유가 그에겐 없잖은가. 오히려 죽일 이유만 잔뜩이지. 그런데 배를 관통당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나를 구한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나를 약혼녀라고 떠벌렸던 거야 그 녀석이 그런 장난을 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으니 대충 넘어 간다 쳐도, 방금 전 이나하가 꺼낸 저 말의 의미는 대체 뭐지? 란이 진짜로 나를 좋아할 거란 소리인가? 나는 그가 그저 충동적인 장난을 친 것뿐일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판단하기엔 목숨까지 버려가며 나를 구한 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녀석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엔 그건 말이 안 되는 막장 전개이고 7대 불가사의보다 더한 란의 마음인 부분이고 으음

내가 이런 허황된 생각의 늪에 잠겨있을 때, 사리분별이 빠른 아도라는 지금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않고 이나하에게 따지듯 요구했다.

“마하의 해독약, 가지고 계시죠?”

“그건 왜?”

“류 제국 황자가 독에 중독됐다더군요. 마하의 짓이니 황자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아, 마하 그 녀석 류 제국민만 보면 눈이 돌아가 가지고.”

이나하가 저리 중얼거리며 이번에도 앞머리를 쓸어 넘긴다. 조금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아도라를 향한 건 아닌 모양이었다. 그 마하라는 인물은 류 제국 핏줄이면서도 류 제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모양이다. 아마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는 거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 인생의 엑스트라인 그의 개인사정을 일일이 궁금해 하고 싶지는 않군. 그럴 정신머리도 없고 말이다.

“자, 가져가.”

이나하는 품속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응?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나는 쉽게 얻어낼 수 없을 줄 알고 거래까지 제안할 생각이었는데, 아도라는 저걸 ‘책임지십시오!’하는 말 한마디로 아주 손쉽게 얻어냈다. 나는 아도라가 건네받는 주홍빛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넋 놓고 쳐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아도라가 없었다면 이런 손쉬운 전개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틀린 소리가 아니다. 다만 여기서 반전은 아도라가 나를 따라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내가 아도라를 따라 강남을 왔다는 것이다.

“더 이상 쓸데없는 짓 벌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있었던 레플리카 영랑 측근 살해사건이 야벨의 짓인 걸 진작 알았다면, 제가 제일 먼저 나서서 황자님을 말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너에겐 그 사실을 숨겼겠지. 네가 내 계획을 방해할까봐.”

둘의 대화를 듣다가, 나는 란이 아도라에게 지금까지 저질러온 이나하의 소행을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란은 왜 이나하를 말리지 않은 걸까? 설마, 살인 방조?

그, 그런 건가? 란이 이나하의 살인을 방조했다고? 에이, 설마. 그 은근히 착하고 멍청한 인간이 그럴 리가

“알지도 못하면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그런 복수를 자처한 건 노아 도련님이 아니라 이나하 님이시잖습니까?”

“모두 노아가 원한 거야. 나는 노아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노아 님께서 뭘 바라는지는 알고나 계십니까?”

아도라의 질문에 이나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 답은 내가 듣기에도 오답이었다.

“복수.”

“틀렸어요. 노아 님은 그런 성정이 아니십니다.”

아도라가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지만, 이나하는 다시금 아도라에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켜봐온 노아는 복수를 갈망했다고, 그래서 자신이 그 과업을 대신 이루어주기로 한 것뿐이라고.

낄끼빠빠―낄 데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는 말을 잘 알고 있는 나라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인간은 피를 무서워해서 굽지 않은 스테이크조차 무서워한다고요! 그런데 복수를 원할 리가 있겠어요?”

버럭! 소리치는 내 말에 이나하가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봐온다. 그의 커다래진 붉은 눈동자는 며칠 전 내가 보았던 노아의 눈동자와 아주 빼닮아있었다. 피는 못 속인다 이건가.

문득 란이 나를 구할 때에는 왜 피를 무서워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궁금해졌다. 내가 아도라에게 요리를 배울 적에 스테이크의 피 냄새를 꺼려해 조리실을 도망치듯 탈출했던 인간이 바로 그가 아닌가. 이나하에게 공격을 당했던 그때의 나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상태였는데, 란은 어째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왜 나를 꺼려하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란은 피를 무서워한다기보다 누군가가 피 흘리는 광경이나 상처 입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크게 다친 나를 보고 눈이 돌아가 버렸던 것일지도

“거짓말 마. 노아가 피를 무서워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노아는 피 공포증 같은 건 없어.”

“아뇨, 무서워하십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시는 분이, 노아 도련님의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피를 무서워한다고 대답한 건 나였는데, 이나하와 아도라 간에 2차전이 발발되었다. 나는 그런 둘을 이제는 한심하다는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사랑싸움을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군. 세상의 모든 솔로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일찍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도라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속삭이며 말했다.

“아도라, 나는 일단 류이 황자님께 돌아갈게. 우리가 이러고 있는 지금조차도 많이 괴로워하고 계실 테니까.”

“아!”

이나하와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을 기세로 언쟁을 벌이던 아도라도, 그제야 우리의 본래 목적을 떠올려낸 듯 작은 탄식을 내뱉었다. 아도라의 새로운 모습을 오늘날 참 많이도 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아도라로부터 주홍빛 액체가 든 유리병을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사야에게 부탁했다.

“저기, 혹시 텔레포트 쓸 줄 아세요? 저 두 분은 많이 바쁘신 것 같으니까, 그쪽이 대신 텔레포트를”

“아니, 내가 해주지.”

“?”

나는 분명 사야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대답은 뒤쪽에서 들려왔다. 사야가 아닌 이나하가 꺼낸 대답이었는데,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놀란 눈을 한 내가 뒤로 고개를 돌렸다. 아도라는 ‘이 인간이 무슨 바람이 불었지?’하는 표정으로 이나하를 흘겨보고 있었다. 저 둘, 은근히 잘 맞는 부부가 될 것 같은데

“어, 그, 그래주시면 감사하고요.”

뻘쭘한 목소리로 이리 대답했는데, 이나하는 갑자기 내 손목을 덥썩 잡아채왔다. 아닛! 자신의 약혼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외간여자의 손목을 잡는다니, 이이런 사랑과 전쟁에서나 나올 법한 전개가!

“조건이 있어.”

“무, 무슨 조건이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유리병을 손에 꼭 쥔 채 되물었다. 아도라의 표정을 힐끔 보았더니 그녀는 별로 개의치 않는 얼굴이었다. 하긴, 아무리 약혼자라 해도 고작 손목 하나 잡은 걸로 길길이 날뛰는 건 좀 이상한가? 이상하지 않나? 아, 모쏠인 난 잘 모르겠다.

여튼 이나하는 나를 향해 이런 조건을 걸어왔다.

“노아가 깨어나면 아디티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노아를 집에 돌려보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해독제를 구하려던 요량의 아샤는

“아니,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가뜩이나 프란치아에서는 노아 이즈하가 레플리카 공작저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병사까지 풀어서 체포하려 난리인데.”

죽었어. 이젠 없어! 하지만 내 등에, 이 가슴에! 실속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세속적인 아샤가 살아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 모든 일들은 노아가 저지른 게 아니야. 약혼녀라며? 너는 노아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나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였다. 나는 그에게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실행하기엔 부적합한 인물임을 어필하고자 했으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혼녀가”

“?”

“마, 맞긴 한데요 어, 그러니까, 제가 신분이 천민이라서 사회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자신이”

“상관없어. 넌 천민이 아니라 귀족만큼의 발언권을 얻게 될 테니까.”

“에, 예?”

“곧 열리게 될 이번 재판에서만큼은 말이야.”

실패했다.

이나하는 깔끔하게 말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는 셔츠의 손목 부분이 갑갑한 모양인지, 소매의 단추를 풀다가 나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려왔다. 그리고는 물어오길,

“자신 있겠지?”

“”

란다. 나는 고개를 주억거렸다. 여기서 없다고 했다간 내 목숨에 지장이 생기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류이의 해독약을 뺏기거나 아니면 한 시 빨리 마법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경우는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상실하는 것과도 같기에, 일단 이나하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나는 알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실 란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혹시 모를 일이잖아? 그 징글맞은 녀석이 내 말은 순순히 들어줄지도. 뭐, 아마 희박한 확률일 테지만.

“노력해볼게요.”

“좋아.”

그는 마음엔 덜 들지만 이 정도면 준수한 대답이라는 듯, 흡족한 미소를 입가에 걸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저 고집불통인 성격은 누굴 닮았을까? 돌아가신 아디티의 황제일까, 아니면 살아있는 황태후일까? 순간 란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겼을 지가 궁금해졌다. 다른 건 몰라도 외모 하나는 탤런트 뺨치게 생겼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딱!

“엇!”

갑자기 이나하가 텔레포트를 시전했다. 눈앞에서 시공간이 일그러지기에 나는 그가 언질도 주지 않고 깜짝 텔레포트를 시전했나 싶어 허둥지둥 아도라의 팔을 붙잡았는데, 가만 보니 우리들을 이동시키려던 게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텔레포트를 통해 소환시켰다. 그게 무엇인고하니

“모, 모란?”

자줏빛 모란꽃이었다. 지금 계절은 모란이 필 때가 아닌데, 어떻게 모란이 이나하의 손에 붙들려있을 수가 있냐고? 마법사라도 되냐고? 어, 마법사 맞잖아

사실 이나하가 만들어냈다기보단 어느 화원 같은 곳에서 이동시켜온 꽃일 것이다. 이 세계의 귀족들은 마법으로 가꾸는 화원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곳이 정말 아디티 황궁 안이라면 그깟 모란 한 송이쯤 화원에서 이곳으로 이동시켜오는 일은 아주 식은 죽 먹기겠지.

그런데 뜬금없이 웬 모란? 나는 이나하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이건 또 무슨 의도일까?

“그날,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

예상치도 못한 행동이 이어졌다. 그가 손에 들린 모란 한 송이를 내게 내밀어온 것이다. 대체 이 로맨틱한 전개는 무엇? 약혼녀를 눈앞에 두고서 생판 남인 나한테 이런 꽃을 건네줘서 어쩌자는 거!

황급히 아도라를 향해 눈빛을 돌려보니, 그녀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오고 있었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꽃을 선뜻 받아들지 못하자, 오히려 아도라가

“저번에 모란 좋아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샤 님? 이상한 꽃은 아닐 테니, 받으셔도 됩니다.”

이라며 재촉해왔다. 아, 란이 내게 물었던 그때를 말하는 건가. 맞아. 장미보단 모란을 좋아한다고 했었지. 그런데

“그,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이나하는 그걸 어찌 알았을까? 앞서 나왔던 얘기들을 모두 들어봤을 때, 아도라는 지난 3년 동안 이나하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 같던데. 그때의 상황은 눈앞의 이 남자는 분명 몰라야 정상인데, 어떻게 그 많고 많은 꽃들 중에서 하필이면 모란을 건네 온 것일까?

이어지는 이나하의 대답에, 나의 의문은 10년 묵은 변비가 내려가듯 해소되었다.

“그 녀석, 너한테 자기 이름을 ‘란’이라고 했다며? 혹시 너에게 장미나 모란 중 뭘 좋아하냐고 묻지 않든?”

“어? 마, 맞아요.”

“노아가 세 살일 때, 내가 글공부 삼아 읽게 하던 동화책이 있었어.”

“?”

갑자기 웬 동화책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그 뒷말이 압권이었다.

“어느 나라의 심성이 나쁜 왕자와 그 나라의 평민이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왕자와 평민이 공작가의 영애에게 동시에 청혼을 했어. 왕자는 환상 마법이 걸린 장미 꽃다발을 건넸고, 평민은 길에서 꺾어온 진심이 담긴 모란 한 송이를 건넸지.”

“그거, 설마”

“읽어본 적 있나?”

읽어본 적은 없는데 뒷얘기가 왠지 짐작이 갔다. 보나마나 영애는 모란을 골랐을 테고, 가난하지만 사랑 가득한 평민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하는 내용이겠지.

자, 어서 대답해봐. 내 생각이 정답이지?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다음 말을 종용하기만 하는 내 눈빛에, 이나하가 말을 이었다.

“결말은 영애가 왕자를 고르고, 결국 환상 마법에 빠져 평생을 왕자 곁에서 독수공방하며 늙어가다 죽게 되는 내용이야.”

“뭐라고요!”

그런 비극이었어? 그 동화 작가, 혹시 셰익스피어냐!

반전이어도 너무 반전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뜨악하듯 입을 벌린 채로 경악하는데, 그런 내 반응을 보던 이나하가 웃음을 빵 터뜨렸다.

“네가 이런 애라서 노아도 너를 좋아하는 건가 보다. 그 녀석, 꽤 엉뚱한 타입이니까.”

“아, 아니, 그 말인즉슨 제가 엉뚱하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제가 엉뚱한 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주신 이 모란의 의미는 뭔가요? 미안함의 증표 같은 건가요?”

어느새 그로부터 모란꽃을 받아든 내가 쭈뼛거리며 물었다. 이나하는 싱긋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어쩜 그리도 란과 많이 닮았는지, 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에 홍조가 떠오르는 것을 감지했다.

아, 안 돼. 아도라의 앞이니 자제하라고, 미친 뺨아!

“뭐, 내가 지금 준 꽃은 대충 그런 의미야. 하지만 그거 알아?”

“뭘요?”

“어릴 적에 노아가 그랬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장미와 모란 중에 뭘 좋아하는지 꼭 물어볼 거라고. 그리고 좋아하는 꽃을 주겠다고.”

“아”

“너, 모란을 고른 거지?”

미,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그때 내게 모란꽃을 선물했던 건가? 아니, 그 전에. 꽃에 대해 물었던 게 나를 좋아해서 그랬다고?그, 그럴 리가. 그때면 내가 란을 만난 지 고작 3주도 채 되지 않았을 때다. 그 인간이 내게 호감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 만한 기간이 아니야. 이나하가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아닐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어차는 바람에, 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머릿속이 이내 새하얘져가는 기분이 들어왔다. 느릿한 움직임으로 손을 들어 올려 다물어지지 않는 입을 가리자니, 그런 내 귓가에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나하의 마지막 말이 쐐기처럼 날아들었다.

“노아가 가명을 ‘란’이라고 지은 건, 어쩌면 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겠다는 의미인 건지도 모르지.”

※갑자기 특별편이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건 타이밍상(란이 떡상하는 지금 같은 상황 ㅠ)좀 나중에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오늘 개인 사정상 본편을 쓰질 못해서.. 업로드를 안 하자니 독자분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아 뭐라도 들고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미리 써둔 특별편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본 특별편의 주제는 '류이의 감금 플레이'인데, 원래는 류이의 피폐 감금물을 기획했으나 캐릭터 본연의 성격과 갭 차이가 심하면 왠지 류이의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 좀 달달한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쓰고 나서 읽어 보니 감금물보단 그냥 므흣한 특별편 같군요. 감금 플레이 자체를 기대해주신 독자님들께는 죄송하다는 사죄의 한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흡..

참고로 본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수위는 15금도 19금도 아닌 17금 정도인 듯한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번 편을 건너 뛰어주시길 바라요!

덧붙여, 재미로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남자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ㅁ^!

(오글주의)(변태주의)

밖에 나가면 귀와 손이 꽁꽁 얼어 코에 당근만 붙인다면 올라프가 될 것만 같은 차디찬 날씨의 겨울, 그 어느 날.

류이의 조수가 된지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다. 류이의 조수로 지내는 일상은 나름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너무 분에 넘치는 호강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나란 인간은 주인 복 하나는 아주 제대로 타고난 것 같다. 이전 주인은 이 나라 최연소 공작가 후계자에, 다른 한 명은 옆 나라 차기 황제라니잠깐만. 가만 생각해보니, 로또 맞을 확률보다 이 두 인간이 내 주인이 될 확률이 더 희박할 것 같은데?

참으로 기가 막힌 내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 아샤는 오늘도 어김없이 류이의 서재에서 잡다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샤 님!”

그런 내게 진 녀석이 다가온다. 나보다 나이 많은 오빠뻘에게 그게 무슨 험한 말버릇이냐고? 어이, 내 정신연령은 진보다 열 살은 더 많다고. 물론 내가 산 세월만큼 철이 들지는 않았다만, 나이로 치자면 내가 진보다 한 수 위인데 이 정도 말버릇이야, 뭐.

“왜요?”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진을 쳐다보자, 진이 손에 웬 이상한 병을 든 채로 나를 빤히 쳐다봐오고 있다. 뭐지, 저건? 저 유리병을 봐달라는 뜻 같다. 유리병을 빤히 쳐다봐주었다. 그러자 진이 내가 그 병에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기라도 한 것인지, 얼굴에 화색을 띄며 내게 시끄럽게 말해왔다.

“제가 대단한 걸 얻어왔어요!”

“대단한 거요?”

“네, 네! 이것 좀 보세요. 색이 영롱하죠?”

“어,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뭔데? 비약 종류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색이 영롱하니 어쩌니 하며 떠들고 자빠져있는 진을 흘끔 쳐다보다가 다시 처리하던 일 더미들로 고개를 돌린 나. 그런 내게 진이 답답하다는 듯 갑자기 어그로를 끌어오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샤 님!”

“아, 당연히 모르죠!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말씀해주실래요?”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치 홈쇼핑 광고라도 하는 듯한 말투로 진이 설명을 시작한다. 들어보니 그 병에 든 액체의 정체는 이러했다.

“발루아에서 건너온 특제 비약이에요! 얼마나 비싼 물건이냐면, 이 병 하나로 방이 네 개 정도 딸린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게 뭐에 쓰이는 거냐면”

“?”

“아주아주 강력한 비약이래요!”

그렇다고 한다. 나는 다시 내가 처리해야 할 서류들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서있던 진이 조급한 목소리로 내게 소리쳐오는데

“아샤 님! 그거 아세요! 저희 황자님, 일주일 동안 강의 없으신 거! 자유의 몸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조수인 제가 그걸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대체 저런 소리는 왜 하는 걸까? 아주 강력한 비약을 들고 와서는, 류이가 일주일 동안 강의가 없어 한가하다는 사실은 왜 말하는 거지?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진의 행동거지와 하는 말마디에 나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그리고 본론을 말하라고 재촉하려던 참이었는데,

“칸?”

갑자기 칸이 뿅! 하듯 은신을 풀고 등장했다. 진과 칸이라면 덤앤더머 같은 한 쌍이 아니던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은신까지 풀고서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무슨 용건인지 말이다.

“무슨 볼일이에요, 대체?”

나는 칸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진에게서는 영양가 있는 대답을 얻어내기 힘들 것 같으니, 과묵하면서도 할 말만 딱딱 골라서 하는 칸을 노려본 것이다.

칸의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은 이러했다.

“발루아 사람으로부터 얻은 특제 건강 비약이니, 황자님의 식사에 저것을 손수 타주셨으면 합니다.”

왜 하필 그런 일을 나한테? 혹시 독약 같은 거 아니야?

“왜요? 당신들이 해도 되잖아요.”

“아, 저희는 군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황자님이 드시는 음식에 함부로 마법을 걸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황자님께 직접 넣어 드시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황자님은 이런 비약을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비약이라 해도 당신께선 그런 거 없이도 튼튼하시다며 거부하시곤 하셔서”

말끝을 흐리는 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무릎을 탁 쳤다. 고건 또 몰랐네. 하긴, 류이는 편법이나 비겁한 걸 싫어하니까 비약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 또한 안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엔 비약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식사 때 몰래 타드리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진과 칸의 열정적인 끄덕거림에 나는 덩달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이유에서 나를 찾아온 거라면, 당연히 거부할 이유가 없음이다. 나는 류이의 조수이고, 저들은 류이를 보필하는 호위 기사들이 아닌가. 류이의 몸이 보다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갸륵한 마음씨들이라고 칭찬해주어야 하는 부분일 거다.

“그럼, 오늘 저녁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진의 말에 대답해주고서 그가 건네 오는 비약이 든 병을 두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고이 챙겨 넣었다.

시간은 금방 지나, 어느덧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다. 넓디넓은 기숙사와 그 중앙의 테이블 위에 류 제국 메이드들이 차려주고 간 식사들을 눈앞에 두고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참. 슬슬 류이가 올 때가 됐다. 원래 같으면 저녁 시간 전에 돌아왔겠지만, 오늘은 일이 있어 조금 늦을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일찍이 받았었다.

마침 타이밍 한 번 좋군. 진과 칸이 부탁했던 그 비약을 식사에 넣어주면 되겠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비약 병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류이의 자리에 놓인 스프 접시에다 쪼르르 부었다. 그리고 티 나지 않게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섞어주었다.

부디 저걸 먹고 류이가 보다 건강해졌으면. 사실 그는 이미 류 제국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건강하고 모자랄 데 없는 체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더 건강해진다 해서 나쁠 건 없겠지. 나는 그리 생각하고 내 자리에 놓인 스프를 수저로 홀짝홀짝 떠먹기 시작했다.

달칵-

“!”

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기숙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열린 문으로 류이가 들어왔다. 한동안 문이 닫히지 않다가 그가 내 코앞까지 다가온 후에야 기숙사 문이 닫히는 걸 보면, 그의 호위 기사들도 모두 은신한 채 이곳에 들어온 모양이다.

“오셨어요?”

내가 빵끗 미소 지으며 묻는 말에, 류이가 예쁜 눈웃음을 날려 오며 ‘응, 다녀왔어’라고 답해왔다. 뭔가 신혼부부 같은 분위기라고?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농담을 류이는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한 인물이라, 나 같은 천민과 엮이는 전개 따윈 택도 없다고.

라고 이때의 나는 생각했다.

류이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내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또 무슨 일을 하며 이곳에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저녁 식사시간마다 그가 의례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었다. 마치 초등학교 자식을 둔 부모가 퇴근 후 자식에게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말이다. 좋아, 대답해주지!

“기숙사 청소랑 연금 재료들 정리하고, 황자님 앞으로 온 서류들 종류별로 분류해놨죠.”

훗, 하는 으쓱한 웃음까지 덧붙여준 내 대답에 류이는 재미있다는 듯 작게 웃었다. 식사중인지라 살포시 입을 가리고 웃는 그는 굉장히 우아했고, 또 섹시했다 크, 이 뇌쇄적인 남자 같으니라고. 이런 남자를 가지게 되는 여자는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반찬을 집어 먹는데, 스프를 떠먹던 류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오늘은 스프 맛이 뭔가 묘하네.”

라, 라고 아, 아니야. 그거 완전 기분 탓.

“오늘 주방장이 무슨 실수라도 했나보죠, 뭐.”

“그런가 보다.”

류이가 내 말에 수긍하며 스프를 한 마리의 공작새 같은 우아한 몸짓으로 떠먹는다. 계속 먹는 걸 보아하니 묘한 맛이긴 해도 이상한 맛은 아닌가 봐. 천만다행이군.

그의 수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나는, 류이의 몸 건강에 한몫 보태주었다는 뿌듯함에 얼굴 한가득 엄마미소를 걸어 올렸다.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로 말이다.

‘사건’은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난 후, 나와 류이가 잘 준비를 마친 뒤에 일어났다.

류이는 아침형 인간인지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 곧바로 씻은 후 독서를 하거나 체스를 두는 등의 여가 시간을 보내곤 했다. 오늘도 당연히 그런 스케줄이 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저기, 아샤.”

“네?”

잠옷을 입은 류이가 소파에 앉은 채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조수로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말이다. 저 눈빛 설마 벌써 자러 가자는 건 아니겠지! 자려면 기숙사의 불을 꺼야 하지 않은가. 마법 재료 준비를 하다 말고, 나는 고개를 들어 올려 그를 쳐다보았다. 에이, 이제 겨우 9시밖에 안됐는데, 설마.

분류하고 있었던 재료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나는 류이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려보였다. 류이는 나를 가만히 응시해오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뭐지, 저 눈빛?

어쩐지 그의 상태가 평소에 비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가던 그 무렵

“나, 머리가 어지러워.”

“뭐라고요!”

나는 화들짝 놀라며 류이를 향해 달려갔다. 아니, 달려가려 했는데

“악!”

책상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을 찧어버렸다. 하지만 내 새끼발가락이 어디 대수겠는가? 나는 참새마냥 콩콩 뛰며 류이를 향해 뛰어갔다. 내 발가락 녀석보다도 주인님의 안위가 더 중요한 게 매우 당연하니 말이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혹시 감기인가!”

류 제국민들은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게다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기엔 요 최근의 류이는 옷도 따뜻한 코트를 걸치고 나간 데다, 추운 곳에서 덜덜 떠는 경험을 한 적도 딱히 없다. 그런데 감기기운이? 그럴 리가. 내 추리로는 일단 감기는 아니다.

호, 혹시 아까 전에 내가 수프에 탔던 그 비약 때문은 아닐까!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설마 진과 칸이 내게 독약을 준 건 아닐 거야. 그래, 진짜로 아닐 거다. 설마 그들이 엄청난 흑막이라서 류이를 암살하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거나, 그런 전개는 아닐 거야. 아, 아니어야만 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에 침을 낼름 바르며 류이의 곁에 냉큼 앉았다. 그리고 그의 이마로 손을 뻗었다.

“열이라도 나나?”

중얼거리며 그의 앞머리를 자연스레 넘기고서 이마를 짚어보자니, 그런 나를 류이가 새카만 눈동자로 뚫어져라 쳐다봐온다. 그러고 보니, 이거 불경죄 아닌가? 어라? 지금 천민이 허락도 없이 천자인 황자의 몸에 손을 댄 거?

“아앗, 죄송해요!”

소스라치듯 놀라며 내가 손을 떼는데, 갑자기 멀어지던 나의 손목을 류이의 손이 낚아챘다. 이건 또 뭐지?

동그래진 눈동자로 류이의 얼굴을 쳐다보자니, 문득 그의 눈빛이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평소에는 상대를 또렷한 눈으로 마주보던 류이가, 오늘따라 눈동자의 초점이 마구 흔들리는 것이다. 마치 약이라도 한 사람처럼. 어? 약을 한 눈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고? 혹시 마약을 해본 적 있는 게 아니냐고? 새, 생사람 잡지 마!

“너무 어지러워.”

그는 갑자기 내 손목을 잡지 않은 다른 쪽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짚는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주체하기 힘든 사람처럼 몸을 잘게 떠는데

“괘, 괜찮아요?”

많이 놀랐아, 이게 아니고.

그 상태가 어떤 것임을 알지 못한 나는, 류이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 직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아샤.”

“!”

이, 이게 지금 무슨 상황-!?

갑자기 류이가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나의 양 손목을 잡아채는가 싶더니, 내 몸을 뒤로 눕혀버렸다. 소파에서 그대로 뒤로 고꾸라져버린 나는, 내 위에 살포시 올라탄 채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류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빚어 만든 듯한 그의 눈매며 콧날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다. 심장이 마치 달 토끼들이 방아 찧는 것처럼 쿵덕쿵덕 뛰기 시작했다.

미, 미친 이 남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늘 그렇듯이 ‘오목이나 둘래, 아샤?’라고 물어봐야 정상인데? 아, 물론 류이는 바둑을 좋아하지만 내가 바둑을 못 두기 때문에 오목을 하곤 했다. 어쨌거나 그런 걸 하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때워야 평소다운 건데!

“왜, 왜 이러세요!”

놀란 목소리로 내가 묻자 이내 류이는 고개를 내 목덜미로 파묻듯 고개를 숙이는가 싶더니,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아- 하는 한숨을 내쉬어왔다. 그의 숨결이 목에 닿는 바람에 몸을 살짝 떨자, 류이는 내 얼굴 근처에서 고개를 살짝 떼며 나의 눈동자를 마주해왔다. 어깨에서 가닥가닥 흘러내리는 그의 단발머리를 홀린 듯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나의 초록빛 두 눈을 말이다.

“아샤, 네가 너무 좋아.”

“뭐라고요!”

지,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네가 너무 좋아’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였던 게 아닐까? 그래, 나 같아도 류이 정도의 얼굴을 하고 산다면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게 반하고 또 반할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이다.

아니, 그런데 난 류이가 아니지 않은가. 류이의 미모에 비하자면 해산물 중에서도 저렴한 축에 속하는 오징어 급인 나를 왜

“저, 저기.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하던 일이 좀 급해서.”

“그런 거 하지 마.”

“네? 하지만 이번 연금술 재료 분류 담당이 저라, 내일까지 끝마쳐 놔야”

“누가 너한테 그런 일 하래? 난 일하라고 시킨 적 없어.”

“!”

물론 저 말은 사실이다. 류이는 내게 이런저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특히 수업과 관련된 도움에 관해서는 더더욱. 하지만 조수로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받아먹는 입장이니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일 저 일을 끌어들여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류이가 좀 이상하다. 평소에는 내가 일을 하든 말든 내 자유라며 터치하지 않았으면서, 오늘은 왜 이런단 말인가?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멀쩡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느 기점 이후부터 이상해진 거 같

“!”

아, 그 비약이 설마!

대단한 비약이라며 주절거리기만 하고 비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던 진의 얼굴이 뇌리를 스쳐지나가며, 뭔가 불길하고 쎄한 기운이 등골을 훑고 지나가는데 불길한 예감은 역시나 틀리지 않았다. 언제쯤 틀리는 날이 올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다 못해 염라대왕과 7지옥에서 저승차사들과 함께 심판이라도 받는 상황쯤이나 되어야 그런 날이 올까?

류이는 내 손목을 붙잡은 채 으르렁거리듯 말해왔다. 늘 상냥하게 웃기만 하던 인간이 오늘따라 초조한 얼굴을 한 채로 말이다.

“아무데도 가지마.”

으, 응? 이건 또 뭔?

“뭐, 뭣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같”

주절거리며 류이의 믿을 수 없는 한마디에 뭐라 대꾸를 해보려는데, 그런 내 입을 류이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틀어막았다. 덕분에 내 왼손이 풀려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류이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이내 나를 위에서 깔고 앉은 채의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왔다.

불과 나의 얼굴 위로 10cm거리밖에 두지 않은 그의 얼굴, 그 아래에 위치한 붉고 선이 고운 입술 틈으로는 이런 말이 새어나왔다. 내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말이다.

“내 곁에만 있어. 너는 내 거니까.”

“!”

다다음 날이 되었다. 미친.

“저기, 황자님”

“안 돼.”

“화, 황자님 아니, 저”

나는 감금당했다. 갑자기 웬 뜬금포 감금?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저께의 류이는 ‘너는 내거다’라고 선포한 이후로 갑작스레 나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침대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었다. 그런 후에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었다.

“도망칠 생각 하지 마. 놓아주지 않을 거니까.”

라고

“?”

참으로 어이가 없음이다. 내가 류이의 거라고? 그러니 도망치지 말라고? 아니, 그래. 물론 내 주인이 류이고 나는 류이의 조수이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내가 류이의 소유라고 봐도 되는 부분인 거겠지. 하지만 내가 언제 도망치려고 한 적이 있었는가? 충분히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건만, 지금 류이의 행동은 자꾸만 도망치려는 상대를 가둬두려는 사람 같았다. 이 빌어먹을 진, 칸 자식들! 대체 류이에게 무슨 비약을 먹인 거야!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도망 안친다니까요. 저 사야 할 것도 있고 해서 밖에 나가봐야 하는데, 이만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벌써 이틀째다. 답답한 건 둘째 치고, 류이에게 걸린 비약의 효과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나도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안 돼.”

그런 내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을 그, 류이는 나긋한 목소리로 나를 향해 대답해왔다. 이내 그는 의자에 앉아 독서를 하다 말고 탁 소리 나게 책을 덮으며 그것을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렸다. 그리고는 답답하다는 듯 셔츠 맨 윗 단추를 푸는 것이다. 응? 단추는 왜?

“황자님?”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묻는데, 어느새 류이는 목을 조이던 넥타이까지 벗어던졌다. 이쯤 되면 대략 머리가 멍해진다. 왜 저러지? 이 시간에 설마 샤워라도 하려고? 후다닥 고개를 옆으로 돌려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오전 11시! 너무 이르잖! 아, 아니. 이르긴 뭐가 일러? 정신 차려라, 뇌 이 자식.

“뭐, 뭘 하시려는”

아침에 잠이 깬 후부터 류이가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아 내내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던 나였으므로, 이불로 온몸을 꼬옥 덮으며 이상행동을 보이는 그를 유심히 주시했다. 그는 빠른 행동력으로 다음 일을 추진했다. 그것은 바로 햇살이 들이치는 창문에 곤색 비단 커튼을 쳐버리는 것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뭐 잘못 드셨어요!”

나는 류이를 향해 짐짓 예의 없어 보일 수 있는 말투로 소리쳤다. 그러나 나는 곧 이 질문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예의 없는 말투라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류이는 뭘 잘못 먹은 게 맞잖은가?

이 젠장맞을 진과 칸에게 반드시 공포의 쓴맛을 보여주겠노라. 지금 이 방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들의 뚝배기를 한 대씩 손날로 때려주는 상상을 하며, 나는 불안한 눈초리로 류이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류이가 가벼운 손짓으로 옆머리를 귀 뒤로 넘긴다. 그 자태가 몹시 섹시해서, 나는 순간적으로 주변에 휴지가 없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코피, 코피날 것 같아! 아니, 코피보다도 말야.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코피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분위기 엄청 위험하다고!

“왜 이러시는?”

이불에 콕 파묻힌 채 그를 향해 묻자니, 그는 평소에 입고 다니는 정장 조끼까지 벗었다. 새하얀 셔츠 하나만 입고 있는 류이가, 이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려왔다.

“아샤.”

그리고는 너무나도 예쁘게 미소 짓는 것이다. 저 미소의 의미는 무엇?

내 머릿속에서 변태 세포가 내지르는 환호성이 귓가에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오는 순간. 류이가 나를 향해 가까이 다가왔다.

내 침대에 다가온 그가, 살포시 위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침대 위에 앉아 몸을 웅크리는 나를 가만히 쳐다봐오는 것이다. 새카만 흑요석 같은 그 눈빛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러지 마세요!”

부끄럽잖아! 본인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자각하고는 있는 거야? 아니지? 그렇지!

본인 얼굴이 살인병기 급이라는 걸 모르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대담하게 굴 수 있는 걸 거다. 대체 류이는 왜 이렇게 주제파악을 못하는 거야? 본인 주제가 너무 높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건가! 억떡계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잔인한 사람!

“하지 마?”

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어온다. 정말로 싫어?라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얼굴은 빨강 파프리카보다도 붉어진 상태. 그런 내 얼굴을 흥미롭다는 듯 빤히 쳐다보던 류이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거짓말.”

“아, 아니거든요”

“아샤, 너는 너무 예뻐.”

“아, 안 예쁜데요.”

“아샤.”

“아니, 진짜 안 예쁜”

“나 있잖아, 예쁜 네가 너무 가지고 싶어.”

“!”

이 증상, 일전에 나도 겪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고, 내 걸로 만들고 싶고, 온몸이 화끈거리고 덥고 그랬던 증상. 그래, 바로 소위 말하는 흥분제를 먹었던 그때!

칸, 진! 이 새끼들이-!

“아, 안 돼요. 저를 가지다니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악!”

내 몸은 류이의 손에 의해 앞으로 당겨졌다. 그가 나의 팔을 붙잡아 자신에게로 끌어당긴 것이다. 내 어깨에 고개를 파묻은 류이가 나의 머리카락 향기를 맡는 듯 잠시 조용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내 귓가에 나직이 중얼거리길

“네 향기, 너무 좋아.”

라는 것이다. 이 인간이, 나를 분위기에 취하게 만들려고 작정했나? 어! 어떻게 비약에 취했는데도 그때의 나보다 훨씬 매력적인 거냐고! 나는 완전 또라이 술주정뱅이 수준이었는데, 잘생기면 다냐? 너무 다잖아!

“화, 황자님 향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만”

떨어져달라고 말하려했다. 그런데 그 말을 순순히 들어줄 그가, 아니지. 그의 상태가 아니었다. 어지간한 비약에도 내성이나 보호 마법이 걸려있는 그, 류이에게조차 효과가 발현될 정도의 비약이라면 얼마나 강력한 비약이었겠는가?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음이다.

“널 가지고 싶어, 아샤.”

류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다. 나를 가져? 가, 가진다는 의미가 대체 뭔데? 설마 내가 상상하는 그렇고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로 그런 건 아니겠지!

“저를 어떻게 가지시겠다는 건데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내 음란마귀 세포 녀석들이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나는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됐다.

류이의 초점이 흔들리며, 그가 잠시 품에서 나를 밀어내며 어지러운 듯 시선을 아래로 내린다. 그리고는 손을 셔츠 단추 쪽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또 단추에 손이 왜?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

류이이이이! 지금 뭐하는 거야!

“옷을 왜 벗으시려는 거예요? 네!”

단추를 하나둘씩 풀기 시작한 그가 네 번째 단추쯤을 풀고 있을 때,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생각들을 물리치고 황급히 류이의 양 손목을 붙잡았다. 손목이 꽤 뼈대가 있었다. 여자보다도 예쁘게 생긴 남자라 몸도 여리여리할 것만 같은데, 와, 생각보다 남자

“너무 더워.”

“그, 그래도 안 돼요. 남녀칠세부동석 몰라요? 다 큰 남자가 다 큰 여자 앞에서 왜 옷을 벗어요!”

“다 큰 남자가 다 큰 여자 앞에서 옷을 벗을 이유는 유일하지.”

“뭐라고요!”

이, 이 인간이! 다 알면서 벗고 있었던 거야? 그래!

진짜로 하자는 건가? 이쯤 되면 머리가 멍해지다 못해 하얘지다가 아예 소멸해버리는 기분이다. 아, 아니. 하긴 뭘 해? 내가 뭘 해? 뭐,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이 변태 아샤야!

“이건 진짜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류이를 밀어냈다. 그리고 다급히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런 나를 그가 붙잡지 않는 것이다. 그럴 리가 없는데? 침대를 손으로 짚고서 반쯤 엉거주춤 일어난 자세로 옆을 돌아보았다.

“”

류이가 굉장히 씁쓸한 눈빛을 하고서 나를 바라봐오고 있었다.

“!”

그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버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버린 것인지, 나는 스르르 다시 침대에 주저앉아버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기도 했다. 아까 박은 새끼발가락 자식이 폭주라도 해버린 걸까? 그래서 내 무릎을 고장내버리기라도 한 걸까?

그런 이유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나도 내가 왜 다시 침대에 털썩 앉아버렸는지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아샤, 네가 너무 좋아.”

류이가 또 고백을 해왔다. 솔직히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알 길은 전혀 없다. 단지 비약에 취해서 저런 말들을 늘어놓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어찌 안단 말인가. 내가 비약에 취했을 때에도 류이를 좋아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온갖 고백을 늘어놓으며 갖고 싶다고 떠들어댔지 않았었는가.

류이도 그때의 나와 똑같을 뿐이다. 하지만

“저도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다. 류이처럼 아름다운 남자가 눈앞에서 온갖 수를 쓰며 나를 유혹하는데, 나도 여자다. 나는 완벽하디완벽한 미남을 눈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제 3자의 시선 같은 게 아니다. 결국 나는 함락되어버렸다.

“가져도 돼?”

류이는 예쁘게 눈웃음 지었다. 나는 얼굴을 홍당무 저리가라 할 정도로 새빨갛게 붉히고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나도 모르겠다. 류이를 좋아하냐고? 당연히 좋아한다. 그것이 남자로서 좋아하는 것인지 단지 주인으로서 좋아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지금의 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조, 좋을 대로 하세요”

쭈뼛거리며 침대 위로 올라 류이의 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레 시선을 들어 올리니, 어느 때보다도 밝고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는 그의 얼굴이 있었다. 호선을 그린 입매가 예술 그 자체였다.

이토록 눈부신 남자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갖고 싶어 한다니. 속물적인 생각이라는 거 나도 잘 알지만, 왠지 모르게 영광스러웠다. 한 제국의 황자가 나 같은 일개 천민을 거들떠라도 봐주는 게 고맙기도 했다. 원래대로라면 나는 그들의 발길에 채이고 나가떨어지는 역할의 돌멩이어야 했을 것을.

“아샤.”

듣기 좋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류이가 나를 느릿한 움직임으로 침대에 눕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저항을 할 이유가 없다. 그가 나를 위에서 내려다볼 때, 나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어느 때보다도 매혹적인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이 남자에게 취할 것 같다. 그런 오글거리는 표현은 대체 왜 쓰는 것일지 궁금해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쓰고 싶었다. 이 남자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

“저, 저도 좋아해요.”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에게 고백했다. 류이가 싱긋 미소 지으며 내게로 상체를 숙여왔다. 입을 맞추려는 것 같아,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따스한 숨결이 와 닿고, 이내 내 입술에도 그가 닿았다.

그의 손이 말이다.

“?”

입술처럼 말캉한 감촉이 아니었기에 본능적으로 눈을 뜬 나의 앞에는 류이의 예쁜 얼굴이 있었다. 그의 눈 위를 짙게 드리운 검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도 보았다. 그런데 내 입술에 닿은 것은 다른 부위였다.

입술이 아니라 그의 손이었던 것이다. 류이는 자신의 손으로 내 입과 자신의 입 사이를 막음으로써 입맞춤을 방지했다. 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누운 채로 류이를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그가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리고는 침대 위에 무릎을 굽힌 채로 앉아, 갑자기 손가락을 딱! 하고 부딪치는데

“아아아아악-!”

비명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은신이 풀리며 침대 코앞까지 끌려왔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정확히 류이의 손에 그의 멱살이 쥐여지기까지 했다. 여기서 ‘누군가’란 진을 뜻함이다.

“진, 네놈 짓이지?”

이, 이렇게 열 받은 류이의 모습도 참 보기 힘든데

참으로 타이밍 좋게(?)도 중요한 일이 시작되려는 순간, 류이에게 걸린 비약의 효능이 끝나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속으로 내심 아쉽기도 하면서, 머릿속에 아찔한 생각 하나가 스쳐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가만 보니까, 이대로 류이와 갈 데까지 갔다면 이 방 안에 있는 호위기사들 전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게 되는 거잖아-! 이런 관음증 변태들을 봤나!

“저, 저는 그냥 단지 류 제국의 든든한 후계를 위해”

“네가 그런 걸 왜 신경 쓰지? 변명은 집어치워. 너는 사형이야.”

“에에에엑-! 황자님! 그래도 사형은 좀 너무하잖아요!”

예전에 내가 들었어야 했지 않을까 싶은 단어가 등장했다. 와우, 사형씩이나. 진을 진짜로 사형시킬 마음으로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지금 류이의 기분은 몹시 좋지 않아보였다.

뭐, 당연히 그렇겠지. 하마터면 천민이랑 할 뻔―무엇을?―했는데 말이야

“황자님, 제가 죄송해요.”

나는 류이의 셔츠 끝자락을 붙잡으며 조심스레 사과했다. 애초에 내가 오케이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류이의 기분도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건 모두 내가 어리석은 탓이야. 괜히 내 욕심 때문에 류이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다. 내 주제에 류 제국 황자씩이나 되는 인물이 가당키나 해? 평민인 입장이었어도 하늘의 별과 같은 인물인 그를 말이다.

“제가 그만 제 주제도 모르고 황자님께 큰 결례를 범할 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비약도 사실 제가 탄 거예요. 물론 흥분제인지는 모르고 넣었지만”

“아, 아샤 님”

“전부 다 제가 부주의한 탓이에요. 황자님께 실수를 범할 뻔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왠지 울고 싶어졌다. 나는 왜 천민으로 태어난 걸까? 하다못해 남작 정도 되는 가문의 영애 정도로만 태어났어도 이렇게까지 나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한 기분은 들지 않았을 것 같다. 코를 훌쩍이며 사과의 말을 주절거리는데, 그런 나를 쳐다보며 류이가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그가 진을 저 멀리 내던지더니 나를 향해 몸을 돌려왔다. 그리고는 내 양 손을 꼬옥 붙잡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야.”

“네?”

어울리지 않게 무릎을 꿇고 앉은 다소곳한 자세를 한 그가 나를 정면으로 바라봐왔다. 그리고는 말했다.

“나는 단지 이런 비약의 효과를 지닌 상태로 아샤, 너를”

“”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래.”

류이의 말에 내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다래졌다. 방금 내가 들은 말이 대체 뭐지?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류이가 나를? 내가 류이를? 류이가 나를? 류 제국의 황자인 그가

나, 나, 나나를!

“거, 거짓말하지 마요! 황자님이 저 같은 걸 왜”

“그렇게 너 자신을 폄하하지 마. 그리고 아샤, 나는 네가 천민이든 귀족이든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

류이는 말해왔다. 그의 목소리는 사탕보다 달콤했고 그 무엇보다 부드러웠다.

마치 심장이 녹아내릴 것만 같아.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진 나를 향해 류이는 이렇게 덧붙여왔다.

“나는 그냥 너란 존재가 좋은 거니까.”

“!”

THE END.

내 수명이 다하는 것을 느끼고, 나는 스르르 뒤로 쓰러져 침대 위에 누워버렸다. 눈을 감았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각목처럼 일자로 누워 굳어버린 나를 쳐다보다가, 그런 내 반응이 수줍어서 나온 것임을 깨달은 류이가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도 잠시였다. 그는 내게 ‘잠시만 기다려줘, 아샤.’라고 말하더니 침대에서 일어났다.

“진, 칸. 잠시 나 좀 보자.”

금세 살벌해진 표정으로 돌변한 류이가 몸을 돌렸다. 그러더니 구석에 나동그라진 진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울상으로 변한 진과, 좋지 않은 표정을 한 칸이 은신을 풀며 등장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진실의 방―이라 쓰고 서재라고 읽는다―으로 끌려가, 기숙사 방안에까지 비명소리가 들릴 정도로 얻어 터져야만했다. 이것이 바로 해피엔딩.

이나하에게 해독제를 얻은 나와 아도라는 그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법 대학에 돌아올 수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나만 대학에 돌려보내주고, 약혼녀인 아도라는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고 말했었으나

“싫습니다. 이나하 님이 저지른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라도, 지금은 당신을 얼굴을 마주보며 지내고 싶지 않네요.”

라고 얄짤없이 거부해버리는 바람에 이나하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마음대로 해’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도라의 친구가 나란 사실을 들었을 때 그가 지은 표정은 썩 볼만했다. 마치 아끼던 조개를 잃어버린 보X보노 같은 눈빛이었으니까.

아도라는 텔레포트로 이동되기 전, 마지막까지 ‘내 친구를 죽인 살인마’라며 이나하를 힐난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이나하는 그저 멋쩍은 듯 웃기만 할 뿐 아도라에게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사실 아도라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 말이다.

대학으로 돌아온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류이에게 해독제를 전해주는 것이었다. 진과 칸은 잔뜩 안도하며 해독제를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잠들어있는 류이에게 약을 먹이는 일도 진이 했다. 나는 그저 옆에서 그 모습들을 지켜보기만 했다.

원래대로였다면 내가 했어야 할 일들이었을 거다. 자연스럽게 내가 그의 입술 새로 해독제를 흘려 넣어줬겠으나, 지금의 내가 류이의 곁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

류이의 호위 기사들이 한 말 때문이었다.

“그나마 의식을 잃으셔서 다행이에요. 잠들어 계시는 동안 고통은 덜 느끼셨을 테니까요.”

“그러게요.”

진의 말에 영혼 없는 대꾸가 나의 입술 새로 흘러나갔다. 나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진과 칸, 제이들이 나를 쳐다봐왔다. 꽤 준수하게 생긴 호위 기사들이 나를 쳐다봐오니 쑥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개뿔, 하다하다 이 녀석들에게까지 호감이 생기는 날이 온다면 그 날은 아마 온 우주가 멸망하는 날일 거다.

“이 해독제는 어떻게 구해오신 겁니까? 아샤 님.”

셋 중에 한 명이 내게 물어왔다. 말투만 보아도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누군가란 바로 제이였다. 진이 뜨끔 하는 표정을 짓는데, 나는 아랑곳 않고 제이에게 사실을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무슨 거짓말을 하랴? 내가 직접 만들어왔다고 해, 아니며 사왔다고 해? 둘 다 어림도 없는 거짓말이니 진실을 말하는 수밖에는 없다.

“야벨을 찾아갔었어요. 해독제를 얻으러.”

“지, 직접 찾아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무모한 짓을 왜!”

“조용히 해라, 제이.”

“네? 하, 하지만”

칸이 제이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꾸짖자, 제이가 뒤통수를 한 대 까인 사람의 표정을 짓는다. 그러다가 도무지 지금 분위기와 말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진과 칸을 향해 야무지게 따져 묻는데.

“야벨은 아샤 님을 죽이려고 한 집단이 아닙니까! 설마, 그 때 아샤 님께서 부탁이 있다고 하셨던 게 방금 들은 말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과연 예리하군. 나는 진에게만 이나하를 만나러 갈 것이니 텔레포트를 시켜 달라고 전했었다. 칸은 진과 덤앤더머인 입장이니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쳐도, 제이는 그 얘기를 전해 듣지 못한 모양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꽤 화난 표정으로 진에게 큰소리쳐 묻는 제이를 향해, 칸이 첨예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있다면 어쩔 거지, 제이? 아샤 님께서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면 해독제를 이보다 빨리 구해올 수는 없었을 거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도 심장까지 괴사가 진행됐을 거라고.”

저 자식, 저렇게 진지한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데.

하지만 틀린 말은 없다. 내가 조금만 더 늦게 도착했더라면 세포 괴사는 심장 부근까지 진행되어, 류이의 건강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었음이다. 다행히도 해독제를 먹인 이후부터는 검게 변한 류이의 오른팔이 점차 원래의 색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간호 선생의 말로는 원래의 색을 되찾더라도 세포들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으나, 진이 말하기론 류이는 재생 능력이 탁월하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결론은 잘 됐다는 얘기다. 내가 이나하를 찾아가 현피를 뜨고 온 게 나쁘지만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거지. 아 뭐, 사실 나보다는 아도라가 그와 승부를 본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야.

그러나 제이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하지만 아샤 님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황자님께서 과연 그런 일을 원하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그렇다고 한다.

나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류이를 쳐다보았다. 식은땀을 많이 흘려 그의 단발머리가 뺨에 붙어있었다. 슬그머니 팔을 뻗어 그의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떼어주었다. 머리카락도 결 한 번 참으로 좋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수하지 않은 곳 없는 남자다.

그 건강미 넘치고 아리땁기만 하던 류이가 병약한 느낌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절로 아렸다. 어쨌거나 원인은 나였으니까. 고로 이번 이나하와의 결판도 나는 원인제공자로서 그에게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이는 아닌 모양이었다.

상관에게 대드는 제이에게로 고개를 돌린 나. 칸과 진이 제이의 말도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한 듯, 섣불리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제이의 당당한 시선을 회피하고 있던 그 때 나는 제이에게 툭 던지듯 물어보았다.

“제가 죽으면, 제이 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제가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이가 몹시 황당해하는 얼굴로 나를 쳐다봐왔다. 그야 답은 간단하지 않은가.

“황자님은 저를 지키려다 이렇게 다치신 거잖아요. 제가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 아닌가요?”

“아샤 님!”

“아, 아샤 님!”

“아닙니다, 저희가 그럴 리가!”

셋 다 깜짝 놀라며 외쳐오는데, 내 말이 오죽 황당했으면 은신 상태였던 다른 호위 기사들까지 모조리 마법을 해제하고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일제히 하나같은 목소리로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라던가, ‘오해십니다, 아샤 님!’같은 얘기들을 늘어놓았다. 내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기사들조차 말이다. 아니, 내가 뭐라고 너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냐.

하지만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제이 님을 비꼬는 게 아니라, 저도 저 때문에 황자님이 이렇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벨을 찾아간 것도 그런 이유에서에요. 책임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데.”

“아, 아샤 님”

“황자님을 이용하려던 생각은 결코 없었지만, 황자님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서라도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건.”

“제이, 징계당할 준비나 해라.”

제이가 오해라는 듯 갈 곳 잃은 손을 허우적거리고, 이어지는 내 말을 들은 진이 제이를 향해 따가운 눈총을 날리며 살벌한 한마디를 건넨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결과를 바란 게 아니었다.

“그러지들 마세요, 제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 본의든 아니든 간에 제가 황자님을 이번 일에 끌어들여 다치게 한 건 사실이잖아요.”

“황자님께서 자발적으로 도우려 하신 일입니다. 아샤 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하지만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을 진즉에 알았다면 황자님께서 이 일에 못 개입하도록 말렸을 테니까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황자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줄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투닥투닥 대화를 나누던 칸이 물은 한마디에,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류이를 잠깐 쳐다보다가, 그의 버릴 곳 하나 없이 그저 완벽한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관찰하던 것을 그만두고 시선을 위로 들어올렸다. 그리고 저 위 어느 허공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힘 빠진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다.

“저 같은 천민 노예를 제국의 3황자이자 황위 계승으로 제일 유력한 인물이 좋아한다면,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

“아샤 님.”

나의 말에, 호위 기사들 중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궁금한 것도 있다. 류이가 정말 나를 이성으로 좋아한다면, 그렇다면

대체 나의 어떤 점에 반한 걸까? 나는 나 자신이 분명 그 어떤 점에서도 매력을 찾을 수 없는 여자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이다. 제국 3황자씩이나 되는 인물을 홀랑 빠지게 만든 나의 매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기사들을 향해 물어보았다.

“황자님은 왜 저를 좋아하게 되셨나요?”

내 물음에, 진이 정말 그걸 모르겠냐는 표정으로 되물어왔다.

“정말 모르셔서 물으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답은 이미 아샤 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나를 향해, 진은 이리 말해왔다.

“저희 황자님을 가식 없이 대해준 사람은 류 제국과 프란치아를 통틀어 아샤 님이 유일하니까요.”

류이를 가식 없이 대해준 인물은 내가 유일하다라.

“하긴.”

그럴 만도 하지.

한 달여 전쯤의 일을 떠올려보자. 나는 류 제국 3황자인 그, 류이에게 어떤 짓과 어떤 망발을 지껄여댔었는가? 욕은 물론이고 삿대질에, 이상한 흥분제를 들이마시고는 갖고 싶니 어쩌니 하며 그를 마구 끌어안아대는 망측한 해프닝까지 벌였었다. 그 모든 일은 류이의 신분을 몰랐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사실 내가 류이의 신분을 알았더라면 그 때 그런 짓들을 저지르지 못했을 거란 확신이 들기는 한다만, 어쨌거나 나는 류이를 가식 없이 대해준 인물이긴 하다.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류이가 나를 좋아한다니, 뭔가 믿기지 않는다. 고작 그때 일 하나만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류이가 금사빠인 걸까? 아니, 류이가 금사빠라기엔

“모쏠이랬는데.”

진과 칸의 말을 떠올려내며, 나는 곰곰이 고민에 잠겨보았다. 하긴, 제국의 황자가 모쏠이 아니라면 이미 결혼하고도 남았지. 황자가 어떻게 연애를 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류이가 좋아하게 된 첫 여자가 천민인 나라는 건 역시 좀 말이 안 되는 전개잖아. 고작 그 정도 사건으로 나한테 반한다고? 이걸 믿어야 해, 말아야 해? 그치만 거짓말이라 생각하기엔 류이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고, 호위 기사들도 류이가 나를 좋아한다고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한 부분이고.

황당하고 믿기지 않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란다. 그럼 나는 어찌해야 하지?

“류이와 결혼하게 되면”

아니, 결혼이 가능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내가 만일 그와 결혼하게 된다면

황후냐!

아니지, 후궁인가?

“안 돼, 안 돼.”

고개를 내저으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답은 하나뿐이다. 호위 기사들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걸 거야. 류이가 나를 좋아할 리 없어. 아니, 설령 좋아하더라도 나와 류이의 사이에는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 물론 그 벽이 아니더라도 류이 정도로 반짝이는 남자를 감히 나 정도의 인물이 냉큼 가져버릴 수는 없었겠지만, 여하튼 이건 모두 거짓말일 거야. 그렇게 믿자.

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 난데없이 누군가가 내 기숙사의 문을 노크했다. 내 기숙사라니, 이 무슨 소리냐고?

그렇다. 류이에게 해독제를 전해주었던 어제의 나는 류이의 기숙사를 나와, 나만의 기숙사를 다시 가지게 된 것이다.

내 주인이 루이스냐, 류이냐에 관한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기로 했다. 목숨이 위협당할 일이 사라진 지금은 일단 내 방을 옮기는 게 우선이었던 것. 이제는 류이의 방이 아니더라도 철저한 보안이 필요할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 사실 류이와 같은 방을 쓰기가 껄끄러운 것도 이유라면 이유다. 나를 좋아한다는 남자와 어찌 한 방을 쓸 수 있겠는가? 남녀칠세부동석이고 나발이고를 떠나, 내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남자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가 내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내 어찌 그와 한 방을 쓸 수 있으리오.

그랬다간 류이가 위험하지, 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 인물이니 당분간 기숙사에서 푹 쉴 수 있도록 내가 그 방을 나왔다. 뺄 짐도 그리 많지 않았다. 메이드들의 도움을 받아 짐을 옮기는데, 류이의 호위 기사들이 굉장히 짠내 나는 눈빛들로 나를 쳐다보았었다. 그 눈빛들을 뿌리치고 방을 옮기는 게 어찌나 힘든 일이었는지는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수준.

어쨌거나 이제는 나도 자유의 몸이었다. 그런 자유인의 방을 노크하는 저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나는 침대에 정직한 일자 자세로 누워있던 것을 그만두고, 비척비척 일어나 문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금 경직된 목소리로 물음을 건네보았다.

“누구세요?”

그러자, 닫힌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대답이 들려왔다.

“아샤, 나야!”

응? 이 깜찍 발랄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가 무섭게, 나는 반사적으로 잠금을 풀고 문고리를 붙잡아 돌렸다. 문이 열리자, 그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

다가 아니라!

“마리!”

“보고 싶었어! 흐아아앙!”

황급히 시선을 아래로 내려 보니 마리가 있었다. 나보다 키가 한 뼘은 작은 그녀인지라 눈높이를 잘못 맞춰버렸군.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나의 품으로 뛰어들어 안겨버리는 마리를 엉겁결에 끌어안았다. 같은 여자임에도 마리가 나보다 조그맣고 귀여운 체구였기에 품안에 쏘옥 들어왔다. 이래서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끌어안는 걸 좋아하는 건가! 음, 과연.

“아, 아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훌쩍.”

꽤 오랜만이라 할 수 있는 기간 만에 보게 된 건데, 마리는 울고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온 걸 보니 자기 기숙사도 들르지 않고 바로 이곳을 찾아온 모양인데, 울기는 왜 우는 걸까? 척 보기에도 나, 이렇게나 멀쩡한데.

“왜 울고 그래, 마리. 울지 마, 뚝!”

“그치만, 그치만 나, 아샤가 있는 곳을 물어보기 위해 루이스 님께 들렀다가 왔어. 루이스 님이 말씀해주시길, 아샤 네가 큰 봉변을 당했다가 살아난 거라고 했어. 죽었다가 되살아난 거라고 그 말, 정말이야?”

루이스가 그걸 말해줬다고! 그 인간,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담.

마리의 말을 들은 나는 ‘어, 으음’하는 소리를 내며 잠시 대답할 말을 머릿속으로 골랐다. 하지만 떠오르는 변명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리 오래 고를 필요는 없었다. 한 가지 답밖에는 떠오르지 않으니 말이다.

“맞아. 나, 진짜 죽을 뻔, 아니, 거의 죽었었지.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살아나게 됐어.”

“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 아샤, 대체 어떻게 투영의 비약이 보여준 미래를 바꾼 거야?”

마리는 콧물까지 찔찔 흘리며 내게 글썽글썽한 눈망울을 향해오고 있었다. 그런 마리의 표정이 너무나도 우습고 귀여워서, 나는

“푸흡!”

하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마리가 ‘?’하는 표정을 지으며 내가 왜 웃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을 때, 나는 마리의 손을 붙잡고 침대 옆 협탁 근처까지 다가갔다. 그 위에 올려둔 손수건을 집어 들어 마리의 콧물을 닦아주며, 그녀에게 넌지시 의사를 물어보았다.

“우리, 간만에 셋이서 데이트나 할까? 지난 얘기도 해줄 겸 말이야.”

“셋? 으응, 좋아!”

누구인지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바로 좋다는 대답이 튀어나왔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셋’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뜻하는지 정해져있기 때문일 거다.

“아도라아아아!”

“마리 님!”

감격의 재회란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겠지. 아도라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마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에게 한달음에 달려가 안겨버린다. 아도라가 엄마라도 된 양 마리를 끌어안고 그녀의 갈색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듯이 빗어 내린다. 마치 토닥이듯이 말이다.

“둘 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날 이후로 부모님이 대학으로 보내주시려 하질 않으셔서, 매일매일 울고불고 졸라대기까지 했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흐윽, 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만 없었다니,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리. 저 또한 아샤님 곁을 지키지 못했었는걸요.”

“나는 정말 빵점짜리 친구야 그렇지, 아도라? 흐아아앙!”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야말로 흐흑!”

?

대체 이건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이지? 누가 보면 나, 아샤라는 인물이 죽어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진토된 백골이 땅에 묻히기라도 한 줄 알겠다. 장례라도 치르는 사람들마냥 엉엉 울기 시작한 두 여자들을 눈앞에 둔 나는, 창가 테이블 옆 의자에 앉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서 그 둘을 번갈아 보았다.

“혹시 나, 귀신이니? 너희들 머릿속에 나란 존재는 이미 망자야?”

“그럴 리가요!”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마, 아샤! 엉엉!”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린 것도 아닌데, 이런 장소에서 그렇게들 울지 말라고. 내 말은 그 뜻이야.”

“”

“”

마리와 아도라가 맞은편에 덩달아 앉다 말고, 내 말을 듣더니 꿀 먹은 벙어리마냥 맹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쏙 다물어버린다. 이제야 이 둘은 지금 우리들이 와 있는 장소가 디저트 카페라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다.

학생들은 습격 당일 이후로 임시 휴교령이 떨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법 대학의 상가는 여전히 활발했다. 그 이유는 아마 대학 말고는 오갈 데 없는 메이드라던가, 마법 대학 관계자들이 이곳에 남아있기 때문일 거다. 문을 닫은 가게도 많았지만 열어놓은 가게도 꽤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들이 자주 오는 디저트 카페였기에 이곳을 약속 장소로 잡게 된 것.

상큼 발랄한 오케스트라곡이 흘러나오는 디저트 카페에서 이게 웬 청승들이냐. 나의 면박을 들은 마리와 아도라가 이내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은 듯, ‘아하!’하는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슥슥 닦는다. 그래그래, 암. 그래야지.

“이제 난 죽을 일 없다고. 지나간 일들에 얽매이지 말고, 그만들 울어.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아샤 님의 감정을 떠나서, 저희가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으응, 맞아”

내 말에, 마리와 아도라가 똑같은 표정을 하고서 대꾸해왔다. 미안해 죽겠다는 얼굴들이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너희들이 내게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게 더 싫어. 미안해하지 마. 나는 마리와 아도라가 그때 그 상황에서 내 곁에 있지 않았던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송합”

“그놈의 죄송하다는 말도 그만해, 그만. 친구 사이에 뭐가 그리 죄송할 일이야? 그만 잊자고, 그 때 일은.”

나의 단호한 말에 마리와 아도라가 ‘죄’와 ‘미’까지 꺼냈다가 이내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 사람의 입에 금칙어를 지정할 수는 없는 걸까? 마리에게는 ‘미안해’를, 아도라에게는 ‘죄송합니다’를 금지어로 지정시켜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웨이터가 주스와 디저트를 가져다주는 것을 빤히 지켜보았다. 우리 셋 사이에 대화가 오고가지 않으니 공기가 뭔가 서먹하군.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는 낯이 익은 얼굴의 남자 웨이터가 우리들의 앞에 케이크가 담긴 접시와 오렌지 주스 한 잔, 레몬에이드 두 잔을 내려놓다 말고 갑자기 이런 물음을 던져왔다.

“빨리 돌아오셨네요, 세 조수 분들. 아직 개강 안 하지 않았나요? 건물 복구도 덜 끝난 것 같던데.”

동글동글 선한 인상의 웨이터가 건네 온 물음은 우리 셋 모두에게 하는 말 같았다. 셋 중 누가 대답을 해야 하지? 나와 마리, 아도라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눈치싸움의 끝에 결국 대답을 하게 된 인물은

“이제 더는 습격당할 일도 없을 것 같고 하니, 집에 있는 것보단 빨리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올라오게 됐어요.”

마리였다. 싱긋-하는 눈웃음을 날리며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그 말을 들은 웨이터가, 볼을 살짝 붉히며 ‘아, 그렇군요.’하고 중얼거렸다. 볼은 왜 붉히는 거지? 설마 마리를 좋아하나!

정황상 웨이터가 마리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올 그 무렵, 아도라는 레몬에이드에 빨대를 꽂으며 한 모금을 들이키고 있었다. 나는 그런 맞은편의 아도라를 힐끔 쳐다보며 포크를 집어 들고 있었고 말이다.

이 집 케이크가 참 맛있지. 이번에 시킨 케이크는 티라미수였다. 나는 초콜릿이라면 아주 환장을 하는 인간이었는데, 이 세계에서는 자린고비로 살아야 했던지라 초콜릿―상당히 비싸다―을 좀처럼 접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원 없이 먹게 되어 참으로 개이득인 부분

“아샤.”

“엉?”

포크가 티라미수를 푹 찌르고 내 머릿속이 의식의 흐름 수준으로 쓸모없는 잡생각을 하고 있던 그 때, 마리의 부름이 들려왔다. 웨이터가 물러난 후, 마리가 곧바로 나를 불러온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건 그 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던가? 이제야 본론이 떠올랐다. 아도라와 나는 안다 쳐도, 마리는 습격 이후의 상황을 잘 모를 테니 말이다.

이제부터 마리에게 기나긴 얘기를 해주어야겠군. 그런 생각을 하며 입을 열려는데, 나보다도 마리의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왔다.

“나, 소식 들었어.”

“응? 무슨 소식?”

나는 아직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는데? 설마 아도라가 나보다 먼저 무슨 얘기라도 해주었던 걸까 싶어 그녀에게로 눈빛을 향해 보니, 마찬가지로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한 채 마리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도라도 아닌가 본데.

“유이 황자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다며?”

“그걸 어떻게 알아?”

마리의 입에서 나온 그 ‘소식’이란 건 꽤나 뜻밖이었다. 나와 아도라만이 알고 있는 소식일 거라 생각했는데, 마리조차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것이다. 우리 둘 다 전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지?

그 의문은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의해 해소되었다.

“루이스 님께 들었거든.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그분과 마주쳐서, 아샤 네가 옮기게 된 방이 몇 호실인지도 물어볼 수 있었어.”

“그 인간”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알려줬는데! 이래서야 내가 해줄 말이 별로 없겠군.

그리고 그런 내 예상은 거의 정답에 가까웠다.

“아샤 네가 죽을 뻔했다는 거랑, 란 님이 너를 대신해서 목숨을 희생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프란치아와 아디티 사이에 국제 재판이 일어날 거란 얘기도 들었어.”

오렌지 주스를 쪼옥- 빨아 들이키며 마리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았다. 마리는 생각보다 루이스에게 들었던 말이 많은 모양이었다. 바쁘다는 인간이 무슨 여유가 있어 마리에게 그리 친절하게 많은 일들을 설명해주었을까? 잠깐 의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내 그 생각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루이스는 원래부터 착하고 다정했으니까. 내 단짝친구인 마리에게 현재의 사정을 간략하게나마라도 전해주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투자했었을 것이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지만 말이다.

“그럼, 지금 대학 내를 수색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프란치아의 병사들도 보셨겠군요?”

“으응. 루이스 님 말로는 란 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라던데 진짜야?”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류 제국 황자님의 방에 시신을 맡겨둔 것이고요. 도련님께서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실 때까지는 짧게는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몸을 빼앗겼다간”

“?”

아도라가 말끝을 흐린다. 그 뒤에 이어졌어야 할 말을 나는 예상할 수가 있었지만, 마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물음표가 아주 가득했으니까.

아디티 사람이자 이나하의 약혼녀인 아도라, 그리고 그런 이나하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나. 우리들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국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마리는 아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을 딱딱 짜 맞추기엔 그녀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은 퍼즐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런 마리를 위해, 나는 친절한 목소리로 설명에 돌입했다.

“볼모로 잡히게 될지도 몰라, 마리.”

“볼모?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는 거야?”

“음, 그럴지도. 아디티가 작정하고 쳐들어오려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아.”

이나하와 루이스가 란을 걸고 약속을 했었으니, 이나하도 그 약속이 유효한 이상은 함부로 프란치아를 쳐들어오려 하지 않겠지.

나는 방금 전 내 대답이 훌륭한 설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리의 물음에, 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서 설명했었다는 걸 깨달아야만 했다. 그것은 바로

“그런데, 프란치아 마법 대학의 학생인 란 님을 전쟁 볼모로 왜 붙잡아?”

“!”

“아.”

“게다가 란 님은 이미 숨이 끊어지셨다고 들었는데”

란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다. 아도라와 내가 가장 중요한 설명을 빠뜨렸다는 걸 깨닫고서 일심동체로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우리 둘의 반응을 번갈아 관찰하던 마리가, ‘란 님에게 뭔가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라고 물어왔다.

“마리, 란이 기사의 맹세로 나를 살렸다는 것까지는 들은 거지?”

“으응. 하지만 그거, 목숨을 담보로 사용하는 마법이잖아. 아샤가 살아남았다면, 란 님은 죽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현재는 죽어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움직여?”

마리의 물음에, 아도라가 ‘어쩌죠?’하는 눈빛을 내게로 던져왔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이런 건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딱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말이다.

그런 고로,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그 인간, 아디티의 3황자래.”

“뭐, 뭐! 진짜?”

마리의 눈이 ‘띠용!’하며 개구리마냥 커다래졌다. 내가 란의 정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런 표정을 지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 아, 그때의 나는 그렇게 놀랄 정신머리도 없었던가? 뭐, 하여튼.

“거, 거, 거짓말이지! 그런 농담하지 마, 너희들!”

“정말입니다.”

아도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한 번 끄덕이기에, 나는 그런 아도라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런 말도 덧붙였다.

“게다가 아도라는 아디티 2황자의 약혼녀래. 대박이지?”

하지만 이 말까지는 하면 안 됐다. 나는 아도라가 다급한 눈빛을 내게 돌려오는 것을 눈치 채고서야 뒤늦게 ‘아차!’하는 작은 소리를 입 밖으로 꺼냈다.

“아디티의 2황자? 약혼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니, 아디티의 2황자는 다름 아닌 나를 살해했던 그 인물, 이나하가 아니던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얘기는 숨겼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모양인지 눈동자의 초점이 덜덜덜 떨리는 아도라가 나를 바라봐온다. 마치 해결책을 바라는 눈빛인데 타, 타임! 잠깐 생각 좀 하자. 여기선 무슨 대답을 해야 하지?

1번, ‘농담이었어!’ 2번, ‘아디티 2황자는 굉장히 잘생기고 수려하고 몸매가 잘빠진 미남이야,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은 마리가 믿을까보냐! 전혀 진담 같지 않잖아? 누가 봐도 구라잖아!

“아디티의 2황자가 누군데? 이것도 설마 진담이라는 거야? 아도라가 아디티 황자의 약혼녀라는 게?”

마리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되물어올 때, 결국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영원한 비밀은 없다지 않은가. 우리들의 우정이 대학의 조수 라이프에서만 유지될 정도로 얄팍한 것이라면 이대로 영영 숨겨도 되겠으나, 나나 아도라에게 마리란 존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속일 수 없다. 아니, 사실 속이기도 싫다. 그런 건 단짝 친구로서 할 일이 아니야.

“사실, 아디티의 2황자가 란의 형이야.”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라, 란 님의 형이라고! 대체 어떻게 된 족보야, 그게?”

평소엔 꽃사슴마냥 순진하기만 한 마리의 눈망울이 오늘따라 의심과 당혹감으로 얼룩져 나와 아도라를 번갈아 바라봐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건 사실이란다.

“아디티의 현 황제는 선황제폐하의 장자이시고, 제 약혼자가 그분의 동생이자 2황자 되시는 이나하 이즈하 님이십니다.”

“그, 그러니까아도라가, 진짜 황족의 약혼녀라고!”

“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놀라기는 일러, 마리!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단다!

“그리고 아샤 님을 공격했던 마법사 집단이, 바로 제 약혼자가 결성한 용병 집단, ‘야벨’입니다.”

아도라도 결국 털어놓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었다. 매일 붙어 지내는 단짝 친구 사이에 이런 중요한 사실을 비밀로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녀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간 한마디를 들은 마리의 표정은 가히 장관이었다. 마리의 참새 부리마냥 작고 앙증맞은 입술이 스르르 벌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그녀의 턱은 중력의 이끌림에 ‘예스, 마스터!’를 외치고 출동하듯 아래로 똑 떨어져버린다.

입을 헤벌린 마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도라를 쳐다본다. 그리고는 말하길,

“그걸 여태까지 숨겨왔다는 거야, 아도라!”

이라는데.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일동 박수! 짝짝짝.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박수를 칠 수 없었다. 그럴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아샤, 넌 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하고 있어? 널 죽이려 한 사람이 아도라의 약혼자라잖아! 아도라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우리들은 친구잖아! 아도라, 해명 좀 해봐!”

분노가 묻어나는 마리의 말에 나와 아도라는 크게 당황했다. 아도라는 입을 틀어막으며 ‘아, 저, 그게 말입니다’하는 중얼거림을 반사적으로 내뱉고, 나는 타들어가는 목으로 인해 오렌지 주스만을 연신 쪽쪽 빨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우리 둘의 반응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번갈아 쳐다보던 마리가, 이내 이런 물음을 내던져왔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샤, 아도라의 약혼자가 너를 죽이려 했다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그리 태평할 수 있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화나지 않는 거야?”

“아”

마리가 왜 화가 났을까. 짧은 틈에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아무래도 화가 나는 게 당연했다. 마리는 이나하와 란, 레플리카 공작 간에 얽힌 구체적인 사연은 모르는 상태다. 고로 이나하 이즈하가 나를 죽이려 한 이유도 모르는 상태이고 말이다.

즉, 마리의 시각으로는 그저 아도라의 약혼자가 나를 죽이려 한 잔인무도한 살인마법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말해준 사실들이 그것뿐이므로 말이다.

마리를 납득시키려면 아디티와 프란치아 간의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했다. 결국 나는 장장 30분에 걸쳐 이나하에게서 들었던 그 기나긴 이야기를 마리에게 전했다.

30분 뒤, 마리는 깨달음을 얻은 젠야타의 표정을 짓게 되었다. 눈동자로 들어가시오

“그런”

“이젠 좀 이해가 되겠지? 나도 그를 살인마라며 무턱대고 미워할 수만은 없더라고. 게다가 이나하의 동생인 란이 목숨 바쳐 나를 살리기까지 했으니까.”

“확실히 그렇긴 하겠다. 란 님과 루이스 님이 그렇게 얽힌 관계인 줄은 미처 몰랐어.”

마리는 비로소 아도라와 나의 입장을 이해한 듯, 아까처럼 분노한 표정을 짓기 보단 안쓰럽다는 눈빛을 하고서 우리들을 번갈아 응시해왔다.

이나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마리는 그에 대한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마리가 저토록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도라가 꺼낸 한마디의 영향이 컸다. 그녀가 다른 말도 아닌, 바로 ‘파혼을 고려중이다’는 말을 뱉어버린 것. 진심인지 아닌지 타인의 입장인 나로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아무래도 아도라는 진지하게 꺼낸 말인 것 같았다. 그런 탓에 마리도 그 이나하라는 인물에게 작든 크든 연민을 느끼게 된 모양.

나는 직접 살해당했었지만, 이나하와 아도라 간의 파혼까진 바라지 않는 입장이었다. 왜냐고? 그야 이나하도 나쁜 놈만은 아니니까. 내가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이나하의 모습은 그랬다.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었어. 동생을 너무 아낀 나머지 그 사랑이 비뚤어진 방향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판단될 뿐이었다. 고로 나는 파혼 반대.

“아도라, 이나하와 파혼까진 하지 말아줘.”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샤 님?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이나하 님께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아샤 님의 친구이므로, 이번 일을 눈 감고 넘어가주고 싶지 않아요.”

“그치만 이나하도 불쌍하잖아. 동생인 란을 위해 복수한답시고 그런 일들을 벌인 건데. 본인도 손에 피 묻히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샤 님은 착하신 겁니까, 멍청하신 겁니까? 싫습니다. 저는 그런 잔인한 분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

‘대체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하는 표정으로 마리가 나와 아도라를 쳐다본다. 역할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일순 들었다. 내가 파혼을 요구하고 아도라가 ‘그래도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하는 멘트를 쳐야 더 그럴싸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은 정반대였다.

“이번 한 번만 봐줘, 아도라!”

“아샤 님, 이나하 님의 결혼 상대는 접니다. 파혼도 제가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건 나도 아는데, 한 번만 눈감아주면 안 될까? 란의 형이잖아. 게다가 이나하도 이제 이런 일은 만들지 않을 텐데, 이번 한 번만 말이야.”

“그 한 번이 제 친구를 죽이려 한 일이잖습니까. 저는 싫”

“그만, 그만. 둘 다 그만!”

결국 그녀가 나섰다. 마리 말이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느낌이었던 아도라와의 티키타카는 결국 마리에 의해 멈춰져야만 했다.

“파혼할지 말지는 아도라가 정할 일이야.”

“역시 그렇지요, 마리? 저는 파혼하는 게 옳다고 봅”

“그나저나 아도라 너, 대체 어떤 가문의 영애이기에 황족과 약혼을 하게 된 거야? 게다가 마음대로 파혼까지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니, 난 좀 이해가 안 돼.”

“!”

마리의 뜬금포 질문에 의해 대화의 흐름이 바뀌었다. 더불어 주제까지도. 그러고 보니 지금껏 물어보지 않았다. 잊고 있었던 핵심을 파고들어준 마리의 매서운 질문에 나는 무릎을 탁! 소리 나게 쳤다.

“맞아, 맞아! 나도 궁금했어. 이나하는 그렇다 쳐도, 아도라, 네 정체는 대체 뭐야?”

“”

나까지 가세해서 물어보자, 아도라는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며 시선을 슥 회피해버린다. 뭐지? 대체 저건 무슨 식의 대답인 거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건가? 마사카!

“뭔가 숨기는 게 있군.”

“그러니까 말이야.”

나와 마리가 명탐정에 빙의해 턱을 쓰다듬으며 각자 의심의 눈초리로 아도라를 빤히 쳐다보자, 그녀가 그런 부담스런 눈초리가 견디기 힘들다는 듯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러더니 이내 조심스레 입을 열어 답하길

“재, 재판 날이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한다. 호오? 재판 날이 되면 알게 될 거라니, 그것 참 흥미로운 얘기로군. 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알게 될 거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도라의 정체가 무엇인지 설레어하며 기다리는 맛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가주도록 하지.

마리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한 듯, 더 이상 아도라의 정체에 대한 것을 캐묻지 않았다. 그러자 대화가 중단되어, 우리들은 잠시 포크로 케이크를 잘라 먹거나 주스를 쪽쪽 빨아 마셔야만 했다.

몇 십초는 족히 흐른 뒤에야, 마리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란 님을 되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아디티의 황자라서?”

“되살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살아나실 겁니다.”

“응? 어떻게?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살아나? 그런 마법도 있어?”

“마법은 아닙니다만, 류 제국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의 축복처럼 저희 아디티 제국에도 황실만의 축복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와아, 부활이라니 굉장히 다른 세계의 얘기 같다, 그거.”

다른 세계의 얘기라면 내가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이야. 너희들 스마트폰이라고 아니? 텔레비전이라던가, 컴퓨터는? 물론 모르겠지.

“”

나한테 있어 란의 부활은 그리 놀라울 만한 소재거리도 아니다. 이 세계에 태어나 처음 마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이자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을 테니 말이다.

란의 부활에 대해 한참을 떠드는 눈앞의 아도라와 마리를 번갈아 요리조리 쳐다보며, 나는 부지런히 포크질을 해댔다. 마리와 아도라가 아디티에 대한 얘기에 푹 빠져있는 통에 테이블 위 접시에 세팅되어있는 티라미수는 온전한 내 것이었다. 사실 이 둘은 케이크 욕심이 크게 없는 터라, 디저트 카페에 오면 포크질 담당은 늘 나였다. 오늘조차도 그 포지션은 어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부지런히 케이크를 오물거리고 있자니, 화제는 금세 전환되었다. 이번에는 파혼도, 란도 아닌 다른 인물에 대해서 말이다. 여자애들의 수다란 참으로 변덕스럽구만.

“아 그러고 보니까, 아샤!”

“엉?”

이번 주제에서 대답해야 할 사람은 아무래도 나인 모양이었다. 내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려는 걸까? 주스를 빨아 마시다 말고 빨대를 도로 입에서 빼냈다.

손바닥으로 입을 살포시 가린 채 우물거리며 대답을 하는 나를 향해, 마리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표정을 하고서 고개를 옆으로 갸울였다. 그리고는 내게 이런 물음을 건네 왔다.

“유이 님과는 어떻게 됐어?”

“?”

어떻게 됐냐니, 저건 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 질문이지?

마리보다도 궁금하단 기색을 띤 표정으로 내가 고개를 기우뚱거려주자, 그런 내게 마리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말해왔다.

“아니, 난 그분과 너 사이에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물어본 거였는데, 아니야?”

“어?”

뭐, 뭐라고? 대체 왜 그런 생각을!

당혹스럽다. 진전은커녕 안녕하세요, 신화의 전진입니다!를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어버버거리며 마리를 쳐다보는데, 당혹감에 찌든 얼굴을 한 아도라가―현재 나의 표정과 비교했을 때 1도 꿀리지 않았다―나보다도 먼저 마리에게 되물었다.

“진전이라니요? 아샤 님이 류 제국 황자님과 진전이 있어야만 하나요?”

라고. 그래, 내 말이 바로 저거야! 내가 류이와 진전이 있어야만 하는가? 제이도 내게 이상한 질문을 했었지 않았던가. 좋아해주지 않을 거면 류이를 이용이나 하지 말라니, 어쩌니 하면서.

제이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곤 생각하지 않지만, 다 옳은 것만도 아니다. 나는 류이를 이용하려던 의도는 코딱지만큼도 없었던 인물인 데다, 류이가 나를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내게는 류이를 좋아해야 할 의무가 없지 않은가?

고로 저런 질문들은 부담스럽다. 아니, 저런 질문들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건 아무래도 류이의 감정일 것이다.

“아도라도 이미 알고 있잖아? 유이 황자님이 아샤를 좋아한다는 거.”

“눈치는 챘습니다만, 아샤 님이 그분을 좋아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럼 류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지금껏 당사자인 나만 몰랐던 건가. 나란 인간, 대체 얼마나 넌씨눈인 건지.

그나저나 마리에게 대답하는 아도라의 표정은 살짝 기분이 상한 듯이 보였다. 그런 그녀의 반응에 나와 마리는 어리둥절해야만 했다. 도무지 아도라가 기분이 상할 만한 포인트를 찾을 수 없었으니 말이다.

마치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보다 어려운 난제에 부딪힌 기분인데. 아도라의 토라진 표정으로 인해 싸해진 분위기를 중화시켜보려, 나는 작게 웃으며 마리에게 반문해보았다. 딱히 웃을 만한 소재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저, 마리 내가 그 사실을 늦게 알았기는 한데, 있잖아”

“으응.”

“내가 꼭 황자님을 좋아해야만 해?”

내 대답에 마리는 마치 머리에 팔콘 펀치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벙찐 표정을 지었다. 어떤 점이 그리도 충격적이었을까? 이어지는 마리의 말을 듣고,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유이 님은 좋아하지 않을래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 마법 대학에서의 인기만으로도 유이 님을 따라잡을 인물이 거의 없어. 루이스 님조차 비교 대상이 못 될 정도라고.”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마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려왔다. 맞는 말이야. 류이가 퍼부어대는 애정 공세를 알아차리고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음이다. 그건 물론 xx염색체를 타고난 나 또한 마찬가지여야 할 것이고.

하지만 나는 류이를 좋아하는가? 아닌 것 같다. 천민 신분인 내 주제에 어찌 일국의 황자를 좋아하겠는가. 마리에게 지금의 내 생각을 전한들, 그녀가 과연 이해해줄 수 있을까? 이런 자존감 낮은 생각을 하는 나를, 귀족인 마리가 과연.

“류이 님은 너무”

내게는 과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말보다 먼저 튀어 나와 버린 누군가의 한마디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샤 님께는 저희 노아 황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도라의 저 황당무계한 한마디였다.

“뭣이?”

내 입에서는 황당하다는 목소리가 자동으로 튀어나갔다.

아니, 여기서 뜬금없이 란의 이름이 왜 나와! 나한테는 란이 있다니, 나한테 란이 왜 있는데? 나는 가진 적도 없는 란이 나한테 왜 있다는 건데!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아도라를 쳐다보자니, 생뚱맞게 느껴질 만큼 당당한 눈빛을 한 아도라가 마리에게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

“마리 님도 그때 들으셨지 않습니까. 노아 황자님께서 아샤 님과 약혼했다고 하시는 걸요.”

“아, 노아 황자라면 란 님을 뜻하는 건가? 아니, 물론 나도 들었긴 하지. 대회 도중에 하신 말씀이잖아. 마법 대학의 사람이라면 다 듣고도 남았을 거야.”

“그런데 왜 지금 같은 말씀을 하세요?”

“저기, 아도라. 란 님은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 누가 들어도 농담이었다고, 그거.”

마리는 저렇게 말했다. 솔직히 나도 100% 동감하는 바라 그녀에게 아무런 토도 달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아도라가 자리에서 붕 날며 천장에 머리라도 박을 기세로 반발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저희 도련님은 그런 농담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라고 설명하기까지 하면서 말이다.

내 기억 속 란의 이미지는 그런 뻔뻔한 농담을 얼마든지 치고도 남을 놈인데, 예전부터 란을 지켜봐왔을 아도라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럼 란이 순애보 스타일이라는 거야?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식인데 말이야.

저 말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도라는 진심으로 답답하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팡팡 때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한 이미지의 아도라에게서 저런 친근한 모습을 보는 건 또 처음이라, 나는 놀란 눈을 한 채 그녀에게 이런 대답을 건넸다.

“그런 농담을 함부로 하는 인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둘 다 관심 없어.”

“관심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봐온다. 하긴, 저럴 만도. 하나는 아디티의 3황자이고 하나는 류 제국 3황자인데, 잘만 물면 역대급 신분 상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까버릴 사람이 이 신분제 세계에 그리 흔치는 않을 거다. 그 흔하지 않은 사람들 중 하나가 자신의 친구이자 천민인 나라는 사실이, 저들로서는 아마 믿기 힘들 테지.

하지만 나는 두렵다. 적당히 잘 사는 귀족 정도였어도 천민된 입장으로서 굉장한 부담이었을 텐데, 일개 귀족도 아닌 황족씩이나 되는 두 인물이 나한테 관심이 있단다.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상당히 두렵다.

전생에서도 으슥한 골목길에서 웬 미친놈이 들러붙어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지 않았던가. 이번 생에서는 황족과 얽혀 궁중암투를 벌이다 비명횡사하는 게 아닐까 싶은 두려움이 앞선다. 이런 내 심정을 이들이 알까? 아마 이해하기 힘들 테지. 내가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전생에서 일찍 죽은 터라 이번 생은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해준 적이 없으니 알아줄 리도 없다.

게다가 류이와 란은 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치르기까지 했다.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한 이들을 더 이상 내가 있는 이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생각을 하며, 나는 그녀들에게 최대한 상큼한 목소리를 내어 이리 답했다.

“닿지 않을 높이에 열린 포도는 탐내서 좋을 게 없거든.”

내 대답에, 마리와 아도라의 눈동자가 돌변했다. 그것은 당황이라던가 허탈함 같은 감정을 담은 것이 아니었다.

“뭐야! 지금 너희들, 뭐하자는 거야!”

“답답해서 못 들어주겠어. 아샤, 닿지 않을 높이에 열린 열매라고? 닿지 않는지 닿는지는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맞습니다. 노아 황자님은 신분만 굉장하지, 사실 굉장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 아니, 이것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으아악! 아니, 여긴 왜 찾아온 거야? 안 돼, 놔줘.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눈을 희번뜩거리며 나를 잡아챈 마리와 아도라, 이 둘이 대학 상가를 벗어나 나를 끌고 온 곳은 다름 아닌 류이의 기숙사 방문 앞이었다. 한동안 자주 들락거렸던 방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문제는 이 방 안에 있는 인물이 류이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류 제국 황자인지라 류이의 방은 프란치아 병사들이 수색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란의 몸은 류이의 방 안, 그러니까 내가 쓰던 침대 위에 뉘여지게 되었다. 프란치아 측에게 란의 신병을 빼앗겼다간 루이스와 이나하 간의 약속이 틀어지게 될 테니 말이다.

프란치아 병사들이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가며 란을 찾는다고 설명해줬었으니, 이쯤에서 궁금해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란의 조수인 아도라는 왜 이렇게 당당히 쏘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 이유는 쉽게 말해 아도라가 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수라고 서류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 다 아디티 출신이라고는 되어있지만 그 외의 관련점은 전혀 없는 데다, 결정적으로 대학의 추적 마법사들이 아도라에게서 란의 마나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도라에게서 란과의 접점이나 그가 남긴 마나의 흔적 등을 전혀 찾을 수 없으니, 마법사도 아닌 그녀를 구금해봤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 판단했을 것이다.

류이는 류 제국 황자이니 함부로 건들 수 없고, 루이스는 레플리카 공작의 아들이니 란을 도울 이유가 없을 거라 판단한 모양인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프란치아의 병사들은 란의 주변인들을 의심하긴커녕 대학 내부나 야벨의 은신처가 있을 만한 프란치아와 아디티의 국경 부근을 수색해가며 란의 시체를 찾으려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나를 구금하여 란의 마나를 수색했더라면 금방 정보가 들통 났겠으나, 참으로 우습게도 프란치아의 병사들은 털끝만큼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의 신변을 알아낼 수 있을 리가 없지. 흥. 백날 찾아봐라, 란의 시체가 나오나.

류이는 양호실 옆에 마련된 병실에서 하루 동안 지내다가, 해독제를 먹인 이후로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다. 이 방 안에 류이와 란, 그 둘이 같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의식불명인 상태로 말이다. 거의 병실 수준이군.

그런데 내가 여길 왜 온단 말인가? 류이나 란이나, 나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인물들이 아니던가. 내가 무슨 염치로 그 둘을 봐? 그것도 동시에. 하나씩만 보기에도 마음이 벅찬데, 미쳤다고 내가 그 둘을 동시에 보냐고.

“안 돼, 나는 못 들어가. 볼 자신이 없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마냥 마구 몸부림을 쳐대는데, 마리와 아도라가 미리 입 맞추기라도 한 듯 동시에 양손으로 나의 손을 하나씩 붙잡는다. 그리고는 억지로 문고리를 잡게 만들어 그것을 돌리게끔 만든다. 아무래도 류이의 기숙사 문을 열 수 있는 건 나뿐이라서 그런가 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으아아! 나는 들어가기 싫다고!

“이러지 마, 제발! 미안해서 그 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혹시라도 둘 중 누군가가 깨어나기라도 했으면 어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숙사 문을 열어젖히며 나를 끌고 들어가는 마리와 아도라에게 호소했다. 질질 끌려가면서 말이다. 이건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나는 둘 중 어느 누구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나를 좋아해서 독 마법에 걸린 것조차 티내지 않으려 애쓴 류이든,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려 온갖 마법 아이템으로 떡칠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목숨까지 바쳐가며 대신 죽은 란이든, 확실한 건 둘 다 나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는 거다. 어찌 보면 난 그들에게는 가해자인 입장이라고. 레플리카 공작이나 이나하가 진짜 원인제공자든 어쨌든 간에, 이들이 다쳐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 감히 그들의 얼굴을 본단 말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류이와 란 모두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다지만, 오늘의 상태는 아직 모른다. 둘 중 누군가는 깨어났을지도 몰라. 아무래도 죽기까지 했던 란은 아닐 것 같지만, 어제 해독제를 먹었던 류이는 지금쯤 의식을 되찾았을지도 모른다. 제정신이 든 그에게 나는 대체 무슨 말부터 건네야 하지?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도화지처럼 새하얘지는 머릿속을 지닌 채 마리와 아도라의 손에 이끌려 방 안으로 진입했다. 나는 거의 영혼 없는 꼭두각시와도 같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런 나의 시야에 들어온 첫 풍경은

“아, 바깥이 왜 소란스럽나 했더니 친구 분들을 데려오셨네요, 아샤 님?”

류이를 간호하고 있는 진이었다. 그가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하고서 우리 세 명을 번갈아 쳐다봐왔다. 나머지들은 은신 모드인 모양인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 넓은 방 어딘가에 숨어있을 테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아, 그게 그렇게 됐네요.”

쩔쩔매며 ‘하하’하는 국어책을 읽는 느낌의 웃음까지도 흘려보지만, 싸늘하다 못해 어디에선가 비수가 날아올 것 같은 지금의 분위기까지는 어찌 해결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마리와 아도라의 부리부리한 눈빛은 진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으니

“?”

진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땡그랗게 뜨며 마리와 아도라를 쳐다본다. 이내, 그녀들이 동시에 입을 열어 이런 말들을 내뱉었다.

“잠시 비켜 봐요.”

“잠시 비켜주시지요.”

“!”

퍽 당황한 표정을 한 진이 쭈뼛거리며 류이의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서 일어선다. 여자들 간의 싸움이라 생각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다만, 진은 우리들 사이에 끼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스멀스멀 구석으로 물러나는데

그런 그는 이어지는 마리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우리들의 다툼에 참여하게 된다.

“아샤, 이 잠들어있는 두 명의 황자님들을 봐봐. 더 설레는 쪽이 있지 않아?”

“?”

무슨 잠자는 숲 속의 황자님이냐? 설레기는 개뿔! 한 발짝만 더 멀리 갔다간 둘 중 마음에 드는 인물에게 키스라도 하라 하겠다.

이게 웬 개소리냐는 표정으로 인상을 찡그리고서 마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자니, 그 말을 들은 진이 갑자기 우리들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온다. 그리고는 갑자기 우리들의 전투에 난입해버리는데

“그게 무슨 질문인가요? 당연히 저희 황자님 쪽 아닌가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저런 말을 꺼내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아도라가 ‘하?’하는 비웃음 섞인 소리를 내뱉었다. 아, 아도라가 저런 소리를 낼 줄도 알았다니! 이건 거의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에 나와도 될 법한 갭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노아 황자님이야 말로 그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십니다.”

“!”

아까는 별로 대단한 놈 아니래놓고!

아도라의 태세변환에 적응할 틈도 없이, 이번에는 마리가 입을 열어 이런 말을 했다.

“둘 다 훌륭한 분들인 건 잘 알겠는데, 선택은 아샤 몫이잖아. 둘 다 조용히 해요.”

“!”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선택’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지, 마리!

이런 상황을 바로 혼돈의 카오스라 하는 것인가. 떡 줄 놈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셋이서 김칫국을 드링킹하다 못해 원샷까지 해버리고 있는 상황.

불행인지 다행인지, 류이나 란 중 깨어 있거나 깨어날 기미가 보이는 인물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 슬슬 ‘나는 이들 중 누군가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걸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이 남자들이 제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신분 특출한 최상류층중의 최상류층이라 하나, 나는 하류층 중에서도 최하류층이다. 그런 내 입장에다 대고 두 명의 황자들 중에 누가 더 좋은지를 골라보라 한다면, 고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고작 천민 나부랭이인 내가 뭐라고.

“고를 수 없어. 고르기 싫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자, 나의 반응을 본 마리와 아도라, 진 등이 경악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봐왔다. 마치 진심이냐는 눈빛들인데 그래, 진심이다!

“어, 어째서입니까?”

“저희 류이 황자님이 어디가 어때서!”

“둘 다 좋은 사람이잖아. 고를 수가 없다니, 왜?”

마리까지도 내 대답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조금 높아진 언성으로 내게 저리 되물어오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다못해 펑! 하고 터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왜 다들 내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지? 나는 이들 중 누군가를 고르고 싶지 않다는 걸 왜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

나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누가 봐도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두 잘난 남자를 양옆에 두고, ‘이런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운 이들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둘 다 안 좋아하니까!”

결국 울화통이 터져버린 나는 꽥! 하듯 소리를 내질러버리고야 말았다. 이제 더는 참아줄 수 없음이다.

정말로 좋아하지 않느냐? 사실 잘 모르겠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는가. 내 마음 속에는 류이와 란, 루이스 등등의 방이 존재했다. 그 방 안에 존재하는 감정은 조수로서 주인을 향한 동경이나 호감일 수도 있고, 또는 연애감정일 수도 있으며, 그 둘 다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감정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 누가 더 남자로써 좋은지를 고를 수 있을 리가 없잖은가. 게다가 이 두 남자들을 크게 다치게 만든 계기이자 원인인 내가 무슨 염치로 고르니 마니야? 대체 나 까짓 게 뭐라고!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들 좀 해요, 진짜!”

두 명의 환자들을 바로 옆에 두고서 큰소리를 내버린 나. 그제야 아픈 두 병자들을 양옆에 두고서 허황된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라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마리를 비롯한 나머지 두 명들까지 ‘헉’하는 표정을 지었다.

제발 지금 같은 얘기는 앞으로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다. 그 상대들이 나로 인해 병상에 눕게 된 불쌍한 이 두 남자들이라면 더더욱 사절이고 말이다.

“미, 미안해 아샤.”

“저도, 너무 무례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으로 괴롭혀드려 죄송합니다, 아샤 님.”

“아 그럼 저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샤 님.”

세 명이 쩔쩔매며 사과를 건네 왔다. 사과를 받으려고 날카롭게 대꾸한 건 아니었다지만, 어쨌거나 이 정도로 화를 냈으면 앞으로 이런 주제의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겠지.

나는 그리 생각하고서 누워있는 란과 류이를 쳐다보았다. 대체 언제 깨어날지 모를 이 남자들이 지금의 대화들을 듣고 있다면 코웃음을 치며 비웃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내 기준에서 지금까지의 대화들은 딱 그런 수준이었다.

애초에 류이나 란이 나를 좋아한다고 쳐도, 그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알지 못한다. 류이나 란이 깨어난 후에 나에 대한 감정을 싹 정리하고서 ‘괜히 아샤를 도왔다’라며 후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다. 그러니 나는 벌써부터 설레발을 치며 이들 중 누군가를 향한 사랑에 퐁당 빠져버리고 싶진 않아.

마음속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내가, 몸을 돌려 류이의 방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함이었다.

류이나 란이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대도 큰 걱정이다. 앞으로는 마리나 아도라, 진 등이 없을 때 몰래 병문안을 오던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문고리를 붙잡아 딱 돌리려는데 내가 돌리기도 전에 문이 먼저 열려버렸다.

이거, 자동문이었나?

“어라?”

아니지, 자동문일 리가 없잖은가.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손에 의해 문이 바깥쪽으로 스르르 열리고, 이내 나의 앞에는 그 누군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바로

“아, 기숙사 문이 열려있기에 멋대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우리들을 다소 당황한 눈으로 이리저리 훑어보며 저런 대사를 건네 오는, 루이스였다!

이 남자가 여긴 무슨 일로? 오랜만에 휘황한 금발머리를 찬란하리만치 반짝이며 등장한 그, 루이스가 나를 마주 바라봐왔다. 설마, 용건이 나야?

“찾고 있었어, 아샤.”

“네? 갑자기 저를 왜”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아아.”

그러고 보니, 아직 루이스에게서 재판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전달 받지 못했다. 내가 어떤 혐의점에서 증언을 해야 할지, 어떤 대사를 쳐야 할지에 대해 루이스가 어느 정도 알려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게 오늘이었나 보다.

류이와 란을 차례로 쳐다본 루이스가 다시금 나를 쳐다봐왔다. 그리고는 가자는 듯 눈짓을 해오는데, 내게는 이미 익숙해진 루이스의 행동패턴이었으므로 고개를 끄덕이며 잠자코 그를 따라 나섰다. 정확히는 나서려고 했다.

두 발짝 정도 앞으로 내딛었을 때, 나는 마리와 아도라들에게 지금은 먼저 가보겠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고개를 뒤로 돌렸다. 그런데 이게 웬걸?

“역시 그런 거였구나. 어쩐지 둘 다 안 좋아한다더니”

“우리 류이 황자님이나 란 님 정도의 남자를 아무 이유 없이 안 좋아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그 말에는 동감”

응?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 주인이 더 잘생겼네, 누구 도련님이 더 훌륭하네, 둘 다 훌륭하네 하며 티격태격하던 마리와 아도라, 진이 합심하기라도 한 듯 속닥이며 무슨 이상한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다.

뭐지? 대체 무슨 작당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리에 우뚝 멈춰 서며 의심의 눈초리를 그들에게 쏘아 날리자,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그들이 게걸음질로 한 발짝씩 서로 멀어지는가 싶더니, 시선을 먼 허공으로 회피하며 시치미까지 똑 떼버린다. 마치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는커녕 이름도 모르는 사이입니다’라고 홍보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누굴 바보로 아는 건가, 저거.

방금 분명 ‘루이스’라는 이름이 들린 것 같았는데 대체 무슨 얘기들이었던 거야?

“왜?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가요.”

하지만 물어본들 순순히 답해줄 위인들이 아니다. 저들끼리 속닥이며 나눈 대화이니 내게는 분명 비밀로 하려 들 테지.

루이스의 물음에 가볍게 대꾸해주고서, 나는 류이의 기숙사를 나섰다. 그런데 루이스를 따라 그의 기숙사를 향하는 동안 내내 찜찜한 것이다. 마리, 아도라, 진 나의 연애사에 관심이 아주 많은 그 세 인간들이 대체 무슨 말을 했을 지에 대해.

멍청한 내 뇌가 오늘은 쓸데없는 활약을 저질렀다. 그것은 바로 아까 전에 얼핏 주워들었던 그 세 명의 대화들을 조합하고 분석해 무슨 대화였을 지를 추측해 내버린 것이었다.

“으아아아.”

“어디 아파? 왜 그래, 아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루이스를 좋아하고 있을 거란 크나큰 착각들을 하기 시작한 모양들인데, 대체 그 오해들을 어떻게 풀어주어야 할까?

루이스나 나나, 서로서로 이성으로는 개미 오줌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걸 그들이 알긴 할까? 아니, 안다면 아까 같은 오해들은 절대로 못했겠지.

류이에 란에, 이제는 하다하다 전 주인인 루이스라니 끄응! 왜 이렇게 나한테 남자들을 엮으려 드는 거야? 나는 황자들에 이어 공작가의 도련님을 갖다 붙여도 될 만큼 잘난 여자가 아니라니까!

“루이스 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려서 그런가, 뇌가 마비되어버린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내가, 루이스의 기숙사에 들어오자마자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그에게 지껄이고야 말았다. 사실 내가 원한 대답은 ‘피식’하는 비웃음이라던가, ‘내가 왜 너랑?’같은 매우 현실적인 대꾸라던가, ‘갑자기 웬 헛소리야?’같은 루이스의 쿨시크한 대답 등이었다.

“저랑 결혼하실래요?”

그렇다. 이렇게 된 거, 저들의 생각대로 확 저질러주지 뭐! 하는 비뚤어진 심보에서 나온 순도 99%의 농담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

“이렇게 갑자기?”

루이스가 몹시 당황하며 답지 않게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듯 살포시 가리는 것이다. 뭐냐, 그 반응? 너 설마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스무 살도 되지 않았는데, 조금 이른 것 같아서”

“!”

방금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대답인가?

아니지? 아니지! 빨리 아니라고 말해, 이 자식아!

루이스에게 거짓 프러포즈를 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19년 모쏠이라 그런가, 루이스는 참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36년 모쏠인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를 상대로 이런 잡생각을 했다.

재판과 관련된 컨설팅―이상하지만 적당한 표현―을 끝마친 그가 내게 이런 농담을 던져온 순간에 말이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는 안 잡아도 된다는 거지?”

내가 결혼하자고 했던 말이 진담인 줄 알았던 주제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런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내게 건네 오고 있는 그를 지그시 쳐다보다, 나는 이리 받아쳤다.

“장례식 날짜를 잡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루이스의 입꼬리가 위를 향해 스르르 올라간다. 진지하게 대답한 거였는데, 대체 어떤 점이 웃음 포인트였는지? 혹시, 내 얼굴이 웃기게 생겨서?

하긴, 루이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 얼굴이 어디 사람 얼굴이겠는가. 오랑우탄 수준의 인간 비슷하게 생긴 여자애 정도로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루이스는 깔끔한 세 글자의 대답을 건네 왔다.

“알겠어.”

이 남자가 류이나 란과 다른 점을 꼽아보라면, 하지 말라 할 땐 저리 순순히 ‘알겠다’는 대답을 한다는 점이었다. 류이였다면 ‘미안해, 기분 많이 상했어?’하는 다정한 멘트가 튀어나왔을 것이고, 란이었더라면 ‘어이쿠, 무서워라. 이러다 한 대 맞겠군’하는 대답이 튀어나왔을 것이다.

갑자기 란이 3주는 더 누워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제 재판에 대한 건 대충 감이 잡히지? 아샤.”

루이스가 물어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루이스에게서 재판에 관한 컨설팅을 받은 시간만 하나하나 꼽아도 5시간은 족히 될 것 같다. 거의 수업 하나 들은 기분인데.

어쨌거나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루이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다음 주에 열릴 재판에서 해야 할 말들을 대본 외우듯 달달 외울 수 있었다. 좋아, 다음 주 재판정에서 자신 있게 ‘이의 있소!’를 외쳐주겠다. 짜게 식어버릴 재판정의 분위기가 벌써부터 상상이 가는군 훗.

쓸데없는 포부를 세우고 있자니, 용건도 끝났겠다 눈앞의 그가 느긋하게 차라도 한 잔 마시지 않겠냐며 물어왔다. 티타임을 즐기기엔 지금 시각은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루이스.

“아뇨.”

또 다시 걸레 빤 물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나는 역동적으로 고개를 내저으며 거절했다. 나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타입인 류이였다면 지금 같은 칼 같은 거절에 다소 무안해했을 수 있겠으나, 루이스는 쿨해도 너무 쿨한 나머지 아무런 생각도 뻘줌함도 없어 보였다. 생각이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다만 여하튼 그랬다. 란이었다면 아마 ‘입맛이 유치해서 차는 싫은 거지? 다음엔 주스로 준비해놔야겠구만.’하며 비꼬고도 남았을 거

아니, 잠깐만. 나 왜 자꾸 그 두 남자들의 성격을 지금의 상황에 대입시키는 거지? 이제는 하다하다 뇌가 그 인간들에게 중독돼버렸나 보다. 하긴, 그동안 너무 자주 붙어 지냈긴 했지. 아니, 란과는 그리 붙어 지내지까진 않았던 것 같다만 어라. 그러고 보니 나, 대체 왜 이러지? 오래 붙어 지낸 걸로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자면 루이스가 제일 많이 생각나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루이스는 그들만큼 떠오르진 않던데.

내가 생각해도 지금의 내가 좀 이상하다. 그 둘이 병상에 누워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더 많이 생각나는 걸까?

“”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부질없는 생각에 빠져있자니, 그런 나를 현실로 데려온 인물은 역시나 루이스였다. 지금 이 공간에 같이 있는 인물이 그뿐이니 당연한 거겠지만.

“오늘도 유이 황자의 방에 들를 거지?”

그가 건네 온 물음이었다. 나는 재판과 관련된 서류들을 주섬주섬 정리하며 나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틀 전쯤에 알아차린 건데, 루이스는 언제부터인가 류이를 ‘류 제국 황자’라고 칭하지 않고 ‘유이 황자’라 부르고 있었다. 호칭은 둘째 치고, 유이라니. 역시 ‘류’발음이 안 되는 건 프란치아 제국민들만의 종특인 건가 그 잘난 엘리트 마법사도 넘을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이라니.

“그럼요.”

류이든 유이든, 그 이름이 류 제국 3황자인 그를 지칭하는 것임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기숙사를 방문했다. 이유야 뭐, 한 가지 뿐 아니겠는가.

잘 가라며 인사해주는 루이스를 뒤로하고, 나는 그의 기숙사를 빠져나왔다.

루이스의 기숙사와 류이의 기숙사는 다른 건물이었지만 그리 멀지만은 않았다. 옆 동으로 진입해 계단만 조금 오르면 류이의 기숙사가 위치한 2층이다. 복도를 지나다 보면 다른 기숙사 문보다도 유독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하게 생겨먹은 황금 장식의 문―그것도 영화관 문처럼 양 옆으로 밀어 열 수 있다―이 나오는데, 그 알아보기 쉬운 방이 바로 류이의 방인 것이다.

병문안 차원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 동의 기숙사를 방문한 나. 2층으로 올라와 그의 방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런 내게 문제가 닥쳤다. 바로 일주일 전과 지금의 상황에는 크디큰 다른 점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어라, 이게 누구야?”

“!”

대학 건물들의 복구가 끝나지 않아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휑했던 일주일 전과는 달리, 마법으로 모든 복구가 끝난 지금 시점에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 기숙사로 돌아 와버린 것!

다음 주부터 개강이니, 수업 준비를 위해서라면 지금쯤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맞다. 요즘 가장 핫한 소문의 주인공인 내게는 애석한 일이지만 말이다.

덕분에 나는 마주쳐서는 안 될 아니지. 마주쳐서 안 될 건 없지만, 얼굴을 마주해봐야 껄끄러움밖에 느껴지지 않는 어느 기집애들과 마주쳐버리고야 말았다. 그러고 보니, 이것들도 대학에서 나름 잘나가는 학생들이었지? 주변에 하도 대단한 인물들만 바글거려서 그런가, 엑스트라의 존재들은 잠시 잊고 있었다. 후우.

“야벨의 손에서 용케도 안 죽고 살아남은 아샤잖아?”

시건방진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던―나보다 키가 반 뼘은 더 컸다―샤르도나 발리시아가 지껄였다. 얼씨구?

“아디티 황자를 잡아먹고 살아남은 아샤잖아?”

샤르도나와 자주 붙어 다니는 여자애, 로제 스파클링이 말했다. 어 어절씨구?

“어디 그뿐이야? 유이 황자님에게까지 민폐 끼친 그 아샤잖아!”

마지막으로 그 둘의 친구이자 루이스의 스토커 중 하나인 쇼비뇽 블랑이 말했다.

“”

그들의 싸가지를 상실한 세 마디를 들은 나는, 이내 입가에 실쭉 미소를 걸어 올렸다.

풋, 내가 고작 이 정도 공격에 데미지를 입어 흐물흐물거릴 줄 아느냐?

“킥! 저 멍청한 표정 좀 봐.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라 대꾸도 못하겠나 보지?”

그렇다. 샤르도나의 말이 맞았다. 내 멘탈은 갈가리 찢겨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흑.

방금 전의 미소는 여유로워서 지은 것이 아니라 뭐라 반박할 말이 없어서 웃은 것이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년들이 또 개소리 시작이네’같은 생각을 하며 귀라도 후비적거려주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을 만한 진부한 도발들이었지만, 지금의 내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치명타였다. 뭐라 반박할 수가 없잖은가? 다 사실이니까.

훗, 마치 이마에 중력자탄이 꽂힌 것 같은 기분이로군. 우리 팀 딜러들은 대체 뭐하는 거야, 자리야를 안 잡고! 아차, 이게 아닌가.

뭐라 부정할 말이 없다. 이럴 땐 어찌한다? 그래, 그냥 쿨하게 인정해버리자.

“응,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아샤야.”

그리고 이대로 쌩 까고 지나가버리는 거야. 나는 류이의 기숙사를 가려고 이곳에 왔지, 이들과 언쟁을 벌이러 온 것이 아니니 말이다. 내 욕을 하려거든 차라리 내가 듣지 못하는 뒤에서나 호박씨를 까주길 바라며 발걸음을 씩씩하게 앞으로 내딛었다.

그러나 그들을 순순히 지나쳐갈 수는 없었다. 쇼비뇽과 로제가 동시에 나의 양 어깨를 탁- 하고 붙잡는 바람에 나는 그 자리에 정지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음주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도망가려다 붙잡히면 이런 기분이 들까? 몹시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날카로운 말들로 내 뇌를 후벼 파지 말고, 그냥 놔 주면 좋겠다. 이어질 말들이 나의 멘탈을 어떻게 찢고 부서뜨릴지 모를 일이라, 아무리 개X마이웨이로 살아가는 나라지만 견뎌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

나도 나 잘한 거 없다는 거 잘 알아, 얘들아. 그냥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왜 붙잡고들 그래?”

“천민 노예주제에 반말이나 찍찍 하기는. 너, 유이 님이나 루이스 님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눈에 봬는 게 없지?”

내 물음에 샤르도나가 매섭게 따져들었다. 내가 리신이니? 눈에 봬는 게 없게. 두 눈은 아주 멀쩡한 입장인지라 세상 억울했지만 내가 반말을 해댄 것도 사실이라 그냥 입을 다물었다. 그래,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지나가련다.

“야, 야! 얘 좀 붙잡아 봐.”

“어우, 무슨 코뿔소야? 무슨 여자애 힘이 이렇게 세!”

힘으로 밀어붙이며 바리케이트를 뚫어보려는데, 세 명이나 되어서 그런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결국 세 명에게 똘똘 둘러싸인 나는 이리저리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나보다 키가 크고 덩치까지 좋은 그녀들의 손을 뿌리치는 데에 실패했다. 여기서 덩치가 크다는 건 뚱뚱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골격이 나보다 좋다는 소리인데,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키도 덩치도 작은 나는 힘으로써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결국은 양 팔을 소비뇽과 로제에게 붙잡히는 상황까지 처해버렸다. 그리고 번개처럼 내 뇌를 강타해오는 불안감

“!”

자, 잠깐만! 지금 같은 상황,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다음의 전개는 분명!

“못된 계집애. 내가 언젠가 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

샤르도나의 입꼬리가 잔혹하리만치 위로 치솟았다. 그녀의 살벌함 느껴지는 미소를 본 나는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다. 이 다음 전개는 100% ‘그거’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숙사 복도는 몹시도 조용한 편이었고, 지나다니는 사람 또한 없었다. 있다 한들 나를 구해주려 나서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고 말이다. 쇼비뇽과 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는 샤르도나를 올려다보았다. 원하던 먹잇감을 손에 넣은 흡족함 만땅인 사냥꾼의 표정으로 그녀가 손을 치켜 올렸다.

“너 때문에 루이스 님이 곤란해졌어. 그분의 아버지를 재판에 휘말리게 한 너는 죽어 마땅해!”

샤르도나가 폭언을 내지르며 손을 휘둘렀다. 그녀의 손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내 뺨을 향해 날아온다. 그 찰나의 시간에 샤르도나의 매니큐어 바른 우아한 손가락을 넋 놓고 쳐다보던 나는, 이내 고통스럽고도 짜릿한 감각이 내 뺨에서 온몸을 타고 전율인 양 흘러내려가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짜악-!

“허억!”

지, 진짜로 뺨을 맞다니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 없는 뺨을!

헛숨이 절로 튀어나온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히어로나 백마 탄 왕자님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전개 따위는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 전개들로 수없이 구원받아왔으니, 슬슬 나도 당할 때가 된 것이다.

그리 생각하고 얼얼한 뺨을 손으로 어루만지고 싶었으나 샤르도나의 따까리들에게 팔을 붙들린 터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뇌에게 ‘안 아프다고 느끼도록 명령해’라는 요구를 하고 있던 그 때, 샤르도나가 따까리들에게 말했다.

“끌고 가자. 더 손봐줘야겠으니까.”

“좋은 생각이야.”

뺨 한 대가 끝이 아니라고? 절망스러운 순간이다. 입을 딱 벌리며 나를 끌고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한 쇼비뇽과 로제, 샤르도나를 번갈아 쳐다보는데

그런 우리들의 뒤에서 단말마와도 같은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야아아아아-!”

“그만들 하십시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모양이다. 들려온 목소리는 한 명의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도살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짐승마냥 멍청한 표정으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며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 고함소리들이 들리기가 무섭게 나를 데려가던 그녀들의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다.

“뭐야?”

“누구?”

이 깡패 같은 기집애들이 중얼거리며 뒤를 돌아본다. 나 또한 고개만을 뒤로 돌려 방금 전 고함소리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

데 헉! 뛰어온다!

“뭐, 뭐야! 쟤네들은!”

“갑자기 왜 뛰어 오 쟤네 조수들 아냐!”

“맞네, 조수 유니폼이잖아!”

그 두 명은 놀랍게도 조신함의 극치였던 마리와 아도라였다. 그 멀쩡하던 친구들이 대체 언제부터 나의 천방지축 성격을 닮아버려 저 모양 저 꼬라지가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도라와 마리는 눈물을 글썽이거나 눈동자를 희번뜩거리며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물론 우는 쪽은 마리요, 희번뜩 쪽이 아도라였다.

따각따각따각! 이 순간, 그녀들의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을 거세게 찧는 소리가 빠른 리듬으로 복도 내에 장렬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무슨 말을 탄 기마병들이 달려오는 소리인 줄.

“지금 누굴 때리는 거야아아!”

“당장 그 손 놓으십시오-!!”

저 둘이 저렇게까지 흥분한 건 처음 본다. 그 소심하고 착하고 점잖고 정숙하던 인간들이 대체 어쩌다 저렇게 되어버린 거지?

그 원인이 나라는 생각은 미처 못하고, 나는 입을 쩍 벌리고서 그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코앞까지 다가온 마리와 아도라가 샤르도나와 쇼비뇽, 로제, 이 세 명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때까지 말이다.

“아악-! 너희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안 놔? 너희들 미쳤어! 불경죄로 끌려가고 싶어!!”

여기까진 샤르도나 패거리의 외침이었다. 이어지는 고함소리들은 놀랍게도 나의 그 착하던 친구들 입에서 나온 주옥같은 대사들이었다.

“오늘 너희들 죽고 나 죽자! 감히 내 친구를 때려? 너희가 잘난 집 영애들이면 다야? 나는 귀족 아닌 줄 알아? 남작 가문이라고 무시해!”

“좋습니다, 어디 한 번 불경죄로 집어 넣어보시지요! 누가 끌려들어가나 내기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주옥같은 게 아니라 족 같은 거 아, 아니다.

할 수야 없지. 하지만 앞날이 심히 걱정되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인데.

졸지에 머리채를 잡혀버린 샤르도나와 로제, 쇼비뇽이 내 팔을 놓았다. 그리고 아도라와 마리의 긴 머리채를 휘어잡고서 서로서로 미친 듯이 싸워대기 시작한다.

분명 뺨을 맞은 인물은 나였건만, 싸움은 때린 놈과 내 친구들이 하고 있었다. 대체 왜? 어째서?

“그, 그만들 하!”

잔뜩 당황한 얼굴을 하고서 샤르도나와 마리를 떼어내려 했다. 그 둘의 팔을 붙잡으며 키 차이도 대단한데 용케도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렸던 그 순간!

“어억!”

샤르도나가 휘두른 팔에 나는 턱을 얻어맞아 나가떨어지고야 말았다. 아이고! 새우 싸움에 고래 등 아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뺨으로도 모자라 턱까지 얻어맞은 나는 대략 멘탈이 붕괴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불과 이 주 전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겠으나, 야벨과의 사건이 있은 후 스스로를 민폐덩어리라 생각하게 되어 조금 소극적인 자세가 되어버린 나였다. 대책 없이 달려들어 또 민폐 짓을 저질렀다간 다음엔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우왕좌왕하던 나. 기세 좋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를 외치고 저 소란의 틈에 끼어들어 샤르도나의 머리채를 붙잡을지, 아니면 지금의 소란을 해결해줄 루이스라던가 루이스라던가 루이스라던가 하는 인물을 불러올지를 찰나의 순간 동안 수십 수백 번은 고민하고 있던 그 때

“무슨 소란들이야?”

어느 기숙사 방문이 열렸다. 잠시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장소는 누군가의 기숙사 문이 있는 곳에서 살짝 떨어진 위치였다.

머리채를 붙잡고 드라마 속 한 장면마냥 몸싸움을 벌이던 여자애들의 움직임이 우뚝 멈추었다. 덩달아 발만 동동 구르며 온갖 해결책을 구상해보려 애쓰던 나도 옆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그곳에는 그가 있었다. 여기서 그란, 다름 아닌

루이스!

가 아닌 류이!

도 아닌 란!

응, 셋 다 아니야.

“뭐야? 내 기숙사 앞에서.”

기숙사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민 놈은 다름 아닌 아처놈이었다. 그것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건지는 몰라도, 무스를 발라 자신의 붉은 앞머리카락을 위로 올린 모습을 한 채의 그가 말이다.

아니, 저놈이 하필 이런 때에! 그 많고 많은 기숙사 중에 하필 저 기숙사가 아처 놈의 방이었단 말이야? 젠장!

“!”

불쾌함 가득한 표정으로 우리들을 노려보는 아처를 보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딱히 아처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의 상황을 목격한 저놈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는 예상해볼 필요조차 없이 뻔한 일이었으므로.

나는 괜찮지만, 마리와 아도라는 아니다. 나는 천민 노예로서 불경죄로 사형을 당하든 어찌 되든 다 괜찮은데, 내 친구들은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결국 나 때문에 이들이 개입했다가 상황이 이리 커져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파래지는 얼굴색을 숨기지 못하며 아처를 쳐다보았다. 아처가 우리들을 살펴보다 말고 그런 나와 눈이 딱 마주쳐버린다.

“너는”

아처가 나를 보며 중얼거린다. 그 뒷말이 (킥)하는 비웃음과 함께 ‘민폐덩어리 아샤?’라는 내용일지 모른다. 피해망상으로 가득한 나의 뇌가 이런 생각을 떠올릴 때, 그의 입술 사이로는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무사하다더니, 정말이네.”

“?”

뭐야, 저 녀석. 언제부터 내 생사에 그리 큰 관심이 있었다고. 아니, 혹시 죽어버리길 바랐는데 살아있어서 ‘어라? 죽은 줄 알았는데 무사하네?’같은 뉘앙스로 말하려던 건가? 아니, 왠지 그런 싹수없는 말투는 아니었던 것 같다만

어쨌거나 내 편은 아닌 인물이다. 이 대학에 처음 들어왔던 날 나의 갈비뼈에 가감 없이 들어왔던 아처의 헥토파스칼 킥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런 입장이었기에 다소 경계를 띤 눈빛으로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내가 아샤다. 오늘따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식들이 왜 이리 많아?

“그렇게 됐네요.”

아처의 입장에서는 띠껍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한 대답이 내 입에서 튀어나갔다. 보나마나 이어질 녀석의 반응은 ‘감히 천민 나부랭이 주제에 신성한 기숙사에서 소란을 벌여?’같은 걸 거다.

나는 그리 예상하고서 마리와 아도라에게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헝클어진 머리채를 주섬주섬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아처를 쳐다보고 있는 그녀들에게로 말이다. 여차하면 한 손에 하나씩 그녀들의 손목을 낚아채고서 이 장소에서 도주해버릴 생각이었는데,

“너, 맞았냐?”

이내 이어지는 뜻밖의 전개에 나는 가히 경이로움을 느껴야 했다. 저런 대사는 아처의 입에서 나올 만한 게 아니었으니 말이다. 혹시 누가 아처로 변신한 거 아니야? 내 기억 속의 아처 자식은 ‘맞았냐?’고 물어봐줄 만큼 내게 관심이 많고 다정한 인간이 아니었다만 아, 혹시 저 말 뒤에 ‘꼴좋다’가 들어가는 거라면 인정.

“누가 때렸는데?”

도 아니다!

슬슬 저 인간이 아처의 탈을 쓴 도깨비라던가 공X가 아닌지를 의심해봐야 한다. 물론 생긴 건 공X가 아니라 공기밥 같은 자식이라지만 말이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된 것이라 했는데,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이번엔 아처 놈 차례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던 그 때

“맞아, 내가 손 좀 봐줬지. 어때, 아처. 너도 동참할래?”

샤르도나 발리시아가 싸가지 없게 생겨먹은 얼굴에 짐짓 상큼해 보이는 미소를 생긋- 하고 걸어 올리더니 아처를 향해 말했다. 아도라와 마리가 불안하다는 눈빛으로 아처를 바라볼 때, 나도 그녀들과 마찬가지로 조마조마하단 시선을 아처에게 고정하고 있었다.

폭풍전야.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달릴 준비를 했다. 슬슬 마리와 아도라의 팔을 한 손에 하나씩 붙잡고 튀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

그런데 샤르도나의 말을 들은 아처가 표정을 왈칵 찡그렸다. 어라, 저 반응은 대체 무엇?

“미쳤냐, 너희?”

뜻밖이란 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가공할 정도의 대답이었다. 어, 어떻게 아처가 저런 대답을! 냉큼 ‘좋다, 함께하지!’를 외칠 줄 알았던 그의 입에서 꿈에서조차 상상한 적 없던 말이 튀어나오자 그걸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은 샤르도나도 마리들도 아닌 바로 나였다.

저, 저럴 놈이 아닌데! 내 배에 이나하의 고드름이 아닌 둘리 엄마가 얼어붙어있는 빙하 덩어리가 꽂혀 들어온대도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봐온 아처는 그런 놈이었다만!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까칠하게 굴기는. 알았어, 그럼 우린 이만 이 기집애를 데리고 가던 길이나 마저 가주지.”

샤르도나가 아처에게 말하며 나의 팔을 덥썩 잡아챘다. 설마 또 끌려가는 건가 싶어 ‘헉!’하는 소리를 내자니, 그런 광경을 가만히 눈 뜨고 지켜보지 않는 마리와 아도라가 ‘안 돼요!’하는 목소리를 내지르며 샤르도나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런데 그런 그녀들보다 아처의 움직임이 빨랐다. 그가 내 앞으로 빠르게 다가오며 샤르도나의 손목을 잡아챈 것!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아처가 이런 식으로 나설 줄은 예상치 못했기에, 일제히 눈동자를 개구리마냥 치떠야만 했다. 또잉? 이게 웬 반전이냐.

“손 놔라, 샤르도나.”

“뭐, 뭐야! 너 갑자기 왜 이래?”

크게 당황한 샤르도나가 아처에게 잡힌 자신의 팔을 빼내려 하는데, 문제는 그 팔이 나의 손목을 잡고 있는 손이라는 점이었다. 아처에게 잡힌 팔을 풀기 위해 내 손을 놓아버린 샤르도나.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된 나는 그녀에게서 손을 빼내어 호다닥 뒤로 물러섰다.

마리와 아도라가 나의 양옆으로 재빠르게 달려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괜찮습니까?’또는 ‘뺨 괜찮아? 안 아파?’하는 질문들을 건네 왔다.

“나, 나는 괜찮아.”

사실 얼얼한 내 뺨은 전혀 안 괜찮다고 외쳐오고 있지만 말이야.

그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답해주고서, 나는 살짝 모자라 보이는 표정을 한 채 아처를 쳐다보았다. 눈앞에서 생경하게 펼쳐지고 있는 아처와 샤르도나 간의 스파크 튀는 신경전 때문이었다.

난데없이 아처가 지금의 상황에 개입했는데, 샤르도나의 편이 아닌 내 편을 들다니 이럴 리가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이런 건!

나만큼이나 믿기 힘들다는 표정들을 한 채 아처를 쳐다보는 마리와 아도라. 그런 우리들을 병풍으로 세워두고서, 샤르도나와 아처 간의 신경전은 계속되었다.

“아처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상대가 잘못됐잖아!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어디다 대고 손찌검이냐?”

“그게 무슨! 야, 너도 쟤가 대학에 들어온 날에 때렸었잖아! 천민 나부랭이라며 지옥 끝까지 밀어 넣어주자 했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꿔?”

샤르도나의 말에 나는 무릎을 탁 치다 못해 무릎팍 도사가 될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아처가 뒤에서 나를 상대로 그런 작당을 꾸미고 있었다니! 몰랐던 사실이라 그런지 신선하게 느껴지는군.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 어이란 놈은 암에 걸려 죽어버렸다. 암 세포도 생명이잖아요?

맷돌 손잡이를 잃어버린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샤르도나의 말이 맞다. 아처는 나를 지독하리만치 싫어하던 놈인데 이제 와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준다니,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며 둘의 싸움을 지켜보자니, 이어지는 아처의 행동은 역시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오히려 샤르도나의 태도와 말이 더 이해가 잘 갈 정도였다.

“함부로 때리지 마라. 네가 함부로 때려도 되는 애가 아니야.”

‘이 천민 계집애는 나만이 때릴 수 있어!’같은 건가?

“???”

샤르도나의 얼굴은 물음표 그 자체였고, 거울이 없어 볼 수 없었지만 아마 지금의 내 표정도 샤르도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일 것이다. 곧 죽을 사람들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사실이라면, 아처는 약 10초 뒤에 깨꼬닥!하는 효과음과 함께 명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10초 후의 아처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샤르도나의 어깨를 밀쳐버리며 내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칠까 고민했는데, 내게 해코지를 하려는 이의 표정이 아니었던지라 나는 ‘어? 어어?’하는 얼굴을 하고서 아처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이내 나의 1보 앞까지 다가온 아처가 대뜸 내 손을 붙잡아왔다.

“아, 안 돼!”

내 입에서 비명과도 같은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아처 놈과 핑크빛 분위기를 연출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진짜로 죽었다 깨어난 만큼 싫단 말이야!

하지만 아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나 보다.

“야, 가자.”

“!”

애기야, 가자! 같은 건가? 내가 왜 이 자식의 애기지?

아처는 그런 대사를 친 적도 없음에도 나의 뇌가 오지랖 넓게 이런저런 공상을 하고 있을 때, 아처가 나를 이끌었다. 때리려고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놈이 대체 무슨 이유로 날 끌고 가는 걸까? 날 걷어차려거나 때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아처가 날 어디론가 데려갈 이유가 하등 있었던가? 내 머릿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손을 뿌리치긴 뭣하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니 일단은 따라가 보자. 상황의 전개가 몹시 황당했지만 일단은 쭐레쭐레 그의 뒤를 좇기 시작하자

“아샤, 병문안 가려던 거 아니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나의 친구들이 나와 아처를 향해 물었다. 그러게나 말이야. 마리와 아도라도 류이의 기숙사를 방문하려다 이곳에서 딱 마주치게 된 모양인데, 갑자기 내가 아처에게 손을 붙들려 끌려가게 되니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고 판단한 모양인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 내 친구들에게 아처는 답지 않게 친절한 목소리로 설명까지 해주었다.

“유이 황자,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거든.”

“아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겠다는 건가? 고건 또 몰랐군.

멀어지는 우리들의 뒤에서 샤르도나 패거리들이 귀족다운 욕지거리를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그 앙칼진 고양이의 울음소리 같은 욕설들―헌터 가문의 삼대가 멸해라!―을 들으며 앞으로 걷던 아처가, 약 20m쯤 멀어졌을 때 뒤를 힐끔 돌아보았다.

여전히 그녀들은 아까 그 자리에 정승마냥 우두커니 서서 팔짱을 낀 채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들이었는데

“너희도 뇌가 달려있다면 지금이라도 줄 잘 서라! 멍청하게 설치지들 좀 말고.”

아처는 뒤를 돌아보며 이리 소리쳤다.

“!”

왠지 방금 아처 놈의 시커먼 머릿속이 살짝 읽힌 듯했다.

이놈이 내 주식을 샀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서야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내게 이렇듯 친절하게 굴 리가 없다. 아처 놈은 대체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군.

류이를 보기 위해 그의 기숙사를 방문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나는 아처의 손에 이끌려 류이를 찾아오게 되었다. 물론 그 장소는 류이의 기숙사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 응? 류이는 아픈 거 아니었냐고? 아직까지 누워있는 거 아니었냐고? 그렇지 않다.

란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지만 류이는 6일 전에 깨어났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일상생활보다는 휴식하는 데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긴 하지만, 그는 오른팔을 제외한 다른 부외에 독이 퍼지지 않았으므로 글씨를 쓰거나 젓가락질 등을 할 때의 경우를 제외하자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

고로 휴식을 취할 때를 제외하자면 두 다리 멀쩡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다닌다는 얘기다. 물론 그 일이란 루이스의 아버지를 필두로 하여 3일 뒤에 열리게 될 재판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대략적인 설명은 이 정도면 되겠군.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좀 이상하다.

“반가워, 아샤.”

“아, 네? 네”

아처가 나를 데려온 곳은 류이의 기숙사나 루이스의 기숙사 같은 곳이 아닌, 바로 로사의 기숙사였다. 로사를 기억하는가? 아처의 파트너로 종종 나왔던 엑스트라 급 존재감의 빨간 머리 여자애 말이다.

내 인생에 있어 로사는 엑스트라였지만, 이 대학에 있어 그녀는 주연 급 인물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베아트리스 공작가에서 오냐오냐 키운 하나뿐인 금지옥엽 딸이라 하니, 그 명성과 유명세가 오죽하겠냐만은.

“아샤?”

류이가 나를 보더니 소파에서 일어서며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불러온다. 그런데 나의 얼굴을 확인하고 내게 말을 건네 온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샤, 또 보네.”

류이가 왜 로사의 기숙사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루이스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다. 루이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지 20분도 채 흐르지 않은 것 같은데, 로사의 기숙사 안에서 느긋하게 찻잔을 홀짝이고 있는 저 모습은 대체 뭐란 말인가? 그새 여긴 왜 온 거지? 아니, 그 전에. 로사랑은 대체 무슨 사이? 여자의 기숙사엔 왜 들어와 있는 것?

설마

“두 분, 정략결혼이라도 하신 사이인가요!”

내 입에서 경악스런 한 마디가 튀어나갔다. 그러고 보니, 둘 다 프란치아의 공작가문이 아니던가! 베아트리스 가문과 레플리카 가문이 정략결혼을 했다면? 아니면 약혼을 제의하기 위해 루이스가 로사를 보러 이곳에 온 것이라면? 오, 그래. 꽤 일어날 법한 전개잖아? 귀족과 귀족 간의 정략결혼이 난무하는 이 세계에서 이 정도면 아주 그럴싸한 스토리잖은가.

드라마 오X라 공주의 작가도 울고 갈만한 뻔한 전개식 추측을 시전한 내게, 돌아온 로사의 대답은 짧고 굵은 한마디였다.

“그럴 리가. 나는 시시한 남자는 질색이라구.”

나른하고 거만한 표정을 지은 채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리고서 손으로는 턱을 괴고 있는 그녀는 이리 말했다. 시시한 남자라니, 루이스가! 신분도 생긴 것도 전혀 시시하지 않은 양반인데. 루이스가 시시한 남자라면 이 세계 남자의 99.9%는 시시하고 별 볼일 없는 남자라 봐도 무방하다.

루이스의 표정은 과연 어떨까? 로사의 말을 들은 루이스의 표정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옆으로 시선을 옮겨보았다. 여전히 홍차를 홀짝이고 있는 루이스의 얼굴은 그저 무감각했다. 역시 저 인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걸 거야.

로사의 기준에서 시시하지 않은 남자란 대체 어떤 인물인 거지? 이 방에 함께 들어온 마리와 아도라를 돌아보았다. 그녀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혹시’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왠지 아도라는 식은땀까지도 흘릴 것 같은 미묘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사가 뭐가 재밌는 건지는 몰라도 ‘하하호호!’하듯 까르륵 웃어

제꼈다. 전혀 웃을 분위기가 아닌데 왜 웃는 것? 모두의 시선이 로사에게로 향했다.

“안심해, 아샤. 그렇다고 해서 유이 황자나 아디티의 3황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내가 안심할 이유도 없지 않나! 왜 나더러 안심하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심이 없다니 다행이었다. 아처와 어울리는 부류인 로사를 류이나 란에게 갖다 붙여주고 싶은 마음은 티끌만큼도 들지 않으니까.

“‘류이 황자’라니, 거슬리는군.”

류이가 여자를 상대로도 퍽 살벌한 눈웃음을 날리며 저리 말한다. 아무리 프란치아에서 날고 기는 공작가라 하나 류 제국 황자 앞에서는 존대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로사가 부른 호칭은 꼬리가 다소 짧은 편이었고, 그것을 트집 잡힌 로사는 콧방귀라도 뀔 기세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쳤다.

“난 속 좁은 남자도 싫어해서 말이야.”

“”

저리 말하고는 한 번 더 깔깔! 웃어버리기까지. 그 잘난 류이의 패배라니! 놀랍다 놀라워.

아까의 나와 마찬가지로 맷돌 손잡이를 어딘가에 두고 온 듯한 표정으로 류이가 로사를 쳐다본다. 그러다가 이번엔 이렇게 받아치는데,

“마법 대학 교장까지 배출한 베아트리스 가문이라지만, 가정교육에는 취약한가 보군.”

“지금 그거 패륜적인 발언인 건 아시는지? 류 제국 황실에는 그런 말들이 유행인가 보군요.”

“가진 것 없이 콧대만 높은 프란치아 귀족 아니랄까봐, 정말 못하는 말이 없구나. 사실을 말해주니 찔리든?”

“사실이 아니라 찔릴 게 없군요. 그러는 유이 황자, 당신이야말로 화나신 것 같은데 무슨 찔리는 구석이라도 있으신지?”

지켜보자니 흥미진진한 귀족과 황족간의 싸움. 이럴 때 팝콘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콜라와 함께 팝콘을 와작와작 씹어주며 구경하면 이보다 즐거울 수는 없을 것 같다. 내 주인님이 싸우고 있는 건데 재밌냐고? 그, 그건 내가 그렇게 되먹은 인간인 걸 어떡해. 미안하다, 주인님!

슬금슬금 열이 오르는 듯한 류이의 얼굴―웃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이마 위에 빠직 마크가 떠오른 것 같았다―과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속내를 한가득 드러내고 있는 로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자니, 이 때 루이스가 나와 내 친구들을 향해 말해온다.

“이리 와서 앉아.”

라고. 마리와 아도라가 ‘우리들도 앉아도 되는 거야?’하는 눈빛을 내게로 보내왔다. 당연한 거 아니겠니, 마이 프렌드들!

마리와 아도라의 어깨를 붙잡고서 앞으로 밀었다. 중앙의 소파에는 아무래도 옆 나라 황족이라 그런 건지는 몰라도 류이가 앉아 있었고, 이 방의 주인인 로사가 그 다음 가는 상석인 오른쪽 소파에, 그리고 루이스가 왼쪽에 앉아있었다. 아처는 자연스럽게 로사의 옆으로 가서 앉았지만, 우리들은 딱히 그 사이에 낄 레벨이 아니었으므로 류이의 맞은편 소파에 종종걸음으로 다가가 차례대로 앉았다.

나나 마리는 그렇다 쳐도, 이나하와 약혼한 사이인 아도라는 아무래도 루이스의 옆자리나 로사의 옆자리에 앉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인 신분을 알려주지 않은 그녀이니, 지금은 이렇게 앉는 것으로.

“여기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계셨어요?”

나는 궁금한 점을 루이스에게 물어보았다. 로사가 손을 들어 올려 우아한 손짓으로 ‘딱!’소리를 냈다. 그러자 공중에 찻잔 네 개와 홍차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다기가 등장한다.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다기가 찻잔 네 개에 홍차를 골고루 따라 주고, 이내 로사가 그 잔들을 나와 내 친구들, 그리고 아처의 앞에 하나씩 보내주었다. 아이쿠, 고마워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친절인데.

“아샤, 나 조금 무서워.”

로사가 보내준 찻잔을 두 손으로 잡아들어 올리자, 옆에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치를 살금살금 살피던 마리가 내게 귓속말을 건네 왔다. 평소에는 그림 속의 떡, 밤하늘 위에 뜬 별 같은 존재였던 이들이 눈앞에 모두 모여 있으니 무서울 만도. 여기에 레오니드만 첨가해준다면 마리가 말해주었던 ‘공작가 이상 4인방’의 완벽한 사위일체인데 말이다.

나는 오른손으로 찻잔을 들고서, 왼손으로는 마리의 어깨에 손을 턱하니 얹으며 이런 귓속말을 속삭여주었다.

“괜찮아, 사랑 아니, 다들 똑같은 인간이야.”

“응? 그, 그런가.”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건 아니지 않아?’라고 반박해봤자 아무런 영양가도 없을 거란 사실을 깨달은 모양인지, 마리가 대충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훗, 역시 우리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 사이라니까.

아도라는 조금 경계하는 빛을 띤 얼굴이었다. 로사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아도라는 이내 그녀와 눈이 마주쳐버리는데, 로사가 아도라를 향해 이런 말을 했다.

“넌 좀 부티나게 생겼구나. 어느 가문 영애니?”

“알려드리고 싶지 않군요.”

“그래, 알겠어.”

아도라의 무례할 수 있는 대답에 로사는 저런 털털한 대답까지도 뱉어왔다. 뭐지? 이쯤 되면 내가 생각하던 로사의 이미지와 지금의 로사가 다소, 아니지, 아주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기숙사에 처음 들어오던 날, 아처 자식에 의해 갈비뼈가 아작 나버린 후 로사가 등장했었지 않았던가. 그때의 로사는 분명 아처의 편을 들었었다. 굉장히 개념 없고 싸가지도 없는 공작가의 영애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눈앞의 로사가 뽐내 보이고 있는 이미지는 그때의 내가 느꼈던 캐릭터성과는 정반대였다.

예를 들어,

“나중에 나와 살롱이라도 같이 가지 않으련? 함께 갈 파트너가 딱히 없어서 말이야.”

특유의 오만하게 느껴지면서도 나른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저런 말까지도 건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부티나게 생겼다고 평가했던 아도라에게 말이다.

아도라가 고개를 내저으며 거절하자, 로사는 또다시 ‘그래, 알겠어.’라는 대답을 꺼내왔다뭐하자는 건지 모르겠군.

“우리는 재판 후의 일을 얘기하려고 모인 거야, 아샤.”

로사를 바라보며 온갖 잡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이전에 내가 던졌던 물음에 루이스가 대답해왔다. 내가 물었을 때 바로 답해주려 했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었던 모양. 그의 답을 들은 내가 반문했다.

“재판 후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요?”

“작위 계승과 관련된 것들. 베아트리스 공작가는 우리 가문과 뜻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항은 논의하지 않을 수 없거든.”

“아, 아”

하? 가 아니잖아!

루이스의 대답을 듣기가 무섭게 내 눈이 튀어나갈 듯 휘둥그레져버렸다. 우리의 전 주인님네 가문과 로사의 가문이 그렇고 그런―이상한 표현―사이였다고? 대체 언제부터?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어이가 없다. 그렇다면 그때 아처에게 내가 맞았던 날, 아처 놈의 편은 왜 들었단 말인가? 나는 루이스의 조수인데 말이다. 나는 궁금한 걸 꾹 참고 가지고 있는 타입이 아니었으므로, 생각난 의문점을 냉큼 그녀에게 캐물었다.

“그렇다면 로사 님. 한 달 전 제가 이곳에 막 들어왔을 때, 왜 제가 너덜너덜해지게 맞도록 내버려두셨어요? 가문끼리 뜻을 함께한다 해도, 루이스 님의 조수까지는 신경써줄 가치가 없는 건가요?”

눈치 챌 사람은 챘겠지만, 내 눈빛은 삽시간에 그리 곱지 않은 빛으로 변해있었다. 딱히 공작가의 영애에게 눈을 부라릴 수 있는 신분인 건 아니었지만, 이전에 겪었던 일로 인해 로사에게 악감정이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좋은 눈빛을 지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의 표정을 읽은 모양인지, 로사가 작게 ‘훗’하는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건가? 가늘게 뜬 눈으로 로사를 바라보자, 그 옆에 앉은 아처가 대뜸 이런 대답을 꺼내왔다.

“그땐 나도 로사도 네가 루이스의 조수인지 몰랐으니까.”

“뭐요? 몰라서 안 말렸다는 거예요?”

“일개 조수 나부랭이가 맞고 있든 말든 로사는 그런 걸 신경 쓰는 인간이 아닌 걸, 나더러 어쩌라고?”

아처는 인상을 살짝 찡그리며 저리 따지듯 말해온다. 가해자 놈이 적반하장인 꼴을 보자니 위장이 뒤틀리다 못해 샹하이 트위스트라도 추는 듯한 기분이 들어온다. 내가 입술을 삐쭉 내밀며 속이 상했다는 티를 내자, 옆에서 루이스와 류이가 아처와 로사, 그리고 나를 두리번거리며 번갈아 쳐다보는 것이다.

루이스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그런 그보다 류이의 물음이 앞섰다.

“누가 누굴 때렸다고?”

“?”

그러고 보니, 류이는 그때 그 장소에 없었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기피하는 편인 류이이니, 내가 대학 입구에서 소란을 벌였을 당시에 아마 그 근처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처에게 맞았다는 사실도 모르나 본데, 그렇다면 친절히 알려드려야겠지. 나의 현 주인님이기도 하니까. ‘알 권리’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 으음.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좀 더 주의해서 말해야 할 거라는 사실을 잠시 깜빡해버렸다.

“제가 아처한테 배에 엄청난 킥을 당했었거든요. 갈비뼈 4번과 6번이 나갈 만큼 무지막지했었죠.”

물론 갈비뼈 4번과 6번이 어느 부분에 붙어있는 건지도 모른다. 되는 대로 농담을 섞어 지껄인 내 말에 류이의 안색이 돌변했다. 나는 그 기색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입을 삐쭉 내밀고서 아처를 째려보았는데, 갑자기 류이의 얼굴을 본 아처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나를 쳐다봐오는 것이다.

“!!”

그리고는 허둥지둥 손을 들어 올려 수화라도 하듯 무슨 이상한 동작을 해대는데 뭐야? 저놈. 멍청하고 한심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 같더니, 이젠 나를 닮아 뇌에 오류까지 났

딱!

“으아아악!”

나 어, 뭐야!

“!”

나와 마리, 아도라가 컨트롤C, 컨트롤V로 붙이기라도 한 듯 똑같은 표정으로 깜짝 놀라며 상체를 뒤로 젖힌다. 누군가가 시전한 마법에 의해 아처가 허공에 붕 뜨듯 날아오른 것이다.

어디 날아오르기만 했으랴? 곧바로 그의 몸뚱이는 쏜살같이 그 ‘누군가’에게로 날아갔다. 옆에 앉은 류이의 손아귀 속으로 아주 사뿐하게.

멱살을 아주 제대로 틀어 잡힌 아처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떴다. 물론 류이의 키가 엄청 크지만은 않아서 그런가, 아처가 까치발을 하니 그의 발끝이 바닥에 간신히 닿기는 했다.

이내 녀석이 곤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항복 자세를 취하듯 손을 들어올린다. 그리고 진정하라는 듯 류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이제는 안 괴롭힙니다! 진짜예요!”

아처는 류이에게 존댓말을 하는구나. 하긴, 나이는 그렇다 쳐도 신분이 신분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거겠지? 로사나 란 등등이 이상한 거였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뒤늦게 류이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당장이라도 아처를 찢어발길 듯한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표정이었다. 다정한 줄만 알았던 인간이 저런 살인마 같은 표정도 지을 줄 알았다니. 마치 명탐정 X난을 보다가 옷걸이를 던진 살인마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의 기분 같 아, 이게 아닌가?

여하튼 뜻밖의 인물이 뜻밖의 표정을 지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렸다. 안녕하세요? 소름인데요, 돋았어요.

“좀 말려봐, 아샤.”

별로 친하지도 않은 로사가 내게 저런 말을 건네 왔다. 딱히 진심인 것 같지도 않아서, 나는 콧방귀를 흥 하고 뀌어주며 이런 말로 받아쳐주었다.

“제가 맞을 때 로사 님은 말려주셨던가요?”

“그것도 그래. 그때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으면 별로 큰 감흥이 없는 것뿐이야.”

이번에도 로사가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까르륵 웃어대며 저런 대답을 해왔다.

이제 보니, 로사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인물인 것 같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이 말은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저 정도면 내가 아니라 눈앞에서 루이스가 맞고 있어도 딱히 도와줄 것 같지 않다. 비로소 로사의 정체를 깨달은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동안 로사를 개념 없는 인간이라고 욕했구나. 정정해야겠다. 로사 개념의 여부는 모르겠고 생각은 확실히 없는 인간, 수정 완료.

“봐, 봐주십시오, 선배님!”

아처가 류이를 부르는 호칭은 ‘선배님’인 모양. 하긴, 대학의 학생들은 류이의 부하도 류 제국민도 아니니 황자님이라고 부를 이유는 딱히 없겠지. 여자애들이 그를 ‘황자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무래도 류이가 백마 탄 왕자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다. 아무렴 ‘선배님’보다는 ‘황자님’이 더 설레지 않는가. 성격이나 외모만 따지고 보자면 왕자 역할에 제일 잘 어울리는 인물은 루이스가 아닐까 싶다만, 류이의 얼굴은 왕자답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름다움 그 자체라.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만 보자면, 평소 내게 아무리 잘해주고 착한 주인님이라고는 하나 왜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이 꼬이는 건지 잘 모르겠다.

“헌터 가문에는 공동묘지가 있나?”

저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살벌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그렇게나 많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야.

“그만하세요, 황자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때릴 사람이 없어서 아샤를 때려? 너도 오늘 죽어봐라.”

내 말도 씹어버리고서 웃는 낯으로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저 남자, 무섭지만 묘하게 섹시하다?

그러고 보면, 내 사람에게만 착하고 내 사람에게만 다정한 인물이 바로 류이였던 것 같다. 웃긴 사실은 내가 어느 틈엔가 그 ‘류이의 사람’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말이다. 대체 언제부터 류이가 나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건지―확실한 건 아니지만―는 모르겠다만, 지금처럼 저리 나의 일로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으음 뭐, 좀 기분이 좀 좋기도?

이런 걸로 왜 기분이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다. 나도 이제 미쳤나 보다. 아아, 자괴감 들고 괴로워

“선배님, 일단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지요.”

“”

루이스까지도 나서서 말리자, 류이가 시선을 아래로 힐끔 내리며 루이스의 얼굴을 쳐다본다. 단지 저 한마디로는 부족한 모양이다. 루이스가 알아차렸다는 듯 말을 덧붙인다.

“아처는 두 달 정학까지 먹었으니 말입니다.”

“그랬나?”

몰랐던 게 당연하다. 류이가 아처한테 도통 관심이 있었어야지.

정학을 먹었는데 왜 학교에 꼬박꼬박 등교하는가? 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설명해주겠다. 마법 대학에서의 정학은 학교 자체에 등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대회에 참여하거나 기숙사에서 지내는 등에 대한 제재는 없다. 고로 아처는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마냥 학교를 들어왔다 나갔다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는 것. 수업까지 안 들으니 개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미리 덧붙이는 건데, 강의를 듣지 못한 만큼 아처의 성적은 바닥을 향해 추락한다고 보면 된다.

류이가 ‘그렇다면 뭐, 지금만 봐주지.’라고 말하며 아처를 내던졌다. 로사의 옆 소파에 정확히 안착하며 나동그라진 아처가 어리버리한 눈동자로 류이를 쳐다보았다. 저 멍청한 표정이라니 너무 잘 어울리는 걸!

“칫.”

류이는 저런 소리를 내며 짜증스럽다는 듯 눈썹을 찡그리면서도 순순히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런 후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아처에게 부라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루이스와 로사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듯 대화를 진행했다.

“아버지께서 작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면, 아마 헨델 백작가, 로지아 후작가 등이 이런 주장을 펼칠 거야. ‘도미닉 레플리카의 중죄로 프란치아가 전운에 휩싸였으니 책임을 물어 작위를 강등해야 한다’라고.”

“레플리카 공작가가 아닌 레플리카 후작가가 되는 순간이란 건가. 평소 네 가문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돼지 같은 아저씨들에겐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군.”

“그래. 프란치아의 법에 ‘반역죄를 저지른 부친의 작위는 강등하여 계승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 일의 경우는 반역죄가 아닌, 오히려 전쟁 중 약세를 띄던 프란치아를 위해 벌인 일과 연관이 있으니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

“음, 틀린 말은 아니네. 16년 전의 일들을 들먹이며 프란치아 황실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건가. 하긴, 레플리카 공작이 어디 본인만을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겠어? 마법서를 훔친 것도 결국 다 아디티 황제를 살해한 후폭풍을 막아내기 위해서였으니”

?????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알쏭달쏭한 얘기들.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저들의 사정을 낱낱이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나라의 귀족들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프란치아의 법은 어떤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아도라는 내막이 파악이 되는 듯 작게 ‘역시 프란치아의 귀족들은 속물적이군요.’라고 중얼거린다. 루이스가 공작위를 온전히 계승받으려 하는 걸 속물스럽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레플리카 공작이 마법서를 훔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로사의 말을 듣고 그리 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여하튼 머리 아픈 얘기들뿐인지라, 나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렇게 잠자코 듣고 있다 보니 헌터 가문에 대한 얘기도 종종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일전에 아처 녀석이 루이스에게 매달리며 ‘너희 가문과 우리 가문, 끈끈한 사이잖아!’라고 했던 말이 썩 허황된 개소리만도 아니었던 모양.

베아트리스 가문과 헌터 가문, 그리고 레플리카 가문이 한통속 아니, 한통속이라고 하면 너무 악역들 같으니까 다른 표현을 쓰자. 한패였나 보다.

루이스와 로사, 아처들 간에 나누는 대화를 듣다 보니 문득 류이가 이곳에 왜 와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황자님은 여기에 왜 오신 거예요?”

별로 얘기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눈빛으로 물어보는 나의 말에, 류이가 달콤한 미소를 날려 왔다. 본의 아니게 그 미소를 봐버린 아처는 갑자기 자신의 몸을 부르르 떠는데 자신을 대할 때와 나를 대할 때가 달라서 그런 건가? 뭐야, 저 반응은. 류이가 봤다면 원펀치형을 선고하고도 남았을 듯.

다행히도 아처의 반응을 보지 못한 류이는 루이스와 로사가 나누는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내게 답해왔다.

“이번 재판에 류 제국을 대표해서 참석하게 됐거든. 증인이기도 하고. 내 입김도 적지 않게 작용할 것 같으니, 이들과 말을 맞추기로 한 거야.”

“아하.”

그래서 말은 별로 안 해도 나누는 대화들을 빠짐없이 듣고 계시는 거였구나. 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 재판에 임할지를 알고 있어야 하니 말이다.

비로소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됐다.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고 있는 나를 류이가 아주 달달한 눈동자로 응시해왔다. 저 눈빛은 또 뭐지 부담스러운데.

너무 잘생긴 남자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는가? 내 얼굴이 류이의 뺨을 칠 수 있을 만큼 예쁜 게 아니니 부담스러운 감정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 류이만큼 잘생긴 인물은 드문수준이 아니라 거의 없는 수준이라 봐도 무방하니까. 루이스조차도 류이에게는 안 될 것 같고, 류이에게 비빌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얼굴이라면

안경 벗은 란? 아, 아니! 잠깐만. 그 자식 생각이 지금 왜 나는 거야? 이 자리에는 있지도 않은데 말야!

“”

미쳤어, 미쳤어.

스스로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아주며 머릿속에 뭉실뭉실 떠오른 란의 얼굴을 떨쳐내려는데, 그런 모습을 봐버린 로사가 이런 말을 건네 왔다.

“아샤, 너도 지금 얘기에 집중하는 게 좋을 텐데.”

라고 말이다. 아, 나도 그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될 테니 들어두라는 얘기인가? 처음에는 그리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어지는 로사의 말이 그 뜻이 아님을 증명해버렸으니

“후작부인이 될지 공작부인이 될지,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될 거라고?”

샐쭉 웃으며 저런 말을 하는 로사를, 나는 주먹이 들어갈 만큼 입을 벌리고서 쳐다보았다. 꼭 그렇게 다 말해야만 속이 시원했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야? 혹시, 내가 루이스에게 결혼하자니 어쩌니 했던 그 농담을 저 인간이 그대로 전해준 건가? 아니지? 설마 아니지? 결혼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는 허언을 해버린 건, 결코 아니겠지!

불안 가득한 눈빛으로 루이스를 쳐다보는데, 루이스가 부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뭐야, 저 인간! 설마 진짜야? 그렇고 그랬던 거야!

“?”

황당하다는 시선으로 루이스를 쳐다보자니, 루이스가 ‘역시 후작 부인은 좀 그렇겠지.’라고 중얼거리더니 살짝 자조하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마치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이 부끄럽고 미안한 사람처럼 말이다. 후작부인이 너무해? 야 이 자식아! 나는 태생부터가 천민이라 설령 남작부인이 되더라도 아주 너무한 전개인 거라고!

그런데 이 때, 설상가상으로 옆에서 소파 팔걸이에 팔을 괸 채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류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루이스를 쳐다본다. 야 자, 잠깐만.

류이의 거친 표정과, 아처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뭐라고?”

내 속마음이 자주 외치는 한 단어, ‘뭐라고?’가 류이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상당히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은 이의 표정을 하고서 묻는 류이의 낮은 음성에, 루이스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류이를 향해 말이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

류이가 ‘문제라면 아주 많다’하는 표정으로 루이스를 쳐다보는데, 그런 둘을 바라보던 로사가 갑자기 배를 잡고 넘어갔다.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말이다.

“하하하하! 웃기기도 하지.”

본인이 ‘시시한 남자’라고 평가하는 눈앞의 두 남자들이 나 하나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퍽 웃겼던 모양이다. 슬슬 나도 류이가 내게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해 확신이 들어가는 참인데, 거기다 루이스의 개입까지 추가되다니!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다. 내가 그저 어버버거리며 ‘무슨 문제라도?’하는 시선과 ‘정말 모르겠냐?’하는 눈빛을 주고받는 루이스와 류이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자니, 오른쪽 소파에서 두 연놈들이 작은 목소리로 떠드는 대화가 내 귀를 사로잡았다.

“아처, 너는 뭐에 걸래?”

“나는 황후.”

“나는 왕비.”

“왕비는 무슨 왕비야? 왕이 어디 있다고.”

“아디티의 황자들은 황제가 되지 못하면 왕의 작위를 받지 않나?”

“그게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와?”

“글쎄 그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보면 알겠지.”

음험한 미소를 흘리며 로사가 하는 말을 들어버린 나는, 이내 온몸에 닭살이 오소소 돋아오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아까의 아처마냥 부르르 몸을 떨고 있자니, 지금의 내 기분은 코딱지만큼도 몰라줄 로사가 이번에는 내게 이런 물음을 건네 왔다. 류이와 루이스는 방금 전 문제의 발언에 대해 언쟁을 나누느라―아샤가 왜 네 부인이 되느냐? 라는 류이의 물음이 들린 듯했다―로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샤, 발리시아 영애에게 뺨을 맞았다며?”

“어”

아처가 그새 말해준 건가? 아처 녀석의 얼굴을 쳐다보니, ‘내가 말했다, 왜?’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 자식, 그런 부끄러운 나의 흑역사를 그새 꼬바른 거냐!

그런데 그런 걸 왜 일러바친 거지? 일개 조수 나부랭이가 맞고 다니든 말든, 로사가 그런 걸 신경 쓸 위인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말이야.

“그런데요?”

“그래?”

갑자기 로사가 음험함을 초월한 사악한 미소를 큭큭거리며 흘렸다. 원래 저런 애였던가? 많이 수상한데하는 불안감이 내 뇌리를 스쳐지나가는 듯했으나, 그 불안감은 금세 접어버렸다. 나야 원래부터 로사에 대해 거의 몰랐던 인물이니 몰랐던 면을 봤다 해서 새삼스러워할 것도 없는 데다, 샤르도나에게 뺨을 맞은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된들 딱히 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루이스와 류이, 이 둘과 손을 잡기로 한 인물이니 설마 그들의 조수인 내게 해코지를 하려 들지는 않겠지. 나는 그리 생각하고서 답한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로사의 한마디는 이러했다.

“그것들, 많이 귀찮지?”

“예? 뭐, 조금?”

“내가 처리해줄게.”

생긋- 하는 미소를 온 얼굴에 걸어 올리며 로사는 말해왔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너도 내 쪽 사람이니 말이야.”

“!”

그녀의 마지막 문장을 들은 후에야, 나는 알아차렸다.

해코지를 당할 상대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두근.

두근.

두근 세근 이두박근 아, 이게 아니고.

“”

듣기 좋은 리듬감으로 콩닥거리며 뛰는 심장 소리를 들어보다가, 나는 슬며시 귀를 뗐다. 심장이 뛴다. 누구의 심장을 말하는 거냐고? 내 목이 스프링처럼 늘어나서 가슴팍에 귀를 댈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당연히 다른 이의 심장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내가 심장소리를 확인해볼 인물은 하나밖에 없었다.

“란.”

누워있는 이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혈색이 돌기는 하지만 피부색이 워낙 하얘서 밀랍인형 같기만 한 이 남자의 눈은 여전히 본드로 붙인 듯 감겨 있는 모습.

아도라가 말하길 심장이 뛴다는 것은 머지않아 깨어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틀 뒤에 열릴 재판 날까지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아냐고? 그냥 여자의 감이랄까.

프란치아의 병사들도 이제는 란의 시체를 찾는 것을 포기했기에 행동에 큰 제약이 걸릴 일도 없는 데다, 이 인간이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내 양심이 몹시도 고통을 호소하기에 되도록이면 일찍 깨어나 주기를 바랐는데. 2주는 족히 넘긴 후에야 일어나게 생겼다. 야속한 남자 같으니라고.

“좋냐? 혼자만 자고 있으니까 좋아?”

란의 매끈한 이마를 콩 쥐어박아보았다. 말이 쥐어박는다는 거지, 거의 주먹 끝이 닿다가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이 인간 뇌에는 아마 기별도 안 갔을 거야.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죽기까지 한 인간에게 어찌 해코지를 할 수 있겠는가. 꽤 높은 높이인 침대―프란치아의 귀족들은 평민들보다 높고 넓은 침대를 쓴다. 물론 이 침대는 내가 쓰던 것이긴 하지만―에 팔꿈치를 올리며 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구박하기보다 관찰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보자보자 일단은 위에서부터.

“흐음”

란의 이마는 하얗고 깨끗했다. 전생의 나는 이마에 좁쌀 만한 여드름이 잘 나는 예민한 체질의 피부였는데, 그러고 보니 이번 생에서는 여드름과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란의 피부는 거리가 멀다 못해 ‘잡티? 그게 뭐죠?’하는 느낌으로 백옥스러움을 뽐내고 있었으니 피부색부터가 싸가지가 없군. 너만 혼자 잘나기냐?

돌이켜 생각해보면, 안경잡이 란이었던 시절에도 피부 하나는 깐 계란마냥 끝내줬었다. 다만 마법이 걸린 안경으로 인해 얼굴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존재감이 없고 못생기게 느껴졌었을 뿐이지.

쳇, 하는 소리를 내며 아래로 내려가 보았다. 다음은 눈.

“”

눈은 진짜 뭐라 트집 잡을 데가 없이 예쁘다. 저 눈을 트집 잡으려면 내가 저 인간보다 적당히 찢어지고 예쁜 눈매에 기다랗고 풍성한 속눈썹, 마지막으로 존재감 쩌는 원색의 눈동자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뜻인데 눈의 크기는 어찌저찌 내가 이길 수 있다 쳐도, 그 외에는 모두 졌다.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있는 란의 모습, 아니 그때는 노아라고 불러야 하려나? 여튼 그의 외모는 정말 눈부셨으니까. 특히 붉은 눈동자가 말이다.

이나하가 살인귀처럼 번뜩이는 눈빛이었다면 란은 그 반대였다. 상처 입은 나를 보고 분노하는 그 붉은 눈동자와 눈빛 하나하나가 그리도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 없었다. 다른 건 몰라도 란의 생김새 하나는 인정해야 한다.

란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디티의 황태후가 ‘노아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라고 말한 것은 100% 진실에 근거한 얘기였다는 것이다. 이나하와 많이 닮았지만 란이 더 잘생기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그들의 성격 차이로 인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 무언가를 파괴하려 드는 인간보다는 지키려고 하는 인간이 더 멋있어 보이잖은가.

“”

살다 살다 내가 란의 칭찬을 하는 날이 오다니 말세군, 말세야.

다시 이불을 가슴께까지 덮어준 후 정자세로 앉았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를 외치며 란의 뺨을 한 대 때려볼까 하다가, 란이 진짜로 깨어나 버렸을 때에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닥칠 것을 고려해 애써 참아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따로 있지, 의식도 없는 사람의 뺨을 치는 건 좀 무례한 행동일 테니 말이다.

“그래도 빨리 깨어나, 이 인간아.”

만약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로맨스 소설 속 한 장면이었더라면 독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것이다. ‘남자 주연이 하루 종일 잠만 퍼질러 자는 내용은 이 소설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라고 이하동문이다.

란의 부드러운 민트빛 은발을 손가락으로 매만져보다가, 이 무슨 변태스러운 짓인가 싶어 후다닥 손을 뗐다. 내가 이러고 있다는 걸 다른 누군가가 알아차리는 날엔 영원한 흑역사가 탄생하는 순간이 될 테니까.

깨어나지 않는 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마음 속 한편이 찌릿거리는 감각이 들어왔다. 또 죄책감인가? 요 최근 이런 느낌이 하도 자주 들어서 그런가, 이제는 별로 ‘헉, 이건 뭐지!’하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조만간 심정지가 온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야.

“잘 자요.”

이불을 란의 턱 끝까지 올려 덮어주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이상한 기분이 들 때면 란의 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곤 했다.

이틀 뒤면 재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강이다.

란이 아디티의 3황자라는 소문은 마법 대학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고, 더불어 지금까지 루이스와 레플리카 공작을 괴롭혀온 인물 또한 그일 거라는 추측들이 학생과 조수들 사이에서 난무하는 중.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의 시선에서야 루이스의 곁을 맴돌던 인물이자 아디티의 3황자인 란이 가장 유력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진실을 아는 이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기가 다소 괴롭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다.

“너도 사실 란, 그 사람과 한 패지? 아니, 원래 이름은 뭐라고 했더라?”

“‘노아’라고 했던가?”

“아아- 그래, 맞아. 그 남자, 가뜩이나 께름칙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너와 한 패였다니.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살인마와 천민 조수라, 아주 어울리는 조합이잖아?”

지금 나의 눈앞에서 피식거리며 나를 비웃고 있는 두 명의 여자애들은 바로

쇼콜라와 바닐라였다. 기억나는가? 류이의 극성팬들이었던 두 조수 여자애들 말이다. 내가 곰 인형을 훔쳐갔을 거라고 의심했던 걔네였다.

란이 께름칙하게 생겼다니, 이 두 얼빠들은 필시 란의 원래 얼굴을 아직 못 본 것이 틀림없다. 하긴 나와 내 친구들, 그리고 전 주인님과 현 주인님 등등을 제외하자면 란의 원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할 거다. 그래서인지 란의 원래 얼굴이 몹시 잘생겼더라-하는 소문조차 안 난 참이고 말이다.

나중에 란이 깨어나고 나면 후회하게 될 텐데. 속으로는 그리 생각했지만 내가 눈앞의 싹퉁머리 없는 기집애들에게 그 사실을 친히 알려줄 의무는 없었다. 란의 얼굴을 팔아가면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이다.

“그럴 줄 알았다니, 멍청한 주제에 감은 좋나 보구나?”

학생들도 아닌 조수들에게 내가 쫄 필요는 없다. 귀족? 족까라 해! 한 번 죽었다 깨어나니 어지간히 높은 신분의 귀족이 아니고서야 별로 두렵지가 않다. 죽었다 깨어나기 전에도 귀족들에게 당당히 말대꾸했었지 않았냐고? 어, 음 그것도 그렇다만 둘 다 맞는 걸로 치자.

나의 발칙한 말대답에 쇼콜라와 바닐라가 똑같은 표정으로 어이없다는 듯 ‘하!’하는 소리들을 낸다.

“이게 진짜 미쳤나! 뜨거운 맛 좀 볼래!”

오늘은 주변에 류이도 루이스도 없으니, 고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쇼콜라가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냉큼 손을 치켜드는데, 순간적으로 샤르도나의 이미지가 오버랩되었다면 그건 아마 정상적인 뇌의 반응일 것이다.

또 싸다구냐? 누가 순순히 맞아줄 줄 알고. 샤르도나는 귀족이자 학생 신분이었으니 함부로 못 막는다 쳐도―사실 막을 수도 없었던 거지만―, 쇼콜라와 바닐라는 아니다. 쇼콜라가 휘두르는 팔을 나는 손목을 낚아챔으로써 막아냈다.

“어디서 천박하게 손을 휘둘러?”

“이, 이게? 이거 안 놔!”

쇼콜라가 바둥거리며 팔을 빼려 하는데, 그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바닐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

“이 못 배워먹은 천민이!”

초록 머리칼을 휘날리며 바닐라가 내게로 달려들려 하는데, 이 때 갑자기 웬 이글거리는 불꽃이 눈앞을 스쳐지나간 듯했다. 날씨는 쌀쌀한 겨울이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사방이 따뜻해지기에 나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뜬금포로,

“으아앗! 뜨거워!”

바닐라가 저런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어, 그런데 잠깐만. 뜨겁다고? 역시 방금 전의 그 불꽃,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순간 내가 헛것이라도 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불꽃이었나 보다.

그런데, 웬 불꽃? 누가 담배를 피운 뒤 불도 제대로 안 끄고 버리기라도 한 건가? 혹시 그게 류이라던가 하는 전개는 아니겠지? 그거 너무 류 제국 망신인

“아샤-”

데, 어라? 갑자기 누가 나를 부른다. 그것도 살짝 위에서.

내게 손목을 잡힌 쇼콜라와 손목을 잡고 있는 내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올렸다. 2층 테라스에서 이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고작 그 정도에 뜨거워할 거면서, 누가 누구더러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것은 바로 그녀였다.

“로사!”

내가 이름을 외쳐 부르자, 그녀가 처음 이미지 그대로인 느낌으로 거만하게 입꼬리를 치켜 올린다. 하지만 저 미소가 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건 이미 어제의 그녀를 봐버린 나이기에 잘 알고 있다.

저 오만한 미소는 그냥 로사의 트레이드 마크일 뿐이었던 것이다.

“로, 로사 님?”

쇼콜라와 바닐라―손을 살짝 덴 모양인지 반대쪽 손으로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었다―가 몹시 당혹스럽다는 눈빛으로 로사를 올려다본다. 마치 ‘형이 거기서 왜 나와?’하는 느낌이 가득한 표정이었으니, 그 눈동자를 바라보며 로사는 이런 말을 했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내 이름은 오직”

오직?

“아샤만이 부를 수 있어.”

“”

시, 심쿵.

은 구라고, 이게 웬 로맨틱한 개소리란 말인가? 그것도 같은 성별인 여자의 입에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음에도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는 저 말에, 나는 황당함을 이기지 못해 입을 딱 벌렸다. 로사가 오늘 점심 때 뭘 잘못 먹은 게 아닐까?

아무래도 식중독이 의심되는 그녀의 행동거지와 말투 하나하나에 바늘보다도 가늘게 뜬 눈으로 2층 테라스에서 이곳을 내려다보고 있는 로사를 흘겨보자니, 그녀가 갑자기 우습다는 듯 웃음을 터뜨린다. 손을 데인 바닐라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말이다. 저런 잔인한 여자 같으니라고.

“알겠으면 저 멀리 멘틀까지 꺼져버려.”

“흐아아아앙!”

결국 손을 부여잡은 바닐라와 쇼콜라가 진부한 악역들의 퇴장씬처럼 울며 정원을 가로질러 도망가 버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로사는 나직이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작은 중얼거림이었으나 테라스와 그 아래에 위치한 나의 거리가 가까웠기에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수 나부랭이 주제에 함부로 정원에 발을 디디다니.”

라고 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정원 안이었다. 슬그머니 대꾸하며 옆의 자갈길로 발을 빼고 물러서자니, 그런 나를 쳐다보며 로사가 싱긋 웃었다. 그리고는,

“너는 예외니까 괜찮아, 아샤.”

라고 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특별대우가 무척 부담스러운 거란 사실을 깨달았다. 하필 그 인물이 나를 적대시하는 인물이라 여겼던 로사라는 점이 나를 몇 배는 더 당혹케 한다는 것도 말이다.

“”

뭐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뻐끔하고 있자니, 그런 나를 내려다보던 로사가 갑자기 테라스에서 뛰어내렸다. 떨어지면서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아무런 무리도 하지 않고 가뿐하게 바닥에 깃털처럼 착지해버리는 그녀.

나와 마주보게 된 로사는 내게 믿기 힘든 제안을 건네 왔다.

“아샤, 나는 네게 원하는 게 있어.”

“혹시 그게 제 목숨인가요?”

내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간 물음이었다.

나한테 원하는 게 있다니! 나란 인간이 가진 게 목숨 말고 뭐가 더 있지?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살까 말까한 돈? 그거야 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껌 값도 안 되는 푼돈일 것이다.

그렇다면 루이스나 류이, 란을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엔 나한테 그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로사에게 줄 수도 없는 데다, 결정적으로 로사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했었지 않은가. 한 번 말했던 것을 주워 담을 만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

이 둘도 아니라면, 대체 내게 뭘 원한다는 것이지? 예상이 1도 가지 않는 바라,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로사를 쳐다보았다.

내 얼굴을 바라보며 어울리지 않게 활짝 웃는 로사. 대체 왜 웃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던 찰나에, 그녀는 이런 대답을 꺼내왔다.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

“예? 사람?”

역시는 역시인 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내 주변 인물 중 하나를 원한다는 뜻이었던 건가 보다. 로사는 뒷말도 채 잇지 않았건만 나 혼자 삽질을 우물이라도 팔 기세로 하고 있었을까, 그녀의 이어지는 말에 내 추측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로사는 이리 말했다.

“피에르. 그를 내 것으로 만들어줘.”

“?”

“그럼 나도 네가 다른 기집애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게 지켜줄게.”

?

에? 뭐라고!

아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손!

하아아이잇-!

“그런 제안을 왜 저한테 하시는 거죠?”

내 내면의 물음에 자신 있게 손을 들긴 했지만, 나는 피에르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알 뿐, 친하다든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라던가 또는 로사를 소개시켜준다거나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거의 얼굴과 이름만 알고 지내는 남인 사이라 봐도 무방한데 그런 내게 왜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걸까?

나와 안 친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피에르, 그는 아처의 조수가 아니던가. 피에르는 아처의 조수, 그리고 아처는 로사의 친구. 그렇다면 나보다는 아처에게 부탁하는 편이 훨씬 빠르게 먹힐 텐데, 왜 하필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나지? 게다가 ‘그를 내 것으로 만들어줘’라니 발루아의 인재가 탐이 나서 이러는 것일까, 아니면 이성적으로서 관심이 있다는 걸까? 내 뇌 녀석은 백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아도 답을 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물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피에르, 그 사람은 아처의 조수잖아요. 발루아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그 제안은 무슨 의도로 하시는 거예요?”

공작가의 영애를 마주 바라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너무 당돌하게 물어봐서인지, 로사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러나 그런 태도도 나쁘지 않다는 듯 입매를 양옆으로 스르르 끌어올리는 그녀가, 이내 내게 대답을 건네 오길

“그는 발루아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축에 속해. 그러니 나는 그를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거야.”

라고 했다. 이의 있소!

“그렇다면, 친구 분인 아처에게 비용을 지불해고 데려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물음에 로사는 고개를 저었다. 혹시 ‘그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그를 취하고 싶지는 않아’라는 로맨틱한 대사라던가, 그런 로사의 캐릭터성에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 졸이고 있던 그 순간,

“아처 녀석이 힘들게 데려온 조수라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지만, 피에르 본인이 강력히 거부하다보니 데려올 수가 없었어. 팔리는 건 한 번이라면 족하다나, 뭐라나.”

“?”

로사는 저리 말했다. 그러고 보니, 아처에게 팔려 왔다는 사실을 썩 기분 좋게 여기지는 않았던 그 같다. 하지만 아처 놈도 썩 좋은 주인은 아닌데, 차라리 로사에게 가는 편이 더 낫지 않나? 나는 그리 생각했다. ‘내 목적은 뭐냐고? 그건’이라 말하며 이어지는 로사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를 내 남자로 만들어 취하는 거야. 나의 가장 완벽한 후계자를 낳기 위해서는 피에르처럼 특출한 마나를 지닌 남자가 필요하거든.”

“!!?”

이제야 주인의 좋고 나쁨을 떠나, 로사에게만큼은 팔려가지 않으려 고군분투했을 피에르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이었다.

피에르 본인이 로사가 싫어서 거부하는 건지, 아니면 저런 의도로 접근하는 것이 불순하다 느껴서 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남자인 입장이었어도 확실히 로사는 공포스러웠을 듯

마치 호랑이 앞의 쥐새끼가 된 기분을 느끼며, 나는 그녀에게 어물쩍 대답하려 했다. 어차피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어 주지 못할 테니, 힘닿는 대로 열심히 밀어드리겠다-하는 형식적인 대답을 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로사가 한 발 더 빨랐다.

“너는 피에르를 내 품에 안겨줄 수 있는 인물이야.”

그녀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나는 두 눈을 치뜨며 나보다 키가 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제가 무슨 수로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란 코딱지만큼도 없는데 말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데요?’하는 감정을 한가득 띄운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빤히 쳐다봐오던 로사는 이리 답해왔다.

“정신 지배 류의 마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지.”

갑자기 이게 웬 뜬금없는 마법의 특징 얘기일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입 닥치고 잠자코 들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하던 말을 이어나가는데

“마나의 보유량이나 순도가 낮은 상대가 시전한 지배 마법은 자신에게 통하지 않아.”

“?”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로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다. 정신을 지배하는 마법이라면 바로 란이 대학 내의 인물들 전체에 걸었던 환상 마법 등을 뜻함이다. 상대방의 머릿속에 든 정보나 지식을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기술이고 말이다.

그런데 그 마법이 자신보다 순도가 높은 마나, 혹은 높은 마나량을 보유한 상대에겐 통하지 않는단다.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다가, 나는 이내 한 가지 답을 내렸다.

로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란보다 마나량이 낮은 인물은 이 대학 내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만약 란보다 마나 보유량이 많은 상대방이 대학 내에 존재했더라면 같은 마법사인 란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고, 마법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대학에서 신분을 속이고서 당당히 돌아다닐 순 없었을 테니 말이다.

그리 판단하여 고개만 그저 갸웃거리자, 그런 나를 쳐다보며 로사가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곧바로 이어지는 그녀의 말 마디마디는 내게 있어 가히 충격적인 얘기들이었다.

“대학에서 유일하게 란 아니, 노아의 마법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지. 그게 누구인지 알아?”

“?”

“바로 피에르야.”

그, 그럼 란이 신분을 속이고 이 대학에 들어와 있다는 걸, 피에르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저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듯, 로사가 검지를 들어 올리며 하나가 더 있다는 제스쳐를 취한다. 그리고는 ‘그리고’하는 접속사를 덧붙이는데,

“더 수준 높은 마나를 지닌 인물들은 더 낮은 등급의 마나를 보유한 인물이 시전한 변신술, 혹은 은신술 등을 파악할 수 있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

고개를 끄덕였다. 류이가 자신의 호위 기사들이 어느 위치에 서서 은신중인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듯이, 저 정도 기본 상식 정도야 나도 알고 있었다.

잠깐만. 그렇다는 건

“야벨이 대학을 습격했던 날, 대연회장 앞에서 피에르를 만났었지? 지나가다가 봤어.”

로사가 물어왔다. 그제야 그날 만났던 피에르의 미묘한 표정이라든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마디들이 떠올랐다. 그날 대연회장 입구 앞에서 피에르는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아샤 양, 무탈하길 빌어요.’라고.

“이제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저 말까지 마친 로사는 머지않아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될 피에르의 모습을 상상하기라도 하는 듯 몸을 잘게 떨며 기뻐했다. 팔짱을 끼며 므흣한 미소를 짓는 그녀를 눈앞에 두고서, 나는 잠시 토르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간직한 채 자리에 멍하니 서있어야만 했다.

피에르가 란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단다. 그 말인즉슨 아디티의 사람들보다도 발루아 출신인 그의 마나가 순도가 높고 보유량 또한 많다는 뜻이며, 쉽게 말해 그는 란의 정체를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더불어 진의 정체도

그러니까, 진의 모습으로 변신해 내 옆에 붙어있었던 이나하의 정체도 진즉 꿰뚫어봤다는 것을 의미함이다.

“피에르는 그럼 제가 습격을 당할 거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것도 내 호위 기사인 척 붙어있는 남자로부터?”

“아마도.”

로사는 어깨를 으쓱이며 간단하게 답해왔다.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지만 그래도 ‘네 옆에 붙어있는 남자, 변신술로 잠입한 것 같아.’라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이였다고 생각하는데!

피에르로부터 엄청난 배신감이 들어온다. 전생에서 내가 꼬박꼬박 본방사수했던 적X의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내가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내가 좋아하던 남자 연예인이 나의 뒤통수를 야구 빠따로 때리는 듯한 착각마저도 들어왔다.

그런 내게 로사는 마치 위로라도 하듯 이런 한마디를 건네 왔다.

“하지만 너무 미워하지는 마. 발루아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 나라의 국법인 걸, 어쩌겠어?”

로사의 설명에 뇌는 납득을 했다. 그래서 란이 그러나 내 빌어먹을 심장 녀석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로 옆에 떡하니 살인마법사가 붙어있는데 그걸 말도 안 해주고!’하는 생각을 하며 이를 득득 갈고 있었다.

아무리 그런 법이 있다 해도 그렇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법이 먼저일 수가 있나? 어! 사람 목숨이 법보다 위에 있어야 당연한 거잖아!

“그 말, 모두 사실이죠?”

표독해져버린 내 눈빛. 그 눈동자를 마주하던 로사가 흥미롭다는 듯 ‘흐음?’하는 소리를 낸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여주는데.

이제 와서 로사가 ‘너는 나를 도울 수 있다’고 했던 말뜻이 이해가 됐다. 그 말은 아마 피에르가 내게 잘못한 점을 이용해 그를 설득시켜달라는 뜻일 것이다. 내게 죄책감이란 감정이 남아 있다면 내 말을 손쉽게 쌩까버리진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그녀의 제안에 대해 머릿속으로 정리를 끝마친 후, 야무지게 이런 대답을 했다.

“그렇다면,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기필코 피에르를 로사의 남자로 만들어버리리라.

“좋아, 그럼 악수.”

“”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맞잡고서 악수를 하는 지금의 상황은 짐짓 비장했다.

대망의 재판 당일이 되었다. 수학여행 이틀 전날에는 이틀이란 시간이 그리도 길디긴 영겁처럼 느껴지더니만, 이곳에서의 이틀은 무슨 컵라면 끓일 때 쓰는 3분 모래시계의 모래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속도마냥 홀라당 지나가버렸다.

나만의 기숙사를 쓰게 된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처에 새근새근 잠들어있는 류이라던가 그런 류이의 얼굴을 조각 감상이라도 하듯 감탄하며 지켜보고 있는 몇몇의 호위 기사들이 없는 아침이라 개운하게 느껴지면서도 조금은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아침을 맞이하는 게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경우일 것이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이다. 지금 시각은 아직 새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6시 30분경이었는데, 잠이 많은 편인 내가 이토록 일찍 눈뜨게 된 것은 알람시계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다.

“아침부터 뭐가 이리”

시끄러워!!

인상을 살포시―라 쓰고 격하게라 읽는다―찡그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소풍 전날도 아니고, 딱히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니 나의 이른 기상에 대한 답은 하나뿐이었다. 바깥의 소음! 대체 밖에서 무슨 일들을 벌이고 있기에 이토록 시끄럽단 말인가?

말 발굽소리인 다각다각, 사람의 말소리가 이러쿵저러쿵, 마차가 들어오는 소리인지 육중한 무언가가 덜커덩덜커덩 으아악! 9시에 일어나려 했는데, 너무 일찍 깨버렸잖아!

층간 소음도 아니고, 야외 소음이 3층인 이곳까지 이리도 생생히 들려올 정도라니. 이 정도면 바깥에서 대규모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다 싶어 창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있을 재판에는 프란치아 영지 곳곳의 귀족들이 참석하기 위해 몰려들 거란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는 하다만 아직 재판이 열리려면 멀었는데, 벌써부터 몰려들 필요가 있나? 무슨 해외여행을 처음 와봐 호텔 체크인 시간도 맞출 줄 모르는 외국인들도 아니고 말이야.

“”

그런 잡생각들을 하며 창가에 딱 섰을까, 나는 저 아래 대학 야외 정원을 가득 메우다시피 한 믿기 힘든 인물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내 잠결에 흐물흐물하던 눈이 번쩍 뜨이는 것 또한 느꼈다.

따란! 방금 전 생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 저게 다 뭐야-!”

나는 순간 내 두 눈을 의심했다. 아디티 제국의 깃발을 든 병사들이 몇 백은 족히 깔려있는 풍경에 할 말까지도 잃어버렸다. 진짜로 해외여행을 처음 온―아마도―외국인들이 잔뜩!

충격적인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경악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중앙에 서있는 누군가의 얼굴은 내가 익히 아는 인물의 것이었다. 그 인물이란 바로

아

“아도라!”

요 최근 매일 같이 붙어 지내던 나의 베스트 프렌드 중 한 명이었던 것!

아도라가 아디티 사람인 줄은 그녀에게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놀랍지 않았다. 게다가 꽤 높은 신분의 인물일 거란 것도 이나하의 약혼녀라는 점에서 충분히 추측하고도 남을 일이었던지라 놀랍지 않았다.

이 순간 내가 놀라웠던 점은 그녀의 어깨에 춥지 않냐는 듯 몹시 다정한 표정으로 외투를 걸쳐주고 있는 한 인물

그것도 매우 잘생긴 저 라벤더 색 머리칼의 남자였다!

혹시 사랑과 전쟁? 이나하와 저 남자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치정극인 건가!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믿기 힘든 아리따운 외모의 라벤더 머리칼 남자를 넋 놓고 쳐다보자니, 가만

“?”

아도라와 남자의 머리색이 똑같은 게 아닌가. 하도 훤칠한 게 잘생겨서 그런가, 얼굴을 쳐다보느라 잠시 저 둘의 머리색이 똑같다는 점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벤더 색 머리카락이 아디티에는 흔한가? 그런 얘기는 딱히 들어본 적 없다. 그렇다는 건

“오, 오, 오빠인가-!”

내 입에서 ‘꺄악-!’하는 비명과도 같은 한마디가 튀어나갔다.

그와 동시에 내 몸은 욕실로 뛰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 시 빨리 나갈 채비를 끝마쳐 바깥으로 뛰어나가기 위함이었다. 왜 뛰어나가냐고? 누굴 만나러 이런 이른 시간부터 나가려는 것이냐고? 그야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아도라 지지배! 저렇게나 완벽한 오라버니를 그동안 감쪽같이 숨겨왔었다니!

“단단히 혼내줘야겠구만, 우리 아가씨!”

음흉한 미소를 킬킬거리며 흘리던 내가 중얼거린 한마디였다. 여기서 ‘아가씨’란 호칭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다.

6시 30분에 나갈 채비를 시작한 나는 자그마치 6시 40분이라는 시간에 기숙사를 뛰쳐나올 수 있었다. 사실 아도라의 오빠도 오빠지만, 몇 시간 뒤에 열리게 될 재판에 참석하게 될 인물로서 지금의 아도라가 저곳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컸다. 그리하여 초인적인 속도로 씻고 옷을 입는 과정을 클리어 해버린 것.

날듯이 계단을 두 칸씩 뛰어 내려가다가, 2층에 도착했을 때 마리의 방 앞을 들렀다. 마리는 아침에 머리 세팅에 꽤 공을 들이는 편이라, 어쩌면 많이 이른 시각이지만 지금쯤 이미 눈을 떴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노크를 해보았더니

벌컥!

“끼약!”

노크와 동시에 문이 열렸다! 그리고 방 안에서 등장한 인물은 다름 아닌

은 무슨, 마리의 방이니 마리가 나오지 누가 나오겠는가?

“아샤, 아샤! 밖에 봤어?”

이미 옷까지 모두 갖춰 입은 모습의 마리가 호들갑을 떨며 물어왔다. 그녀는 밖을 봤냐고만 물었지 무엇을 봤느냐고는 말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뒷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미친 듯이 고개를 위아래로 주억거리며 마리의 손목을 낚아챘다. 역시나 마리는 아침형 인간인지라 이미 밖에 나갈 채비를 끝마친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준비는 O.K!

“가자!”

“어, 어딜?”

나의 위풍당당한 목소리에 마리가 흠칫하며 ‘?’하는 표정을 짓는다. 마리, 너도 봤다면서 지금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니? 어딜 가기는. 그야 당연히

“아도라의 오라버니를 뵈러 가자는 거지!”

“아하!”

한 치의 거부할 여지도 없다는 듯, 방금 전의 나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마리가 허둥지둥 발을 앞으로 디디며 기숙사를 빠져나온다.

나는 마리의 손을 잡고 복도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바깥의 소란스러움으로 인해 깨어난 조수들이 하나둘씩 기숙사의 문을 열어 복도를 내다보거나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서 무언가 소리를 꽥꽥거리며 지르는 듯했는데, 일단 지금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학 조수들의 반응 따위가 아니었다.

라고는 했지만

“꺄-악! 아디티 출신들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기요, 거기 라벤더 색 오라버니!”

이건 뭐, 시끄러워서 뭐라 말을 못 붙이겠군.

거의 팬덤이란 이름을 불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팬클럽이 형성되었다. 지금 내 귓속 고막을 찢어버릴 기세로 울려 퍼지고 있는 영애, 혹은 조수들의 비명소리 그 대상은 아도라의 오빠가 주축이었고, 그 이외로는 아디티의 잘생긴 병사들을 향한 함성들이 약 3분의 1정도였다.

얼굴로 뽑는 건지, 아니면 병사들 중에 얼굴 마담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각을 맞춰 군대처럼 서있는 몇 백의 아디티 병사들 중 제일 앞에 서있는 열댓 명의 병사들 얼굴이 몹시도 준수했다.

마법 대학 학생들의 옷을 입혀놓으면 완벽한 마법 대학 학생처럼 보일 것 같고, 롱코트를 입혀놓으면 꽃X다 남자의 구X표를 떠올리게 만들 법한 몹시도 부티나고 자기주장 강하게 생긴 이목구비들 당신이 프린스 송? 을 외친다면 ‘예아-’라는 대답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외모력들이다. 일동 박수!

“잘생긴 아디티 오빠들-! 꺄악!”

하필 그런 인물들이 집합해있는 이곳이 여자 기숙사 앞이라 그런가, 아침부터 말발굽소리며 마차 바퀴소리 등에 깬 영애들이 바깥을 확인하기가 무섭게 소리를 지르느라 아주 난리가 났다. 마치 까마귀떼라도 등판한 것만 같은 이 소란함이라니.

우스운 점은, 조금의 환심이라도 사보려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학생이나 조수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천박하게 꽥꽥거리기는”

도도한 척 팔짱을 끼고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1층의 어느 예쁘장하게 생긴 조수도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조수이지만 이거 하나는 잘 알겠다. 지금 네 얼굴이 토마토보다도 붉다는 것 정도?

물론 소란의 원인 중 한 명인 아도라의 오라버니는, 지금 바로 나의 눈앞에 있었다.

“인사하세요, 오라버니. 제 친구들인 마리, 이쪽은 아샤입니다.”

마리와 쏜살같이 바깥으로 뛰어나오긴 했는데, 우리 둘이 나온 것을 확인한 아도라가 하필이면 자신이 있던 위치로 우리들을 끌어들였다. 아디티의 병사들 한가운데이자 맨 앞줄에 말이다. 마치 아디티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지금의 이 상황 10발짝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서 윤X후를 닮은 어느 미남 병사가 나를 향해 싱긋이 미소를 지어왔다. 흰 천과 바람과 있다면 그대와 어디든 갈 수 있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안녕하세요! 마리예요.”

“안녕하세요? 아, 아샤 입니다.”

어른미 뿜뿜하는 훈남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니 심장이 떨리다 못해 발작을 일으키다 멈춰버리는 게 아닐까 싶다. 란이나 루이스, 류이와 같은 세젤미남들을 보고도 설레지 않던 심장이 아도라의 오라버니를 바라보고 있자니 요동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래, 이것이 바로 운명. 이것이 바로 데스티니!

“우리 동생의 친구 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르다 페일리아 입니다.”

아도라의 오라버니는 목소리마저 훈훈했다. 이름까지도 그저 아름다웠다! 아르다라니. 나중에 식을 올리게 되면 내 남편의 이름에는 ‘아르다 페일리아’가 새겨지게 되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아샤 페일리아? 그렇게 되면 아도라는 나의 아가씨? 아도라 아가씨라고 부르면 되는 건가? 2세는 몇 명 정도가 좋을까. 나는 아무래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정도가 딱 좋

겠다고 생각했던 그 찰나였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아르다와 함께 관에 묻히기까지의 시나리오를 거의 다 짠 상태였는데, 갑자기 아르다의 옆에서 웬 꼬맹이가 불쑥 튀어나왔다. 많아봐야 6살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어리고 앳된 얼굴의 남자 꼬마였는데, 녀석이 아르다의 바지자락을 꼭 붙잡고서 옆으로 고개를 빼꼼 내민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가 있는 줄은 이제야 알았네. 이 주변에 서있는 인간들의 키가 하도 멀대마냥 커서 그런가, 3층에서 내려다볼 때에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아디티 인간들이 키 하나는 참 크단 말이지. 란도 그렇고

“이 꼬마는 누구인가요?”

머리카락이 라벤더색인 걸 보아하니, 아무래도 아도라네의 막내인가 보다. 나는 그리 짐작하고서 입가에 흐뭇함 가득한 미소를 끌어올렸다. 내가 너희 형과 잘 된다면 너는 내 도련님이 되는 거란

“제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아르다의 입에서 튀어나온 청천벽력 같은 대답에 나는 자리에서 팔짝 뛰며 소리쳤다. 아들이라고? 아들-! 말도 안 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벌써 아들이 있으신 거죠!”

“올해로 26살입니다.”

놀라서 캐묻는 나의 말에, 불쾌하단 안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르다 페일리아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해왔다. 예상했던 정도의 나이였다. 다만 저 나이에도 5~6살배기 꼬마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예상을 미처 못한 나의 실수다 따흑!

26살답지 않은 반응이었지만 그마저도 나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으니. 비록 유부남이자 애 아빠인 남자라지만 아르다의 눈부신 미소에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리에서 비틀거렸다. 마치 아웃사이더가 된 기분이다.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소리꾼마냥 몸을 주체하지 못하며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자니, 그런 나의 상태를 파악한 모양인지 마리가 슬그머니 나를 부축해왔다. 고맙다, 마리

크흑! 유부남이었다니. 유부남이라니이이-!

“그런데, 여기엔 다들 왜 모여 계신 건가요? 아직 재판이 열리려면 3시간이나 남았고, 또 재판이 열리는 장소는 프란치아 황궁일 텐데요.”

마리가 아르다를 향해 물었다. 그러고 보니 나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지만 실연의 충격 ―고백한 적도 없지만―에 빠진 상태인지라 물어볼 수가 없었다. 마리의 질문에 아도라와 아르다가 시선을 주고받는가 싶더니, 이내 아도라가 대신 설명을 해왔다.

“아디티의 태후폐하께서 오라버니께 노아 님의 상태를 먼저 파악한 후 재판에 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순간 ‘프란치아 측에서 란의 신병을 루이스가 확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루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걱정이 들어왔다. 이번 재판은 루이스네 아버지의 죄를 심판하는 자리이고, 레플리카 공작의 아들인 루이스가 아디티 측을 도왔다는 사실이 퍼진다면 루이스에게 하등 좋을 일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것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류이의 기숙사는 프란치아 측에 절대로 개방될 일이 없고, 또 그와 관련해서 프란치아와 황실이 큰소리를 칠 만한 입장도 딱히 아니니 말이다. 그들이 노아의 시체를 확보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보나마나 그는 볼모가 되었을 거다. 아버지를 돕지 않았으니 누군가들은 이 일을 패륜이라 생각할 수는 있어도, 내가 보기에 란의 신병을 확보해두려 한 루이스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았다.

새삼 그의 선구안에 감탄하며 나는 아르다에게 이리 물어보았다. 물론 작은 목소리로.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한데?”

말꼬리를 따라하는 아르다의 말투가 순간 매서웠다. 이 남자, 생긴 것과는 달리 꽤 날카롭고 이성적이며 분석적인 타입일지도

“데리고 온 병사들이 너무 많아서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노아가아, 아니, 노아 황자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아는데, 그곳이 류 제국 황자의 기숙사거든요. 아르다 님은 아디티의 대표로서 만남을 가진다는 핑계로 그곳에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

“병사들을 다른 곳으로 물려라?”

“네, 바로 그거죠.”

이어져야 할 내 말보다 앞서 튀어나온 아르다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렸다. 아르다는 또다시 양쪽 입매를 끌어올리며 수줍은 듯 살포시 미소를 짓는데

이제야 그의 미소에서 묘하게 삐뚜름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남자, 설마!

“병사들을 물려라. 그간 이동을 위한 여정이 길었으니 재판 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해.”

“예!”

“그럼, 가실까요?”

M인 척하는 S인 게 아닐까!

“아, 아 예.”

우물쭈물 대답하며 아르다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의 기숙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순수하고 착하게 생긴 남자가 알고 보니 S였다던가 하는 전개를 많이 봤던 것 같다. 물론 19금 로맨스 소설에서

혹시 얼굴에 한 겹 가면을 쓰고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타입인 건가? 겉으로는 따뜻한 남자, 하지만 속으로는 냉소적인 남자 훗! 같은 이미지? 뭐 그런 거?

“”

의미 없는 잡생각들을 떠올리다가, 나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이미 유부남인 이를 상대로 새디스트냐 마조히스트, 가면남이냐 아니냐를 고민하고 있어 봐야 무얼 하겠는가. 그만두자. 이런 뻘생각들이나 하기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다. 유부남을 짝사랑하는 민폐스럽고 쓸데없는 짓보다는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나도 좋아해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누구?

류 제국 황

“그만두자.”

이번에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유부남보다도 류 제국 황자와 이어지는 게 더 현실성 없고 허황된 전개일 것 같다.

자꾸만 내가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앞으로 걷고 있어서 그런가,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건네 왔다. 그런데 그 말이 살짝 이상했다. 이를 테면 ‘개소리’같달까

“왜 자꾸 고개를 저어, 호박?”

“뭐? 여기 주변에 고개를 젓는 호박이 있어? 마법에 걸린 호박인 건가!”

맨 앞에는 아도라,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곳의 지리를 모르지만 젠틀맨으로서 숙녀들보다 앞장서 길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라도 있는 것인지 모를 아르다가 뒤따르며 나를 안내해주는 중,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던 나와 마리였다.

주변에는 호박은커녕 호박꽃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 당연한 얘기인가? 마법 대학의 정원에 호박꽃을 키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으니 말이야.

류이의 기숙사 건물로 진입할 때, 그 ‘누군가’는 다시금 내게 말을 건네 왔다.

그렇다. 아르다의 아들이었다.

“너 말이야, 못생긴 호박.”

“?”

이 쥐콩 만한 게?

“내가 호박이라고? 세상에, 나처럼 예쁜 호박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러니? 얘도 참.”

고작 대여섯 살배기 꼬맹이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니, 내 뇌가 수치스러워하다 못해 수치사란 명목으로 숨이 끊어지는 감각마저도 느껴지는 듯한 기분.

하지만 질 수 없다.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쁘다는 말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았던 얼굴이라고! 결코 꿀리지 않는다고!

“미친 호박.”

“뭐라고!”

얼굴은 꿀리지 않았지만 말싸움에서 꿀려버렸다. 내 어이는 발할라로 승천하듯 날아가 버리고야 말았다.

“하?”

뭐어? 못생긴 호바아악-!

태어나서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런 못된 말을 하다니!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라는 대사가 절로 튀어나올 뻔했다. 하지만 그런 뻔한 질문을 할 필요는 없었다. 이 꼬맹이의 아버지는 지금 나의 앞에서 훌륭하고 듬직한 뒤통수를 뽐내며 앞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으니까.

뒷태 미남인 아르다는 동생인 아도라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특히 3황자인 노아와 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 아들인 이 녀석이 한 말을 못 들은 것 같고, 아도라도 그건 마찬가지. 나의 바로 옆에 있는 마리는 들은 것 같음에도

“하핫.”

비슷한 인간들끼리 싸우는 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마냥 허허 웃기만 했다. 뭐냐, 그 반응! 마치 유치한 애들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어른의 표정인데?

하지만 딱히 틀린 표현도 아니니 나는 눈을 부릅떴다. 그래, 이렇게 된 거 나도 5살 때의 아샤로 돌아가는 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치원생을 상대하려면 나도 유치원생이 되는 거야! 호박이라는 표현을 순순히 수긍해주기엔 꾸며놓으면 나름 예쁘다는 말도 듣는 내 얼굴에게 너무 미안하잖아?

“너, 몇 살이야? 이름은?”

“흥.”

꽤 앙칼진 목소리로 따지듯 묻는 내 말에, 요 머리에 피도 안 말랐을 꼬맹이는 콧방귀만 뀌었다. 물론 머리의 피가 말라버리면 사람은 당연히 죽겠지만 지금은 이런 식상한 표현에 대해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니 패스하자.

나는 라벤더 색의 머리카락을 한 남자애를 내려다보았다. 얼굴은 외탁을 아주 제대로 한 모양인지 화려하고 예쁘기 그지없는 이목구비들이었는데, 아르다의 아내 되는 여자도 분명 한 외모 할 거란 확신이 들게 만드는 또렷한 눈매며 콧날, 입매 등은 예술작품 그 자체였다.

꼬맹이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나는 어느새 입이 헤벌어져있음을 알아차렸다. 비단 그것은 나의 뇌 녀석뿐만이 아니었으니

“꼴에 보는 눈은 있나 보네.”

“!”

요, 요 발칙한 꼬맹이가? 이제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건가!

아무리 얼굴 구경 좀 했기로서니 저런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다. ‘꼴에’라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요 꼬맹이 자식! 누나한테 엉덩이 좀 맞아볼래!”

“와악!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른 건 몰라도 힘 하나는 나를 따라올 또래 여자애들이 없을 거다. 작정하고 근육을 키운 여성이 아닌 다음에야 말이다. 마법 상점에서 일하며 온갖 노동으로 갈고 닦은 나의 완력 맛을 느껴보아라!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낮추고서 꼬맹이의 목덜미를 안듯이 냅다 붙잡아버린 나. 전문 용어로 설명하자면 헤드락을 시전한 것이다. 내 팔 안에 목덜미를 붙잡혀버린 꼬맹이가 오리마냥 꽥꽥거리며 뭐라 소리친다.

“이거 안 놔!”

라고, 훗 놔달라고 놔줄 것 같았으면 내가 왜 붙잡았겠냐!

“방금 그 말, 취소하기 전까진 안 놔줄 거야!”

누가 유치원생 나이이고 누가 어른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싸움이 펼쳐졌다. 나는 아르다의 아들 머리통에 꿀밤을 놓기 시작했고, 아르다의 아들 녀석은 발버둥을 치며 조막만한 주먹으로 내 팔을 때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

나는 어느새 우리들이 피운 소란으로 인해 앞서 가던 두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으아아아앙-!”

“뭘 잘했다고 우냐? 죽을 헉!”

요 건방진 꼬맹이를 울려버린 뒤였다.

같은 반 여자애를 괴롭히다가 울려버린 남자애가 현장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적발되었을 때의 기분이 이런 걸까? 무단횡단을 했는데 건너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경찰관들과 눈이 마주쳐버린 것만 같은 기분, 그런 상황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져버림을 느꼈다. 뭐, 뭐라고 둘러대지? 아니, 이건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데!

“리타!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르다의 역정은 내가 아닌 요 꼬맹이를 향한 듯했다. 리타라니, 이름이 리타인 걸까? 프란치아에도 존재하는 저 이름은 보통은 여자아이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얘는 소년인데? 아무리 봐도 남자앤데? 그것도 몹시 잘생긴?

처음 듣는 꼬맹이의 이름에 의외롭다는 생각을 하기도 잠시, 나는 이내 꼬맹이가 나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펑펑 울기 시작하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감정의 바다에 퐁당 입수해야만 했다. 방금 전까지 호박이니 뭐니 하면서 실컷 까놓고, 지금은 왜 나한테 달라붙는 건데?

“흐아아아앙!”

세상 서럽게 우는 꼬맹이를 내려다보자니, 아르다가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하’하는 한숨을 내쉰다. 이제야 알아차린 건데, 아르다는 꽤 피곤에 쩔어 있는 안색이었다. 아무래도 요 최근 재판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느라 퍽 바빴을 것이다. 아디티 사람이 아닌 나조차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상황을 귀찮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영 살갑지만은 않았다.

오냐오냐 키운 바람에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가 했는데 가만 보니 이유는 정반대였다. 잔뜩 당황한 내가 잡았던 리타의 모가지를 놓아주자, 내게서 떨어질 수 없다는 듯 더욱 가까이 들러붙어오는 요놈의 꼬맹이.

“울음 뚝 그치지 못해? 아빠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는 행동 하지 말랬지?”

아르다가 내게로 가까이 걸어왔다. 류이의 기숙사를 향해 이동하던 우리 일행들의 걸음은 잠시 멈추었다. 이내 자신의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한쪽 무릎을 굽히며 몸을 낮추는 그, 아르다.

아도라도 조금 난처하단 눈빛으로 아르다와 리타를 번갈아 보는데 나는 이어지는 아르다의 말에 리타의 문제점을 알아차렸다.

“하, 하지만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도 않잖아!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 하지 마!”

“뭐?”

얘 좀 봐라 아무리 서운했다지만 아버지한테 막말 쩌네. 아르다가 한쪽 눈썹을 꿈틀거리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리타를 쳐다본다. 나는 아르다가 리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방금 전의 말로 눈치 챌 수 있었다.

아도라네 가문의 신분은 상당히 높은 모양이고, 그런 가문의 아들로서 태어난 아르다는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인 리타에게 그간 다소 소홀했던 모양인데 그게 제 3자인 나와는 대체 무슨 상관이지?

전혀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리타에게 치맛자락을 잡힌 인물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르다가 강제적으로 리타의 어깨를 붙잡으며 내게서 떼어내려 하는데, 나는 손을 뻗어 그런 아르다를 저지했다. 감히 귀족인 그의 어깨에 손을 대며 뒤로 살짝 밀어낸 것이다.

리타가 내 치마를 꼬옥 붙잡으며 뒤로 숨어버린다. 내가 얘 엄마도 아니긴 하다지만, 그래도 애가 이렇게나 관심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좀 소금 맛 작렬이잖아? 짠내가 아주 팍팍.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화로 해결해보자. 애가 괜히 이러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저, 바쁘실 텐데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지요. 외동아들로 그저 곱게만 키워서 그런가, 영 버릇이 없어서”

말끝까지 흐리며 면목 없다는 듯 고개까지 슬며시 숙이는 아르다. 그는 저리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리타를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조금 화난 것 같았다. 리타가 자신의 아버지의 눈빛을 마주하더니 ‘흑’하는 소리를 내며 내 치맛자락에 얼굴을 파묻어버렸으니까.

“이름이 리타인가요?”

“아뇨, 아리타입니다.”

“아”

아도라 너희 집안, ‘아’씨 돌림이었냐! 아니, 일단 무슨 자 돌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 이런 주제는 뒤로 미뤄두자. 나는 내 뒤로 숨은 리타를 앞으로 데려오며 품에 안고 들어올렸다. 으억! 무거워. 하지만 못 들 정도로 엄청 무겁지만도 않았다.

이 아이, 보아하니 관심종 아, 아니. 살짝 관심병이 있는 아이인 것 같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이 걸리고, 나도 전생에서의 자아가 없었더라면 이번 생에서 기필코 걸리게 되었을 그 병.

나는 그 관심병의 제공자일 아르다를 향해 넌지시 물어보았다.

“평소에 아드님과 대화를 자주 안 하시나 봐요?”

“안 한다기보다는, 제 업무가 바쁘다 보니 놀아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르다가 뻘쭘한 듯 살포시 미소 짓는다. 아르다는 마땅히 지을 표정이 없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미소를 타입인 듯하다. 왜 아까부터 그의 미소가 한 겹의 가면 같은 느낌이 드는가 했더니, 그런 이유에서였군.

“리타의 어머니는요?”

아르다는 그렇다 쳐도, 얘네 엄마는 대체 뭘 하는 사람이기에 애가 이렇게까지 삐뚤어지고 속상해하도록 방치해뒀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 건넨 그 물음에, 아르다는

“리타를 낳을 때 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번엔 가면이 아닌 진심으로 슬픔 가득한 눈빛을 지으며 작아진 목소리로 저리 답해왔다. 순간적으로 나는 큰 실수를 범했다는 생각에 ‘헉!’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켰다. 나는 그,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다면 제가 리타의 엄”

마가 되어주겠다는 개소리가 나올 뻔했다. 뇌 자식이 지시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필터링조차 거치지 않고 내뱉어대는 주둥이를 재빨리 다물었다. 합죽이가 됩시다, 합.

내 품에 안긴 리타가 눈물자국 가득한 ‘?’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쳐다봐오는데 요 꼬맹이의 보랏빛 눈동자가 너무나도 영롱했다. 아, 이런 예쁜 아이를 낳은 애 엄마가 명을 달리했다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 3자인 나조차 가슴 한 편이 아려오는 듯하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거는 이거. 일단 이런 시적인 표현은 집어 치우고, 지금의 상황이나 정리해보자. 나의 본래 목적은 리타네 어머니의 작고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그럼, 리타는 혼자서 자라나요? 부모의 관심 없이?”

아르다가 리타를 건네 달라는 듯 손을 뻗어왔다. 리타도 딱히 거부하지 않기에 나는 그에게 아이를 넘겨주었다. 순순히 아빠의 품으로 가는 걸 보아하니 사이가 나쁜 부자지간이라든가 아르다가 나쁜 아버지의 이미지로 각인된 건 아닌 듯하다. 단순 애정결핍인 걸까?

나의 물음에, 이번에 답해온 인물은 아르다가 아닌 아도라였다.

“오라버니 대신 유모가 아이를 봐주기는 합니다. 저도 리타가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곁에 있었지만, 프란치아에 오게 된 후로부터 얼굴 본 적이 드물어서”

“지금 만난 것도 오랜만에 만난 거란 얘기야?”

“네. 삼십 분쯤 전에 이곳에 도착해서 만났는데, 리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둘째 오라버니께선 이나하 님을 보필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아디티 내에 계시지 않고 야벨을 따라 나라 이곳저곳을 이동한다고 들었어요.”

“아도라 너, 오빠가 둘이었어?”

“네, 제 위로 계시는 두 분이 끝입니다.”

“그럼, 리타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두 분 다 아르다 오라버니께 공작위를 계승하신 후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계시기에 손주인 리타를 볼 일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리타는 유모 손에서만 컸다는 얘기냐!

아도라가 공작가의 영애라는 점은 별로 놀랍지도 않았다. 내 머릿속은 이미 아도라가 못해도 후작, 더하면 공작가 이상의 가문일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뒷말이 압권이었다. ‘허’하는 한숨일 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말이다.

유모 되는 인물이 마음씨가 엄청 넓고 포근한 인물이라 리타를 진짜 친아들처럼 대하며 키운다 해도 모자랄 텐데, 그마저도 아니라면 리타는 완전히 부모나 친척들의 사랑과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며 자라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아도라에게 둘째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다. 하지만 그 둘째 오빠는 이나하를 보필하느라 아디티 내에 없고, 나머지 가족이나 친척들도 리타에게 별로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모양. 그래서 혼자 자라온 리타가 지금처럼 살짝 비뚤어진 인성으로 자라게 된 모양인데

크흑! 그런 거라면, 너무 불쌍하잖아? 형제도 없고, 사랑이나 관심도 별로 못 받고 자라는 어린아이라니!

아도라와 아르다가 다시금 내게 ‘리타가 무례를 범했다, 죄송하다’는 식의 사과들을 건네 왔다. 일개 천민인 내게 어마어마한 귀족 신분의 인물들 둘이서 깍듯한 존댓말까지 해가며 사과해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몹시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 부담스러움보다도 내 머릿속을 더욱 가득 채워온 어느 감정은, 바로

“리타!”

“?”

리타에 대한 안쓰러움이었다.

아르다의 품에 안긴 리타가 나를 돌아봐왔다. 우리들은 자연스레 류이의 기숙사를 향해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인지는 몰라도 아르다의 어깨너머로 얼굴을 빼꼼 내민 리타를 마리가 퍽 부드러운 눈빛으로 응시한다.

그런 마리를 쳐다봤다가, 나는 다시금 리타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이렇게 물어보았다.

“네 눈엔 정말로 내가 호박이야?”

“”

리타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빌어먹을 꼬맹이를 봤나!

하지만 저렇게 말하는 게 리타 나름의 관심을 갈구하는 법인지도 모른다. 그런 거라면 내가 백 번, 천 번도 더 참아주지. 내 인내심은 태평양보다도 넓고, 초고열 용광로보다도 따뜻하니까 훗.

“그럼, 넌 호박 좋아해?”

“”

이번에는 리타가 잠시 망설인다. 그러더니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앞서가는 아르다의 품에 안긴 리타가 보이는 반응을 보며 터져 나오려 하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저 꼬맹이, 은근히 귀엽네?

“그거 잘됐네. 리타, 몇 살?”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친해지지 못할 것 같았던 꼬맹이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만에 친해져버렸다. 나의 물음에, 리타는 수줍은 듯 아르다의 어깨에 고개를 살짝 파묻으며 자신의 오른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네 개의 손가락을 펴며

“네 살.”

이라고 답해오는데 뭐야, 고작 네 살밖에 안 된 꼬맹이었어? 적어도 다섯 살은 될 줄 알았는데. 아디티 출신들이 키가 크고 발육이 빠르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보니 새삼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로군.

나는 리타를 향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리고는 이내 ‘빵끗!’하는 미소를 얼굴 한가득 걸어 올렸다.

이후 내가 리타에게 건넨 물음에, 아르다와 아도라는 ‘지금 뒤에서 웬 개소리가?’하는 표정을 지으며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럼, 14년 뒤에 누나랑 결혼할까?”

“”

“뭐, 뭐라고요? 아샤 님.”

아르다와 아도라가 굉장히 정색하며 쳐다봐오기에, 나는 크게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농담이라고, 농담! 나도 키잡물 같은 건 질색이라고? 어? 나는 연상이 좋다고!

“너무 갔다, 아샤”

“왜 다들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아들여? 허, 참!”

마리마저도 농담을 지적해오자, 내뱉은 말을 허둥지둥 수습해야만 했다.

어이가 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린 내가 화끈해지는 얼굴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데, 그런 나를 빤히 쳐다보던 리타가 갑자기 활짝 웃었다.

“그래, 좋아.”

라고 답하면서 말이다. 어맛, 저 미소 좀 봐. 심쿵!

진짜로 키잡물이 될 뻔한 순간이었다. 어린애 치고는 뇌살적이었던 방금 전의 대답과 미소라니. 덕분에 피어오르기 시작한 입가의 웃음을 감추기 위해 나는 손을 들어 올려 살포시 입을 가려주었다.

아르다와 아도라가 ‘안 돼, 리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랑은 고달프다고.’라던가, ‘아샤 양에게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같은 말들을 리타에게 해주고 있을 때 뭐? 잠깐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대체 누군데! 나도 모르는 걸 아도라가 어떻게 알 아, 이게 아니고.

일단은 나도 18살 먹은 어른의 입장으로서 순진한 네 살의 리타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어야만 할 것만 같아, 말문을 열어 나만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 꼬맹이에게 이러한 말을 건넸다.

“나는 무리일 것 같고, 리타, 몇 년만 기다려. 나를 쏙 빼닮은 딸이라도 낳아 올 테니까. 내 딸한테 좋은 남자가 되어줄 자신 있어?”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오”

아주 푸릇푸릇하고 싱싱한 새싹이로군! 기립박수를 칠 만한 완벽한 대답이었다.

리타의 대답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로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딸을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지금 이 순간.

반 농담 삼아 한 얘기였으나, 몇 년 뒤의 내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라는 말에 적합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줄은 지금의 나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9시 40분이 되었다. 류이의 기숙사에서 시간을 보내던 우리들은 재판까지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은 지금에는 기숙사를 나와 마법 대학 옆에 위치한 프란치아 황궁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두 눈으로 란의 모습을 확인한 아르다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머지않아 깨어나실 것 같군요’라는 말을 했었다. 며칠 전의 아도라도 분명 저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머지않아가 언제이기에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않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했다. 하지만 아도라나 아르다에게 따져 묻는다 한들 그들이 그에 대한 답을 알 리도 없으니 이런 궁금증은 그냥 내 머릿속에 조용히 묻어두는 것으로.

지금의 우리 무리들은 프란치아 황궁으로 향하고 있었다. 리타도 함께 가냐고? 아니, 그 꼬맹이는 아르다가 함께 데려온 유모에게 맡겨뒀다고 한다. 아무래도 어른들만의 사정이 가득한 재판장에 네 살배기 아이를 데려가는 건 정서상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으니 말이다.

그렇게 아이를 제외한 어른들끼리만 이제 막 대학을 빠져나와 황궁으로 향하는데,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황금 장식의 성 꼭대기 부분을 올려다보다가 나는 현기증마저 느꼈다.

웩, 이런 부담스러운 장소에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으음.”

하긴 뭐, 마법 대학도 내게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장소이니, 이제 와서 프란치아 황궁에 출입하게 된 일로 ‘뭐어? 황궁이라니! 나는 천민이라고? 이런 곳에 함부로 발을 들이면 안 된다고!’하며 아연실색할 이유도 없는 것 같다.

프란치아 내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 가문의 후계자들 100명 정도를 선별해 입학시키는 마법 대학이나, 프란치아의 황족들이 살고 있는 황궁이나 둘 다 내게 있어 어마무시한 장소들이란 점은 별 차이가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마법 대학에서 훌륭하게 적응했던 나이기에 황궁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하는 바이다.

“엄청 크다 아샤, 나 황궁에는 처음 와봐.”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마리의 말에 간단하게 대꾸해주며, 우리들은 앞서가는 인물들의 뒤를 졸졸 따랐다.

기사들의 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치렁치렁하다 못해 무겁게까지 느껴질 만큼 위용 쩌는 갑옷을 걸치고서 절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르다에게 길 안내를 해준다. 그런데 그들이 입은 갑옷들의 마찰음이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소리보다도 큰 것 같다. 하지만 못 들어줄 정도까진 아니니까,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그 갑옷 소리 좀 어떻게 해줄래요?’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아르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왼쪽에는 아디티의 정예 병사들이, 오른쪽에는 프란치아 병사들이 나란히 걷고 있는 중. 간간이 나나 마리의 머리통 너머로 스파크가 튀는 눈빛들이 오가는 것 같긴 한데 그, 그냥 무시하자. 번갯불에 지져지는 새우가 되고 싶진 않으니 말이다.

“이쪽입니다.”

프란치아의 기사대장이 아르다에게 말하며 어느 방향으로 손을 뻗었다. 우리들은 어느새 양옆으로 밀어 여는 커다란 문 앞에 서있었다. 앞에 키가 큰 머리통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가, 그저 발길 향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재판장 앞에 와있는 우리들. 지금은 거의 10시였다.

그 커다란 문은 사실 이미 열려있었다. 덕분에 재판장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나와 마리들이 행렬 중에서도 상당히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앞에서 가는 기사들이 너무 많아 마치 숲 같았다―재판장 안의 풍경이 어떤지는 미리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까치발을 하며 내다볼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곧 아디티와 프란치아의 기사들이 양 옆으로 물러나며 앞이 환해졌다. 인간의 숲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키 작은 나의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들이 사라지자 재판장 내부는 너무나도 환하게 두 눈에 들어왔다. 지금 막 도착해 들어가려하는 귀족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인물들은 이미 재판장 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입구 쪽에서 등지도록 앉은 포즈였기에 바깥의 소란스러움을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그들. 그러다 어떤 부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과연 진짜배기 귀족은 눈빛부터가 다르구나 싶었다.

아디티와 프란치아에서 도합 50명 정도의 고위 귀족들만을 뽑은 듯, 다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으로 치장해 얼굴에서는 부티가 줄줄 흐르는 것 같다. 그동안 내가 마법 대학에서 봐왔던 꼬맹이 귀족들은 그저 애송이에 불과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

저들 중에는 아마 레오니드의 부모님이나 로사의 부모님도 계시겠지? 루이스의 아버지는 뭐 당연히 계실 테고.

그런 생각이 드는 바람에 나는 귀족들로부터 시선을 거뒀다. 만일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려대다가 루이스의 아버지인 도미닉 레플리카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찌하나?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인물이자 악역과도 다름없는 인물이라 해도, 나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인물 중 한 사람이지 않은가. 그러니 양심상 함부로 쳐다볼 수 없음이다.

“저 남자가 아디티에서 온”

“페일리아 공작가랬던가? 소문대로 확실히 우수하게 생긴”

“험험.”

아르다 무리가 입장하고 나와 마리까지 들어서자, 그제야 아디티 행렬에게 길이 막혀 재판장으로 들어오지 못한 귀족들 네 명까지 재판장으로 들어서더니 이내 문은 닫혀버린다. 아디티의 귀족들이 아르다를 쳐다보며 헛기침을 하거나 뭐라 수근거리고 있을 때, 나는 아르다의 옆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바로 ‘그 둘’을 찾는 것이었는데 아, 찾았다!

한 명은 류이였다.

“!”

나를 발견한 류이가―맨 앞줄에 앉아있어서 좀 멀었다―팔을 들어 올리며 반갑다는 듯 손을 작게 좌우로 흔들었다. 아디티 무리에게 인사를 하는 티를 냈다간 보는 눈들에게 있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류이와 아르다가 재판장에 함께 오지 않고 따로 온 이유는 의심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아르다는 아디티의 공작이고, 류이는 류 제국 3황자인데 그 둘이 나란히 들어오면 어떤 의심을 사게 되겠는가? ‘저 둘이 손을 잡았구나!’라던가, ‘류 제국 황자는 아디티의 편이구나!’하는 거겠지, 뭐.

그런 뻔한 전개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지나가던 뱁새도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류 제국을 대표하는 입장인 류이로서는 국제 교류를 생각해서라도 어느 한쪽과 친한 티를 내서는 좋을 게 없다.

얼마 전에 보았던 이나하는 사야와 아도라의 오빠로 추정되는 라벤더 색 머리의 남자와 함께 배심원석 맨 앞에 앉아있었다. 그렇다면 류이와 함께 앉아있는 거냐고? 그건 아니다.

배심원들이 앉는 자리는 기다란 의자가 일렬로 마련되어있었는데, 왼쪽과 오른쪽 줄이 나뉘어있는 구조였다. 즉 류이가 오른쪽 자리의 맨 앞이라면 이나하는 왼쪽 줄의 맨 앞이었던 것. 가만 보아하니 왼쪽 열은 아디티 귀족, 오른쪽 열은 프란치아 귀족들이 모인 것 같다. 오른쪽 자리에 앉은 귀족들 중 로사를 닮은 붉은 머리의 귀부인이 보이는 걸 보아하니 말이다.

루이스는 레플리카 공작과 함께 피고인석에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의 입은 쩍- 소리를 내듯 아래로 뚝 떨어졌다. 나의 전 주인님이 증인석도 아닌 저곳에 왜 앉아있는 거지? 설마, 아버지와 함께 피고인 취급을 받는 건가? 연좌제 같은 거!

좋지 않은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바람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루이스는 피고인의 입장으로서 도미닉 레플리카의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루, 루이스가 레플리카 공작의 변호인이었어!”

더 정확히는 ‘변호인’이라는 명패가 놓인 자리 앞에 앉아있었다!

거리가 멀었던지라 뒤늦게 명패에 프란치아어로 새겨진 ‘변호인’이라는 글자를 읽은 내가 경악하며 아도라에게 물었다. 아도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왔다. 마리와 내가 시선을 마주치며 경악한 낯빛을 주고받았다. 루이스가 무슨 속셈으로 재판을 준비해왔는지를 잘 아는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던가. 그런데 재판장에서 도미닉 경의 변호를 맡는다니 설마 루이스가 마음이 바뀌어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려는 의도는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면, 혹시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재판의 정세를 아디티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작전?

아, 모르겠다. 그간 충분히 그를 지켜봐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나는 루이스의 속내에 대해 아는 것이 티끌만치도 없는 것만 같아, 일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루이스가 나나 란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루이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점은 그가 ‘배신’이라는 짓을 할 만큼 나쁘고 못된 인물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

“”

마리가 나와 똑같은 생각이라도 한 것인지, 갑자기 표정이 평온해진다.

그래, 설마 루이스가 ‘함정카드, 발동!’을 외치며 나와 아도라네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짓은 하지 않겠지. 그가 그런 악역일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이들의 뒤를 따랐다.

그 이들 중 한 명인 아도라가 이나하 옆에 앉은 둘째 오라버니와 가벼운 눈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중, 갑자기 아르다와 아도라, 그 둘이 왼쪽의 배심원석, 그것도 이나하의 바로 뒷자리 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나는 ‘?’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우뚝 멈춰서야만 했다.

나는 이 둘의 옆에 은근슬쩍 끼어 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가? 마리와 함께 낯선 곳에서 미아가 된 인물들처럼 드넓은 재판장의 배심원석 중앙에서 왼쪽의 배심원석을 쳐다봤다가, 오른쪽의 배심원석을 쳐다보았다. 우리들은 분명 프란치아 사람들인데도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들은 아디티를 돕는 내용에 가깝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느 쪽이지? 그것이 문제로다.

눈썹을 모으며 ‘음’하는 소리를 내고 있자니, 재판장 정면 끝에 마련된 판사석의 판사가 나를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쳐 말해왔다. 여기서 쩌렁쩌렁하다는 표현의 뜻은 목소리가 우렁차기만 하다는 것이 아니라 판사 나름의 포스가 느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샤 양은 앞으로 나와 증인석에 앉으세요.”

판사님은 중후한 나이의 프란치아인 아저씨였다. 그나저나, 뭐?

“자, 잠깐만”

시작부터 저 증인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야! 황궁 내에 마련된 성당마냥 넓고 으리으리한 재판장, 거기다 그 중앙에 떡하니 마련된 저 단 하나의 의자 딱 봐도 저게 증인석이잖아! 저 의자 말고는 빈자리가 없잖아!

“마리, 이리 와서 앉을래?”

“아, 감사합니다! 유이 황자님.”

내 내면의 자아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까무러치기 직전의 상황에 놓인 것은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 앉아있던 류이가 마리를 향해 묻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디로 가서 앉아야 할지를 찾지 못하는 마리를 그가 도와준 모양인데 일단 나한테 있어 중요한 건 마리가 어디에 앉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저 증인석에 앉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다!

“으아아아”

벌써부터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 그 잘난 귀족들도 입구와 가까운 재판장 뒤쪽이나 양 사이드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모든 이들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의 자리가 바로 나를 위한 증인석이란다. 위치선정이 너무하잖아, 이거!

하지만 내게 거부할 권리 따위는 없었으니 순순히 가서 앉았다. 나란 천민, 말 잘 듣는 천민

아디티에서는 황족인 이나하를 대신할 원고를 따로 세운 듯, 전생에서 많이 보던 드라마 속 풍경으로 비유하자면 검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흰 수염이 양 갈래로 난 아디티인 할아버지가 앉아있었다. 응? 흰수염?어,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이미지 같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말했던 대로 루이스와 루이스의 아버지, 그 둘그리고 중앙이 나.

아, 이거 뭔가 엄청 부담스러운 걸. 천민인 내가 자리하기엔 너무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너무한 수준인데. 아까까지만 해도 재판장에서도 훌륭히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던 건 모두 나의 안일한 예상이었다. 완벽한 착각이었다고, 착각.

“”

이렇게 아디티와 프란치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대단한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을 천민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야 한다. 물론 나올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그나마 나란 인물이 이곳에서 증인석까지 자빠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전생의 기억을 지닌 채로 태어난 특이한 인간이어서일지도 모른다.

이 신분제 세계에서 태어나 뼛속까지 천민으로 살아왔더라면, 어디 이런 거물들의 앞에서 눈이나 제대로 뜰 수 있었겠는가? 증인석까지는 또 어떻게 걸어가고? 진작 쓰러져 병사들의 손에 부축을 받으며 이곳으로 끌려오듯 앉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후우”

어찌저찌 증인석까지 걸어와 앉기는 했다만,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기차마냥 뿌뿌! 하는 경적음과 함께 펑-!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던 그 무렵.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만 봐버리고야 만다.

“”

도미닉 레플리카를 노려보는 이나하의 곱지 않은 시선을 말이다.

도미닉 경 또한 마찬가지로 이나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증오로 가득해 이글거리는 이나하의 눈빛과는 달리, 도미닉 경의 눈동자는 그저 평온했다. 모든 걸 내려놓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무언가 이 상황을 타개할 꿍꿍이가 있어 여유로운 걸까? 나로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나마 이 자리에 프란치아 황제나 그 일가족이 등장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이나하였더라면 16년 전 전쟁의 원인이나 다름없던 프란치아 황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장소에서 사고를 쳐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므로 말이다.

이나하의 매서운 눈빛은 여전히 도미닉 경을 향하고 있고, 도미닉 경은 판사를 바라본다. 그 둘이 좋지 않은 감정의 눈빛 교환을 하고 있든지 말든지, 판사석에 앉은 아저씨 판사는 목청 좋게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그럼, 지금부터 제국 프란치아와 제국 아디티 간의 국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단 한 명이었다. 나는 한 여덟 명쯤 될 줄 알았는데 말이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과 지금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합성해 ‘공작 도미닉 레플리카를 파면한다- 땅땅땅!’하는 전개를 상상해보고 있었을까, 판사의 근엄한 목소리를 들은 주변의 귀족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 작게 떠들어대던 그들의 목소리가 멎자 재판장 내부는 고요함 그 자체였다.

흰 수염 아저씨가 판사를 쳐다본다. 판사도 흰 수염 아저씨를 쳐다본다. 웬 아이컨택인가 했더니, 제일 처음 차례가 저 흰 수염 아저씨였던 모양.

“먼저 원고, 아디티 대표가 신문하십시오.”

판사 아저씨의 말에, 흰 수염 아저씨가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렇게 일어서게 된 흰 수염 아저씨의 덩치는 마치 해X리드 같았다. 하얀 수염의 해X리드. 꽤 신선한 이미지인 걸.

동물을 사랑하고 마법사를 동경할 것 같은 흰 수염 아저씨의 신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피고, 레플리카 경.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아디티와 프란치아 간의 전쟁에서 무단으로 아디티 황궁을 침입하여 황제를 시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저 물음이 나오기가 무섭게 프란치아 귀족들은 크게 술렁거렸다. 저런 신문을 왜 하느냐는 말들이 많은 듯했다.

“갑자기 16년 전 얘기는 왜 들먹이는!”

“그 때 일은 어쩔 수 없었던 거고!”

프란치아 귀족들의 입장은 아무래도 저런 게 당연하겠지. 저들의 입장에서야 전쟁에서 열세였던 프란치아를 구원해준 인물이 바로 레플리카 공작일 테니까.

레플리카 공작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프란치아는 전쟁에서 대패하여 아디티의 속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디티는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고, 16년이 지난 지금이야 프란치아도 마법사들을 많이 양성하여 엄연한 제국이라 칭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지만 그 당시의 프란치아는 아디티를 넘볼 만한 수준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선황제가 아디티의 성소를 노렸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실들만을 알고 있는 프란치아 귀족들이 반발하며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왼쪽 열에 앉은 아디티 귀족들이 그들을 향해 염치도 없냐는 듯 눈치를 준다. 프란치아의 손에 황제를 잃은 제국민들의 입장으로서 저들이 고와보일 리 없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눈총에도 아랑곳 않고 다혈질적인 프란치아 귀족 몇 명이 판사를 향해 ‘터무니없는 신문이오!’하는 말을 외치는데, 판사가 그들을 향해 손을 반쯤 들어 올리며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배심원단은 정숙하십시오. 원고, 신문을 계속하세요.”

“!”

이곳에서만큼은 판사의 말이 황제보다도 절대적. 입을 안 다물면 쫓겨날 거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이기에 프란치아 귀족들이 입을 다물었다. 일어섰던 세 명의 귀족들은 도로 자리에 앉았다. 식식거리면서 말이다.

흰 수염 아저씨는 신문을 계속했다. 도미닉 레플리카를 향해.

“16년 전, 아디티 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황제를 시해한 점, 인정합니까?”

아까와 같은 물음이었다. 대답을 듣지 못했기에 다시금 묻는 그 말에, 도미닉 레플리카의 입이 서서히 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이 좋지 않은 듯 살짝 회색빛이 감도는 도미닉 레플리카의 열린 입술에서 튀어나온 목소리는 루이스와 아주 많이 닮아있었다.

다시금 의문이 들어온다. 그 착한 루이스의 아버지인 도미닉 레플리카는, 왜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을까? 왜 나를 상대로 그런 파렴치한 마법을 건 걸까.

그 모든 사실이 정말로 사실이 맞는 걸까?

“예, 인정합니다.”

“”

바로 옆에 앉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슬픈 낯빛으로 책상을 내려다보는 루이스를 응시하자니, 가슴 속 어느 부위가 몹시도 아려오는 듯했다.

도미닉 레플리카가 쿨하게 인정해서인지, 흰 수염 아저씨는 훑어보던 종이뭉치 중 몇 장을 팔랑-하고 뒤로 넘겼다. 아무래도 저 A4용지 몇 장의 분량이 ‘황제 시해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신문 내용이었던 듯. 준비 한 번 치밀하게 하고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레플리카 경, 16년 전 아디티 황궁에서 아디티 황실의 마법서를 훔쳐간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번에는 예상 밖의 질문이었던 듯, 프란치아 귀족들이 앉아있는 열에서 황당함에 찌든 탄식들이 흘러나왔다. 마치 ‘허어?’하는 느낌으로다가 말이다. 그도 그럴 게, 아디티 황실의 마법서를 훔쳐갔다는 사실을 아는 인물은 아디티 황실 사람들과 레플리카 공작 본인밖에는 없으니, 아무리 잘난 귀족들이라 하나 그 외의 인물들은 모르는 게 당연했다.

“인정합니다.”

피고인에게서 수긍하는 대답이 튀어나오자, 프란치아 귀족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반발을 했다. 바로 레플리카 공작을 향해 말이다.

“아디티 황실의 마법서라니! 그런 걸 훔쳐왔다는 얘기는 들은 적도 없다고!”

“맞습니다, 도미닉 경! 어째서 거짓 자백을 하시는지요!”

안 믿는 눈치들이군. ‘거짓 자백’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판사가 눈썹을 실룩인다, 그러더니 레플리카 경을 향해 말하길,

“거짓된 발언으로 재판장을 모욕하는 일은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피고. 진실만을 대답하세요.”

라고 말했다. 판사도 프란치아 사람이다 보니 지금의 얘기를 처음 들어, 도미닉 레플리카의 대답에 의구심을 품었던 모양인데

“모두 사실입니다. 16년 전의 그날, 저는 아디티 황실의 마법서 한 권을 훔쳐 달아났었습니다.”

루이스의 나이든 버전 같은 도미닉 레플리카가,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대답한다.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에 그의 금발이 휘날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루이스를 빼다 박은 것 같았다. 역시 유전의 힘은 굉장해 엄청나!

루이스와 도미닉의 외모를 비교하며 새삼 유전자의 신비로움을 감탄하고 있으려니까, 증인인 내가 딴 짓을 하든 말든 재판은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원고, 신문을 계속하세요.”

살짝 떨떠름한 표정의 판사가 말했다. 흰 수염 아저씨가 종이를 한 장 뒤로 넘기더니 레플리카 공작에게 질문했다.

“피고는 그 마법서에 기록된 마법 중 하나인 ‘기사의 맹세’를 이용하여 여러 병사들과 다중의 기사의 맹세를 맺어,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2명의 레플리카 공작저 병사들이 희생됐습니다. 이 사실, 인정합니까?”

걸쭉한 목소리의 포스 가득한 흰 수염 아저씨의 질문. 이번에도 레플리카 공작은 ‘예, 그렇습니다.’하는 대답을 내뱉었다. 프란치아 귀족들 사이에서 ‘레플리카 공작이 아디티에게 뇌물이라도 받은 거 아냐?’하는, 말도 안 되지만 저들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하나뿐인 경우의 수가 술렁거림이 되어 재판장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판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조용히 하라고 타일렀다. 다시금 재판장은 조용해졌다. 흰 수염 아저씨가 신문을 계속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피고, 도미닉 레플리카는 자신의 아들인 루이스 레플리카에게 무단으로 기사의 맹세를 맺었습니다. 그의 조수들의 목숨으로 말입니다. 이 맹세를 통해 루이스 레플리카의 세 명의 조수들이 죽게 된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도미닉 레플리카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흰 수염 아저씨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딱히 ‘나는 당당하다’하는 느낌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자포자기한 인물이 ‘될 대로 되라’하는 느낌으로 대답하는 거라 보면 얼추 맞는 느낌이었다.

프란치아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제 경악의 탄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자자하던 루이스의 측근 다섯 명의 사망은 모두 정체불명의 마법사로부터 습격을 받았던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미닉 레플리카가 걸어둔 기사의 맹세로 인해 목숨을 빼앗긴 것이란다. 몰랐던 저들로서는 놀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반응.

하지만 이어서 터져 나오는 그들의 말소리는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흰 수염 아저씨의 말인즉슨 레플리카 공작과 루이스가 공격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니, 프란치아 귀족들의 관점은 ‘레플리카 공작이 기사의 맹세로 약 5명을 죽였다’는 사실이 아닌 ‘뭐? 레플리카 공작과 그 아들이 공격을 당했었단 말이야!’로 이동되었던 것.

그가 기사의 맹세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보다 마법사에다 공작씩이나 되는 인물이 죽음에 이를 만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저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아디티의 소행이오! 아디티 황실에서 암살자를 보낸 것이지? 도미닉 경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뿐이야!”

“맞습니다! 병사들은 애초에 공작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공작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몇 명이 희생되든, 그들은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병사들이 자의로 기사의 맹세를 맺길 원했을 지 어찌 압니까? 레플리카 경이 무단으로 기사의 맹세를 맺었다는 걸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레플리카 공작의 극렬한 빠순이, 빠돌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채로 꽥꽥거리며 외쳐댄다. 정작 레플리카 공작은 그들을 딱히 도움 된다고 여기지도 않는 눈치였는데, 그러든 말든 아랑곳 않고 그들은 그들만의 주장을 외쳐댔다. 정숙해야 할 재판장에서 말이다.

“정숙하세요!”

역시나 이번에도 판사가 소리를 꽥 내질렀다. 호통을 들은 프란치아 귀족들이 성난 표정을 지으며 씩씩거리다 자리에 털썩 앉아버린다. 평소에 그렇게 차리기 좋아하던 귀족들의 체면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란의 영혼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버리기라도 한 걸까?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부분이다.

“피고, 도미닉 레플리카가 루이스의 조수들에게 무단으로 기사의 맹세를 걸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흰 수염 아저씨를 향해 물었다. 그러자, 흰 수염 아저씨는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끔 뒤집으며 어느 곳을 향해 쭉 뻗었다. 그렇다 바로 나를 가리킨 것이다!

으악! 드디어 내 차례인가!

“증인을 요청합니다.”

“!”

쓰읍- 하아 쓰으읍- 하아.

임산부에 빙의해 라마즈 호흡법을 실시하고 있었을까,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를 반복하고 있던 나를 응시해오며 판사는 질문해왔다.

“증인 아샤, 도미닉 레플리카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기사의 맹세를 걸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정황을 포착한 적이 있습니까?”

루이스가 쪽집게로 짚어준 질문이다! 나는 일전에 그가 가르쳐준 대로 외웠던 대답을 고스란히 읊어주었다.

“저는 마법 상점에서 일하던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테의 마법 수비 대장님이 제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와 갑자기 저를 이백만 베른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분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저는 마법 수비 대장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조수 수업을 받은 후 대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중 여섯째 날의 기억이 살짝 흐릿해요.”

“기억이 흐릿하다고요?”

“네.”

판사가 레플리카 공작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날린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나의 양심에 털이 송송 나는 감각을 느껴야만 했다.

그도 그럴 게, 에스테에서 보냈던 여섯 번째 날의 기억은 내게 너무나도 또렷하고 생생했기 때문이다. 사실 끊겨있는 기억 따위도 없었다. 나는 거기서 지내던 일주일 동안 잠을 잘 때를 제외하면 레플리카 공작을 만난 적도, 갑자기 어느 일정 구간의 기억이 술 먹고 필름이 끊긴 것마냥 뚝하고 끊겨 사라진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으니, 나로서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피고, 증인 아샤에게 기억 조작 마법을 사용했습니까?”

루이스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재판. 루이스는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아샤, 너는 아마 기억 조작 마법에 걸렸었을 거야. 아버지께선 뛰어난 마법사셔서, 정신 마법에도 아주 능통하시거든.’이라고.

한마디로 루이스는 내가 도미닉 경으로부터 기억 조작 마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란 얘기를 했다는 소리다.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보다 똑똑한 루이스가 시킨 대답이니 나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진실이었던 듯, 도미닉 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예.”

한 치의 변명도 없는 너무나도 깔끔한 대답에, 판사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프란치아인이니 아무렴 공작씩이나 되는 인물에게 높은 형을 때리고 싶지는 않겠지.

하지만 상황은 딱히 판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어진 흰 수염 아저씨의 신문은 삼천포에 가까웠으니

“그에 그치지 않고, 피고는 증인 아샤를 아디티의 3황자에게 접근시켰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레플리카의 조수인 증인 아샤에게 용병단 야벨의 공격이 미칠 것을 계산해, 아디티의 3황자 노아 이즈하에게 기사의 맹세를 걸어달란 요구를 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아디티의 3황자인 노아 이즈하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있고 말입니다. 증인 아샤, 도미닉 레플리카에게 이러한 명령들을 받았던 것을 인정합니까?”

이번 질문은 루이스가 좌르륵 정리해주었던 족보에도 없었던 종류였다. 뭐? 내가 도미닉 경에게 란에게 접근하란 명령을 받았었다고? 나는 란 녀석이 아디티의 황자는커녕 안경 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인데!

“?”

어이가 사라지다 못해 인어공주마냥 물거품이 되어 하늘로 증발해버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입을 헤벌리고서 도미닉 레플리카를 쳐다보았다. 지금 내가 무슨 개소리를 들은 거죠? 예?

“??”

도미닉도 나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서 자신의 딸뻘 되는 나를 맹한 표정으로 쳐다봐오고 있었다. 저것 봐, 저 아저씨도 모른다잖아! 노아를 꼬시라는 명령을 받긴 개뿔, 오히려 그놈이 나한테 ‘나랑 내기 할래?’라는 개소리나 지껄이면서 접근해왔었구만!

딱 봐도 아디티의 후려치기다. 란의 죽음을 레플리카 공작의 탓으로 완벽하게 돌리려는 꼼수라고, 꼼수!

하지만!

“아, 저 그게.”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까발려버려도 되는 걸까? 나는 나의 일생일대 중 최대 규모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저는 그런 명령 같은 거 받은 적 없다고요!’라고 했다간 재판은 아디티에게 불리해질 것이고, ‘네, 맞습니다 맞고요!’를 외쳤다간 도미닉 레플리카에게 불리해진다. 란이냐 루이스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지만 나는 이내 솔로몬과도 같은 황금 아이디어를 떠올려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며, 명령을 받은 적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디티의 3황자라는 사실도 몰랐고요. 제가 그분께 기사의 맹세를 받게 된 경위는”

“경위는?”

판사가 내 말을 따라한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서, 뒷말을 이었다.

“저, 저희가 연인 사이이기 때문입니다아-!”

우렁차게 저 말을 외친 후, 나는 쪽팔림을 견디지 못해 손을 들어 올려 얼굴을 덮어버렸다. 벙찐 표정을 한 루이스와 류이의 눈동자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차마 내 입으로 담아선 안 될 말을 지껄여버리고야 말았다. 내가, 내가 그런 놈이랑 연인이라니!

“”

수치스러움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지금 당장이라도 바닥에 머리를 찧어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추태를 보일 수는 없었으므로, 나는 란의 의식 불명 상태를 걱정하는 비애스런 연인마냥 ‘흑흑!’하는 소리를 내며 우는 척을 했다. 사실은 진짜로 울고 싶었지만, 퉁퉁 부은 눈을 만인에게 공개하고 싶진 않으니 애써 참았다.

“배심원들 중, 마법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있습니까?”

판사가 배심원단쪽을 향해 물었다. 그러자 아도라와 마리, 류이와 얼굴을 모르는 어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이내 판사가

“노아 이즈하와 증인의 관계가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정확히는 세 명만 적극적으로 끄덕였다. 류이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글쎄?’하는 눈빛을 판사에게 던지고 있었고 말이다. 문제는 그런 류이의 표정을 판사는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도라와 마리가 덧붙여서 ‘약혼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라는 말까지 해버리자, 장내에는 마치 비운의 연인 얘기를 들은 분위기마냥 ‘우우-’하는 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저기요 님들 무슨 영화 보고 계십니까? 특히 아디티 귀족들아! 너희 황자가 천민이랑 약혼을 했다고? 어! 그렇게 슬픈 멜로 영화라도 본 사람들마냥 눈물 글썽거리며 손수건 꺼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런 나의 절박한 내면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아마도 모를 테지만, 어쨌거나 재판은 막힘없이 진행되었다. 흰 수염 아저씨가 수염을 씰룩이며 ‘그렇게 나오시겠다?’하는 눈빛을 내게 던져오고 있는 것만 빼자면 말이다.

“그렇다면 증인, 증인에게 걸린 기사의 맹세로 인해 아디티의 3황자가 죽었습니다. 이 점, 인정합니까?”

흰 수염 아저씨가 내게 물어왔다. 그래, 그거야 뭐 반박 불가지. 루이스의 예상 답안에도 있었던 질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증인이 죽을 위험에 놓였던 것은 증인이 루이스 레플리카의 조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이스 레플리카의 조수를 살해해왔던 용병단 야벨의 존재를 도미닉 레플리카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증인을 루이스 레플리카의 조수직에 채용했습니다. 이는 증인을 방패삼아 루이스 레플리카를 대신하여 죽이려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점, 인정합니까?”

“이, 인정합니다.”

이것도 모두 인정하라고 루이스가 말했었다. 하긴, 전부 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은 상당히 곤란했다. 내가 함부로 대답했다간 도미닉 경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물음이었다.

“증인은 레플리카 경으로 하여금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런 증인을 구하기 위해 아디티의 3황자인 노아 이즈하가 희생했습니다. 레플리카 경으로 인해 아디티의 3황자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흰 수염 아저씨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나는 내 얼굴의 핏기가 목 아래로 싹 빠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저 말인즉슨 레플리카 경으로 인해 아디티의 3황자가 죽었다는 뜻이다. 국제재판이므로 여기서 ‘맞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간 레플리카경의 입지가 심히 곤란해진다. 아디티 선황제에 이어, 그의 셋째 아들까지 죽이려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전쟁 중도 아니니 아디티와의 전쟁을 원치 않는 프란치아의 황실 입장을 고려해보았을 때, 아마 레플리카 가문은 공작위를 박탈당하고 일개 평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건 그런 건 싫은데. 루이스는 공작가의 후계자란 이름에 걸맞는 인물이라, 평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를 어찌해야 할까? 지금의 내가 어찌해야, 대체 무슨 대답을 해야!

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질문도 모두 루이스의 예상 답안에 존재했었으니 말이다.

“이의 있!아,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디티의 3황자가 목숨을 잃게 된 경위는 대체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흰 수염 아저씨가 살짝 성이 난 듯, 푸르릉- 하는 숨을 내쉬자 그의 흰 수염이 팔랑거린다. 순간 그 광경을 보고 ‘풋!’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으나 재판장에 지진이 일어나 모두가 몰살당하는 엔딩은 바라지 않으니 가까스로 참아냈다. 휴우.

“그것은 바로,”

이번에는 내 차례다. ‘인정합니까?’하는 물음만 듣는 게 아닌, 이번에야말로 내가 주인공으로 나설 차례! 범인은 바로

“아디티의 2황자입니다!”

“?”

흰 수염 아저씨가 ‘저게 무슨 미친 대답이지?’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온다. 그것은 비단 흰 수염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이나하와 아디티 제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디티 3황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논하고 있는데, 그를 아껴 마지않는 2황자가 범인이라 하니 모든 정황을 모르는 인물로서는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말야, 나는 알고 있다고? 습격 당일 날의 기억들, 모두 똑똑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라고!

“마법 대학이 야벨에게 습격을 받았던 날, 제 측근으로 잠입해 들어왔던 인물이 바로 아디티의 2황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증인, 그 말이 사실입니까?”

“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2황자는 저와 함께 있었던 3황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약혼녀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요.”

내가 하는 말마디 하나하나가 황당한 개소리라는 듯, 이나하가 자리에서 스멀스멀 일어섰다. 뭔가 뒤통수가 오싹한 느낌이 들어온다만 일단은 증언을 계속하기로 했다.

“만약 2황자가 제 곁에 있었던 인물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걸 알아보았더라면, 과연 야벨의 수장인 2황자님은 저를 납치하여 살해하려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습격이 일어난 이후 제 정체를 알게 된 2황자님께서 제게 사과까지 하셨던 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마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생각해보세요. 저는 레플리카 공작님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저는 팔려올 적에 돈 한 푼 받은 게 없고, 더군다나 기사의 맹세로 목숨이 저당 잡히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습격이 일어난 후에 제 약혼자가 아디티의 3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로 일부러 황자님을 유혹한 것도 아닐 뿐더러, 기사의 맹세를 요구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3황자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희생한 것과 레플리카 공작 간의 접점은 전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야벨이 노리던 인물이 바로 증인, 당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플리카 공작 때문이고요. 그 사실만으로도 아디티 3황자의 목숨을 잃게 만든 것이 레플리카 공작이라는 경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의 있습니다!”

“뭐죠?”

“저를 지키려던 과정 중, 큰 피해를 입은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과연 그분도 레플리카 공작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류 제국 3황자님이십니다!”